

1996年度
城南文化研究
(第 4 號)
성남문화원

城 南 文 化 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目 次

□ 발간사 - 성남역사의 제정립에 노력	오세훈 원장
□ 축 사 - 전통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성남	오성수 시장
□ 축 사 -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김영봉 시의회의장
□ 연구논문	
허 창 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1
장 철 수 南漢山城 百濟 始祖 遷葬王廟의 建立過程	39
백 남 옥 百濟 漢城時代의 都城에 관한 연구	61
조 병 로 17, 8세기 南漢山城의 再修築에 관한 考察	85
장 삼 현 南漢山城과 義理思想에 對한 研究	119
박 상 규 三田渡 대청창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해석 및 색인	159
전 보 삼 南漢山城 文化財 現況과 保存策에 관한 研究	211
한 준 섭 남한산성 가톨릭 殉敎史 고찰	237
김 창 환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277
소 진 광 南漢山城의 가치와 활용방안	293

* 表紙圖·永昌大君 墓誌名
(1993년 태평3동에서 발굴)

제 1 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 허 창 무

<차 례>

- I. 서론-학술회의 개최배경
- II.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의
 1. 한·중·일 산성비교를 통해 본 남한산성
 2. 한국의 고대사와 남한산성의 의의
 3. 국가방어기능으로서의 남한산성 증개축사
- III. 남한산성과 민족정신
 1.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2. 삼학사와 민족의식
 3. 조선 중기 복벌의식의 융축장으로서 남한산성
- IV. 남한산성의 현대적 의의와 활용방안
 1. 역사자료적 의의와 활용방안
 2. 문화자원으로서 의의와 활용방안
 3. 지정학적 의의와 활용방안
 4. 관광자원으로서의 의의와 활용방안
- V. 결론

I. 서 론 — 학술회의 개최배경

성남시는 B.C.18년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한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의 배후지였던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인근의 하남, 광주와 함께 통일문화권 속에

* 성남문화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서 발전해 온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이다. 비록 고대에는 세분화되지 않은 행정체제로 인해 광주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1970년대에 성남지역에서의 근대적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시승격과 함께 내설있는 발전을 보여 지금은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서울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최대의 도시로 급부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성남이라는 명칭이 급중 부각되면서 성남은 역사적 뿌리와 전통이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서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성남이라는 명칭 자체도 일찍이 이 지역에 터를 잡은 철주 정씨들이 지금의 분당구 삼평동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마을 이름을 성남미(城南)라 함으로써 '성남'이라는 지역명의 유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것은 성남시가 70년대 이후 시작된 개발행정에 매몰되어 향토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의 학자들로 구성된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0여명은 96년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성남시의 역사적 근원과 유래를 탐구하여 대내외에 알리자는 데 동의를 하였고, 그 방안으로서 이지역 역사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남한산성을 다각도로 조망하고 이를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홍보와 과금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배후도시, 즉 한강을 중심으로 그 남쪽인 강남의 서초강남·강동·송파구와 경기도의 성남·하남, 광주를 평평처럼 두르고 한가운데에 고원지대의 분지를 이루고 있어 현재 도시민의 역사공간·문화공간·자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를 찾는 수도권의 수많은 시민들은 남한산성의 현재의 모습에서 그 역사의 현장인 백제문화의 성산으로서나, 조선왕조와 청나라의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을 떠올리기 보다는 자연공원으로서의 산성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남한산성의 옛모습을 찾아보면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기리던 온왕청과 온왕묘(溫王廟)를 모신 백제의 성산(聖山)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섬세했던 백제 400년간의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남한산성이라는 사실을 절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도 남한산성의 숭열전(崇烈殿: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2호)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9월 5일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

고 앞산이라는 개념인 남한산을 성산으로 하여 중요시한 여러 흔적을 남한산성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은 한강유역 문화의 뿌리이자 하남·광주·성남역사의 뿌리요 줄기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역사적 공간은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병자호란에 직면하여 국왕(仁祖)이 굴욕을 당한 치욕과 패배의 장으로 더 강하게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왔다. 물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한산성은 패배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왔고, 오히려 병자호란에서의 패배를 기점으로 민족의식을 발휘케 하고 결집력을 응축시킨 재기의 장(場)으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패배의 역사만으로 남한산성을 기억하는 것은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잔재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청산하고 민족의식과 정기를 일깨우는 역사교육의 도장으로 남한산성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한 오성수 성남시장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된 남한산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는 많은 의미를 제발견하게 하였으며, 필자는 이 학술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미와 가치들을 재정리하여 남한산성의 보존과 지역 문화행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기술내용들은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여러 학자들의 원고를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재정리 한 것이다. 이 내용은 『城南文化研究』 第4集의 서론적 성격을 갖도록 서술했음을 첨언한다.

II.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의

1. 한·중·일 산성비교를 통해 본 남한산성

금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남한산성이 한국에 현존해 있는 산성 가운데 가장 크고, 또 원형을 상당히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 산성이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산성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의 산성연구동향을 동시에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에서의 산성연구동향과 과제를 발표한 차용걸 교수는 전통 시기 한국의 역사는 산성의 축조와 산성을 이용한 외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로 규정하고, 한국에서는 유난히 산성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에 산성

은 특히 한국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차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산성은 중국의 평지방형(平地方形)의 읍성들과는 달리 산지부정원형(山地不定圓形)을 기본으로 하는 점에서 중국의 전통과는 구분된다. 한국의 산성은 중국의 성이 항토(夯土)와 전축(塼築)이란 점에 대하여 토축도 있으나, 석축(石築)을 기본 재료로하여 성강(城牆)을 구축(構築)하였다는 점에서도 성격의 구분이 대체로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에 대하여 근세의 실학에서 산성을 고로봉형(槲栲峯形), 사모봉형(紗帽峯形), 마안봉형(馬鞍峯形), 산봉형(蒜峯形)의 네가지로 구분하였다는 것 자체가 산성 위주의 발전을 한 한국 성곽사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 구분의 입체성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임을 차교수는 지적하였다.

차교수는 한국 산성의 원류 문제를 관련하여 한국의 산성은 고구려의 경우에 처음부터 산성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그 근거로 『三國史記』와 『廣開土大王碑文』의 “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고구려와 같은 제정으로 여겨지는 부여의 경우에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城甃皆瓦, 有似牢獄”이라하고, 『後漢書』에서는 “以瓦甃爲城”이라하여 그 형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이 있는 시기에는 대체적인 한국의 고대 성곽의 원류가 형성된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산성의 원류를 考古學上에 있어서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까지 소급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시라무렌강 지역 적봉(赤峰)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 시기의 서산근(西山根) 산성유지는 이 시기 집락(集落)들이 그곳의 가장 편리한 지리적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을 예로 들고 있다. 이보다 동쪽의 길림지역(吉林地域) 서단산(西團山) 문화와 보다 북쪽의 오늘날 흑룡강성(黑龍江省) 지역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말갈(靺鞨)과 관련된 작은 산성유형의 것들도 한국의 산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고대산성이 중국의 동북부 지역의 산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발달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범위를 넓혀 생각하면 남부 시베리아 지방의 (도피용 목적)逃避用 木柵인 Gorodishche와, 초원지대를 따라 분포한 고지성곽류(高地城柵類)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목곽류(木柵類)의 둥그런 모양의 성격이 중국 고대 사람의 눈에는 자기들의 문화와는 다른 것이어서 기록에 남겼다고 여김으로써 한국산성을 중국산성과 비교할 때 처음부터 구분되는 특색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차교수는 한국 성곽의 원류는 외부이입설과 자체발전설로 주장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체발생설의 경우는 일본인 小野忠麿가 주장한 고지성집락론(高地性集落論)을 따르는 경우로, 최근 북한에서 1993년에 강동군의 단군릉을 발굴하고, 이어서 거기서 동남쪽으로 24km거리의 평양시 강동군 남강노동자구 황대촌에 있는 황대성(黃岱城)을 조사하여 그 연대를 약 5,000년 전으로 보고, 단군조선 시기 초기부터의 성으로 평안남도 온천군 송현리 토성과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토성을 지목하고 있고, 또 고조선 후기의 토성은 평양시 낙랑토성을 비롯하여 황해북도 황천군 고연리 토성, 황해남도 은율군 문성리 토성, 신천군 청산리 토성, 함경남도 금야군 소라리 토성 등을 들고 있을 경우가 그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한국의 산성은 전류의 연변에 있는 구릉 내지는 산에 축조하기 시작한 것이 원류라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여와 고구려는 모두가 유말집단의 건국이고, 심지어 백제와 신라도 유이민집단이 건국한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 있어 이에 근거할 때, 외래이입설이 주장될 수 있는데, 그들의 원주지가 중국의 동북부나 한반도의 북부지역 등의 경우이고, 당초부터 산에 산성을 축조하는 전통을 가진 유이민(流移民)들이었다면 경우가 사뭇 달라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경우는 최소한 중국의 동북부에서 점차 한반도의 남부지역으로 산성 축조의 전통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 중국측의 기록에서 성을 구루(溝婁)라고 부른다고 특기하고, 『開書』와 『北史』에서는 평양성의 이야기를 “城內堆積倉儲器備 寇賊至日方入固守 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산성의 제도는 유적으로 보아 초기의 도읍지라 여겨지는 오녀산성(五女山城)이나 환도산성(丸都山城)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이 고구려의 산성이 고구려의 영역에 확대되고, 남으로 백제와 신라에도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상의 기록에 따를 때 한국의 산성은 일단 고구려 왕도의 방어 전략으로 고구려의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채택된 이후 고구려계의 일파로 자처하는 백제에 의하여 한강류역에 출현하고, 신라지역은 고구려에게 질자(質子)로 보내졌던 실성왕(實聖王)이 歸國하여 즉위한 이후에 역시 고구려식의 산성이 신라의 왕도에도 채택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한국의 산성의 특색을 유형별로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데, 산성을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읍성을 제외한 지역별 거점 방어를 위한 산성 제도가 조선 후기에 운영되었으며, 경기 지역의 경우 수원 독성산성, 개성 대흥산성, 강화 정족산성 과 고려산성, 광주 남한산성, 양주 북한산성 과 대모산성, 수월성,

과주 임진진성 과 장산진성, 적성 토탄성, 통진 문수산성 등이 읍성을 제외한 관방(關防)으로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가운데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동시에 유지된 다른 산성과 기능이 같았다거나 위상이 같았다고 볼 수는 없음을 덧붙이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가 운영된 전통 시기의 산성은 도성을 모델로 하여 지방의 성곽 제도가 운영되어졌는데, 한국에 있어서 산성의 기능은 고대나 근세에 동일한 위치를 점한 것이 아닌 것이이며, 산성 축조의 기술적 변화도 매우 뚜렷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산성의 유형별 인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야는 성의 부분별 이해로서, 여진대 체성과 여장, 용도와 차단성, 치와 문, 수구와 수문, 암문, 용성, 돈대, 장대와 망대 시설, 성내 우물과 연못, 성내 건물과 문루, 성외의 해자와 기타 시설에 이르기까지 부분별로 나누어서 형식을 구분하고, 어떤 과정으로 변화 발전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산성의 연구에 있어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의 연구를 가능케 하기 위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의 비교연구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차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산성의 분포가 각 지역별로 일부에 편중된 것은 연구자의 분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 지역의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 조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며, 국가 사적 및 지방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성터조차도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되어 기록된 것이 적은 것과, 실측된 성벽이 그리 많지 않은 점에서, 문화재 행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한해에 몇 개씩 알려지지 않았던 산성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전국의 성곽 실태 조사와 실측 조사가 급명간 꼭 필요하고, 아울러 전국의 산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연구 자료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행정 자료로 이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측 산성연구 발표자로 초청된 길림사회과학원의 孫玉良교수는 주로 중국 동북 지방의 역대산성을 발표함으로써 고대 한민족의 세력변화양상과 산성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고구려, 부여 등의 산성축조를 소개하면서 중국의 역대정권으로 파악함으로써 한·중 양국이 고대사를 보는 시각의 편차를 보여주었다.

중국에 있어서 고대 성(城)은 내륙지방에서는 생활에 편리한 평원지대나 강가, 산 사이의 분지 등에 건축된 평원 성(城)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산성으로서의 고성이 내륙지방에서는 매우 적게 건축되었으며 이러한 산성은 기본적으로 동북지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중국의 성과 한국 고대의 성이 근본적으로 차이를 띄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동북 각지에서 발견된 산성수축의 주체는 주로 夫余와 高句麗人, 그리고 말갈과 여진인들이었다. 특히 고구려인의 산성이 가장 많은데 그 통치 관할 구역 내에서는 거의 산이 있으면 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성은 고구려 문화의 제1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손교수가 밝힌 부여, 고구려 산성의 특징은 모두 '圓牆'으로 드러나고 있어 한국의 산성연구현황을 소개한 차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나 동북에서의 산성축조와 발전은 淸나라 軍이 入關한 후 東北은 淸나라의 穩固한 후방으로 변했으며, 전쟁이 끝나자 山城도 황폐하게 되었고 그 이후 東北 지구에는 다시는 山城을 건축하는 역사가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산성에 관한 발표자로 초청된 후쿠오카대학의 오다 후지오(小田富士雄)교수는 서일본지역의 고대산성과 한국의 고대산성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일본의 산성축조방식과 기법에 도입된 한국산성의 특색을 분석하였다.

오다교수가 주장하는 바 西日本の 古代山城유적에는 大別해서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첫번째는 사료에 나타나 있는 것들로서 7세기 후반대에 百濟멸망과 관련하여 西日本の 방위선을 형성하는 '朝鮮式 山城'이고, 두번째는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종류의 山城으로 '神籠石式 山城'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류이다. 다음은 오다교수가 발표한 일본에서의 조선식 산성에 관한 내용의 요지이다.

문헌사료에 보이지는 것으로 본격적인 城牆의 출현은 한국에 있어서 663년 8월, 百濟・日本の 연합군이 新羅・唐의 연합군과 白村江에서 싸워 대패했던 것에 의해 西日本沿海地域은 新羅 진공의 위협을 당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국가적 규모의 방위체계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른 것이었다. 百濟王室의 亡命高官의 지도를 토대로 築城된 '朝鮮式山城'이 그것이다.

최근의 調査成果를 토대로 한 朝鮮式山城의 현황은 문헌자료에 나타났던 산성은 11개소이고, 그 가운데 유적으로 확인된 곳은 金田・大野・椋(基肄)・鞆智・屋嶋・高安의 6개성이다.

이들 朝鮮式山城에 관해서는 주로 사적정비와 동반한 發掘調査가 행하여짐에

따라 몇가지 새로운 견해를 얻을 수 있다.

金田城은 667년 11월에 축성의 사료가 보여진다. 이후의 기록들을 참고하면 金田城은 해상에서부터의 賊襲船団을 감시하고 大宰府에 전달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하는 西日本防衛網의 최전선기지로써 최적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64년에 배치되었던 倭人(병졸)이나 봉화시설도 金田城을 둘러싼 淺茅薊주변에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게다가 그와 같은 방위기능뿐만 아니라 出擊船団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복잡한 '아스'식 지형에 의해 가장 넓고 깊게 품을 수 있는 淺茅薊은 최적의 기지이기도 하다. 『三國史記』에 기록되었던 倭人の 對馬를 거점으로 제일의 후보로 설정한 것도 金田城주변을 짐작하게 하는 바이다. 상술해 왔던 바와 같은 金田城 성립이전부터의 新羅・對馬의 역사적 고성을 생각하면서 金田城의 城域을 구획한 城郭線을 주의해서 보면, 우선 隅角을 만들어 방향전환하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百濟系山城이라고 보여주는 大野城・基肄城・鞠智城 등의 城郭線은 隅角을 만들지 않고 둥글게 마무리해서 연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 것도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또한 金田城의 石垣은 수직에 가까이 직립해 높이 쌓아 올린 기법도 주목되어지는 바이다. 즉 百濟系山城의 외관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어 옛날 6세기까지 축성된 伝承이나 史料를 구비하고 있는 古新羅時代山城과의 近緣關係로 요청되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三國史記』에 나타난 倭人の 新羅襲來는 시기적으로 新羅의 京城 주변에까지 도착해 金城을 포위하는 것이 10일이나 지속되었다. (訥祗王 28年 = 444년). 金田城의 창설은 이와 같은 신라침공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시기에 출격의 본거지로서 신라의 축성기술의 모범을 취해서 실현된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憶測해 본다. 667년 11월의 축성기사는 이 이전의 축성을 기초로 하면서 재이용하고 정비했던 것이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鞍部平坦地나 山の 諸施設은 그 사이에 새롭게 造設되어졌을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진다. 7세기 이전의 遺構에 관해서는 考古學調査로는 아직 불명하지만 금후 이와 같은 시점을 부가해서 검토해 가는 것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大野城에 관해서는 大宰府城郭의 구성이 百濟, 扶餘의 그것과 유사한 곳이 많다. 百濟 西泚都城을 모방한 것이 누차 지적되어 온 것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라 하겠다.

鞠智城의 內城 특히 米原台地주변에 약 60동의 건물이 집중해 있는 것은 그 지역이 城內的 중추에 해당하는 것임을 쉽게 推察할 수 있다. 이곳 건물들 가운데

대 八角形建物에 관해서는 한국 경기도 廣州郡, 二聖山城에서發掘된 八角形・九角形의 礎石建物과 이 復元案 등이 참고되었지만, 日本의 朝鮮式山城에서 시작해서 발견되었던 다각형 건물이 한국의 古代山城과도 조합할 수 있는 것은 그 계보를 더듬는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 성격에 관해서는 현재 樓觀說, 佛教施設의 圓堂・圓塔說, 鼓樓說, 天壇・地壇說 등이 唱導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증은 얻을 수 없다. 요컨대 軍事關係가 祭祀關係의 어느 것인가하는 것이 되겠다.

立地景觀에서 보아 魏智城이 大野・基肄 2城의 高位山頂型과 달리 평야부에 접속하기 쉬운 低位丘陵型인 것으로부터, 이것을 朝鮮式山城이라고 하기에 주저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견해는 朝鮮式山城을 大野・基肄 2城에게만 찾으려고 하는 편견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古代山城에 여러 유형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장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볼 때 한국의 성곽은 중국과는 판이하게 평원이 아닌 산 위에 수축하였으며, 따라서 그 형태는 산의 능선을 따라 원방형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성축조 형태는 고구려로부터 신라, 백제에 이르기 까지 유사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나아가 성곽의 축조기법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읍성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군사적 방어기능을 갖는 산성임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의 고대사와 남한산성의 의의

남한산성이 한국 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 이 지역이 백제의 초기도읍지인 위례성과 관련된 생활권역이었다는 점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강진출에 있어서 교두보역할을 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점, 그리고 이 남한산성이 최초로 축성된 것이 신라 문무왕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백남욱교수는 백제 한성시대의 남한산성을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다.

다음은 백남욱교수의 발표요지이다.

남한산성은 신라의 천년 고도인 慶州의 南山 못지 않게, 백제의 국가 형성과 발전에 연관이되어 漢城時代¹⁾의 都城²⁾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지역으로써 한

1) 百濟의 한성시대라 함은 都城의 변천에 따라, 漢城時代(B.C.18~A.D.475), 熊津時代(A.D.475~538), 泗沘時代(A.D.538~660)로 편의상 구분한 데서 연유한 것이고, 溫幹王이

성시대의 남한산성에 대한 연구는 河南慰禮城·漢城·漢山 등의 관계기사를 검토하여 역사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한성시대의 都城은 慰禮城, 河南慰禮城, 漢山, 漢城 등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온조왕 즉위년(B.C.18)에 도읍지를 河南慰禮城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7월에 漢山下에 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民戶를 옮겼다. 8월에 사신을 馬韓에 보내 遷都를 고하였다… 9월에 城闕을 세웠다”라고 하여 궁궐을 세워 都邑을 옮기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해 정월에 천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온조 13년(B.C. 5)까지의 도성은 慰禮城이었지만, 한수 남을 순관하고 한산하에 柵을 세워 위례성의 민호를 옮겨 ‘立城闕’한 곳에 대한 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 볼 때, 百濟의 都城이 河南慰禮城 → 慰禮城 → 漢山下=漢城 → 漢山 → 漢城으로 변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내용과는 달리 地理志의 내용은, “按『古典記』의 典據를 내세워 온조가 남하하여 자리잡은 최초의 도읍지를 위례성이라 하고, 근초고왕 때에 고구려의 南平壤을 취하여 漢城을 도성으로 삼았다고 하여 백제의 도성을 慰禮城→南平壤=漢城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도성에 대하여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지리지의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三國遺事』 백제의 도성 관계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료 『三國遺事』에서는 『古典記』를 인용하여 온조가 건국한 도읍지를 위례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同王 14년(B.C. 5) 丙辰에 한산(廣州)으로 옮기고 威安元年(近肖古王 26, 371년)에 고구려의 南平壤을 취하여 도읍을 北漢城(楊州)으로 옮긴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³⁾ 이에 따르면 백제의 도성은 위례성

백제를 건국한 시기부터 高句麗 長壽王의 남진에 의해 蓋鹵王이 전사하고 文祗王 원년(475)에 을진(공주)으로 천도한 시기까지를 일컫는다.

2) 한국장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1991, pp. 856~858.

일반적으로 도성은 왕이 평생시 거주하는 궁전과 관부 및 취락을 둘러싼 성이며 곧 왕성을 뜻한다. 국가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면서 도성에는 왕이 사는 궁전과 종묘를 비롯하여, 여러 관부가 중심을 이루고 주변에는 신분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된다. 도성이 성립되는 초기에는 왕과 일반인의 거주지가 궁성 혹은 궁장을 팔마 구분하고, 다음에는 취락의 주변을 포함하여 축성(築城)한 이중의 성벽을 갖는다.

3) 『三國遺事』 卷第二 南夫餘 前百濟 北夫餘條.

(직산) → 한산(황주) → 南平壤=北漢城(양주)이어야 한다. 따라서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 그리고 『三國遺事』의 관제기사 중 어떠한 내용을 취하느냐 여부에 따라 백제의 도성에 관한 내용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차치하고 『三國史記』百濟本紀의 관제 기사를 해석해 보면 백제 초기의 도성이 (河北)慰禮城 → 漢山下=河南慰禮城=漢城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산으로 천도하였다는 자료를 첨가하여 보면 (河北)慰禮城 → 漢山下=河南慰禮城=漢城 → 漢山 → 漢城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서의 기록들에서 한산이나 한성을 고찰해 보면 河南慰禮城이 漢城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백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온조집단의 거주지가 기능적인 역할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과 면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남위례성은 반경 50리 정도의 지역의 중심지, 즉 국읍이 갖는 대내외적인 교류에 따른 물자의 분배와 집산이라는 단순 개념을 벗어나 확장된 영역을 경영하는 수도권적 의미의 기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小國段階의 지역범위가 확대되자 온조집단이 거주한 위례성은 제집단간의 물자 교류와 분배를 주도하는 국읍의 역할뿐만 아니라, 확대된 영역을 지배하고 관장하는 데 수반되는 각종 관부가 설치되면서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그에 따른 권위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종래의 하남위례성이 갖는 국읍의 성격과 의미는 국가의 도성이란 성격변화에 따른 명칭 변경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정치와 사회 질서의 변화에 부응되는 권위를 갖추어 가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명칭이 漢城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한다.

郡城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慰禮城은 온조집단이 한수 이남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선주하였던 곳이다. 또한 河南慰禮城과 구분하기 위해 河南이란 방위명과 대립관계에 놓인 河北이란 부가어를 첨가하여 河北慰禮城이라고 별칭되고 있다.

다음으로 漢城, 또는 漢山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河南慰禮城=漢城으로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내용이다.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居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爾都忽以居之 僞許都河南慰禮城

위의 내용은, “온조 일행이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沸流가 해변에 살기를 원하자 十臣이 간하기를, '이 河南의 땅은 북으로 漢水를 끼고 동으로 高岳을 의지하였으며 남으로 沃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大海를 격하였으니 그 천험지리가 얻기 어려운 지세'라고 하였는데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였다"라는 것이다.

문헌자료를 분석해 볼 때, 하남위례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漢山の 위치가 南漢山城임이 파악된다.

이상의 연구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추정된 부분이 없지 않다. 앞으로의 연구성과는 세세한 사료의 재검토 및 고고학적인 유물·유적의 발굴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학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보완하고자 한다.

3. 국가방어기능으로서의 남한산성 증개축사

남한산성이 국가방어라는 주요 기능을 담당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국가방어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곳을 수축한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병로교수가 연구 발표를 하였다. 다음은 조교수의 발표문 중 남한산성의 증개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신라 文武王 12년(672)에 축성한 耑長城⁴⁾(또는 日長城)에 그 기원을 둔 남한산성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畿輔의 保障處로서 水原의 禿城山城, 安城의 竹州山城 그리고 江都와 함께 郡城을 수호하는 수도권 방어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關防시설의 하나이다.

특히 남한산성의 修築問題가 대두된 것은 16,7세기 임진왜란과 李适의 난 그리고 丁卯, 丙子胡亂 등의 내외외환을 겪으면서 兵亂과 外侵을 막기 위한 방어책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도성근처인 경기지방에 있는 산성의 수축문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江都와 남한산성은 畿輔의 重鎮으로써 수원, 禿城山城과 犄角之勢를 이루는 關防으로 인식되어 역대 왕들은 이의 수축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倭亂 이후 軍器補修, 軍制改編 등과 함께 山城修築問題는 國防上 중심과제였다.

남한산성이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산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宣祖26년(1593) 都城守禦策을 의논하면서부터였다. 당시에는 남한산성의 수축보다는 방

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文武王12年 8月條.

여에 더 우선하였다. 광주, 이천 등의 군사를 모집하여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남한산성을 수어하자는 전략이었다.⁵⁾ 그후 宣祖30년(1597) 왜군이 재침하자 남한산성의 방어와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柳成龍, 盧應 등은 남한산성 수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東門, 西門 그리고 木口門 등의 일부 城役만을 수축하였다.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宣祖36년(1603)에 다시 남한산성 수축문제가 거론되었다. 남한산성의 형세는 동방의 으뜸이며 廣州의 巨鎮으로 남쪽지방을 왕래하는 요충지라 하여 이곳에 산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지키게 한다면 京都의 保障이 된다는 입장에서였다.⁶⁾ 그러나 당시 전란으로 인한 인력동원문제와 守戍의 어려움, 그리고 국가부흥과 民生安保를 도모해야 할 처지에서 산성수축은 소극적이었다.⁷⁾

남한산성은 임진왜란이후 江都와 함께 나라의 保障處로서 인식되었으며 後金의 등장으로 인한 對西防禦上 그리고 李适의 난으로 도성수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仁祖 2년(1624) 수축을 시작, 4년(1626)에 완성된 남한산성(元城)은 병자호란이후 수차례 걸쳐 재수축을 하게 되었는데 仁祖16년(1638), 英祖20년(1744), 正祖3년(1779)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 중 인조16년과 정조3년에 재수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碑文이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南將臺遷城戊寅碑와 屏岩 南城新修記碑가 그것이다.

또한 병자호란이후 남한산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용성축조 등이 제기되었으나 청의 압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도성방어를 위해 남한外城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肅宗12년(1686)의 蜂巖城, 肅宗19년(1693) 漢峰城(汗峰城) 肅宗45년(1719) 新南城(南格臺)이 그 하나이다. 그 중에서 봉암성의 신축과 관련하여 일명 蜂巖新城丙寅磨崖碑가 발견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와 같은 碑文의 내용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 仁祖16년(1638)의 재수축과 관련하여 발견된 남장대용성무인비에서는 廣州府尹 洪瑒이 別將 崔晩得과 領將 宋孝祥, 監役官 前部將 金明律, 前司果 慶以奉, 前部將 金義龍 등을 지휘감독, 1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축성군으로는 潰軍, 僧軍 이외에 구체적으로 木手 梁南 등 74명, 石手 姜

5) 《宣祖實錄》卷43, 宣祖26年 10月 壬寅.

6) 《宣祖實錄》卷139, 宣祖36年 2月 乙巳.

7) 《宣祖實錄》卷161, 宣祖36年 4月 丁酉.

福 등 13명, 冶匠 李己嘆 등 2명, 泥匠 金芝鳳 등 7명, 무려 96명의 匠人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 正祖3년(1779)의 대대적인 재수축은 수원의 禿城山城, 안성의 竹州山城과 함께 남한산성이 畿輔의 保障處로서의 군사적 중요성을 한껏 인식한 결과이며 屏岩南城新修記碑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비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가지 사항은 정조3년의 재수축시기는 동왕 3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18일까지 약 50여일 걸렸으며, 수어사 徐命膺의 주관과 당시 광주부윤 李明中의 감독아래 아주 체계적으로 수축되었으며, 그 財源은 수어청의 別備錢 1만냥과 광주민들에게 환곡으로 대여한 軍餉穀 5000 石의 耗穀(利子) 500石 등으로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비문의 구조나 내용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최초의 수축 사실(장해군13년 또는인조4년)이 혹시 이 屏岩에 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3) 남한외성의 하나인 봉암성의 신축은 최근에 발견한 일명 蜂巖新城丙寅磨崖碑에 의하면 肅宗 12년(1686) 윤4월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9일에 완성하였는데 수어사 尹趾善의 지휘아래 1所, 2所 등 신축구역을 나누어 1소는 전부사 表某, 2소는 전군수 安某 등의 감독관에 의하여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수어청 軍兵이나 또는 匠人(?)들을 築城軍으로 동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와같은 남한산성의 재수축과 외성의 신축은 병자호란이후 맺은 丁丑和約에도 불구하고 睿王攘夷의 대외명분론과 章夷觀에 입각한 北伐運動과 反清意識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적으로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청의 年號를 사용해야 하는 조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이제 굴욕의 장이라는 역사적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인식하여 抗清節義정신과 민족의 자주국방의식을 되새기는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것이다.

(5) 특히 이러한 역사적의식에서 앞으로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의 체계화,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및 관련자료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사적 지정운동을 전개하여 국난극복의 충효정신 그리고 절의정신을 계승하는 민족의 도장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궁터 등의 부속건물의 복원, 이외 교육, 관광자원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남한산성제모습찾기운동이나 한국산성박물관 건립추진 등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I. 남한산성과 민족정신

1.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임진왜란과 함께 조선조 양대 국난으로 기억되는 병자호란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인조임금은 야만족이라 경멸해 오던 청에 대해 신하를 자처하며 완전히 굴복하는 치욕을 당함으로써 명나라에 버금가는 문명국을 자처해 오던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자존심의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국난은 동시에 잠들어 있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남한산성에서의 전투는 절대적인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이나 되는 장시간을 대항하며 싸우는 당당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전개된 전투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요녕대학의 진완교수가 연구 발표를 하였다. 다음은 진완교수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재정리하였다.

1) 병자호란의 배경과 전개양상

15세기로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女眞族은 조선의 북방국경지역에 침입하여 왔다. 그리고 여진족의 일부는 조선 영내에 들어와 살면서 선조 16년(1583)에는 尼滿이 여진과 연결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또 慶源과 鍾城 등지에 자주 침범하여 약탈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 때마다 조선정부는 두만강을 건너 여진부락을 소탕하곤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게 된 여진족은 누루하치에 의하여 인근 부족을 정복·병합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광해군 8년(1616)에 興京지방에서 후금국을 세우고 차츰 명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대륙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겨 내정과 외교에 있어서 비범한 정치역량을 발휘하였다. 그는 내적으로 전후 복구사업은 물론 史庫의 정리, 서적간행, 병기제작, 군사훈련 등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외적으로 대륙의 정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현명한 외교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쟁에 팔리드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므로 광해군은 명이 후금을 정벌하기 위하여 만주로 출정할 때에도 명의 요구에 못이겨 姜弘立에게 밀지를 내려 형세를 파악하여 항배를 결

정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명군이 薩爾圖 전투에서 후금군에게 대패하자 형세가 불리함을 느낀 강홍립은 전병력을 이끌고 후금군에게 항복함으로써 후금으로부터 군사적 보복행동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광해군이 대명외리보다는 국가의 평안을 위하여 냉철하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치세에는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침입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광해군은 왕실을 싸고 도는 당파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서인으로부터 축출당하였으니 이것이 광해군 15년(1623)에 일어난 인조반정이다.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옹립한 李貴, 金瑬, 李適 등의 서인은 대개 사대주의에 젖어있던 관료들로 광해군의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지향하고 向明排金정책을 표방함으로써, 후금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때 명의 장수 毛文龍이 鐵山の 輯島에 주둔하며 요동회복을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금은 더욱 초조하였다. 이에 후금은 명을 정벌하기에 앞서 그 주변에 있는 모문룡이나 조선에 대한 정벌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627년(천제 7년) 청은 조선에 출병하여 무력으로 협박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江都和約』에 서명케 함으로써 “영원히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신을 통해 공물을 바치고 조선의 중강(中江)을 개방하여 상호교역 시장으로 삼았다.

조선과 청의 화약이 있은 후 청군은 조선으로부터 철수했다. 조선은 비록 약속대로 공물을 바치고 시장을 개방했지만 그다지 성의는 보이지 않았으며, 군신이 명과의 변함없는 우호관계를 견지하고 있었고, 그 후 심지어 청이 제시한 경제와 군사적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했다.

1631년과 1633년 청은 명을 공격하면서 조선에 군사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만약 귀국이 우리더러 명을 등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없어질지언정 결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선은 매년 청에 진헌하는 공물 역시 점차 감소하였고, 조약을 근거로 한 청의 식량원조 요구마저 거절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과 명은 이천처럼 왕래를 계속했다. 명군에 군량미와 병기 등을 지원했다. 명의 장수 공유덕(孔有德)과 경종명(耿仲明)이 명을 배반하고 청에 투항하자 명은 군사를 파견하여 이들을 추격했는데, 조선 또한 군사를 파견하여 같이 이들을 공격하도록 했다. 조선인민 역시 자발적으로 청군을 습격해

실패했다. 이러한 교섭과정 중 조선의 조야에는 상하를 막론하고 반청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적극적인 전쟁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종(李穡)은 명을 내려 경기, 황해 및 평안 3도에 12개의 성곽과 못을 추가로 짓도록 하고 군대를 정비하면서 공격에 대비했다.

1636년 청 황태극은 황제등극을 준비하면서 사신을 통해 이를 조선에 알리고 청을 황제로 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국서의 접수마저 이리저리 미루었다. 황태극은 다시 “사람을 시켜 서신을 가지고 가 이해득실을 깨우치게 하여 왕자와 대신들을 인질로 삼게 하라. 만약 그들이 허용한다면 그만이지만 불복한다면 그 때 다시 정벌을 논하도록 하자.” 그러나 조선은 여기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강악과 존망의 형세를 떠나 오직 정의에 입각해 관계를 단절한다”는 결심을 했다. 이종(李穡)은 팔도 장령들에게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전국의 선비를 동원하여 “각자의 책략을 상주”할 것과 “스스로 성실히 전쟁에 임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호소하면서 청병의 침입에 대비했다. 동시에 나덕헌(羅德憲)과 이괄(李适)을 황태극의 황제등극 전례에 사신으로 보내 축하를 표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를 행할 때 곳곳하게 서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이 청의 신하국이 아님을 보였다. 이에 황태극은 조선에 다음과 같은 통첩을 보냈다. “반약 왕이 스스로 알아 죄를 뉘우친다면 마땅히 자제를 인질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이 모뎀 모뎀에 대군을 거느리고 그대의 국경을 들어설 것이다.” 조선은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답하기를, “명약이 깨어진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황태극은 전마를 가다듬고 하천이 얼어붙기를 기다려 다시 조선원정에 나섰다. 12월 28일 황태극은 15만 군대를 친히 이끌고 출정했다.

2) 남한산성에서의 전투와 경과

황태극의 제 2차 조선 침략의 원인은 1차 때와 동일한 것으로, 모두 대명작전상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을 통제하여 명과의 우호관계를 단절케 함으로써 자기의 지지세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청은 이미 여진의 각 부를 통합하고 원대 명에 속했던 전 동북지대를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서쪽의 몽고 역시 이미 신하로써 복종했기 때문에 조선을 장악함으로써 명과의 대적을 위한 외부환경을 최종적으로 철저히 개선하고자 했다. 그리고 명과의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선을 통제하여 두어 물질적 지원

을 얻음으로써 청의 내부 실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다.

청군은 두 길로 나누어 진군했다. 황태극은 친히 우익을 거느리고 동경(지금의 심양(沈陽))으로 흐르(淸河)를 건너 남으로 향했고, 좌익은 무순(撫順)진을 잡아 동쪽으로 해서 내려갔다. 1637년 1월 5일 우익의 대군은 압록강을 건넌고, 이어 의주, 하악산, 정주, 안주를 거쳐 임진강변에 이르니 마침 날씨가 추워 강물이 얼어붙어 있어 천군이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너 곧바로 서울을 꺾었다. 좌익은 예친왕(睿親王) 다이곤(多爾袞)이 영도하여 관천(寬甸)을 거쳐 장산구(長山口)로 가 영변(寧邊)을 넘어 곧바로 서울로 향했다.

대군이 출발한 그 이튿날 황태극은 이미 마북담(馬福碇)에게 삼백명을 이끌고 선봉이 되어 상인으로 가장하여 수도에 먼저 도착하도록 하고 곧이어 예친왕(豫親王) 다락(多鐸)으로 하여금 천명의 호위군을 이끌고 뒤를 쫓아 수도를 에워싸게 했다. 선봉부대는 1월 9일 새벽 서울의 성 바깥에서, 막 성을 나와 적을 맞이하려던 조선 기마병 60여명을 전멸시켰다. 성 내에서 이종(李穡)은 이미 전날 권속을 강화도로 보내고 자신은 수도 동남쪽 40리쯤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급히 철수해서 다음 날 역시 강화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북담군이 이를 알고 추격해 오니 성을 나설 수가 없었다. 11일 다락군이 도달하여 성 밖 80리쯤에서 목적을 치기 시작하여 장차 성을 포위하려고 했다. 이 때로부터 이종(李穡)은 한 달 이상이나 성 속에 갇혀 고통스런 남한산성 보위전을 치러야 했다.

1월 11일에 포위되어 2월 24일 이종(李穡)이 성을 나와 항복하기까지 남한산성 보위전은 45일간 지속되었는데 그 형세의 발전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1일-23일까지로 조선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부단히 출격했으나 청군은 성을 포위한 후 아직 황태극이 이끄는 대군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단지 “강화를 맺기 위해 왔다”고 하면서 조선이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야 한다는 강화조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교섭에 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수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때면 적을 살상했다.

제2단계는 24일부터 2월 9일까지의 전부로 조선과 청 쌍방이 회의를 담판을 진행하는 단계였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청은 일면 대오를 정비하고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으며, 한편 담판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 이종이 성을 나와 항복하도록 꺾었다. 조선측은 적극적인 방어태세로부터 외부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고 주화(主和)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황태극 역시 산성에 도착한 후 공격을 서둘지 않았는데, 이유는 청군의 좌익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게다가 성을 공격할 전문무기와 화포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성을 공격할 수 없었다. 또 하나는 산성의 형세가 험준하여 지키기는 쉬우나 공격하기는 어려웠다. 황태극은 병력의 손실은 바라지 않았다. 주변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이종이 절망하면 담판을 통해 항복을 강요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청군은 단지 산성의 근방군만을 부단히 공격했으며 동시에 서신을 보내 성안에 있는 이종의 명약을 어긴 죄를 조목조목 들어 엄하게 나무랐다. 그러나 화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부대는 29일(정월 초나흘) 한강 북안까지 철수하여 진을 치고 후군을 기다렸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성안의 상황이 점차 변화되고 있었다. 성안의 양식이 차츰 떨어지고 형세가 갈수록 험악해지면서, 특히 23일의 대접전이 실패하여 인심이 동요되면서 주화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시종 화의를 주장했던 이조판서 최명길도 화해 고섭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효력을 발휘했다.

제3단계는 2월 10일(정월 16일)에서 24일(정월 30일)까지로 무턱에 의한 최종 투쟁단계였다. 2월 4일(정월 10일) 다이곤이 거느린 좌익대군과 화기부대가 도착하자 청의 사기는 고조되었다. 황태극은 배를 준비시켜 군사를 나누어 강화도를 공략하는 한편 담판을 계속하면서 이종이 성을 나와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

산성 안에서는 2월 2일(정월 8일)부터 외부와 연락이 끊어져 더 이상 원병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게다가 한 달 이상을 포위당해 성안의 양식, 화약, 약품 등이 거의 바닥나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7일(정월 23일)에는 장졸들이 무리지워 주전(主戰)대신을 청군측에 보내어 처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변(兵變)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종은 부득불 화의조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16일(정월 22일) 청군은 강화도를 점령했다. 조선 군신의 권속이 모두 포로가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밤 청군은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성을 지키는 조선군에 의해 모두 격퇴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청군의 화포공격에 19일(정월 25일) 동성의 성벽 일부가 화포에 무너지고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해 20일(정월 26일)에는 군졸들이 다시 주전대신의 축출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날 저녁 강화도가 함락했다는 소식을 확인하면서 조선 군신은 성을 나가 항복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청이 제출한 조건에 따라 성 아래에서 평약을 맺게

되었다. 24일 이종은 푸른 옷을 입고 장수와 신하를 대동하여 성을 나와 삼전도에 이르러, 이미 바뀐된 높은 대에 앉아 있는 황태극에게 항복했다.

2. 삼학사와 민족의식

병자호란은 조선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국가보위에 대한 민족의식을 강화시켰고, 따라서 영웅을 배출하였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병자호란이 낳은 대표적 영웅이 이른바 삼학사이다.

삼학사는 척화파의 대표적 인물들로서 1636년(인조 14)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선을 속국시키는 모욕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오자, 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청나라의 이 사신들을 죽여 모욕을 씻자고 주장하였다. 1637년 1월 일 인조가 삼전도(三田渡)에서 화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들 세 사람은 봉림대군(鳳林大君)과 함께 청나라로 불감히 갔다. 홍익한은 1637년 2월 초에 청군이 회군하는 길에 평양에서 잠혀서 25일에 심양(瀋陽)에 이르렀으며, 윤집, 오달제는 청군의 진(陣) 뒤에 있어서 그해 4월 15일에야 심양에 이르렀다. 19일에 용골대(龍骨臺)가 왕명으로 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청나라에서 살기를 권유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에 윤집과 오달제는 서문(西門) 밖에서 처형당하였다. 홍익한은 10일에 이미 처형당하였다는 설이 있고, 윤집과 오달제와 함께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다.

이들 삼학사를 호란 당사국이었던 한국학자와 중국학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는 전보삼교수, 중국측에서는 장걸교수에게 발표를 의뢰했다. 다음은 두 교수가 발표한 삼학사에 대한 평가의 요지이다.

먼저 전보삼교수는 “남한산성과 민족의식”을 주제로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의식의 표출양상을 발표하였는데, 남한산성 축성과 병자호란에 임한 승려들의 활약상과 삼학사의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다.

먼저 전교수는 삼학사의 병자호란 당시 행적을 소개하고 평가를 시도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을 근간으로 삼학사를 평가하였다. 선비정신이란 인력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지조(志操)의식을 말한다.

전교수는 우리 민족의 선비정신은 인력의 수양을 통한 도덕적 귀감의 제시와

애국충절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함께 추구하였으며, 선비의 절대적 충의와 지조 정신은 선비정신의 높은 기개와 절의를 숭상하는 전통의 발로라고 파악하고, 선비의 사회적 공익(公益)정신을 강조하는 전통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병사를 일으켜 적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선비들의 면면에서 잘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비의 사회적 공익정신은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뿌리가 되었으며 민족정신의 원류가 되었다. 선비정신은 학식과 인격을 갖춘 즉 인격적인 덕성을 갖춘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선비정신의 인격적 조건은 생명에 대한 욕망도 넘을 만큼 궁극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어진 덕과 인의 덕목, 의로움의 덕목과, 지조를 선비의 인격적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다.

평양 서운 홍익한(洪翼漢), 교리 윤집(尹集), 오달재(吳達濟) 등 삼학사는 바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 병자호란 시 청과의 화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죽음을 택하여 조선의 선비의 기개를 몇몇이 발휘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측의 발표자로 나선 장걸교수는 먼저 '丙子胡亂'을 청(金)정권이 조선에 대하여 실행한 고압과 약탈 정책의 연속이며, 이것은 조선에 대하여 진행한 군사 정복과 민족 압박의 침략 전쟁이었으며, 조선 인민이 적의 침략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유지하는 자위 전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삼학사를 대표로 하는, 정의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죽더라도 強暴勢力에 굴복하지 않는 고상한 기개와 영웅의 기개는 청사에 길이 빛날 것임을 강조하였다.

먼저 피살된 사람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인 홍익한이다. 홍익한은 남양(南陽) 사람으로서 자는 백승(伯升)이고 호는 화포(花浦)이다. 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홍익한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사람됨됨이 청건하고 경민하다."

二月二十五日, 홍익한이 심양에 도착하자 "명나라 사람으로부터 오랑캐들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돌려서 보면서 모두들 한탄"하며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 깊이 탄복하였다. 청나라 조정은 처음에 홍익한을 단독으로 가두어 놓고 禮部의 관리들로 하여금 연회를 베풀어 그를 초대하게 하였지만 홍익한은 "글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나라 조정은 자기들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영아이대를 보내어 죽음으로 위협하였으나 그는 추호도 동요하지 않았다.

三月五日(1637년 3월 21일), 홍익한은 청나라군에 압송되어 청태종을 만나러 갔다.

청태종을 대한 홍익한은 "너는 무엇 때문에 굶어 앉지않고 고고하게 서있느냐?"라는 청태종의 말에 "이 무릎을 여겨 당신앞에서 꿇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였으며, 청태종이 또 “너는 무엇 때문에 먼저 명약을 배반하여 두 나라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였느냐”라고 묻자, “너와 우리 나라는 형제로 약속하였지만 후에는 우리들을 신하로 삼으려 하였으니 계약을 위반한 것이 너나 아니면 나냐”라고 대답하는 등 시종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였다. 청태종은 매우 화가 나서 명령을 내려 홍익한을 끌고 나아가서 죽이도록 하였다.⁸⁾

尹集은(1607-1637) 남원 사람으로서 자는 成伯이고 號는 林溪, 校理이며 吳達濟(1608-1637)는 해주 사람으로서 자는 季暉이고 號는 秋潭, 校理이다.⁹⁾ 윤집은 弘文館의 校理이고 吳達濟는 弘文館의 修撰이며 두 사람의 관직이 홍익한 보다 훨씬 낮지만 그들의 사적은 홍익한과 함께 같이 빛난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선정부가 “척화인은 자수하라고 명하자” 윤집과 오달제는 聯名으로 상소하여 “신들이 듣건대 조정에서 전후의 척화인은 자수하러 가라고 명령하였다 하니 이때를 당하여 君父의 위급함을 구할 수 있다면 조정의 신하들로서 어찌 감히 나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신들이 작년 가을과 겨울에 소를 올려 최명길의 주화론을 폐격한 것이 곧 척화의 허물이었습니다. 오랑캐의 병영에 나아가서 칼을 맞아 죽음으로써 교활한 오랑캐의 잔혹한 요구를 막았습니다.”¹⁰⁾라고 하였다.

정월 29일 아침(1637년 2월 23일), 오달제와 윤집은 청나라 군으로 압송되었다. 청태종이 직접 심문하였는데 그들에게 敗盟斥和의 연유를 말하라고 하자, 두 사람은 “우리나라는 대명에 대해 신하의 예로 섬긴 것이 삼백년이라, 대명이 있음을 알고 청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니 어찌 감히 척화를 부르짖지 않으리오? 우리 조정이 天朝에 대해 신하로써 섬긴 것이 지금까지 삼백년이다. 의리상으로는 군신관계요 정리상으로는 부자관계이다. 청나라가 청호를 멋대로하여 사신을 보내니, 나는 간언을 담당하는 관리로써 어찌 척화를 힘써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할 말이 없으니 속히 죽여주기 바란다”¹¹⁾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8) 이상은 김경중의 『조선사』를 자세히 보시라, 권9, 80.

9) <東國文獻備考>, 권8, <名臣錄>.

10) 《李朝實錄》仁祖, 卷34, P.15, “臣等伏聞廟堂令前後斥和之人自首以往, 當此之時, 苟可以教君父之危急, 在廷諸臣孰敢不出. 臣等于去年秋冬親斥崔鳴吉之主和, 是乃斥和之尤者也. 請赴虜營, 伏劍一死, 以塞狡虜一款之請.”

11) 羅萬甲: 「丙子錄」, 「急報以後目錄」, “我國之于大明, 臣事三百年, 知有大明, 不知有清國. 安敢不斥和? 我朝之于天朝, 以臣事之. 今國三百年, 義君臣而情父子. 清國遣使, 身為廉官, 安得不力言斥之乎? 此外更無所言, 懇速殺我.”

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여 청태종은 계속 심문할 수가 없자 그들을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윤집, 오달제는 청나라 군의 후발대를 따라 갔으므로 4월15일야 비로소 심양에 도착하였다. 四月十九日(1637年 五月 13日), 청나라 장군 영아이대는 조선 측에서 심양에 보낸 사신인 좌의정 李爾瞻 等의 사람들과 조선의 세자들을 배동한 관원들을 禮部衙門으로 불러들여 이들이 앉자 윤집과 오달제를 데려 오라고 명령하였다. 영아이대는 그 자리에 있는 조선 관원을 앞에서 윤집과 오달제를 향하여 청태종의 諭旨를 선포하였다. “너희들이 화친을 돕는 것을 논의토록 선동하여 두나라로 하여금 피를 보게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무거워 죽어 마땅하다. 다만 인명이 지중하니 너희들을 모두 살려서 처자를 이 곳으로 데리고 와 살게 하고자 한다”¹²⁾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서 죽을지언정 꿇어앉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더욱 처자들에게까지 고향을 빼어 그들마저 청조의 囚人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윤집이 먼저 말하기를 “전난을 겪은 후 처자의 생사도 모르니 천천히 확인하고 처신하겠다”라고 하여 청나라의 침략으로 조선인민들의 처자가 흩어지고 재난으로 집과 가족을 잃게한 만행을 공소하면서 청나라의 유혹을 거절하였다. 오달제는 더욱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온 사람이 만일 살아서 돌아간다면 서민들까지 우리 임금과 노모를 만나 (따지려고 할 것이니) 과연 그와 같다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못하다”¹³⁾라고 하였다. 영아이대는 화가 치밀어 “황제께서 생명을 보전해 주시려고 말씀하신 은혜를 생각히 않고 대항하는 말이 이와 같으니 지금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조선 관원들은 오달제에게 집에 계신 70老母를 생각하여서라도 삼국시대 曹操의 餘臣를 배워 “그대의 노모로 하여금 그대의 생존을 듣게 한다면 비록 이역에 있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는가”라고 권하였으나, 오달제는 아예 울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윤집과 오달제는 심양城 西門 밖에서 피살되었다.¹⁴⁾

12) <李朝實錄 仁朝>, 卷34, P35. “爾等倡議絕和, 使二國成仇, 其罪極重, 可以殺之. 特以人命至重, 欲令全活爾等, 可率妻子入居于此.”

13) 『沈陽狀啓』 20, 요녕대학 역사학부 1983년. “至今忍死到此者, 萬一生還, 則宜欲見吾君與老母, 果若如此, 則生不如死.”

14) 김정중, 『조선사』 卷9, P.81.

그당시 조선의 평론가들은 말하기를 “오, 윤 두사람은 열열장부라 할 수 있다. 산악을 움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절개는 움직이기 어렵다. 만고의 대의를 밝혀 영원히 간신배와 아첨꾼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능히 태양과 그 빛을 견줄만하다”¹⁵⁾라고 하였다.

3. 조선 중기 북벌의식의 응축장으로서 남한산성

병자호란이 발생하기전 조선이 이미 기울어 가는 명조에 대한 의리를 고수하며 청과의 전쟁을 통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대부분 문화를 숭상하는 조선조 지배층들이 견지해온 모화사상과, 학문적 성향에서 기인하는 의리사상, 특히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로부터 입은 은혜와 조선에 대한 원병이 계기가 되어 국력이 급속도로 약화됨으로써 청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열어준 데 대한 의리사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모화사상의 연원은 조선조의 유학자나 관료들이 유학에 심취한 만큼 그들은 유학의 연원지인 중국에 대한 흠모사상도 함께 고취시키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심화된 데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동방이학의 시조라고 하는 정몽주가 ‘堯元歸明’의 의를 주장한 것이고, 둘째는 임진왜란에 치하여 조선은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보은과 의리의 정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셋째는 조선이 건국초기부터 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극 존숭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정몽주가 주장한 절원귀명의 정신은 조선건국 당시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산림파들이 중기이 후 현실정치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선비의 절개와 의리의 표본으로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를 삼아온 포은의 주장을 당연불가변한 준추대의로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절대적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진왜란을 통해 형성된 명과 조선의 혈맹적 관계는 명나라의 은공에 대한 조선유학자들의 의리사상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은 무력으로 일본을 통일한 풍신수길의 조선에 대해 修好通交, 征明假道を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명분으로 내걸어 일으킨 조선조 최대

15) 羅萬甲:『丙子錄』,『急就以後日錄』,“吳,尹二人,可謂烈烈丈夫,山岳可動,此節難動,明萬古之大義,愧千載之奸賊,能與白日爭光?”

의 국난이었다.

조선의 육군이 왜군의 복살을 저지하는 데 계속 실패하자 선조는 두 왕자를 함경도와 강원도에 보내어 근왕병을 모집토록 하고 자신은 紀寶와 대신들을 거느리고 개경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갔다. 그리고 명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선조로부터 원병을 요청받은 명은 그해 7월 遼陽副總兵 祖承訓에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평양부에 입성한 왜군을 격퇴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왜군에게 패하였다. 명은 沈惟敬을 파견하여 화의를 모색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李如松에게 5만의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에 있는 왜군을 도벌케 함으로써 평양성을 수복하고 서울로 진격하여 개성까지 수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 이여송의 명군은 碧蹄館에서 왜군에게 대패하고 개성까지 후퇴함으로써 왜군은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명은 조선에 대군을 파견하여 왜군을 격퇴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막대한 국력의 소모로 국가재정의 궁핍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명의 국력이 약화되자 발전도상에 있던 여진세력이 통일하여 점차 중국대륙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은 합의 불균형을 인정하면서도 청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었는데, 병자호란을 계기로 모화의 현실적 대상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당한 굴욕에 대한 수치심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양강음을 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특별계획이 진지하게 추진되었다.

우선 호란 기간 중 청나라에 접해가 죽임을 당한 삼학사에 대해 조선 조정에서는 이들의 충의와 대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문(旌門)을 내리고, 홍익한에게는 충정(忠正), 윤집에게는 충경(忠貞), 오달제에게는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려 삼학사의 정신을 민족지존의 표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청의 감사와 견제 속에서도 남한산성을 재수축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은밀히 추진되었다.

南漢山城의 재수축문제가 거론된 것은 병자호란을 겪은 뒤였다. 조선에서는 오랑캐라 멸시해 온 이민족에게 임금이 몸소 出城降臨하게 되자 민족의 자존과 체통이 짓밟히게 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주족으로부터 받은 치욕에 대한 민족적 각성은 반청의식으로 나타났으며¹⁶⁾ 그 결과 魯王攘夷의 大義名分論에 입각한 복讐운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¹⁷⁾

16) 李迎春, 尤菴 宋時烈의 尊周思想, 《청계사학》 2, 1965.

17) 趙鍾業, 北伐과 春秋大義, 《학계연구》 10, 1979.

이러한 반청의식의 고양과 함께 어명청의 병력을 종래의 6,200명에서 7,000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¹⁸⁾ 精抄軍을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감군을 정예화 시키기 위해 6,500명의 무과합격자로서 局出身이라는 훈련도감 정예군을 편성하여 궁성수비의 임무를 맡기는 등의 군제개편도 단행하였다.¹⁹⁾

또 이러한 반청의식은 丁丑和約의 군비증강 조항을 무시한 채 호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재수축하자는 논의를 대두하게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즉 인조 15년 7월 左議政 崔鳴吉이 江都와 南漢은 모두 保障之地로써 한곳에 전념하여 전쟁에 대비할 계획으로 삼자고 제안하자 特選官 李時白은 江都는 호란으로 여지없이 蕩殘되었으므로 수습하고 싶지만 청나라에 번거롭게 소문이 날까 염려되기 때문에 남한에 전념하여 우선 대피할 곳으로 삼아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고자²⁰⁾ 제기함으로써 남한산성의 재수축문제는 조정의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의 중론은 청나라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의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守禦使 李時白 등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구실 아래 남한산성 수축은 점차 인조의 支援를 받아 실현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남한산성을 재수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지원병을 파견한다는 和約條件 때문에 대두되었다. 당시 반청의식이 고조되어 있던 조선의 여론은 비록 정축화약에서 원병을 파견한다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천명반청 외교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온 조선의 입장에서 쉽게 명을 정벌하는데 淸을 원조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청의 원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과의 무력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산성의 재수축은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李京族, 朝鮮孝宗祖의 勅諭運動, 《청계사학》 5, 1988.

육군본부, 北伐計劃과 軍營體制的 擴張,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1977, pp130~132.

18) 崔孝獻, 이명청연구, 《한국사연구》 40, 1983.

19) 陸軍本部, 丙子胡亂과 軍營體制的 變化,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1977, pp102~132.

20) 《仁祖實錄》卷35, 仁祖15年 7月 丁亥.

“左議政 崔鳴吉道曰 江都南漢 皆爲保障之地 不若專意一處 以爲險阻之計 特選官李時白道曰 江都蕩殘無餘雖欲收拾 而恐煩清人之聽聞 專意南漢 以爲結縻之地可也 朝廷尙不得一於斯 變出不意 卻將何爲哉”

이와같은 인식아래 남한산성 재수축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仁祖16년 1월 16일 右議政 申景禕와 병조판서 李時白과의 논의에서였다.²¹⁾ 右議政 申景禕가 그려 바친 山城圖를 펴놓고 修築할 곳을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계획대로 증축한다면 城이 완전하고 견고하리라 판단하고 城壕를 지키는 군사도 2만명 정도 확보토록 하면서 1차 산성증축의 책임을 李時白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李時白은 수축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소 주춤했다. 그것은 丁丑和約 가운데 성지를 수축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라도 축조한 이후에 이로 인하여 講의 실패하는 단서가 될까 봐 청에 알린 다음 그들의 태도에 따라 城役을 시작하는게 좋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仁祖는 倭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대해 청나라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축에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왜적에 대비하기 위하여 特選官 임판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舟師를 점검케 하는가 하면²²⁾ 전라도의 舟師는 統營에, 충청도의 舟師는 전라우도에 添防케 하고, 서북지방의 군량을 남방에 운송케 하였으며²³⁾ 특히 남쪽 關門의 요충지인 조령과 御留山城의 수축을 통하여 남방에서의 防倭대적을 강구하였다.

이와 함께 병자호란 당시 청에 인질로 잡혀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효종은 부왕 인조의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북벌계획은 더 이상 전진될 수 없었다.

IV. 남한산성의 현대적 가치와 활용방안

남한산성은 천혜의 지형적 특성으로 2,000년 역사를 담아오고 있기도 하려니와 그 위치로 인해 수도 서울의 동남방 방책역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부로서의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은 소진장교수의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1. 역사자료적 의의와 활용방안

남한산성이 石城으로 축성된지가 금년으로 370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백제초기 지형지세를 이용한 土城으로서 기능하였고, 백제시조 온조대왕은 하남위

21) 《仁祖實錄》卷36, 仁祖16年 正月 庚辰.

22) 《仁祖實錄》卷36, 仁祖16年 正月 辛巳.

23) 《仁祖實錄》卷36, 仁祖16年 正月 庚寅.

래성에 팔갈곡이 침입하였을 때 청광산을 중심으로 고지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곳 산성으로 천도했을 만큼 이곳의 역사는 2,000년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石城은 인조 4년 (서기 1625년) 완공된 것으로 이후 숙종때 까지 外城이 쌓이지게 되었다. 성곽의 높이는 3~7.5m로 4개의 장대가 세워졌으나 현재는 수어장대만 남아있고 4개의 집문, 5개의 웅성, 2개의 봉화대 그리고 16개의 암문이 있다.

수어장대는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지방 유형문화재1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산성의 동서남북 4개 장대 중 서장대로서 인조 2년에 단층으로 축조한 것을 영조 27년 (1751년) 유수 이기진이 왕명으로 2층 누각을 증축하고 외부 편액을 수어장대(守禦將臺), 내부편액은 무망루라 하였다.

특히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은 숭열전(崇烈殿)이다. 숭열전은 인조 17년 (1639년)에 건립하고 정조 19년 숭열(崇烈)이라 사액하였으며 벽계의 시조이신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이다. 온조대왕은 하북위례성에서 한강을 건너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하면서 이미 이곳 남한산성의 군사적가치를 열두에 두었고 이를 앞산으로 활용하였으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시 이곳을 거점으로 항거하는 등 이곳 지덕을 깨달은 분으로 그 분을 기리는 사당이 이곳에 임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벽계 온조대왕이 이곳에 일시 천도했을 당시 왕궁지였다고 구전되어온 침패정(枕裴亭)도 산성안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의 건물은 영조 27년 (1751년)에 유수 이기진이 중수한 것으로 침패정이라 하였고 조선조에는 무기제작소의 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의 역사적 등장은 벽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후 국가적 대사와 전란을 겪으면서 國運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음을 알수 있다. 요약하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는 우리 민족이 전란을 겪거나 외침을 받았을 시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과 평시에는 국가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그 중심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흔히 병자호란을 패배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시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45일간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점은 이곳의 지덕(地德)에 힘입은 바 크고 따라서 남한산성은 패배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혼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상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만주족은 역사의 뒤편길로 숨어버리고 우리의 민족정기는 더욱 번창하여 오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에는 삼학사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한 현절사(顯節祠)가 있다.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때 격화신인 3학사 홍인환, 윤집, 오달재의 혼을 달래기 위해 숙종 14년(1688년)에 세워진 사당으로 숙종 27년(1711년)에 주전과의 거두 김상헌과 정온을 다시 추향하였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은 민족정기를 일깨워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병의 의승군이 집결해 있던 개원사, 장경사, 방월사, 국청사 등의 9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4개의 사찰만 복원되어 있어서 호국불교의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한산성공원내에는 국가 지정사적지 1개소,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7개소, 문화재 자료 2개소, 기념물 2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역사적 가치는 외세침입에 맞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정기를 일깨우는 상징물이었다는데 있다. 남한산성은 조선조에 있어서는 북한산성과 더불어 수도 한양을 지켜온 국가방위의 핵심도량이었다. 따라서 관서급 수어사가 관리하는 남한산성은 수도권 방어의 중심축으로 발전한 산성도시였다. 270년간 조선왕조의 마지막 보루로서 숭도청을 두어 1894년까지 유지하면서 국가가 관리하였다. 최근까지만해도 남한산성을 관할하는 광주군수는 내직과 다름없이 중요시 되어 왔으며 영전하는 자리로 인기가 있었음은 이곳의 이러한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

2. 문화자원으로서 의의와 활용방안

남한산성은 높이가 400~450미터의 고원지대로서 수도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송림과 기암괴석 등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언덕과 골짜기로 형성된 천험의 요새로써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지목되고 활용되어 왔다.

남한산성은 천연적인 자연환경과 더불어 백제의 온왕청을 위시하여 수어장대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었다. 본격적인 남한산성의 축성이래 270년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문화재들이 국가의 특별 관리로 잘 보존되어 오다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산성의 승변제도를 폐지 하면서 70년간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문화재들이 파손되어 갔다. 더우기 일제는 1907년 8월 1일 조선인의 화약과 무기를 수거하면서 남한산성의 많은 문화유적들을 화약의 잿속에 묻어 버리고 말았다. 더 나아가 남한산성은 치욕적인 땅이요, 패배의 땅이라는 자괴감에 젖게 하였다. 그러므로 식민지의 사관을 철저히 심어 놓았다.

이제 우리는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을 불식시키고 남한산성을 무대로 전개

된 역사의 경험과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남한산성을 옛조상들의 생활풍속과 나라 사람의 정신을 관찰, 탐구할 수 있는 국민 교육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민족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한산의 자연적 특징은 그 명칭에서 잘 드러나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 낮이 짧게 마련인데, 남한산은 산은 높으나 골이 깊지 않으므로 낮이 길다 하여 일장산(日長山) 또는 주장산(晝長山)이라 불렀다.

인조 2년(1624)에 당시 수어사 이서(李瑞)가 책임을 지고, 축성의 공사 책임은 판선교도총섭(判線敎都摠攝)으로 봉은사의 벽암 각성선사를 조선 8도 도총섭으로 임명하여 8도의 승군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 1626년에 현재의 남한산성의 석성의 모습을 완성하니 2년 5개월의 대역사였다. 이때의 석성의 전 둘레가 6,277보(步)이고 성가퀴가 1,700척(杼)이며, 사방에 성문을 만들고 16개의 비밀문(駘門)이 있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관아(官衙)와 행궁(行宮)이 있었다. 그리고 동, 서, 남, 북에 4개의 장대(將臺)가 있었고, 전부터 있던 망월사와 옥정사 외에 7개의 사찰을 새로 지어 4장대의 좌, 우에 배치 하였고 개원사에 승도청(僧徒廳)을 두어 승군을 총괄하였다. 그 외에도 용성(壘城) 성곽(城廓) 우물, 샘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남한산성 안의 시설물의 확장은 인조때부터 순조때까지 계속되었다.

임금이 거처할 행궁은 상월이 73칸(間) 반, 하월이 154칸이었다. 숙종 14년(1688)에 재덕당(在德堂)을,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宗廟)를 봉안하기 위하여 좌전(左殿)을 세우고, 남문 안에는 사직을 모실 우실(右室)을 세웠다. 정조 22년(1798)에는 행궁(行宮) 바깥 삼문(三門)의 상부(上樓)인 남한루(南漢樓)를 세웠다. 객관(客館)인 인화관(人和館)은 인조 2년(1624)에 세운 것인데 순조 29년(1829)에 수리되었다.

이상은 궁실(宮室)에 따른 시설들이고, 관아 건물로는 좌승당(坐勝堂)·일장각(日長閣)·수어청(守御廳)·제승헌(制勝軒)을 비롯하여 군사 기관으로는 비장청(裨將廳)·교련관청(敎鍊官廳)·기패관청(旗牌官廳) 등을 위시한 20여개의 건물과 종각(鐘閣)·마랑(馬廐)·낙옥(牢獄·감옥), 성황당(城隍堂)·여단(礪壇) 등이 들어섰다.

이 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청(總戎廳)에서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자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전·좌·중·우·후(前左中右後)의 5명(營)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前營將)은 남장대에, 중영장은 북장대에, 후영장과 좌영장은 동장대에, 우영장은 서장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남문을 지화문(至和門), 동

문을 좌익문(左翼門), 북문을 전승문(全勝門), 서문을 우익문(右翼門)이라 하였다.

남한산성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인 수어장대, 제2호인 숭열전, 제3호인 청량당, 제4호인 현절사, 제5호인 침례정, 제6호인 연무관이 있고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호인 지수당, 제15호인 장정사가 있고,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인 망월사지와 제119호인 개원사지가 있다. 그리고 영월정, 영춘정,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장경사, 국청사, 개원사, 망월사 등과 보(堡), 누(臺), 돈대(墩臺)등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가꾸어 온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민속자료적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다. 하남시 학암계곡에서 남한산성 서측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괴암과 함께 각종 고사와 기도를 드리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돌리는 바로는 남한산성 일대는 우리의 전래 토속신앙의 영산(靈山)으로 神氣가 다한 무당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여 영험을 보충한다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일대의 주민들은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달해 일제가 온갖 생활용기를 수탈하여 병기제조에 박차를 가할 때에도 땅에 묻거나 은밀한 곳에 감추어 일제가 버릴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켰다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경기 동 전통 농기구나 생활용기가 제곡 사이 사이에 산재해 있는 전통가옥에서 많이 발견된다.

원래 남한산성에는 9개의 물방아가 있었고 곳곳에 연자방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곳이 첨단으로 치달는 한반도 중앙이면서도 우리의 끈끈한 민속이 그대로 숨쉬는 박물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은 현재까지 간직한 문화재 보다 잃어버린 문화재를 더 많이 간추고 있다. 민족의 정기와 민족의식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산성 내에서 사라진 문화재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정학적 의의와 활용방안

남한산성은 수도 서울을 조망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동남방을 돈우고 있으며 산성의 水口 또한 동남방으로 나있어 적의 관심을 유인하여 국가의 중심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형을 하고 있다. 대체로 정재의 기운기가 완만하여 외적과 대치하여 서도 내부의 물자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동,서의 고지와 남쪽의 고지가 균형을 이루어 방어에 이롭고, 내부의 분지로 인해 거주에 적합하

다. 비록 반도의 서부에 기울어 있으나 수도권 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가변영의 '무계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地勢이 온후하여 수목이 번창하고 있다. "한강을 차지하면 반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남한산성은 한강을 굽어보기에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 한반도의 심장부를 수비하는데 큰 지리공간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계다가 남한산성내의 생태계는 우리나라 중부일대의 일반적인 분포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족제비, 다람쥐, 청설모와 손갓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몇백년 자란 적송(赤松)과 약 300년생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산재하고 있으며 계곡을 따라 단풍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불당리 계곡의 휴경지인 계단식 논에는 도룡뇽등이 서식하고 있는 등 아직도 청정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양서류, 어류, 곤충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변이 온통 도시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에서 남한산성만큼 우리의 토속적인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특히 산성에서 수어장대에 이르는 산책로 주변에서는 야생 보리수가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것이 눈에 띈다. 봄에는 반하, 들나물, 씀바귀, 동의나물(미나리아재비과), 고들빼기, 뽕딸기, 노랑붓꽃, 꿩이밥, 민들레, 천남성, 머위는 물론 등갈퀴나물, 타래붓꽃, 영초, 각시붓꽃, 꿀풀 등 우리의 봄꽃들이 반말하고 여름에는 왜천궁, 전호, 흰바위취, 까치수염, 흰바늘영결취, 눈개승마, 원주리, 패랭이꽃 등이 흔히 눈에 띈다.

이러한 지리적 자연환경은 오늘날에 있어서 수도 서울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고, 주변의 성남, 하남, 광주를 연결하는 지리공간상의 중심에 있어 많은 수도권 주민들의 발길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위치와 현재적 위치를 잘 조화시켜 남한산성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관광자원으로서의 의의와 활용방안

유구한 역사적 배경과 민족·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남한산성은 그 유래와 변천과정을 올바르게 탐구하여 그 의미를 형상적 자료로 복원할 경우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이자 휴양지로서, 또한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써 기능을 심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남한산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모색할 것인가를 논함에 있어 소진광 교수의 발표문 가운데 일부를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세계화의 기준점으로 남한산성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세계화란 약자에게 있어 경쟁원리보다도 더 냉혹한 약육강식의 자연생태계 생존원리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기계문명, 정보화 사회의 대세는 세계화를 거부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란 이와같이 강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자기를 잃고 남과의 공동분모만을 내세워야 하는 '물개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내세울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몇 안되는 강한 민족임에 틀림없다.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 추세에서 약자는 남의 것을 흡수하기 위해 자기것을 버려야만 한다. 강자라면 자기것을 약자에게 강요하여 약자를 흡수해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것'을 분명히 할 수 없는 민족은 강자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은 강자인가? 약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는 진정 우리 것을 알고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 답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산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계보를 찾아내어 이를 특색화시킨으로써 문화과광지로서의 특징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한산성의 문화와 역사적 뿌리는 일찍이 백제시대로 거슬러가서 찾아야 한다.

위례성의 앞산으로 기능했던 남한산성과 공주, 부여를 잇는 백제 천도의 흔적이 이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현재까지도 모든 권력 배분 방식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성을 이어주는 기준점으로 기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진정 이시대 한반도의 권력 구조를 설명할 때 삼국시대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남한산성이 간직한 역사적 가치는 우리의 '기준점'이고 한민족의 '무계중심'이며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갈 때 잃지 말아야 할 '과표'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의 역사성은 제대로 평가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충분한 고증을 거쳐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재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현재 광주군에서 추진중인 남한산성 제모습찾기 사업은 국가적 대사업이다. 그런 만큼 다방면으로의 충분한 조사, 발굴, 고증을 거쳐 '한반도 통일'의 '기준점', '세계화의 과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表象을 세워야 한다.

둘째로는 백제권 개발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백제권은 여전히 국가적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굳이 백제권을 공주, 부여로 한정하여 설정하려는 정치권의 논리저변에는 위례성의 한강주변과 앞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현재의 권력구도하에서 공간적으로 분리하고픈 심경이 깔려있는 것 같다. 그것은 곧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이후 남한의 정통성을 신라문화로부터 찾으려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도 하남 위례성과 남한산성을 시발로 해서 뒤어져야 되고, 백제문화의 공간화 작업도 '남한산성 - 공주 - 부여'를 축으로하여 재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송열전 앞마당에서 백제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재화되어야 하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역사축을 바로세워야 한다.

'남한산성 - 공주 - 부여'의 역사축에 대한 인식은 과거 우리가 일본문화를 성숙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상기시키는 일이며 미래 대일본관계 설정에 필요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서울의 송파구와 공주시, 부여군은 한반도 미래상을 정립키 위한 공동의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과 같은 지역할거주의는 신라문화의 과대평가와 백제문화의 과소평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에 한반도 미래상을 정립키 위한 새로운 역사축으로 '서울(남한산성) - 공주 - 부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백제권 개발사업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민족자존의 도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격동의 세계화 추세속에서 스스로 자기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자기중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좌표'를 확보하는 일이다. 자기중심을 확인하고 좌표를 확보하는 작업은 투철한 역사관을 필요로 한다. 역사란 사건이 있어야 하고 사건은 가시적이어야 가장 잘 표현된다. 지나온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남한산성이 간직하고 있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 민족의 흔적이며, 뿌리 인식이 없다면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뿌리인식이 없으면 곧 기생이다.) 반만년 시간을 한반도에서 보낸 우리민족에게 남한산성만큼 역사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공간유산은 흔치 않다.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와류에 휩쓸려 존재가치를 상실하고자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기중심'과 '좌표'를 보여줄 도장이 필요하다. 이의 적지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고구려 문화

의 거점(평양, 즉 북한)과 신라문화의 거점(영남, 즉 남한)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남한산성이라고 논자는 믿는다.

이러한 민족자존의 도장을 건립키 위해 산성리 일대를 정화하여 역사공간을 재현하고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산성 일대의 취약지역을 재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성리 성곽안에 있는 음식점등 점포와 주택은 불당리, 오전리 일대로 재배치하고 산성리 일대를 성역화하고 도장을 건립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민족정기를 깨닫게하여 자기를 잃고 세계시민으로 휩쓸려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는 최악의 경우를 경제적 힘이 이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다.

넷째, 전통가치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엔 전통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미래의 모습을 상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일대에는 우리의 토속적인 것과 우리의 삶 주변에서 같이 살아오고 변화를 함께 겪었던 갖가지 동, 식물 그리고 우리선조를 삶의 방식인 민속이 그대로 숨쉬고 있다.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그간 온갖 시련에도 버텨온 우리것이 더 이상 변질되거나 없어지기 전에 채집 모아져서 후세의 미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산성의 성곽 밖 공원내 (불당리나 오전리 일대)에 우리의 토속을 모아 민속관을 세우고 우리의 토종만을 모아 기를 수 있는 동, 식물원을 건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表象들은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기준점을 미래세대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V. 결 론

남한산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학술회의를 통해 연구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낀 점은 남한산성을 우리의 뿌리깊은 역사를 간직한 살아있는 기록으로서, 또한 많은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의 보고로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온 민족정신의 도량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하겠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총전의 혼이 잠들어 있고, 진흥보국하는 나라사랑의 땅 남한산성에서 우리는 역사의 진한 향기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남한산성은 많은 도시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있

는가?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반성하면서 역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길이 삼학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길이요, 호국 승군들의 의지를 따르는 길이라 생각된다.

먼저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이 남한산성이야말로 역사의 땅이라는 자각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잊혀진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여기서부터 새로운 우리의 전통을 확인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자. 그리고 역사가 있는 땅, 문화가 있는 땅으로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세대의 장소요, 국난 극복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 저기에 옛 산성의 모습을 확인시키는 문화 유적 표시판을 세워 누구나 쉽게 여기가 역사의 땅이란 사실을 쉽게 인식시키는 작업도 하여야 한다. 수도권에 많은 도시민이 찾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숲림이 울창한 자연 공간으로 남한산성은 우리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장이며, 휴식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많은 위성도시들이 산업화, 공업화로 치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숲림이 울창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으며, 고원지대 약 400미터의 분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을 최대한 살려 역사와 문화가 있고,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시민의 자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숨쉬는 자연 교육장의 전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며,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땅이 남한산성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남한산성하면 치욕의 땅, 패전의 땅이라고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없이 불렀다. 이 모든 사실은 일제가 우리에게 물려준 식민지 사관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서 말이다. 적어도 조선왕조 시대에는 역대 임금들이 들려 그 때 그일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던 산성이었기에 수어장대의 내부 편액을 무당루(無忘樓)라 이름 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시 천불장병 위령제를 올리며 나라사랑의 높은 뜻을 되새긴 장소였다. 식민지 사관을 벗어나는 우리들의 진지한 노력이 남한산성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땅을 치욕의 땅, 패전의 땅이란 역사를 오도하는 식민지 사관에서 탈피하자. 그리고 병자호란만을 강조하는 산성의 역사를, 백제의 성산과 한반도의 중추적 허리에 해당하는 역사의 땅으로, 그리고 도시민의 역사, 문화, 자연학습의 장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역사의 땅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남한산성의 문화지도를 만들어 이 땅을 찾는 도시민에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 이후 성남지역출신 이영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남한산성 내에서 사라진 문화재를 복원하고 성곽을 복원 보존하면서, 민족교육의 장으로서,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의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학술회의가 가져온 커다란 영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복원과 보존책을 통한 남한산성의 가치재창출을 기대하는 것이다.

南漢山城 百濟 始祖 溫祚王廟의 建立過程

* 장 철 수

<차	> 차례
I. 서 론 II. 고려시대 이후의 역대 시조에 대한 관심 III. 櫻山縣의 백제 시조묘	1. 건립과정 2. 『國朝五禮儀』의 「歷代始祖享」 IV. 南漢山城 백제 시조묘의 건립과정 V. 결 론

I. 서 론

南漢山城 안에 있는 崇烈殿은 백제의 시조인 溫祚王의 신주를 主享으로 모시고, 조선시대의 장군인 李穡의 신주를 배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숭렬전은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광주군청이 관리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그것은 숭렬전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廣州郡校의 임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한번씩 음력 9월 5일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이것은 숭렬전의 제사가 儒林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또는 유림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은 숭렬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숭렬전의 제사는 광주지방 유림집단의 유교행사로써, 광주 군민적인 차원에서조차도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당은 숭렬전이 아니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숭렬전이란 명칭으로 불리어지기 시작한 것은 문헌에 따르면 1735년(乙卯, 정조 19)의 關額에 의한 것이었다. 그 전에는, 여러 문헌 기록에 의하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학 교수

온조왕의 사당은 '百濟 始祖廟¹⁾' '百濟 始祖 溫祚王祠堂²⁾' '溫祚王廟³⁾' '溫王廟⁴⁾' '溫祚廟⁵⁾' '百濟 溫王廟⁶⁾' '南漢廟⁷⁾' '溫祚殿⁸⁾' 등으로 시대마다, 문헌마다 각각 다르게 불리어졌으나, 조선 성종대(1489-1494)에 편찬한 국가 전례서인 『國朝五禮儀』에 中祀로 기재되어 국가 차원의 제사가 거행되던 곳이었다. 그러던 곳이 지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주지역의 유림집단의 행사장소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숭렬전으로 사역되기 전까지 온조왕묘의 건립과정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온조왕묘가 남한산성 안에 건립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숭렬전에 모셔진 온조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고려시대 이후의 역대 시조에 대한 관심⁹⁾

어느 나라의 시조왕이든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백제 시조로서의 온조왕에 대한 관심은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백제를 건국한 시조왕으로서, 그의 후손들인 지배집단으로부터의 관심이며, 둘째는 백제라는 하나의 나라를 건국한 시조로서, 백제가 멸망한 뒤에 나타난 후대 왕조들의 지배집단으로부터의 관심이 이것이다. 첫번째 종류의 관심은 백제라는 왕조의 존속과 시조왕으로서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목적과 함께 백제의 권력집단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목적

1) 『世宗實錄』 11년 기사, 본문 인용자료 가-2 참조.

2) 『世宗實錄』 「지리지」, 본문 인용자료 가-5 참조.

3) 『新增東國輿地勝覽』 직산현, 본문 주 14) 참조.

4) 『增補文獻備考』 예지, 본문 각주 19) 참조.

5) 『忠清道邑誌』, 본문 인용자료 라-2 참조.

6) 『增補文獻備考』, 본문 인용자료 마-9 참조.

7) 『增補文獻備考』, 본문 인용자료 마-9 참조.

8) 『宣祖實錄』 36년 기사, 본문 인용자료 나-3 참조.

9) 특히 조선 초기 역대 시조에 대한 사전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주목된다.

韓永恩, 1983, 「朝鮮前期의 國家觀·民族觀」, 『朝鮮前期 社會思想研究』, 知蓮産業社, 20~39쪽 참조.

金海榮, 1993, 「朝鮮初期 祀典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14~124쪽 참조.

을 갖는다고 한다면, 두번째 종류의 관심은 그 후손들이나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지배체제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후대의 정치권력이나 집단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두번째의 관심은 한반도 안에서의 권력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2종류의 관심은 공통적으로 지배권력의 정통성의 확립이라는 성격을 갖는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의 지배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이면서 다른 성씨에 의한 지배체제와 함께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점을 보인다.

우선 첫번째의 문제인 백제 스스로의 시조에 관한 관심은 문헌기록에 따라 각각 다르게 4명으로 등장하는 백제의 시조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¹⁰⁾과 연관되어 시조묘와 그 제사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하며, 본 논문에서는 두번째의 문제, 즉 후대 왕조에 서의 온조왕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663년 백제가 멸망한 다음, 최초로 백제의 왕릉과 묘에 대해서 언급한 문헌자료는 『高麗史』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顯宗 八年……十二月……是月敕 高句麗新羅百濟王陵廟 並令所在州縣修治 禁樵採
過者下馬 (『高麗史』卷4, 「顯宗世家」1, 顯宗 8年 丁巳 12月條)

이 기록으로 보아, 1017년(丁巳, 顯宗 8)에 고구려·신라·백제의 왕릉과 묘가 있는 주현에 명을 내려 수리하고, 나무하는 것과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663년에 백제가 멸망한 뒤 354년 뒤에 나타나는 기록으로서,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각국의 시조의 왕릉과 사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알 수 없으나, 최소한 11세기 초까지는 위의 기록과 같이, 왕릉과 그 사당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과거의 지배집단의 왕릉과 사당이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보다 완벽하게 보존하려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당시 고려의 영토로 보아, 이 기록에 관계되는 주현들은 평양·한성·공주·부여·경주 등과 같은 과거 삼국시대의 수도지역이었을 것이다.

10) 국사편찬위원회, 1987, 『중국정사조선전 역주』1, 542~543쪽 참조.

11)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83~194쪽 참조.

왜냐하면 왕릉의 분포지역으로 보아, 시조의 왕릉과 사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왕릉은 주로 수도의 주변지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으로 역대의 시조묘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454년에 완성된 『世宗實錄』의 祀典으로 밝혀지고 있다. 『世宗實錄』卷128, 「五禮」古禮 序禮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발견된다.

無祀 中祀 風雲雷雨 嶽海瀆 先農 先蠶 雩祀 朝鮮檀君 後朝鮮箕子 高麗始祖 時日
仲春仲秋 享朝鮮檀君 後朝鮮始祖箕子 高麗始祖

이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 역대 시조에 대한 제사는 조선 단군·후조선 기자·고려 태조의 3위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은 조선시대 최초의 사전으로서, 국가의 의례를 5종류, 즉 古禮·凶禮·賓禮·軍禮·嘉禮로 나누고, 그 가운데에서 길례를 또다시 3종류, 즉 大祀·中祀·小祀로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檀君·箕子·高麗太祖에 대한 제사를 중사에 소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문제는 고려의 11세기 초만해도 고구려·신라·백제의 왕릉과 사당이 보존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 관심의 범위가 단군·기자·고려 태조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箕子廟는 이미 고려 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卷17, 「禮志」5, 雜祀, 肅宗 7年 10月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이고 있다.

禮部奏 我國教化禮義 自箕子始 而不載祀典 乞求其墳塋 立祠以祭 從之

이 기록에 의하면 이미 1102년(壬午, 肅宗 7)에 기자의墳塋과 祠堂이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0여년이 지난 충숙왕대의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高麗史』卷35, 「忠肅王世家」2, 忠肅王 12年 10月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乙未敕曰……國內名山大川 載祀典者 各加抱號 修其祠宇 置丘藉田社稷壇國佛宇道觀 修營以祭 先代陵廟 宜禁樵牧 毋令踐蹂 箕子始封 本國禮樂教化 自此而行 宜令平壤府 立祠以祭……12)

이 내용에 의하면, 기자의 사당은 1102년에 이미 건립되었으나, 풍고의 침입 등으로 중간에 폐지되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1315년(乙卯, 忠肅王 2)에 왕명에 의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禮樂과 敎化를 끼친 공로로 평양에 사당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그 후 37년이 지난 1352년(恭愍王 1)의 기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¹²⁾

그러나 위의 『世宗實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 들어서 기자는, 고려와는 달리 역학과 교화의 공로가 아니라, 朝鮮始祖인 檀君과 함께 '後朝鮮'의 시조로 인식되고 있다. 아마도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기자를 후조선의 시조로 인식함으로써, 조선시대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함께 그 지배이념의 정통성을 아울러 계승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고려의 태조는 바로 조선의 직전 왕조의 시조로서, 그 수도였던 개성의 백성들과 함께 그 신하들의 후손들을 위로하고 권력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III. 稷山縣의 백제 시조묘

1. 건립과정

문헌 기록에 의하면, 백제 시조의 사당은 처음에 1427년(丁未, 世宗 9)에 충청도 직산현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世宗實錄』에서 관제되는 기록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가-1. 傳旨禮曹曰 檀君箕子創制更議 新羅高句麗百濟始祖 立廟致祭 并考古制 詳定以聞 (『世宗實錄』卷37 世宗 9年 丁未 8月條)

12) 같은 내용이 『高麗史』 63 「지 권제17」에 5)에 기록되어 있다. “忠肅王十二年十月令平壤府立箕子祠以祭”

13) 『高麗史』 「세가 권제36」 공민왕 1, 공민왕 원년 2월 병자일, “箕子受封於此敎化禮樂 遠澤至今宜令平壤府修祠奉祀……”라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지 권제17」에 5)에는 “恭愍王五年六月令平壤府修營箕子祠宇以時致祭”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시기가 4년 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2. 壬子 戶曹據忠清道監司關啓 今承下敕 百濟始祖廟宇已於稷山縣營構 請依平壤府箕子殿例 定本官奴婢各二人守之 從之 (『世宗實錄』卷44 世宗 11年 己酉 5月條)

가-3. 禮曹啓 新羅句高麗百濟始祖 今已立廟 請載祀典致祭 從之 (『世宗實錄』卷45 世宗 11年 己酉 7月 戊申條)

가-4. 乙亥 戶曹啓 忠清道百濟始祖 慶尙道新羅始祖 平安道句高麗始祖祭田 請各結二結 從之 (『世宗實錄』卷51 世宗 13年 辛亥 正月條)

가-5. 百濟始祖園社主祠蒙 在縣東北關五里 今上十一年己酉七月始立廟 春秋傳香祝致祭 (『世宗實錄』『地理志』1 稷山縣條)

이러한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1427년(丁未, 世宗 9) 8월에 왕이 예조에 명을 하여 단군묘와 기자묘의 제도를 다시 의논하고, 신라·고구려·백제의 시조묘를 세워서 제사를 올리도록 몇 제도를 자세히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릴 수 없지만, 왜 조선시대 초기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삼국의 시조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이때에 제기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삼국시대의 중심지역이 경상도·평안도·충청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혹시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둘째, 1429년(己酉, 世宗 11) 5월에 忠淸監使는 왕의 하교에 따라 백제의 시조묘를 직산에 건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關啓를 올렸다. 셋째, 1429년(己酉, 世宗 11) 5월 호조에서는 평양의 기자전의 예에 따라 본관 노비 2명으로 각각 지키도록 품계하여 허락을 받았다. 넷째, 1429년(己酉, 世宗 11) 7월 예조에서는 신라·고구려·백제의 시조묘가 건립되었으니, 사전에 올려 치제할 것을 품계하여 허락을 받았다. 다섯째, 1431년(辛亥, 世宗 13) 호조에서 백제·신라·고구려 시조묘의 제전을 각각 2결씩 내려주기를 품계하여 허락을 받았다. 여섯째, 백제 시조 온조왕묘는 직산현 동북의 사이 5리에 건립하였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연대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27년(정미, 世宗 9) 8월 신라·고구려·백제의 시조묘를 세워 제사를 올리도

목 연구할 것을 명령

1429년(기유, 世宗 11) 5월 충청감사가 직산현에 백제의 시조묘를 건립하였음을 보고함.

1429년(기유, 世宗 11) 5월 호조에서 본관 노비 2명을 시조묘에 배치

1429년(기유, 世宗 11) 7월 예조에서 시조묘향을 사전에 등재

1431년(신해, 世宗 13) 호조에서 시조묘의 제전을 각각 2결씩 결정

이러한 정으로 보아 '가-5'의 "숙上十一年己酉七月始立"이라는 『世宗實錄』 「地理志」의 기록은 5월의 착오이며, 7월은 역대 시조묘의 제향을 사전의 중사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달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온조왕묘를 1465년(을유, 世祖 11)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한 『新增東國輿地勝覽』 직산현 「사묘」조의 내용¹⁴⁾, 『東國輿地志』 직산현 「사묘」조의 내용¹⁵⁾ 『春官通考』의 내용¹⁶⁾, 『棟梁室記述』의 내용¹⁷⁾, 『大東地志』의 내용¹⁸⁾, 그리고 『增補文獻備考』의 내용¹⁹⁾도 모두 世宗 11년의 착오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모든 기록들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잘못된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직산현의 온조왕묘가 건립된 뒤에 나타나는 이에 대한 문헌기록을 년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1. 議政府兼禮曹呈 啓 忠清道稷山 百濟始祖廟 年久頽圯 請令所在稷山及各官同力修葺 從之 (『文宗實錄』 文宗 1年 9月 16日條)

14) 1530년에 완성된 『新增東國輿地勝覽』 직산현 사묘조에는 "溫祚王廟 在縣東北三里 我世祖十一年始立 春秋降香祝致祭"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15) 廟宗代(1660~1674)에 편찬된 『東國輿地志』 직산현 사묘조에는 "溫祚王廟 在縣東北三里 我世祖十一年始立春秋降香祝致祭"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16) 柳義興(1718~?)편저 『春官通考』 卷44 「古禮」 溫祚王廟條에 "溫祚王廟 又在忠清道 稷山縣東北 世祖十一年始建 春秋降香祝致祭"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17) 李青歌(1736~1806) 『棟梁室記述 別集』 卷4 「紀典典故」 諸祠條에 "稷山舊廟 世祖十一年始建春秋降香祝致祭"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18) 김정호 편, 『大東地志』 廟殿條에 "崇烈殿 在城內 世祖十年 建溫王廟于稷山縣 仁祖十六年移建于此 正宗十九年改闢今號"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19) 1908 『增補文獻備考』 卷64 「禮考」 11 禮 崇烈殿條에 "溫王廟 舊在忠清道 稷山縣東北 世祖十年 始建春秋降香祝致祭"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나-2. 忠淸監司柳根 請修建百濟始祖溫祚墓(廟?)²⁰⁾於稷山地 上從之 (『宣祖實錄』宣祖 36年 6月 1日條)

나-3. 忠淸監司柳根啓曰 百濟始祖溫祚廟在稷山 經變之後 物力雖甚富竭 修舉廢墜之典 在所當講 請令禮官定奪施行 禮曹仍啓曰 歷代始祖廟宇 春秋中月中祀設行 載在祀典 亂後凡百祭祀 多未遑舉 而崇義殿筑子殿三聖祠 則頃年已爲修改 今方春秋降香祝設祭 道內稷山地溫祚殿 依狀啓 自本道隨便修造 啓聞後處置 事行移例如 傳曰允 (『宣祖實錄』宣祖 36年 6月 壬寅條)

이 기록들로 보면, 백제의 시조묘는 1451년(辛未, 文宗 1)에 수습한 것으로 보이며, 그후 1603년(癸卯, 宣祖 36) 충청감사 유근이 다시 수건하기를 청할 때까지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1429년(己酉, 世宗 11)에 건립한 것이 퇴락하여 1451년(辛未, 文宗 1)에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20~30년만에 한 번씩은 수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나-3'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1602년(壬寅, 宣祖 36)에 이르러 퇴락하여 충청도 자력으로 개수하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직산의 온조전이 퇴락한 것은 문헌기록에 의하면 1597년(丁酉, 宣祖 30) 정유재란 때 왜구에 의해 불에 타 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후세의 문헌기록에 보다 자세히 나타나는데, 그 기록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1. 溫祚王廟 又在忠淸道 稷山縣東北 世祖十一年特建 春秋降香祝設祭 宣祖三十年 爲倭寇所焚仍廢 三十六年 忠淸監司柳根 請修建百濟始祖溫祚廟於稷山地 上從之 (柳義養(1718~?)편저 『春官通考』卷44 「古禮」溫祚王廟條)

다-2. 溫祚王廟舊在忠淸道稷山縣東北今南漢山城 稷山舊廟 世祖十一年特建春秋降香祝設祭 宣祖丁酉 爲倭寇所焚仍廢 癸卯忠淸監司柳根 請修建百濟始祖廟於稷山(本邑誌云壬辰兵燹後仍廢) (李肯翹<1736~1806>『燃藜室記述 別集』卷4 「祀典典故」諸廟條)

20) 전후의 기록으로 보아 廟자는 廟자의 오키일 것으로 보인다.

다-3. 溫王廟 舊在忠清道 稷山縣東北 世祖十年 始特建春秋降香祝致祭 宣祖三十
年爲倭寇所焚仍廢 三十六年 忠清監司柳根 請修建百濟始祖溫祚廟於稷山地
臣謹按柳根之請建溫祚廟於稷山 在於宣祖實盛 而本邑誌云 壬辰兵燹後仍廢
且南漢廟建年月不可攷 豈稷山重建之議 變爲南漢之移建歟 (『增補文獻備考』
卷64 『禮考』11 禮 崇烈殿條)

이 기록들에 의하면 직산의 온조전은 1597년(丁酉, 宣祖 30) 정유재란 때에 소
설되었다가 그 6년 후인 1603년(癸卯, 宣祖 36)에 왕의 재가를 받아 다시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소설 연대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鍊鑒室記述 別集』과 『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邑誌』를 인용하여 임진년에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이 문헌들에서 인용한 『邑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알려진 『邑誌』들에서 이에 관한 기록을 찾아 인용하면, 다음
과 같다.

라-1. 溫祚王廟 在縣東北三里 我世祖十一年始立春秋降香祝致祭 (顯宗代<1660~
1674> 『東國輿地志』²¹⁾ 稷山縣 祀廟條)

라-2. 溫祚廟遺址在龍鞍時中峰 詳見下文古蹟條 古蹟 溫祚廟 在縣東北三里 我世
祖朝十一年始建降香祝致祭 萬曆丁酉爲倭賊所焚 祀體仍廢 (憲宗代<19세기
초> 『忠清道邑誌』²²⁾ 稷山縣 壇廟 및 古蹟條) (이와 같은 내용이 그후에 나
온 지리지들로 보이는 『湖西邑誌』²³⁾ 『邑誌』²⁴⁾ 『輿地圖書』에도 그대로 기
록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첫째 온조왕묘는 현종대(1660~1674)까지만 해도 직산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온조왕묘는 1597년(정유, 선조 30)에 왜적에
의해 불살라졌으며, 셋째 온조묘가 불에 타버린 후에 사진이 폐지된 것으로 나

21)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3. 『全國地理誌』3.

22)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4. 『邑誌』7.

23)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4. 『邑誌』8.

24)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4. 『邑誌』9.

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몇 가지 점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첫 번째 현종대에 아직도 직산에 온조왕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착오가 아니면, 옛 읍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음의 글에서 확인되듯이, 현종대에는 이미 남한산성에 온조왕묘가 건립된 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같은 문헌인 『東國輿地志』廣州府의 祀廟條에 이미 온조왕사가 기재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經注에 “성안 천주사 내에 있으며 온조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인조때에 건립하였으며, 수어사 이서가 성을 개축하는 일을 맡아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배향하고 있다”²⁵⁾는 내용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조왕묘가 소실된 시기는 1597년(丁酉, 宣祖 30)인 것으로, 『續鑿室記述 別集』과 『增補文獻備考』에서 인용하고 있는 『邑誌』의 내용 가운데서 임진년에 소실되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임진왜란이나 경유재판 때문에 발생한 역대시조묘의 소실은 이외에도 마전와 송의전이나 평양의 기자전, 문화의 삼성사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당들은 이미 修改가 이루어져 春秋로 中祀가 設行되고 있었던 반면에, 직산의 온조전은 아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1603년(癸卯, 宣祖 36)에 충청감사가 그 改修를 위한 장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따라 온조왕묘에 대한 제사는 修改가 끝난 뒤부터 仁祖代(1623~1649)에 南漢山城으로 옮기기 전까지 직산에서 中祀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설명 가운데 세 번째의 내용, 즉 온조묘가 불에 타버린 후에 사전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기록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직산현과 남한산성 온조왕묘 제사의 연속성에 관한 것으로서, 단일 읍지의 기록대로 사전이 폐지되었다면 國家 祀典의 변경이라는 새로운 문제와 함께 남한산성 온조왕묘는 새로운 창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읍지의 기록을 비롯하여 일부 문헌의 기록은 그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의 폐지와 남한산성 온조왕묘의 건립을 창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增補文獻備考』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목된다.

溫王廟 舊在忠清道 穩山縣東北 世祖十年 始時建春秋降香祝致祭 宣祖三十年爲倭

25) “在城中天柱寺內祀溫王仁祖時建以守禦使李暉掌改築城有勞配享”

寇 所焚仍廢 三十六年 忠清監司柳根 請修建百濟始祖溫祚廟於稷山地 臣謹按柳根之請建溫祚廟於稷山 在於宜鉅寶鑑 而本邑誌云 壬辰兵燹後仍廢 且南漢廟創建年月不可攷 豈稷山重建之議 變為南漢之移建歟 (『增補文獻備考』 卷64 『禮考』 11 禮 崇烈殿條)

이 내용으로 보아, 일부에서는 임진왜란에 불타 폐지되었다는 읍지의 기록과 함께 남한산성에 온조왕묘가 창건된 년월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직산에 온조왕묘를 중건하자는 의논이 변하여 남한산에 이 건한 것이라는 견해나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일부의 의견은 사전이 한 때나마 폐지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增補文獻備考』의 편찬자는 물론 남한산성에 이 건될 때까지 사전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사전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근거로는 다음 3개의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603년(癸卯, 宣祖 36)에 충청감사의 온조묘 改修 요청에 왕이 따른 것으로 『春官通考』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仁祖代까지 직산에 온조왕묘가 있었다는 증거는 다음 '남한산성의 벽제의 시조묘 건립과정'에서 자세히 언급되었지만, 1636년(병자, 인조 14년)에 임금이 병자호란을 피하여 남한산성에 피난하여 머무름 때에 禮曹判書 金尙憲을 '과건'하여 온조왕묘에 치제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몇 개의 문헌 기록에서 분명히 남한산성 온조왕묘의 건립을 '移建'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2. 『國朝五禮儀』의 『歷代始祖享』

그러나 단군과 기자, 그리고 고려의 시조에 대한 제향만이 나타나고 있는 『世宗實錄』의 내용은 그보다 23년 뒤인 1474년에 이루어진 『國朝五禮儀』에서는 "歷代始祖享"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國朝五禮儀』 卷1 「吉禮」 序禮 判祀에 나타나 있는 기록 가운데에서 벽제 시조에 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中祀 風雲雷雨 歲時廣濟 先農 先賢 尊祀 文宣王 歷代始祖

36) 본문 인용자료 마-11과 마-12 참조. 그러나 『增補文獻備考』와 같은 문헌에서는 '始建'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어, 직산현과 남한산성의 온조왕묘제향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時日 凡祀無常日者並卜日……仲春仲秋……享歷代始祖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 시조의 제향은 1429년(己酉, 世宗 11)에 완공되어 祀典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世宗實錄』 「오례」에는 수록되지 못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國朝五禮儀』에 비로소 기재된 것이라고 하겠다.

IV. 南漢山城 백제 시조묘의 건립과정

남한산성에 있는 백제의 시조묘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 후기에 저술된 관계 문헌에서는 거의 모두 발견되고 있다. 우선 이들 기록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1. 定章府院君 李曙卒于軍中……命贈領議政 特立追尊王廟 以昭配享焉 (『仁祖實錄』 卷34 仁祖 15年 丁丑 正月 2日條)

마-2. 溫王廟(仁祖 戊寅建 二月自宮行祀)

百濟始祖(姓高氏諱溫祚高句麗王朱蒙次子漢成帝癸卯即位光武戊子薨在位四十六年傳三十世六百七十六年而亡本府即王之舊都)

本朝李曙(仁祖丙寅建築南漢見廟庭) (李萬運<1723-1797> 『咀豆錄』 京畿道 廣州條)

마-3. 百濟 溫王廟 在南漢山城(定章府院君 李曙 以丙子前 締治南漢城池之功 配享)

原儀 祀典 中祀 仲春仲秋卜日享

祝式敕昭告于百濟始祖伏以克創厥業克傳厥祚享祀不忒庶其款願(頌辭結辭與崇靈殿同)

肅官 饌品 幣(並與崇靈殿同)

溫王廟 又在忠清道 驪山縣東北 世祖十一年特建 春秋降香祝致祭 宣祖三十年 爲倭寇所焚仍建三十六年 忠清監司柳拱 請修建百濟始祖溫王廟於驪山地 上從之

宣祖三十六年 癸卯 忠清監司柳聖 請修建百濟始祖溫祚廟於樓山地 上從之
 仁祖十四年丙子 上在南漢 遣禮曹判書金尚憲祭之 十五年丁丑 正月 日暈兩
 耳 命禮曹判書金尚憲祭溫祚王
 肅宗十四年 戊辰 上展謁寧陵次南漢山城 以山城是溫祚王開特害都 遣官致祭
 (即義實<1718~?>『春宮通考』卷44「古禮」溫祚王廟條)

叶-4. 祝式 維年號幾年歲次某甲某月某朔某日干支朝鮮國王姓諱.....謹以牲幣禮樂
 盛席品式陳明薦尚饗
 齊官 獻官(觀察使若祭所非一分遵守令) 祝(教授) 掌饌者 執事者 執事者 贊
 者 謁者(掌饌者以下以本邑學生充)

饋品 籩十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壇在前魚脯乾菜羹次之第二行棗子在煎菱仁
 炙仁次之第三行鹿脯在前白餅黑餅次之)
 豆十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醯醢青蔬醢醢次之第二行芥菹在前兔醢菊菹次
 之第三行魚醢在前脾折²⁷⁾豚拍次之)
 俎二一在籩前一在豆前(籩前俎實羊肫七體兩胛兩肩兩脊并脊而髀在兩端肩骨次之存
 在中豆前俎實豕腿七體其載如羊)
 薦菹各二在籩豆間薦在左菹在右(薦實以稻粱粱在稻前菹實以黍稷稷在黍前)
 登瓦鬲各三在薦菹後俎前登瓦次之(登瓦實以大羹剛實以和羹加菹滑)
 脾三在薦菹前(各有站)
 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象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山尊二(一實玄酒一實清酒)爲
 三行(第一行犧尊第二行象尊第三行山尊)皆加勺幕在壇上東南隅北向西上(禮儀今儀
 并同)
 幣白華(長一丈八尺用造禮器尺)禮儀(原儀同但長十一尺六寸七分)

饋品 歷代始祖先告事由移還安 左一籩(實以鹿脯) 右一豆(實以鹿醢) 薦菹各一在籩
 豆間薦在左菹在右(薦實以稻粱實以黍) 俎一在薦菹前(實以豕腿) 脾一在俎前(有站)
 象尊二(一實文酒一實清酒) 皆加勺幕在神位之左俱內向右上(禮儀今儀并同也) (『春
 宮通考』卷44「古禮」崇靈殿條)

叶-5. 溫祚王廟 唐在忠清道樓山縣東北 今南漢山城

27) 『國朝五禮儀』에는 脾折으로 나와 있음.

樓山舊廟 世祖十一年特建 春秋降香祝致祭 宣祖丁酉 爲倭寇所焚仍復廟 癸卯忠清監司柳根請修建百濟始祖廟於樓山(本邑誌云壬辰兵燹後仍廢)

仁祖丙子三月 南漢山城 立溫祚廟(文獻備考云南漢廟將建年月不可攷)

丙子 冬 上在南漢 遣禮曹判書金尙憲祭之(李肯翊<1736~1806>『然齋室記述別集』卷4『紀典典故』諸祠條)

叶-6. 溫祚王廟在西門內 仁祖戊寅命立廟紀王 以完魯君李曙配以有功於築城也 每歲春秋卜日之 香祝自禮曹齋來 正宗乙卯 肅宗崇烈宜願日親製文致侑 殿監二人守護二人(洪敬謨『重訂 南漢誌』壇廟條)

叶-7. 仁祖十六年 戊寅……冬 命建百濟始祖溫祚王廟 以守禦使李曙配享(洪敬謨『重訂 南漢誌』城史系)

叶-8. 正祖十九年乙卯……九月 命廣州府百濟始祖廟 稱崇烈殿(洪敬謨『重訂 南漢誌』城史系)

叶-9. 百濟溫王廟 在南漢山城

本朝 仁祖十四年 上在南漢 遣禮曹判書金尙憲祭之

肅宗十四年 上展謁寧陵次南漢山城 遣官致祭

溫王廟 舊在忠清道 樓山縣東北 世祖十年 始特建春秋降香祝致祭 宣祖三十年爲倭寇 所焚仍廢三十六年 忠清監司柳根 請修建百濟始祖溫祚廟於樓山地 臣謹按柳根之請建溫祚廟於樓山 在於宣祖實繼 而本邑誌云 壬辰兵燹後仍廢 且南漢廟特建年月不可攷 豈樓山重建之議 變爲南漢之移建歟

續 正祖十九年 命廣州府 百濟始祖廟 改稱崇烈殿 令守臣致祭(『增補文獻備考』卷64『禮考』11 禮 崇烈殿條)

叶-10. 百濟國……輿地勝覽曰……臣謹按今樓山縣 有地名以厭水因禱呼者 世傳溫王養羊古羊歷之處也 羊古羊歷飲水多則死 故東人號以厭水 有兩名以料者 世傳溫王設食給料之處也 縣東三里有溫王廟 我 世祖九年始立 春秋降香祝致祭 今廢

三國史記……十四年正月遷都(都凡三百七十五年 即今廣州南漢山城 城中天

柱寺 有溫軒祠 我仁祖始建)(『增補 文獻備考』卷14『輿地考』2 歷代國界條)

마-11 崇烈殿 在城內 世祖十年 建溫王廟于樓山縣 仁祖十六年移建于此 正統十九年改揭今號(金正浩『大東地志』廟殿條)

마-12 廣州 崇烈殿 在廣州 仁祖十六年移建 正統乙卯改今號

百濟 始祖王 姓高氏 名溫軒

李曙 字仁叔 全州人 官兵曹判書 完豐府院君 贈領議政 諡忠定公 配仁廟廟

廷 孝寧大君十代孫 (李奎註『東國院字錄』京畿道條)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한산성에 온조왕묘가 있다. 둘째, 남한산성에 있는 온조왕묘에는 완풍부원군 이서가 성을 개축한 공로로 함께 배향되어 있다. 셋째, 완풍군 이서는 1638년(戊寅, 仁祖 16)에 배향됐다. 넷째, 온조왕묘에 대한 제사는 중사에 속한다. 다섯째, 온조왕묘에 대한 제사의 제관·찬품·폐백은 평양의 승렬전과 같다. 여섯째, 역대시조 先告事由 및 移遷安時에는 찬품이 매우 간단하다.(마-4 『春官通考』) 일곱째, 예전에는 온조왕묘가 직산에 있었다. 여덟째, 1636년(丙子, 仁祖 14) 겨울 임금이 남한산성에 제실 때 예조판서 金尙憲을 보내어 온조왕묘에 제사를 지냈다. 아홉째, 1735년(乙卯, 正祖 19)에 백제 시조묘를 승렬전으로 고쳤다.

대체로 위의 내용은 문헌마다 공통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온조왕묘의 제사일과 건립연대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사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종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과 문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월에 관에서 행사한다.(마-2 『組豆錄』)

중춘과 중추에 택일한다.(마-3 『春官通考』)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와 移遷安 때에 고유제를 올린다.(마-4 『春官通考』)

앞의 2개는 정기적인 제향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뒤의 하나는 일시의 제향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國朝五禮儀』의 역대 시조향에서 보았듯이, 정기적인 제향은 중춘과 중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組豆錄』의 2

월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와 移遷安 때에 수시로 임시적인 제향을 올린 것은 위에서 정리한 내용 가운데에서 여덟 번째의 내용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으며, 또한 1636년(丙子, 仁祖 14)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난하여 제실 때 예조판서 김상헌을 파견하여 온조왕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마-1' '마-3' '마-5'의 기록, 즉 "遺禮曹判書 金尙憲祭之"의 기록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임시제향일에 대한 내용도 증명된다.

당시 인조는 병자호란을 피하여 겨울인 12월 14일 밤에 남한산성으로 몽진해와 있을 때였다. 이 때에는 온조왕묘에 제향을 지내기 전에 먼저 성황제를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1. 인조 14년 병자 십이월 십구일……김유가 아뢰다. 성황제를 행하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알아서 하도록 하오. (李箕綏<이훈종 역> 『南漢日記』 68쪽)

마-2. 仁祖 十四年 丙子 冬 十二月 十九日……是日大風雨 命祭城隍祈晴 風雨乃止 (洪敎謨<1774~1861> 『重訂 南漢誌』 『城史』 主)

이들 기록에 의하면 城隍祭를 올린 전말에 대해서 2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마-1'의 내용으로서, 李箕綏(1687~1756)이 1753년에 편찬한 『남한일기』에 나타나 있듯이, 당시의 體察使 김유(1571~1648)의 제청에 의해서 성황제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마-2'의 내용으로서, 홍경모(1774~1861)가 저술한 『증정 남한지』에 나타나 있듯이, 비바람을 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앞의 것이 군사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祈晴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군사적 목적에 의한 성황제가 공로롭게도 대풍우가 몰아친 상황에서 올려졌기 때문에 뒤의 기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황제를 올릴 것을 건의한 체찰사는 유사시에 임금을 대신하여 군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서, 영의정이 임시로 겸하고 있었던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성황제가 군사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그밖에도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1. 禮曹啓曰 臨軒定都於此 歷年最久 必有其神 而吉人行師駐軍 必祭其地之神 今番大駕臨駐 而城隍祀典既已舉行致祭 臨軒似不可已 上從之 (『仁祖實錄』)

권33 仁祖 14年 丙子 12月 乙未條)

사-2. 인조 14년 병자 십이월 이십오일……禮曹에서 禮를 올렸다. 百濟의 溫祚王이 여기에 도움을 청한지 거친 햇수가 가장 많으니, 반드시 그 神이 있을 것이올시다. 古人도 行軍시키고 駐屯시킬 때 반드시 그 땅의 神을 제사지냈사올시다. 이제 대가가 옮겨와 머무시면서 城隍에 제사지내는 절차는 이미 치렀사오니 溫祚王에게 지내는 것도 마땅히 아울러 행하여 하겠기로 감히 禮를 올립니다다고 하여 그리 하라고 전교내리셨다. (李箕範, 1753, 『南漢日記』 155쪽)

이 기록에 의하면, 옛날부터 군사를 특정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둔시켰을 때에는 반드시 그 땅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軍禮의 하나로 성황제를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성황제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조 14년 병자 십이월 이십일 獻官 金尙憲이 禮를 올렸다. 무릇 제향의 犧牲은 모두 숫놈을 써야 하는 법인데, 어제 城隍新告祭에서는 희생으로 수소와 암퇘지로 했으니, 違拂을 만약 고쳐 시키려 한즉 형편이 쉽지 않겠고, 날도 또한 어두웠고 靄文도 이미 닳은 뒤라, 어쩔 수 없이 견제한대로 그냥 썼사온대 대단히 미안하옵기 錢幣를 담당했던 官吏를 일꾼나기를 기다려 다스리도록 함이 어찌하옵지 하여, 그리 하라고 傳敕내리셨다. (李箕範, 1753, 『南漢日記』 83쪽)

따라서 '사-1'과 '사-2'에 나타난 이유에 의해서 온조왕묘에 대한 임시제향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그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바로 '마-3' '마-5' '마-9'의 기록으로서, 1636년(丙子, 仁祖 14)에 예조판서 김상헌을 파견하여 온조왕에게 고유제를 지낸 것이라고 하겠다. 온조왕에 대한 임시고유제는 그 다음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1. 禮曹啓曰 頃日行禮祀于溫祚王 倉卒苟簡聖情 皆以爲未盡宜 更擇日遣重臣 虔誠致祭……上從之 (『仁祖實錄』 仁祖 15年 丁丑 正月 8日條)

마-2. 仁祖 15년 정축 정월 초팔일 예조에서 禮를 올렸다. 얼마전에 온조왕의 제

사를 행했사온대 장졸간에 여러 사정에 위태이어서 미진한 점이 많았습기, 따로이 제주를 달가 이제 잘 익었기로 日官을 시켜 擇日하고 다시 重監을 보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야겠사옵니다.....예조에서 아뢰어 왔다. 온조 왕에 중신을 보내 제사지내는 일과 송은전에 천제하실 날은 모두 초심일로 가리어 결제 내리셨사온대, 太祖의 뜻이 같은 날 행사하는 것이 불안할 것같다고 하옵기, 다시 밀판에게 물었더니 송은전 천제는 심일일 또한 길한 날이라 하옵기 이 날자로 정하여 들며 보냄이 어필까 하옵니다 하여 그리 하라고 전고내리셨다. (李箕穎, 1753, 『南漢日記』 278-279쪽)

- 아-3 禮曹判書金尙憲啓言 溫祚定都此地 歷年最久 必有其神 古人行師駐軍 必祭其地之神 今者大駕臨駐 故國紀典既已舉行祭 溫祚之例 亦當并行 乃命金尙憲祭溫祚王

예조판서 김상헌이 의견을 드렸다. 온조왕이 여기 도읍을 정하여 역년이 가장 오래오니 반드시 그 신령이 있을 것입니다. 고인은 군대를 동원해 주군하면 그곳 지신에 제를 지낸다 하였습니다. 이제 대가가 여기 머무신 뒤로 설왕의 제사는 이미 행하였으니 온조왕에게 제사지내는 예도 아울러 행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여 그 뜻을 좇아 상헌에게 명해 온조왕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洪敎護『重訂 南漢記』 성사조, 仁祖 15年 丁丑 春正月 10日)

- 아-4 仁祖 15年 庚戌 正月 초심일 예조판서 김상헌을 보내어 온조왕을 제사지냈다. (李箕穎, 1753, 『南漢日記』 280쪽)

- 아-5 仁祖十四年丙子 上在南漢 遣禮曹判書金尙憲祭之 十五年丁丑 正月 日暈兩耳 命禮曹判書金尙憲祭溫祚王 (柳義養<1718~?>『春官通考』 卷44『吉禮』 溫祚王廟條)

이러한 기록의 내용에 의하면 2번째의 온조왕에 대한 임시고유제는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치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첫 번째의 임시고유제는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전히 온조왕의 도움을 받아야 할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 셋째, 1636년(丙

子, 仁祖 14) 겨울에 이어 1637년(丁丑, 仁祖 15) 1월에 다시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위의 기록 '사-1'과 '사-2', 그리고 '아-1'에서 '아-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636년(丙子, 仁祖 14) 겨울과 1637년(丁丑, 仁祖 15) 정월에 예조판서 김상헌을 직산에 파견하여 온조왕에게 임시제향의 하나인 고유제, 즉 선고사유제를 지낸 것도 군제의 하나였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것은 온조왕에 대한 인식이 이 때에 새로워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동진하므로써, 이 지역이 온조왕에 의해 오랜 동안 수도로 정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신의 도움을 받아 호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온조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한산성에 온조왕묘가 건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황제와 온조왕묘제 대한 제향을 통해서 호란을 극복하고자 했던 목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내용은 다음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조 15년 정축 정월 십팔일 비변사에서 품해 올랐다.....단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와 산신에게 여러 차례 제사를 올려서 경성을 보였사오나 신의 힘을 빌려서 일은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않음이 올을 뜻하와 감히 마피옵나니 하여 알았노라고 전고 내리셨다.(李箕綏, 『南漢日記』 290쪽)

이러한 군사적 평가에 따라 더 이상 성황제와 직산의 온조왕묘에 대한 임시고유제의 불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온조왕묘를 아예 남한산성에 건립하여 정기적인 제향을 올리는 방향이었던 것 같다. 그 전후의 사정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자-1. 上夜深留戰 困甚生睡 夢有人告 敵由雲梯登北城 上驚覺即命偵之 果如其言 令擊却之斬獲甚衆及還都 令建溫神王廟 春秋紀之 祝文用御諱 香幣自禮曹來 溫神王이 야심토록 독전하느라 심히 곤하여 앉은 채 잠만 조사는데 꿈에 사람이 나타나 "적이 운제를 타고 북성을 오르는데 어째서 막지 않는가"고 하여 왕은 뒤서나고 돌았더니 '나는 설주 온조왕이라'고 하여 놀라 깨어 즉

시 정탐하게 하였더니 과연 그 말과 같은지라, 써서 물리치고 잡아 죽인 것도 많았다. 뒤에 환도하자 온조왕묘를 짓고 춘추로 제사지내게 하였으며, 축문에도 어획을 쓰고 향제도 예조에서 보내왔다.(洪敬謨『重訂 南漢誌』逸事條)

자-2 上在南漢——領議政金尙誥曰 然其時仁祖大王 夢見溫祚王來告敵兵登城 聖祖警覺 卽命偵之 果如其言 令將士擊却斬獲甚衆 還都日特命建溫祚廟 春秋享祀 事甚靈異矣

임금이 남한에 있었다……영의정 김상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때 인조대왕께서 꿈에 온조왕이 와서 적병이 성에 오른다고 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조에서 놀라 깨어 곧 명하여 정탐하게 하셨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아서 장사를 시키 격퇴하게 하셨는데 참획이 매우 많았으므로, 환도한 날에 특별히 명하여 온조묘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하게 하셨으니, 일이 매우 영이합니다. (『正祖實錄』正祖 3年 8月 9日條)

이 기록들에 의하면, 온조왕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仁祖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꿈의 내용에 대한 진위와 그 신빙성이 어쨌든 간에, 당시 온조왕 신령의 도움을 통한 호란의 극복이라는 군사적 필요성은 인조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절실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온조왕묘를 그의 옛 수도지역이었던 남한산성 안에 다시 건립하게 된 배경이다. 말하자면 급박한 군사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과 이반된 광주부 민심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성에서 남한산성과 온조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국가 사전에 의한 온조왕묘의 건립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 자세한 고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유보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온조왕묘를 남한산성 안에 언제 건립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직산 온조왕묘의 건립연대인 世宗 11년을 世祖 11년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는 점은 이미 앞에서 밝혔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한산성의 온조왕묘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도 문헌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과 문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仁祖代로서 연립일은 상고할 수 없다(마-10 『增補文獻備考』)

1636년(丙子, 仁祖 14) 3월(마-5 『練鰲堂記述』)

1637년(丁丑, 仁祖 15) 2월(마-1 『仁祖實錄』)

1638년(戊寅, 仁祖 16) 겨울(마-6 『重訂 南漢誌』, 마-11 『大東地志』, 마-12 『東國
院宇錄』)

그러나 이외에도 남한산의 온조왕묘의 건립과 관계되는 다른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그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立祠宇南漢山城祭溫祚王改畫位版 稱百濟始祖王 禮曹以東史及輿地勝覽 皆以溫祚王畫之 而世代相遠其名號及諡號 不能分辨 依東史所錄 畫諸位版 答曰溫祚似是名字 直書位版如何 禮曹請以百濟始祖畫之 命加王字

남한산성에 사당을 세워 온조왕을 제사하고 위판을 고쳐 써서 력제시조왕이라 칭하였다. 예조에서 우리나라의 사서 및 『여지승람』에 모두 온조왕으로 했는데, 세대가 멀어져서 명호 및 시호를 분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사서에 기록된 바에 의거하여 위판에 쓰자고 했는데, 상이 답하기를 온조는 이름인 듯한데, 위판에 바로 쓰는 것이 어찌할지 했다. 예조가 력제시조라고 쓰기를 청하니, 상이 왕자를 더 써 넣도록 명하였다. (『仁祖實錄』, 仁祖 17年 己卯 2月 2日條)

이 기록에 의하면, 1639년(己卯, 仁祖 17)에 온조왕의 祠宇를 건립하고 位版을 改畫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나 불교에서는 영혼의 거처나 영혼 자체라고 생각하는 신주나 위판을 만들어 사당이나 사찰에 모시고 있다. 따라서 신주나 위판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여 모시는가의 문제는 바로 사우 건립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신주나 위판의 내용이 결정되고, 그 신주나 위판을 모시고 移還安祭享을 거행한 뒤에야 비로소 사우가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조에서는 신주나 위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문헌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기존의 신주나 위판의 내용과 문헌에 의해 '百濟始祖'라고 결정한 것을 仁祖의 명에 의해 '百濟始祖王'으로 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百濟始祖王'이라는 위판의 내용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移還安 告由祭가 1639년(己卯, 仁祖 17) 2월에 거행되었다. 그러므로 온조왕묘의 건립은 1639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그 건립년대를 제대

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검토했듯이, 후대 왕조에서의 온조왕에 대한 관심은 고려때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 형성해서 그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당의 형태, 그리고 제향의 모습을 알아 내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삼국 시조의 하나로서 온조왕이 본격적으로 사당에 모셔지기 시작한 것은 구체적으로 世宗 때의 일로 밝혀지고 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초부터 온조왕이 사당에 모셔지기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는 조선왕조의 최초의 사전인 『世宗實錄』 『五禮』의 기록에 역대의 시조 가운데에서 오로지 단군·기차·고려 태조에 대한 제향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429년(己酉, 世宗 11)에 온조왕묘를 최초로 직산에 건립하고 그 제향을 사전에 중사로 기재하여, 춘추로 2회씩 제향을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636년(丙子, 仁祖 14)에 병자호란을 만나 백제의 옛 수도였던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면서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온조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639년(己卯, 仁祖 17)에 온조왕묘가 남한산성에 건립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120년 뒤인 1759년(己卯, 正祖 35)에는 崇烈殿이란 廟額을 받게 되기에 이른다. 그 뒤로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숭렬전은 中祀의 규모로 예조에서 내려 보내는 齎祝으로 제향을 올렸던 곳이다. 그러나 그 후로, 조선왕조의 정치적 지배이념이었던 주자학이 단지 하나의 철학체제에만 인식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숭렬전의 제향은 국가적 제향의 위치에서 몰락하여 한갓 광주지역 유림집단의 향사로 명맥만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유림집단이 갖는 역사의식과 함께 문화적 전통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지만, 앞으로 또다른 의미에서 온조왕에 대한 재평가와 관심이 새롭게 제기될 때까지는 한 집단의 민속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百濟 漢城時代の 都城에 관한 연구

— 漢山の 位置와 性格을 중심으로 —

* 白 南 都

<차 례>	
I. 머 리 말	IV. 漢山の 位置
II. 都城 關係記事의 檢討	V. 漢山の 性格
III. 都城의 變遷	VI. 맺 음 말

I. 머 리 말

현재 百濟史에 관한 연구는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그 중에서 국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都城¹⁾에 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의 연구에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그 실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백제초기 즉 漢城時代²⁾의 都城은 慰禮城, 河南慰禮城, 漢山, 漢城

* 大南工業專門大學 教授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1991, pp. 856~858.

일반적으로 도성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궁전과 관부 및 취락을 둘러싼 城이며 곧 王城을 뜻한다. 국가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면서 도성에는 왕이 사는 궁전과 종묘를 비롯하여 여러 관부가 중심을 이루고 주변에는 신분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된다. 도성이 성립되는 초기에는 왕과 일반인의 거주지가 궁성 혹은 궁장을 알아 구분하고, 다음에는 취락의 주변을 포함하여 축성(築城)한 이성의 성벽을 갖는다.

2) 百濟의 한성시대라 함은 都城의 변천에 따라, 漢城時代(B.C.18~A.D.475), 熊津時代(A.D.475~538), 泗水時代(A.D.538~660)로 편의상 구분한 데서 연유한 것이고, 溫幹王이 백제를 건국한 시기부터 高句麗 長壽王의 남진에 의해 蓋鹵王이 전사하고 文周王 원년(475)에 웅진(공주)으로 천도한 시기까지를 일컫는다.

등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 중에서 漢山은 백제의 국가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三國史記』百濟本紀·地理志와 『三國遺事』의 기술이 소략하고 내용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 위치를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兩史書의 도성에 관한 자료는 관제기사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三國史記』百濟本紀의 早期記事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³⁾ 이에 따라 한성시대의 도성에 관한 연구

3) 『三國史記』의 早期記事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특히 百濟本紀의 早期記事와 그 기년에 대한 제견해를 개략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자를 제시한 경우.

金元龍, 『三國時代 開始에 관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73.

千寬宇, 『三國의 國家 形成(하)』, 『韓國學報』 3, 1967.

李鍾旭, 『百濟의 國家 形成』, 『大邱史學』 11, 1976.

崔夢龍, 『漢城時代 百濟의 도읍지와 영역』, 『震檀學報』 60, 1965.

(2) 부정적인 측면에서 논자를 제시하는 경우.

金西龍, 『百濟略史』, 『百濟史講話』, 『百濟史研究』, 1933.

白鳥庫吉, 『百濟紀元』, 『歷史』 創刊號, 1947.

松本岩吉, 『朝鮮漢州史』, 『世界歷史大系』 11, 1955. (近肖古王 이전의 기사를 인정하지 않음)

(3) 早期記事의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긍정하는 경우.

李丙燕,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 中心勢力의 變動』, 『韓國古代史研究』, 1976. (古余王 이후)

金哲俊, 『百濟建國考』, 『百濟研究』 專집호, 1982.

李基東,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 『馬韓·百濟文化』 10, 1967.

이와 같은 百濟本紀의 早期記事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鴻嘉라는 한의 연호 사용뿐만 아니라 특히 百濟의 국가 형성에 관한 내용으로써 온조 때에 馬韓을 멸하고, 동왕 13년에는 영역이 북으로는 溟河, 남으로는 熊川, 서로는 大海, 동으로는 走瀾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확보한 국가였음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千寬宇, 앞의 논문; 崔夢龍, 앞의 논문). 3세기 중엽의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대한 사정을 최초로 기술한 『三國志』 韓傳에서는 馬韓의 50여 국이 상호 제어 불능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百濟의 국가 성립에 대한 기본 자료인 兩史書의 내용상 약 3세기 가량의 조정하기 어려운 시기상의 격차가 있다. 이는 漢城時代의 상한이란 시기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중남부의 국가 형성을 비롯한 기원 전후한 시기의 역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당 사서의 문제를 조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고고학의 연구성과, 즉 청동기문화 혹은 초기 철기문화에 대한 관측할 만

는 각양 각색의 입본에 의해 위치 비정을 비롯한 제반 내용이 정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이런 관계로 漢城時代의 漢山에 대한 연구는 河南慰禮城·漢城 등의 관계기사를 검토하여 역사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한성시대의 도성이 자리 잡은 곳으로 이해되는 한강 하류지역은 조선초기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 성장·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적·유물의 훼손이 극심하여 문헌상의 한계를 보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처럼 한성시대 한산에 대한 연구 사정이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면, 필자 또한 이러한 제반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아울러 한성시대의 도성이 백제의 국가 발전에 따라 다양한 변천과정을 밟아 왔음을 고려하여, 한성시대의 한산이 갖는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都城 關係記事의 檢討

일반적으로 漢城時代의 都城은 慰禮城, 河南慰禮城, 漢山, 漢城 등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史料를 『三國史記』, 百濟本紀에서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의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정리와 확실한 문헌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百濟本紀의 早期記事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견해와 문제점은 앞으로의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필자는 百濟本紀의 早期記事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漢城時代의 남한산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4) 河南慰禮城·漢城·漢山에 관계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인정받는 견해가 보이지 않고 있다(崔夢龍, 앞의 책, p. 215; 金起燮, 『百濟前期 舊城에 관한 一考察』, 『濟南史學』 7, 1990, p. 3~5 참조). 연구자들은 대체로 한성시대의 도성인 河南慰禮城과 漢城, 漢山の 위치를 일반적으로 廣州 古邑, 春宮里, 二聖山城, 風納里土城, 夢村土城, 南漢山城, 北漢山이라고 비정하고 있으며, 북한산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남한산성 혹은 남한산성과 완만한 구릉으로 이어지는 근접지역이다.

④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居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舊許都河南慰禮城(溫祚王 即位年條)

⑤ 春2月 靺鞨敵三千來圍慰禮城 王閉城門不出(溫祚王 8年條)

⑥ 春2月 王都老嫗化為男 五虎入城 王母薨 年六十一歲

夏5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況今妖祥屢見 國母喪 勢不自安 必將遷國 予昨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7月 就漢山下入櫓 移慰禮城民戶

8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盡定疆場 北至涓河 南阻熊川 西窮大海 東極走瀋

9月 立城關(溫祚王 13年條)

④ 春正月 遷都 ……

秋7月 築城漢江西北 分漢城民(溫祚王 14年條)

⑥ 春 樂浪來侵 焚慰禮城(溫祚王 17年條)

⑦ 春2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牛(溫祚王 25年條)

⑧ 2月 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十五歲以上 修營慰禮城(溫祚王 41年條)

⑨ 王叢殺丁夫奪慰禮城(責穆王 即位年條)

⑩ 9月 內臣左平優福居北漢城叛 王發兵討之(比流王 24年條)

⑪ 移都漢山(近肖古王 27年條)

⑫ 初生於漢城別宮(阿莘王 即位年條)

⑬ 秋9月 麗王居誦帥兵三萬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蓋鹵王 21年條)

⑭ 蓋鹵21年 高句麗來侵圍漢城(文周王 即位年條)

⑮ 溫祚 …… 自卒本扶餘之慰禮城 立都稱王 …… 近肖古王 取高句麗南平壤 都漢城(地理志)

위의 자료 ④는 온조왕 즉위년(B.C. 18)에 도읍지를 河南慰禮城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남위례성이라는 지명은 그 이후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①에서는 靺鞨이 내습하여 慰禮城을 포위하자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 지역은 왕이 거주하는 도성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자료 ⑥의 경우에는, “왕도에서 老嫗가 남자로 변화하고 ……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 하겠다. 내가 이제 漢水의 남쪽을 巡觀하였는데 …… 7월에 漢

山下에 櫓을 세우고 위례성의 民戶를 옮겼다. 8월에 사신을 馬韓에 보내 遷都를 고하였다. …… 9월에 城關을 세웠다”라고 하여 궁궐을 세워 都邑을 옮기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해 정월에 천도하였음을(④) 미루어 볼 때, 자료 ⑤의 내용과 더불어 온조 13년(B.C. 6)까지의 도성은 慰禮城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수의 남쪽을 순관하고 漢山下에 櫓을 세워 위례성의 민호를 옮겨 ‘立城關’한 곳에 대한 지명은 보이지 않는다. ④의 자료에서 천도한 이후 漢城民을 나누어 한강 서쪽에 성을 쌓았다는 것과 ① ①에서 漢城을 王都라 한 사실을 고려하면, 漢山下로 천도한 도성을 漢城이라고 지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 ①에서는 한산으로 천도했다고 하는데 移都 기사가 걸려된 채로 ①에서는 漢城을 왕도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④~⑥까지의 자료는 百濟의 都城이 河南慰禮城 → 慰禮城 → 漢山下-漢城 → 漢山 → 漢城으로 변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내용과는 달리 地理志의 내용인 ⑩에서는, ‘按『古典記』의 典據를 내세워 온조가 남하하여 자리잡은 최초의 도읍지를 위례성이라 하고,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南平壤을 취하여 漢城을 도성으로 삼았다고 하여 백제의 도성을 慰禮城→南平壤-漢城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백제의 도성에 대하여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한편 ⑩의 도성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三國遺事』 백제의 도성 관계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자료 ⑥에서 온조가 河南慰禮城에 도읍하였다는 내용이 지리지에서 전거한 책과 동일 한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三國遺事』에서는 『古典記』를 인용하여 온조가 건국한 도읍지를 위례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同王 14년(B.C. 5) 丙辰에 한산(廣州)으로 옮기고 威安元年(近肖古王 25, 371년)에 고구려의 南平壤을 취하여 도읍을 北漢城(楊州)으로 옮긴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백제의 도성은 위례성(緩山) → 漢山(廣州) → 南平壤=北漢城(楊州)이어야 한다.

따라서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 그리고 『三國遺事』의 관계기사 중 어떠한 내용을 취하느냐 여부에 따라 백제의 도성에 관한 내용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三國史記』 백제본기와 지리지, 『三國遺事』의 도성 관계기사가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古典記』와 같은 인용 자료의 原典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

5) 『三國遺事』 卷 2 南夫餘 前百濟 北夫餘條.

을 찾을 수 있다.⁶⁾ 『三國史記』 지리지와 『三國遺事』에서는 『古典記』에 전거하여 온조의 최초 도읍지를 위례성으로 동일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三國遺事』의 한자가 위례성을 ‘一云蛇川 水樓山’이라 하고 한산을 廣州로 본 것과 위치 미상으로 처리한 『三國史記』 百濟本紀와는 다르게 위치 비정을 하였음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三國史記』 지리지와 『三國遺事』의 도성 관계기사는 사료상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三國史記』에 비해 『三國遺事』의 사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감안하면, 백제 도성에 대한 이해는 『三國史記』 백제본기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⁷⁾

한편 『三國史記』 백제본기에서의 河南慰禮城 → 慰禮城 → 漢山下=漢城 → 漢山 → 漢城이라고 기술한 백제초기 도성의 천도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료 ⑤에서 최초의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의 지명은 이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慰禮城과 漢城·漢山이 도성이라는 내용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 ③과 ④의 내용에서는 백제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후 온조왕 13년에 왕도에서 老嫗가 남자로 변화하고, 다섯 마리의 뱀이 성으로 들어오는 괴이한 내용과 왕모인 苴西奴가 죽고 동과 북에서 樂浪과 靺鞨이 영토를 침략하므로 편안할 날이 없다는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불안 요소로 인하여 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한수의 남쪽을 순관하여 도읍을 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漢山下에 櫓를 세워 慰禮城의 民戶를 옮기고 마한에 천도를 고하였다”라고⁸⁾ 한 사실에서 도읍지가 漢山下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⑤에서는 온조가 최초 도읍지로 하남위례성을 삼았는데, ③에서 천도를 ‘必將遷國’이라 하여 遷都가 곧 遷國이라고 할 정도의 중대사로 여겼다. 그러나 ⑤에서 천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왕성을 위례성이라고 한 점과 더불어 이후의 도성 역시 慰禮城이라는 내용만 기술하였다는 것도 의문이라 할 수 있다.⁹⁾ ③의 천도 기사를 연관지어 볼 때 즉위년조의 하남위례성의 기사 ③가

6) 井上秀雄, 『三國史記地理志の史料批判』, 『朝鮮學報』 21·22合, 1961.

『三國史記の原典はもとめて』, 『朝鮮學報』 48, 1968.

7) 車勇杰,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1)』, 『郷土서울』 39, 1981, pp. 29-30.

8)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 13年條.

9) 姜仁求는 하남위례성=위례성이라 하여 하남위례성과 (하북)위례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百濟 初期 都城 問題 新考』, 『韓國史研究』 81, 1993). 金起燮 역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百濟 前期의 漢城에 대한 再論』).

온조 14년 한산하의 천도 기사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 최초의 도읍지를 (河北)慰禮城, 移都地를 河南慰禮城으로 구분하고, 漢山下의 遷都地는 강북의 위례성과 대비하여 방위명을 첨가한 하남위례성이라고 지칭하였다고 여겨진다.¹⁰⁾ 이후 하남위례성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郡城(王城)은 漢城으로 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河南慰禮城=漢城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三國史記』 지리지와 『三國遺事』에서 온조의 최초 도읍지를 위례성이라고 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國史記』百濟本紀의 관계 기사를 해석해 보면 백제 초기의 도성이 (河北)慰禮城 → 漢山下=河南慰禮城=漢城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한산으로 천도하였다는 자료 ①와 ① ㉞을 첨가하여 보면 (河北)慰禮城 → 漢山下=河南慰禮城=漢城 → 漢山 → 漢城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III. 都城의 變遷

일반적으로 都城의 명칭과 移都는 시대적 산물이란 점을 고려해 보면, 한성시대의 移都의 도성의 명칭은 백제의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기원을 전후한 시기의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상황은 백제의 모태가 되는 伯濟國을 포함하여 마한의 50여 大·小國이 目支國의 辰王을 중심으로 연명체를 구성하고 있었다.¹¹⁾ 그리고 三韓諸國은 국읍을 중심으로 반경 50여리 내외 지역 외 범위에서는¹²⁾ 諸勢力集團들이 「無城郭」하고 「邑落雜居, 不能善相割御」하는

註. 『郡土서술』 55). 그러나 이들의 견해에는 百濟와 三韓의 전투지는 주로 北境이었는데 高麗代의 北境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과 낙랑과 대결구도에서 糧을 쌓는 요충지인 馬首城·井山糧(高麗 8年條), 北境의 전투지인 昆羅川과 靑木山, 낙랑과의 통로를 폐쇄하기 위해 만든 靑山糧·狗川糧(高麗 10年條)의 위치가 한강이남 지역에 비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지명의 위치 비정이 未定 혹은 異見이 있으나, 한결같이 한강을 넘어선 강북에 위치를 비정하는 실정(李丙義 譯註, 國譯 『三國史記』)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하남위례성과 위례성을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10) 李丙義, 「慰禮考」, 『韓國古代史研究』, 1976, pp. 491~497.

11)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I (古代篇), 1982, pp. 94~95.

여기에서는 三韓諸國과 더불어 目支國에 대한 문제를 '三韓의 정치적 딜레마'라는 소재로 취급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 여러 연구자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삼한제국과 독자국에 관한 견해를 인정하고자 한다.

12) 『三國志』 30 『魏書』 30 『魏九鮮卑東夷傳』 第 30 韓條. 이 책명을 앞으로는 『三國志』 韓

상태였다.¹³⁾ 諸國의 국읍에서는 巨賁·渠帥 등으로 불리는 首長들을 중심으로 철기문화의 보급이 가속화되어 간에 따라 國의 대내·외적인 교류를 위한 물자의 집산과 분배가 이루어 졌다.¹⁴⁾ 伯濟國을 모태로 하여 북에서 남하 이동한 부여계를 중심으로 국가를 이룩한 백제도 마한제국의 일반적인 운영질서 구도 내에서 발전이 진행되었음은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즉 온조집단은 국읍을 중심으로 반경 50여리 내외의 지역범위에서 「無城郭」하고 「邑落雜居，不能善相制御」 상태의 諸勢力集團들과 연합 혹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체제를 갖추어 갔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백제의 위례성은 巨賁·渠帥 등으로 불리는 首長이 거주하는 국읍이라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온조집단의 거주지인 국읍 역시 마한사회가 「無城郭」이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계급단의 거주지역과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방의 선진문화를 앞서 경험한 온조집단은 토착사회의 선주집단들을 점차 주도하면서 한강 하류지역이란 지리적 위치에 힘입어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팽창할 만한 세력성장을¹⁶⁾ 이루어 갔다. 그 결과 백제는 삼한사회를 분열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漢郡縣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㉔의 천도 이유에서 나타나듯이 낙랑과 말갈의 빈번한 군사적 압력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온조집단은 자료 ㉑에서 나타나듯이 세세력들로부터 제기되는 대내적인 도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자료 ㉒에서 漢山下에 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이주시켰다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온조집단은 그 세력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대내외적인 방어 시설과 아울러 중심지역이란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온조집단의 거주지역은 나무로 柵을 만들고 흙으로 광곽을 둘러쌓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위례성에 대한 어원은 '위례'가 광곽을 사방으로 쌓는다는 방언인 '위리'에서

傳으로 축약하기로 한다.

13) 白南基, 「三國志 韓傳의 國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35, 1981.

14) 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 『歷史學報』 69, 1976, pp. 3-9.

15)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pp. 53-59.

16) 李鍾旭, 「百濟의 國家形成」, 『大邱史學』 11, 1976, pp. 10-17.

한강유역의 지리적 위치는 내리 요소로 생태학적인 면에서 비농사에 따른 생산력과 인구증가로 이어졌고, 외적인 요소로 樂浪·靺鞨과의 대외 전쟁에 의한 국가의식의 성장으로 이해한다. 여기에 漢郡縣과의 지근거리란 점은 교역에 따른 여타 삼한 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이므로 한의 선진문화에 대한 수용이 활발하였을 것이다.

연유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⁷⁾ 즉 위리는 나무로 櫓를 설치하고 흙으로 광곽을 쌓는 것을 일컫는데, 위례는 여기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우리체·올타리·올안' 등도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마을과 같이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온조집단이 거주한 위례는 국읍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집단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자 백제 수도의 고유명사로 전환되어 '위례성'이라는 도성의 명칭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앞서 ㉔에서 河南慰禮城이 漢城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성의 명칭에 대해서는 都利河¹⁸⁾와 阿利水¹⁹⁾가 한수·한강의 별칭으로 보고 都里·阿利·慰禮 등이 같은 지명으로도 사용된 데서 연유되었다는 견해가 있다.²⁰⁾ 반면에 都利河와 阿利水가 한수·한강을 지칭한 어원과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한강의 여러 지류 중에 하나를 지칭한다고 보고,²¹⁾ 나아가 於羅國은 王·大를 의미한다는 데 착안하여 어라와 위례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고, 위례성을 王城 혹은 大城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명칭이 주어 졌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²²⁾ 이러한 견해는 한강·한수, 그리고 왕성·대성과 관련하여 위례성·한성이란 명칭의 연원을 구했다는 점에서 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백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온조집단의 거주지가 기능적인 역할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도성의 명칭 변화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하남위례성은 반경 50여리 정도 지역의 중심지, 즉 국읍이 갖는 대내외적인 교류에 따른 물자의 분배와 집산이라는 단순 개념을 벗어나 확장된 영역을 경영하는 수도권적 의미의 기능이 요

17) 丁若鏞, 「慰禮考」, 『羅城考』, 『陶齋堂全書』 所收. 우리체, 우리, 올타리, 올안에 대해서는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65. pp. 570~571.; 金龍國, 「河南慰禮城考」, 『郷土서울』 41, 1983.; 成周輝, 「百濟城址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8)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 3年條, 「又取大石於都里河 作櫓以葬父骨」.

19) 『朝鮮金石總覽』 廣開土大王碑文, 「王威赫怒 發阿利水」.

20) 申采浩, 「上古史 史蹟文 名詞 考釋」, 『朝鮮史研究』, 1974. pp. 22~25.

李弘植, 「백제 건국에 대한 제문제 (1)」, 『국사상의 제문제』 6집, 1960. p. 26.

崔夢龍·權五榮,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 본 百濟初期의 領域考察」, 『千實字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p. 88.

21) 金起燮, 「百濟 前期 都城에 관한 一考察」, 『南漢史學』 7, 1990. pp. 28~29.

22) 『周書』 異域傳 百濟條, 「王姓夫餘氏 號於羅國 民呼爲羅古支 夏言於王也. 이를 바탕으로 李炳統(『韓國古代 國名·地名研究』, 1982. p. 199)는 한성의 명칭을 이해하고 있다.

구되었을 것이다. 小國 단계의 지역범위가 자료 ㉔의 내용처럼 확대되자 온조집단이 거주한 위례성은 제집단간의 물자 교류와 분배를 주도하는 국읍의 역할뿐만 아니라, 확대된 영역을 지배하고 관장하는 데 수반되는 각종 관부가 설치되면서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그에 따른 권위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종래의 하남위례성이 갖는 국읍의 성격과 의미는 국가의 도성이란 성격변화에 따른 명칭 변경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정치와 사회질서의 변화에 부응되는 권위를 갖추어 갔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명칭이 漢城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 하면 온조 13년에 이르면, '北至淇河 南限熊川 西窮大海 東極走瀋'라고 하여 영토가 확장되고 난 직후, ㉕에서 漢山下에 橐을 두르고 땅박을 받은 온조집단은 곧 마한에 천도를 고하고, 동왕 14년에 천도한 직후의 도성이 漢城이라고 불리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7년에는 마한과의 부庸관계라는 열서를 만화하고 마한을 멸하는²³⁾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하북)위례성은 자료 ㉕에서 "(責槽)王은 丁夫를 징발하여 성을 修葺하였다"라는 기사를 끝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료 ㉖에서는 王都라는 의미가 담긴 漢城이 위례성 대신 쓰여지고 있다. 자료 ㉗에서 漢城民을 나누어 한강 서북의 축성작업에 동원하였다는 사실은 도성의 성격이 한성이라는 명칭에서 의미하듯이 인구의 집중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도성에 궁궐을 비롯하여 확대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관부의 여러 시설물이 건축되어 짐에 따라, 지역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도성민을 분산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백제의 도성은 백제의 성장 발전에 따라 그 기능과 내용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을 것이므로 그 명칭 역시 새로운 변경이 요구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록 후대의 내용이지만 하나 종래의 토속어가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에서 한자화하는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구려의 국호 명칭은 큰 촌락을 지칭한 '忽· 끝· 溝婁'의 음을 한자로 '句麗'라 표기한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十濟' 혹은 '伯濟'란 國號가 '百濟'로, 그리고 '達率'이란 관직명이 고이왕 때 '佐平'으로 한자화한 것은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신라의 지증왕 때 토속어로 지칭되고 있던 '사라· 사로'란 국호가 '新羅'로 '마립간'의 왕호가 한자화하여 '王'이라고 하였던 사례는 두루 알려진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백제가 漢郡縣 특히 낙랑과의 교류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한자문화의 수용 가

23) 『三國史記』百濟本紀 溫祚 27年 夏4月條, 『二城降 移其民漢山之北 馬韓邊城』.

능성을 고려하면, 위례성이란 토속어로 된 도성의 명칭이 한자화하였을 것이다.

결국 백제의 도성은 보통 명사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위례란 지명이 ‘크다·대(大)’를 나타내는 ‘한’을 한자화하여, 계세력집단의 거주지 혹은 정복한 諸國의 국읍과 구별하고 왕성으로써의 새로운 권위를 부가하기 위해 ‘漢城’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漢山도 ‘큰산’ 혹은 ‘大山’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IV. 漢山의 位置

漢山에 대한 위치 비정에 있어 중요한 문헌 내용은 앞의 자료 ③이다. 비록 온조 13년의 기사를 포함시킨 혼합된 내용이지만 하나 한산의 위치를 가늠하여 볼 수 있는 유력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因於海濱 十臣諫曰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居高岳 南望沃澤 西臨大海 天驗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
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위의 내용은, “온조 일행이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沸流가 해변에 살기를 원하자 十臣이 간하기를, ‘이 河南의 땅은 북으로 漢水를 띠고 동으로 高岳을 의지하였으며 남으로 沃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大海를 격하였으니 그 천험지리가 얻기 어려운 지세이니 여기에 도읍을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였다”라는 것이다. 온조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는 위의 내용 중 한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랐다
- ② 이 河南의 땅은 북으로 漢水를 띠었다.
- ③ 동으로 高岳을 띠고 남으로 沃澤을 바라 보았다.

위의 내용이 온조 13년조와 혼합 기사인 점을 고려하면 한산의 위치를 비정하

는 데 자료 ㉔의 내용을 첨가해 볼 수 있다. 즉 온조 13년 5월에, “漢水 남을 巡觀하고 …… 7월에 漢山下에 櫓를 세우고 위례성의 民戶를 옮겼다. …… 9월에 城關을 지었다”라는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산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④ 漢水 남쪽을 巡觀하였다.

⑤ 漢山下에 위례성의 民戶를 옮기고 城關을 지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산 위치는 ①, ②, ③, ④, ⑤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하남위례성은 ③ ④의 조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므로 漢水 남쪽에 위치하게 되며, 그 결과 위례성의 명칭에 漢水²⁴⁾를 기준으로 하여 河南이라는 방위명이 첨가되었다는 점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漢山은 ②의 내용과 관련시켜 보면 한수(한강)의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에서 한산의 동쪽에는 高岳이 있고 남쪽에는 沃澤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漢山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위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황이 漢山에서 수렴하였다는 기사²⁵⁾ 등과 같이 직접적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三國史記』 지리지에서 ‘한산주의 治所는 廣州에 있다’라고 하고, 『三國遺事』에서는 한산을 지금의 廣州로 비정하여 漢山 지역이라는 지명이 등장함을 고려하면, 한산은 지역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후대에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산은 일반명사인 ‘곤산·대산(大山)’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위의 ① ⑤에서의 한산은 한수 이남의 특정한 산명으로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산은 負兒巖이 있는 산이란 점에 초점을 두고 부아악의 위치를 비정하는 한편 이를 한산과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負兒巖은 『三國史記』 祭祀志에 따라 그 소재지를 北漢山州라 한 이래로 三角山으로 비정되어 왔다. 또한 여러 문헌자료에서는 부아악에 관한 명칭의 변화와 구체적인 위치를 지적한 경우도 있다.²⁶⁾ 조선시대의 지리지에서는 온조 일행이 오른 부아악을 일명 華山이라 하고, 이것이 곧 삼각산이라고도 하였다.²⁷⁾ 이와

24) 漢水는 漢江을 의미한다.

25) 『三國史記』 百濟本紀 己婁王 27年條, 蓋婁王 4年條, 毗有王 29年條.

26) 『高麗史』 卷 56 地理志 揚州條, 『本高句麗北漢山郡……有三角山 新羅稱負兒巖』.

27) 『朝鮮世宗實錄』 卷 148 地理志 京都 漢城附條.

같이 부아악은 삼각산(현재의 인수봉, 백운대, 국망봉을 합칭한 산명)이란 어원에 대한 해석이²⁸⁾ 받아들여져, 한산이 곧 북한산이라는 견해가²⁹⁾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負兒巖이 三角山, 漢山=南漢山城·南漢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³⁰⁾ 나아가 부아악은 검단산의 정상³¹⁾ 혹은 용인의 부아산³²⁾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①과 ②에서 부아악은 한산에 있어야 하고, 한산은 漢水南이어야 하며 아울러 한수와 근접지역이라는 조건과 연관지어 보면 각각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먼저 부아악은 삼각산, 한산은 북한산이라고 할 때 부아악이라는 산명과 산형은 부합되나, ① ②의 조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삼각산을 부아악이라고 하면 당시의 등산 조건으로는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온조 일행이 이곳에 등정하여 도읍지를 조망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부아악·한산=남한산·남한산성은 ①과 ②의 조건에는 해당되나, 부아'巖'이라고 표현되는 험한 바위산의 지형을 찾을 수가 없고 ③의 내용과도 상충되어 문제가 있다. 또한 부아악이 黠丹山의 정상이라는 주장은 앞서와 같이 '巖'이라고 할 정도의 험한 지형이 없다는 점이 있으며, 아울러 용인의 부아

『新增東國輿地勝覽』卷 3 漢城附錄

『大東地志』卷 1 漢城附錄

위의 지리지에서는 負兒巖(온조가 남하하여 오른 곳)=華山=三角山으로 보고 있다.

28) 英祖 20年, 北漢舊德攝의 所撰인 北漢誌 山嶽條 (李丙義, 앞의 책, p. 484 재인용)

이와 더불어 '부아' 곧 '불>불'의 借音表記라 하여 부아악은 각산의 지미, 즉 인수봉 백운대 국망봉의 세 봉우리가 뿔같이 뾰족하게 생겼다 하여 삼각산이란 명칭이 주어졌다고 하고, 아울러 불(負兒)→火→草로 변천되는 것으로 보고 火山(불피)에서 온 이름이라고도 한다. (金龜馬, 『河北郡禮城과 河南郡禮城考』, 『史學志』第26輯, pp. 48-49.)

29) 李丙義, 앞의 논문.

李道學, 『百濟 漢城時期的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9, 1992.

30) 津田左右吉, 『百濟郡禮城考』, 『朝鮮歷史地理』上, 1913. (負兒巖·漢山=南漢山城)

今西龍, 『百濟國都漢山考』, 『百濟史研究』, 1934. (漢山=南漢山)

李弘植, 『百濟建國에 관한 諸問題』, 『국사상의 제문제』, 1960. (漢城·漢山=南漢山城)

金龍國, 『河南郡禮城考』, 『郷土서술』41, 1983. (負兒巖·漢山=南漢山城)

31) 金龜馬는 앞의 논문에서 검단산과 남한산이 당시에는 구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여 검단산의 정상을 부아악으로 파악하였다.

32) 金聖晃,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1982. pp. 57-59.

산이라는 관점도 이와 대동소이하여 ① ②의 조건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부아악·한산의 위치로 비정되고 있는 삼각산·남한산성 혹은 남한산·북한산·검단산·용인 부아산 등은 모두 자료 ①~⑤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온조 일행이 부아악에 오른 내용이 삽입된 것이라면 제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³³⁾ 아울러 왜 한자는 ①과 ②의 상충되는 내용이다 오르기도 거의 불가능한 부아악에 온조 일행이 등장하여 천도자를 조망하였다는 사실적인 기사를 백제의 건국과정에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漢山·負兒嶺에 대한 위치를 파악함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자료 ③에서는 천도 이유가 老嫗가 남자로 변화하는 괴이한 내용, 王母의 사망, 낙랑과 말갈의 빈번한 공격 등과 같이 변괴와 국난극복이란 실질적인 내용이 어우러져 있다. 여기에서는 온조가 河南慰禮城으로의 遷都를 遷國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집단이 상호 制禦不能 상태에 놓여 있던 馬韓諸國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례성을 중심으로 한 온조집단이 천도를 단행함에는 대내적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는 여러 세력집단의 이해가 상충되어 당연히 갈등이 야기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비류제가 비추홀로 분리되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계로 遷都가 곧 遷國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따라서 온조 집단이 천도를 단행하기에 앞서 천도 사유로 제시된 실질적인 내용과 老嫗가 변화하여 남자가 되었다는 괴이한 사건을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천도과정에 괴이한 사건을 삽입시켜 신비성을 제고시키고 여러 집단과의 갈등을 약화시켜 무마하려는 의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³⁴⁾ 이와 관련한 직접

33) 李丙巖, 앞의 논문, p. 485.

34) 비록 후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참고된다. 전제왕권을 확립한 선문왕이 서운을 遼旬伐로 옮기려 하다가 실현시키지 못한 일은 천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도환설에 의한 서경천도론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폐조의 한양 천도, 태종의 한양 재천도가 曹遷·道遷 등 人事 중심의 유교적 지리관에 의해 결정되었던 사실 등에서 천도의 결정 과정에 풍수지리설에 의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종의 재천도는 숭도·신도·모악의 세 후보지를 놓고 종교 신령들의 뜻에 따른다 하고 龜占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런 천도 문제는 신비성을 바탕으로 권위와 명분을 축적하고 대내적인 불만과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洪承基, 「高麗初期 政治와 風水地理」; 李泰顯, 「漢陽 천도와

적인 자료는 없으나 神鹿과 관계된 기사와 『三國史記』祭紀條 小祠地에 負兒嶽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³⁵⁾

한성시대에 있어서 神鹿에 관계된 기사로는 『三國史記』百濟本紀의 온조 5년에 北邊을 순무하고 신록을 잡았고, 10년에도 신록을 잡아 마한에 보냈다는 것과, 己婁王 27년조에 신록을 잡았다는 기사 등이 있는데, 신록을 잡은 北邊·漢山이란 장소와 시기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경과 연결한 곳이며 부아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조 5년을 전후한 시기는 기근과 질병, 일석이 있었으며 한편으로 낙랑과의 대외관계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이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내포하고 있는 신록의 포획이 일견 길흉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장소가 北邊이라 하여 부아악을 신성시하는 내용이 은연중에 함축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비록 장소가 불분명하지만 마한에 신록을 보낸 시기 역시 낙랑과 失和하고 말갈의 공격이 있어 어려움을 겪던 때였다. 또한 기루왕 때 한산에서 신록을 잡은 연유도 앞서 온조대의 예치립 천제지변에 의한 국난이 반복되는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한산은 도성과 밀접하게 관계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신록을 포획한 시기는 백제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 장소 또한 특별한 곳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北邊은 부아악 일대라 추정할 수 있고, 부아악은 온조왕대에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三國史記』祭紀條에, '三山·五嶽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大·中·小祠로 한다'라고 하여 小祠條에 부아악을 포함시킨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는 무명의 산천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었고, 아울러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왕권강화의 사상적인 의미도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檀君神話는 太白山, 首露神話는 龜旨峯으로 하는 산악신앙과 관계가 있고, 高句麗는 鶴嶺에 東明王朝를 세워 국가적 성역으로 삼고 있었으며, 新羅의 閔英은 仙桃山聖母와 연결되어 있으며, 합쳐게는 토함산을 始祖山으로 하였음은 두루 알려진 내용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면 산악신앙은 건국설화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산이 지닌 위용과 신비감, 天地의 연결 개념 등에서 자연숭배의 일단으로 국가건국과 관련하여 보편화된 것이라 하겠다.³⁶⁾

風水說의 考證, 『韓國史市民講座』14, 1994.

35) 『三國史記』卷 32 志 2 祭紀條.

그리고 小碕에 포함된 부아악은 서울과 성남, 광주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산중에 경관과 산형이 신앙심을 자아낼 정도로 외경스럽고 아름다움을 갖춘 유일한 산이기에 앞서 神鹿을 잡은 곳과도 연관이 있고, 나아가 한강의 남북지역 중 小碕地라는 영산 혹은 명산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명산대천을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체계로 두고 있던 온조집단 역시 감히 등정을 생각해 볼 수 없는 부아악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온조는 遷都가 곧 遷國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외환인 낙랑과 말갈의 침범과 같은 실질적인 천도 사유와 더불어, 老騶가 남자로 변했다는 괴이한 사건 등을 결부시켜 하남위례성으로의 천도를 단행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비류집단의 이탈과 같은 내부 갈등이 야기되자 감히 병합할 수 없는 신성한 부아악에 등정하여 遷都地를 결정하였다는 명분을 첨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자료 ①의 漢山은 南漢山城으로 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V. 漢山の 性格

漢山은 앞장에서 南漢山城이라고 이해하였다. 漢山の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먼저 『三國史記』의 한산에 관계된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㉓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居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溫祚王即位年條)
- ㉔ 秋7月 就漢山下立櫓 移慰禮城民戶 …… 9月立城闕 (溫祚王 13年條)
- ㉕ 二城降 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溫祚王 27年條)
- ㉖ 冬10月 南沃沮仇解等二十餘家至斧壤納款 王納之 安置漢山之西 (溫祚王 43 年條)
- ㉗ 王遷漢山新鹿 (己婁王 27年條)
- ㉘ 夏4月 王遷漢山 (蓋婁王 4年條)
- ㉙ 王引退 移都漢山 (近肖古王 26年條)
- ㉚ 春2月 創佛寺於漢山 道僧十人 (枕流王 2年條)

36)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新羅政治社會研究』, 1975, pp. 194~215.

㉔ 秋8月 王將伐高句麗 出師至漢山北柵 (阿莘王 7年條)

㉕ 王獵於漢山 (戰有王 29年條)

㉔ ㉕의 내용은 하남위례성의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 ㉔ ㉕의 기사는 民戶를 漢山の 북쪽과 서쪽에 이주시킨 내용이다. ㉕ ㉔ ㉕에서는 왕이 사냥하는 곳과 神鹿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㉔의 자료는 한산으로 移都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㉕에서는 한산에 佛寺를 창건하고 道僧을 둔 사실을 밝히고 있다. ㉕에서는 군사의 출병지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시사한다. 그리고 ㉔ ㉕의 내용에 ㉕를 첨가해 보면 한산을 방위와 중심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성시대의 漢山은 지역을 대표하는 '큰산' 혹은 '大山'으로써 인식되었고 주변의 위치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온조집단이 자연신앙의 개념에서 신성시한 熊兒嶽을 포함시킨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초부터 한산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㉕에서 왕이 한산에서 신록을 잡았다 하여, 그 지역이 신성한 장소라고 인식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산이 신성한 장소로 부각된 것은 자연숭배의 신앙과 더불어 삼한사회의 祭天 내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삼한에서는 귀신을 섬기고 天君을 두어 제사를 주관하였다. 제사는 蘇堂에서 행하였는데, 그 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태달아 일반 지역과 구분하였다.³⁷⁾ 이것은 각 부족들이 자체적인 공동체를 고수하면서,³⁸⁾ 유이민의 유입이나 철기문화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³⁹⁾

이처럼 天君이 주도하여 祭天과 귀신을 섬기는 행사는 相互制約不能 상태의 삼한사회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내용 면에서는 선주집단과 유이민집단과의 思惟世界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상위에 군림하는 지배자 내지 그 집단의 신앙체계가 제집단에 혼용되어 확산되어 갔다고⁴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조왕 역시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하고 새로운 사회의 운영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漢山을 신성한 자연신앙의 思惟世界로 수용하여 대내적인

37) 『三國志』魏書條.

38) 孫晉泰, 『韓國民族文化의 研究』, 1948, p. 215.

許憲澈, 『蘇堂에 관한 研究』, 『慶熙史學』, 1972, pp. 11~13.

39) 金貞植, 『蘇堂의 政治史的 意味』, 『歷史學報』, 79, 1978, pp. 20~27.

40) 車勇杰, 앞의 논문, p. 61.

결속력의 강화와 지배기반을 확충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온조집단의 고유한 사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천도를 단행하는 데 수반되는 계집단간의 정치적인 갈등의 무마에 이용한 負兒嶽을 漢山에 포함시켜, 온조집단은 숭배해야 할 자연신앙의 대상을 부아악에서 漢山으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한산에 관한 위의 자료들에서 천도의 위치와 주변에 대하여 방위의 표식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울러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산의 자연신앙의 개념은 고구려에서 사회발전 특히, 북쪽에서 농경사회로의 발전이 진행되어 김에 따라 隱神을 모형으로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고 祭天과 귀신에의 제사를 혼합한 내용으로 형식을 변질시키고 있었던⁴¹⁾ 것과 비교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안위와 관계하여 한강유역에서 농경을 강조하고⁴²⁾ 있던 백제 역사, 신앙의 내용이 농경사회에 적합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산의 성격 변화를 확인시켜 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백제가 始祖廟에 제사하고 祭天祠地한 『三國史記』의 내용이 주목된다. 『三國史記』 祭祀志에는 '王祭天及五帝之神'라고 하여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과 더불어 사방 및 중앙을 주재하는 五神에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祭祀志의 간편한 내용과는 달리 百濟本紀에서는 祭天祠地에 대한 기사와 시조 동명묘를 배알하는 기사가 한성시대에 한하여 10여 차례 보이나, 대부분 壇을 설치하여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내용으로 서술되고 있다.⁴³⁾

온조왕이 祭天祠地를 행하기 위하여 壇을 '設'하고 '築'하는 기사와 壇을 大壇과 南壇으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다.⁴⁴⁾ 온조왕은 천지에 제사를 두 차례 지내는데, 이를 위하여 大壇을 '設'하고 '築'하였다. 그러나 온조왕 이후에는 祭天祠地를 大壇과 南壇에서 행하였는데, 대단은 설치하나 남단일 경우에는 설치기사가 없다.⁴⁵⁾ 이는 앞서 온조왕 때의 대단을 '設'하고 '築'하는 기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조왕 20년에 '設'한 대단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설치한 것이

41) 車勇杰, 위의 논문, p. 60.

42) 申堧植, 『百濟史』 1992, p. 52.

43) 『三國史記』 百濟本紀 祭祀 關係記事 참조(仇首王・多婁王・阿莘王・曠支王條에만 보이고 있다). 朝鮮總督府中樞院編, 『高麗以前の風俗關係資料』 最要, I, 1940, pp. 130-137 에 백제의 제사 관계기사를 전시대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44)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20・38年條.

45) 註 63) 참조.

고, 38년에 ‘築’한 대단은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쌓은 壇으로, 남단에서 祭天祠地하는 경우에는 壇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온조왕 38년에 ‘築’한 壇은 곧 남단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단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온조집단의 자연신앙의 관념 속에 신성시 여겼던 漢山을 제천사지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한산의 성격은 국초에 온조집단의 자연신앙과 연관되어 신성시하였던 사상체계 속에 祭天祠地의 개념을 포함시켜 사회발전에 따른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지역으로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산은 祭天祠地를 행하는 영구적인 단을 쌓는 가장 적합한 곳이 되며, 남단의 위치는 곧 漢山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이제 한산은 자연신앙의 한정된 성격을 벗어나 통괄적인 내용을 갖춘 신성한 장소로 이해되고, 아울러 祭天祠地를 행하는 중요한 곳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산에는 祭天祠地를 관장하는 관리와 관부, 왕이 임시로 거처 할 궁궐, 이를 수비할 군사 와 관계되는 시설 등의 재반시설들이 설치 운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산의 성격에 연유하여 자료 ②에서 보듯이 근초고왕은 수도를 한산으로 천도하였던 것이다. 근초고왕의 천도에 대해서 평양성의 전투에서 대승하고 고국원왕을 천사시킴에 따라 고구려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山城인 한산으로 移都하였다고⁴⁷⁾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근초고왕이 대승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보복을 두려워 하였다고 보다는 북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漢水를 건너 북한산(한산=북한산)으로 移都하였다고 한 견해가 있고,⁴⁸⁾ 이와 더불어 漢山에서 漢城으로의 移都記事가 없어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移都의 성격은 인정하나 한산의 위치는 土城의 여러 사례가 보이는 독성 일대라고⁴⁹⁾ 한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漢山으로의 移都에 대한 제견해는 일면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왜 移都地가 한산이냐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한산이 백제의

46) 金尙鳳, 앞의 논문, pp. 66~67.

검단산과 남한산을 하나의 산으로 보고 검단산을 關山이라 하고 검단산의 巔峰을 大壇·南壇이 설치된 곳이라 한다. 한편 남한산성 내에 南壇寺(『南漢地圖』)가 있던 위치를 南壇의 평정과 관련시켜 南壇이 설치된 곳으로 보고 있다.

47) 李丙義, 앞의 논문·앞의 책.

48) 이도하, 앞의 논문.

49) 장인구, 앞의 논문.

정치철학을 실현시키는 신성한 지역이며 관계된 제반 시설물이 갖추어진 곳이란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근초고왕이 한산으로 移都한 연유를 고구려에 대한 방어와 공격이란 점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移都한 곳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기 위해 신설시킨 한산이란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산은 여러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고,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연승함과 더불어 대승의 결과 여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근초고왕의 왕위계승이 古余孫에서 肖古孫로 전환되어 상호 정치주도권에 관계된 解氏와 甄氏의 상관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정치상황이고 보면,⁵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둬서 따라 대내외 정치적 위상을 질적인 면에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당연히 가졌을 것이다.⁵¹⁾ 그러나 동왕 24년에 고구려의 전투에서 포획된 포로를 오천명의 장사들에 나누어 주었는데,⁵²⁾ 이는 지배층의 정치사회적인 지배기반에 작용되어 한성에서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던 여러 세력들의 반발은 예견되는 문제라 하겠다. 동왕 26년 평양성전투에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켜 대승한 전쟁이었으나 포로와 같은 포획물에 대한 분배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는 땅이 독점하여 앞서의 정치적 상황속에서 왕권강화의 세력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나 귀족연합체제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⁵³⁾ 그 결과 전투에 참여한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한성에 있는 정치세력의 불만요인으로도 작용되어 근초고왕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에는 漢城이 부적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산은 祭天祠地를 행하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한 병사의 위무와 더불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절한 곳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연유하여 제반시설이 갖추어진 한산으로의 천도 필요성이 제고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한산은 왕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정치세력을 제압하고 왕권강화의 내용으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재편하는 王都로써의 정치적

50)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pp. 125~128.

51)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24年條, 군사의 大閱에 왕의 旗幟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五行思想을 넘어 왕제와 같은 권위와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李道學, 『百濟執權國家形成過程研究』, 1991, p. 142.

52)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24年條.

53) 신형석, 앞의 책, p. 54.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산으로 천도한 근초고왕의 정치적 의도는 『書記』 편찬을 통해 정당성의 확보를 추구하고, 왕위계승이 부자상속으로 전환되는 등 왕권강화를 일견 달성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여러 정치세력들의 도전 또한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近仇首王 재위기간의 절반 동안에는 고구려와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외환 및 異變과 심한 기근에 대한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보인다.⁵⁴⁾ 특히 동왕 10년 2월에 삼중 무리의 해가 생기고 궁중의 큰 나무가 절로 뽑히고, 4월에는 왕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괴이한 자연현상으로 당시의 정치세력의 불안과 대립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⁵⁵⁾ 괴이한 자연현상으로 표현된 것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祭天輶地의 자연신앙적인 정치철학의 한계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전통적인 신앙을 포용하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불교⁵⁶⁾를 침류왕이 전격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하겠다. 한산에 불사를 창건하고 10인의 승려를 두어 정치체제의 정비에 뒤받침할 수 있는 불교를 보급시켜 한산을 백제 불교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결국 왕실과 지배세력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침류왕의 재위기간이 2년에 지나지 않았고(백제왕의 평균 재위기간은 21.9년), 태자 阿莘에게서 王弟인 辰斯가 왕위를 奪立하여⁵⁷⁾ 형제상속이란 구정치질서로 회귀하는 하는 정변을 초래하였다고⁵⁸⁾ 하겠다. 또한 辰斯王 7년에 궁실 중수와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이상한 짐승과 화초를 길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는 산성인 한산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진사왕의 즉위년에서 7년 사이에 한성으로 移都하였지만 지배기반을 확립하는 데에는 여의치 못했다고⁵⁹⁾ 여겨진다. 따라서 阿莘王이 동명묘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祭天輶地를 행하여 한산이 신성한

54) 『三國史記』百濟本紀 近仇首王條.

55) 강인구는 앞의 논문에서 近仇首王 때 괴이한 자연현상에 대한 기사를 반복하는 점을 비추어 보아 漢城으로의 再遷都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

5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 1978, p. 298-305.

57) 盧重國, 앞의 책, pp. 132-133.

58) 李基白은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pp. 18-20에서 王位繼承이 高句麗의 예에서 보듯이 兄弟相繼에서 父子相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상태로 보았다.

59) 辰斯王은 10년에 狗淵(위치미상)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지 않고 구원행궁에서 돌아갔다고 한다(『日本書記』 卷 10 應新紀 3年條). 천황에 권좌하여 국인이 사파하고 진사왕을 죽였다는 것은 비록 신빙성이 결여되고 괴이한 내용이지만 사냥 중에 외부의 행궁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합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李丙壽, 앞의 책, p. 381).

곳이란 점을 내세운 점으로 보아, 앞서 한산이 갖는 백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상적인 신성한 성지로써의 성격이 한성으로 천도된 이후에도 이어져 웅진으로 천도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한산은 백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상적인 중심지였다고 하겠으며, 후대까지 영향을 끼쳐 지속적으로 漢山城이란 광의의 지역명으로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VI. 맺 음 말

이상으로 百濟 漢城時代의 都城인 漢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대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 한성시대의 都城은 慰禮城·河南慰禮城(漢城)·漢山이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百濟本紀·地理志와 『三國遺事』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兩 史書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 도성의 관계기사는 『三國史記』百濟本紀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백제 한성시대의 都城의 移都는 (河北)慰禮城 → 漢山下=河南慰禮城 =漢城 → 漢山 → 漢城으로 변천되었다고 하겠다.

둘째, 백제 한성시대의 都城의 명칭은 국가 발전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온조집단이 거주한 '위례'는 국읍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점차 諸集團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우리재·울타리·울안 등의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전환되어 도성의 명칭인 '위례성'이라 불리어 졌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온조 13년에 영토가 확장되어 소국의 단계를 벗어나자 동왕 14년에 河南慰禮城(漢城)으로 천도하였다. 漢城은 다른 諸勢力集團의 거주지 혹은 정복지의 諸國邑과 구별하고 '크다·대(大)'라는 의미를 가진 '한'이란 토속어를 한자화하여 王城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漢山 역시 '큰산·대(大)산'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온조집단이 자연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魚兒嶽을 漢山에 포함시킨 연유는 移都에 따른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무마하고 그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漢山の 위치를 현재의 南漢山城으로 비정하여 그 사실을 추정하여 보았다.

넷째, 漢山(南漢山城)은 百濟가 국가체제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신앙과

결부하여 신성시되었다. 그 결과 南壇을 설치하여 온조집단에 한정된 자연신앙 체계속에 두고 있던 漢山(南漢山城)은 祭天禘地를 행하여 국가통치이념을 창출하는 지역으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이후 한산은 왕권강화와 연관되어 유교와 불교를 수용하는 장소로 의미가 배가되면서 백제 한성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상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추정된 부분이 없지 않다. 앞으로의 연구는 세세한 자료의 재검토 및 남한산성 일대의 고고학적인 유물·유적의 발굴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질책과 비판을 받아 보완하고자 한다.

17, 8세기 南漢山城의 再修築에 관한 一考察 — 최근에 발견한 金石文을 중심으로 —

* 趙 炳 魯

<치 려>

머 리 말

1. 仁祖 16년(1638)의 재수축과 南將臺遷城戊寅碑
 - (1) 仁祖 16년의 재수축
 - (2) 南將臺遷城戊寅碑의 발견과 碑文분석
2. 正祖 3년(1779)의 재수축과 屏岩南城新修記碑
 - (1) 正祖 3년의 재수축
 - (2) 屏岩南城新修記碑의 발견과 碑文분석
3. 蜂巖城(肅宗 12·1686)의 新築과 蜂巖新城丙寅磨崖碑
 - (1) 蜂巖의 위치와 蜂巖城의 新築
 - (2) 蜂巖新城丙寅磨崖碑의 발견과 내용

맺 음 말

머 리 말

남한산성은 일찍이 백제의 옛터이며 신라의 舊長城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¹⁾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신라는 文武王 12년(672) 대북방 전진기지의 하나로 漢山州 동쪽에 주장성을

* 京畿大 史學科 教授

1) 《重訂 南漢志》卷1, 上篇 南漢, “南漢山城百濟之舊 而新羅之舊長城也 本朝因而修之 移廣州府治於城中 始置府尹 後罷府 尹 而陞留守兼守禦 使以鎮之 作爲保障之地…”. 및 같은 책, 卷11, 下篇 勝蹟, “日長山城即新羅時舊長城 文武王所築內有 六井及溪 周八萬六千八百 高二十四尺 石築”.

신축하였다.²⁾ 그 후 襄長城(또는 日長山城)은 남한산성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한산성이 역사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의 남한산성은 畿輔의 保障處로서 水原의 禿城山城, 安城의 竹州山城 그리고 江都와 함께 都城을 수호하는 수도권 방어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關防시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산성의 修築問題가 대두된 것은 167세기 임진왜란과 李适의 난 그리고 丁卯, 丙子胡亂 등의 내외외환을 겪으면서 兵亂과 外侵을 막기 위한 방어책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도성 근처인 경기지방에 있는 산성의 수축문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江都와 남한산성은 畿輔의 重鎮으로써 수원의 禿城山城과 犄角之勢를 이루는 關防으로 인식되어 역대 왕들은 이의 수축과 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倭亂 이후 軍器補修, 軍制改編 등과 함께 山城修築問題는 國防上 중심과제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으로 도성이 쉽게 함락되자 淸野入保 전술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산성수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것은 먼저 古城을 수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宣祖 25년(1592) 수원의 禿城山城, 파주의 馬山古城, 여주의 婆娑城, 죽산의 竹州古城을 수축한 것이 그것이다.³⁾

그런데 남한산성이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산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宣祖 26년(1593) 都城守禦策을 의논하면서부터였다. 당시에는 남한산성의 수축보다는 방어에 더 우선하였다. 판주, 이천 등의 군사를 모집하여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남한산성을 수어하자는 전략이었다.⁴⁾ 이때는 鳥嶺, 秋風嶺, 竹嶺 등 중부 지방의 중요한 요해처에도 關防을 설치하고 火炮, 鳥銃의 제조와 砲臺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후 宣祖 30년(1597) 왜군이 세침하자 남한산성의 방어와 수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柳成龍, 盧樸 등은 남한산성 수축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東門, 西門 그리고 水口門 등의 일부 城役만을 수축

2)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 文武王 12年 8月, “一築漢山州襄長城 周四千三百六十步”.

3) 車勇杰, <조선후기 國防施設의 변화과정—임진왜란 전후의 關防施設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한국사론》 9, 1981.

4) 《宣祖實錄》卷43, 宣祖 26年 10月 壬寅, “上御便殿 謂大臣等曰…上曰漢江以南賊虜 星羅棋布 首尾相接 犯一營則輒相應 高處則例爲設險 可謂能知形勢矣 (臺原府院君)柳成龍曰 臣見原州延平橋嶺 可守處甚多 如廣州南漢山城 水原禿城 杳川杳之山 皆係奇險 守北則湖南可防 當差出京嚴防禁使 聚合廣州利川等地之軍 捍禦京城可也…”.

하였다. 당시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宣祖 36년(1603)에 다시 남한산성 수축문제가 거론되었다. 남한산성의 형세는 동방의 으뜸이며 廣州의 巨鎮으로 남쪽지방을 왕래하는 요충지라 하여 이곳에 산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초련하여 지키게 한다면 京都의 保障이 된다는 입장에서였다.⁵⁾ 그러나 당시 전란으로 인한 인력 동원 문제와 守城의 어려움, 그리고 국가부흥과 民生安集을 도모해야 할 처지에서 산성수축은 소극적이었다.⁶⁾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仁祖反正으로 즉위한 仁祖대였다. 이때 독재한 세력은 西人이었다. 그들은 훈련도감을 폐지하고 翼衛廳의 설치를 포함하여 摠戎廳, 御營廳, 守御廳을 설치함으로써 서인정권의 군사력을 강화하였고⁷⁾ 親明排金의 외교노선을 표방하게 되어 결국 後金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에 仁祖와 西人세력은 서북방어에 주력하였고 한편으로 남한산성의 수축에 적극적이었다. 이 일은 李賁가 앞장섰다. 그는 京畿軍을 禁衛軍으로 삼아 국왕호위병으로 하고 都城이외의 保守之地로써 남한산성을 수축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유사시에 국왕과 도성을 방어하고 왕실의 피난처로써 적합한 保障處였기 때문이다.⁸⁾ 그런데 仁祖 2년(1624) 1월 李适의 逆謀는 御營軍의 증강과 摠戎軍의 성립 그리고 남한산성의 수축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李璫을 중심으로 한 京畿軍의 정비는 江都의 經緯, 남한산성의 수축과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남한산성을 국왕의 피난처로만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 江都와 함께 對後金 및 對倭防禦 차원에서라도 절실한 문제였다.

5) 《宣祖實錄》卷153, 宣祖 36年 2月 乙巳, “備忘記曰 曾聞南漢山城形勢 甲於東方 廣而及嚴 旬巨鎮 南道往來要衝之地 若於此處 修築山城 操練士卒 一俟禿城 得其神而守之 內有以爲 京都之保障 外有以爲 諸陳之控禦…”.

6) 《宣祖實錄》卷153, 宣祖 36年 2月 乙巳, “備邊司啓曰…臣等竊伏南度 此城形勢甚好 而近處各邑 俱是殘破之地 人軍力薄 雖欲彈爲規劃 其勢極難…”. 및 같은 책, 卷161, 宣祖36年 4月 丁酉, “備邊司啓曰 南漢山城 周回二十八里 折以論之 則力七里之城也 必大用人力 可以修繕 而難成修繕 非累萬人難守…”.

7) 車文璧, <守御廳研究(上下)>, 《東洋學》6·9, 1976, 1979.

崔孝範, 《朝鮮後期軍制史研究》, 산서원, 1995.

8) 《仁祖實錄》卷3, 仁祖 元年 閏10月 壬寅, “上書講大學于文政殿…(知事 李)賁曰 我國本是無兵之國 自昔識者 固已憂之 今 則與敵對壘 邊境日急 而未有定計 置之相忘 豈不寒心哉 凡事有備則無患 前定則不困 臣以預爲戰之軍 號爲禁衛軍 如有 緩急 使之入衛 外方之軍 亦令各道常加訓練 預爲團集 有變則一齊調發 兵使各自領來 而八路之兵 屬諸體府 便有統緒 則京畿兵制素定 可以應卒…”.

일찍이 柳成龍이 경기의 關防으로서 수원의 禿城山城과 廣州와 남한산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괄의 난을 진압한 仁祖와 西人세력은 江都와 掎角之勢를 이룰 수 있는 남한산성의 수축에 대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의 大計로써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仁祖 2년(1624) 3월 명의정 李元翼의 제안에 따라 江都의 保障對策은 李聖求에게, 남한산성의 修築은 李曙에게 전달시키므로써 구체화되었다.⁹⁾

물론 조정에서는 異論이 없을 수 없었다. 좌의정 尹訪만이 동의하였을 뿐 우의정 申欽, 병조판서 金瑬, 우찬성 張晩, 호조판서 沈悅 등은 소극적이었다. 이유는 騎兵의 양성과 糧餉의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때문이다. 山城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募民入居하여 백성을 安集시킨 뒤에 수축하거나 경비조달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代案도 제시되었다.¹⁰⁾

특히 명의정 이원익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축성비용과 축성군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호조로부터 1,000石의 山城投糧을 대출받아 충당하는 방안과 八百罰軍(이괄의 난때 麗衛에 응하지 않은 훈련도감군)을 축성군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때는 先江都保障 後南漢山城修築論과 京畿水營을 江華에 이전하자는 견해도 나타났다. 역시 민심수습과 경비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이다. 그러나 仁祖 2년(1624) 4월에 이르러 대세는 남한산성 수축쪽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李貴의 제안이 수용되어 처음에는 沈器遠, 후에 李曙를 摠戎使로 임명하고 남양부사 柳琳을 광주목사, 名醫인 覺性과 應聖 그리고 別將 文希聖 등으로 監董케 함으로써 드디어 仁祖 2년 9월에 始築하고 仁祖 4년 7월에 완공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축된 城의 규모를 살펴보면 안둘레 6,297步 17里半이고 바깥둘레 7,206步 20里 96步이다. 女堀은 1,940壕이며 甕城이 4개, 鎗門이 9개, 軍舖가 125곳, 將臺4개 등의 대규모적인 시설이 설치되었다.¹¹⁾

9) 《仁祖實錄》卷5, 仁祖 2年 3月 己未, “上又御寶政殿 引見三公及備局諸臣…(備議政 李)元翼曰 臣雖無疾病八十立朝 有關士大夫之儀 況臣疾病沈痾者乎 都體察使既不許進 則臣欲一出都門 以試防禦之策耳 城中之狀 此固千古之所無 豈容 再有此變 但西變之事 極可憂也 江都保障之策 專委李聖求 而江都一隅 似難號令 城中如有事變 元子入南漢山城 則庶可中節制 但南漢山城 似難容易築之 今宜以李曙定將 專委築城之策 則可趁冬前 得以畢役矣 臣請以未死前 得盡心力 兩副 體察使料理爲之 願今日定計…”.

10) 李元翼, 《哲里集》卷1, 引見奏事, 甲子 3月 初8日.

11) 《重訂 南漢志》卷1, 上篇, 城池.

이와 같은 남한산성에 대해 종래의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¹²⁾ 대부분 남한산성 수축초기의 연구이거나 義僧의 防番錢에 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도성방어체제와 관련하여¹³⁾ 북한산성과 江都의 산성축조 문제에 관한 연구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筆者는 임난이후 攻城術의 발달에 따른 산성의 수축기술이나 방어기술에 관하여 또한 산성방어책으로서의 軍營編制와 軍糧의 확보 등에 대하여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¹⁴⁾ 그리고 편년자료의 조사와 현장답사(1996년 4-6월)를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몇 개의 金石文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남한산성의 재수축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仁祖 16년의 재수축과정과 관련하여 발견된 南將臺甕城戊寅碑와 正祖3년의 증축과 관련된 屏岩의 南城新修記碑, 끝으로 南漢外城의 하나인 蜂巖城의 新築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蜂巖新城磨崖碑를 중심으로 각각 再修築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碑文의 발견경위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남한산성 축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同知諸賢의 叱正을 바란다.

1. 仁祖 16년의 재수축과 南將臺甕城戊寅碑

(1) 仁祖 16년의 再修築

南漢山城의 재수축문제가 거론된 것은 병자호란¹⁵⁾을 겪은 뒤였다. 조선은 청의 침입으로 항전하였으나 군량의 부족과 후방 지원군의 차단, 그리고 강화도의 함락으로 出城降服하게 되었고, 그 결과 丁丑和約을 맺게 되었다. 조선은 이 화

12) 李章熙, <朝鮮南漢山城考略>, 《史叢》 7, 1962. 이외에 金甲周, <南北漢山城義僧番錢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25, 1988. 등 몇 편에 불과한 실경이다.

13) 吳宗祿, <조선후기 都城防衛體制에 대한 일고찰-5군영의 三手兵制와 守城戰>, 《史叢》 33, 1988.

14) 이연수, <18세기 北漢山城의 축조와 經理廳>, 《정계사학》 8, 1991.

15) 趙稿, <조선후기 南漢山城의 修築과 防禦施設(II)>, 《城南文化研究》 3, 1995.

16) 國防政策史編纂委員會, 《丙子胡亂史》, 國防復國軍弘報管理所, 1986.

金鍾淵, <경요·병자호란>,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pp. 211-300.

李章熙·金海宗, <女眞族의 侵略>,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1.

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韓臣의 禮와 清國年號의 사용을 강요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明과의 斷交는 물론 對明 正朔시에 貢幣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城池를 개축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써 군비의 증강은 일체 금지되어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오랑캐라 멸시해 온 이민족에게 임금이 몸소 出城降服하게 되자 민족의 자존과 체통이 깃발히게 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주족으로부터 받은 치욕에 대한 민족적 각성은 반청의식으로 나타났으며¹⁷⁾ 그 결과 尊王攘夷의 大義名分論에 입각한 복원운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다.¹⁸⁾

이러한 반청의식의 고양과 함께 어영청의 병력을 종래의 6,200명에서 7,000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¹⁹⁾ 精抄軍을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감군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6,500명의 무과합격자로서 局出身이라는 훈련도감 정예군을 편성하여 궁성수비의 임무를 맡기는 등의 군제개편도 단행하였다.²⁰⁾

또 이러한 반청의식은 丁丑和約의 군비증강 조항을 무시한 채 호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재수축하자는 논의를 대두하게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즉 인조 15년 7월 左議政 崔鳴吉이 江都와 南漢은 모두 保障之地로써 한곳에 전념하여 전쟁에 대비할 계획으로 삼자고 제안하자 特進官 李時白은 江都는 호란으로 여지없이 蕩殘되었으므로 수습하고 싶지만 청나라에 번거롭게 소문이 날까 염려되기 때문에 남한에 전념하여 우선 대피할 곳으로 삼아 불의의 사건에 대비하고자²¹⁾ 제기함으로써 남한산성의 재수축문제는 조정의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17) 李迎春, <尤菴 宋時烈의 尊周思想>, 《청제사학》 2, 1965.

18) 趙維業, <北伐과 春秋大義>, 《역제연구》 10, 1979.

李京俊, <朝鮮孝宗의 복원운동>, 《청제사학》 5, 1988.

육군본부, <北伐計劃과 軍營體制의 擴張>,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1977, pp. 120-132.

19) 崔孝範, <어영청연구>, 《한국사연구》 40, 1983.

20) 陸軍本部, <丙子胡亂과 軍營體制의 變化>,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 1977, pp. 102-132.

21) 《仁祖實錄》卷35, 仁祖 15年 7月 丁亥.

“左議政 崔鳴吉進曰 江都南漢 皆爲保障之地 不若專意一處 以爲陰雨之計 特進官李時白進曰 江都蕩殘無餘 雖欲收拾 而恐煩濟人之聽聞 專意南漢 以爲姑避之地可也 朝廷尙不擇一於斯 變出不意 即將何爲哉.”

이와 같이 남한산성의 수축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의 중론은 청나라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守禦使 李時白 등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구실 아래 남한산성 수축은 점차 인조의 支援를 받아 실현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남한산성을 재수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淸이 明을 정벌할 때 조선은 지원병을 파견한다는 和約條件 때문에 대두되었다. 당시 반청의식이 고조되어 있던 조선의 여론은 비록 정축화약에서 원병을 파견한다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천명만청 외교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 온 조선의 입장에서 쉽게 明을 정벌하는데 淸을 원조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청의 원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과의 무력충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산성의 재수축은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재수축은 守禦使였던 李時白이 주도하였다. 李時白은 仁祖 15년 10월에

“南漢의 修築은 하루가 급하나 농사철에 役事를 일으키면 민심을 크게 잃을 것이니 臣의 생각으로는 潰軍으로서 兵을 내는 자 중에서 2,000명을 떼어 내어 반은 역사를 시키고 반은 軍糧을 장만하게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할 듯 하며 조정의 여러 의논도 또한 같습니다.”²²⁾

라고 하여 농사철에 민심을 잃지 않으면서 일반 백성대신에 潰軍을 조발하여 수축케 하자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란 당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군량이 부족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경험을 되살려 山城軍餉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仁祖 16년 1월 李時白은 호란 이후 산성의 식량확보상태가 겨우 4,000餘石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²³⁾ 京倉에 보관중인 3萬石 중에서 大米 9,000石, 小米 1,000石과 한강변에 있는 각 읍으로 부터 거둬들인 田稅 7,000石을

22) 《仁祖實錄》卷35, 仁祖 15年 10月 癸卯.

“…李時白請對 命召之 時白進曰 南漢修築 一日爲急 而農時起役 大失民心 臣意 欲以潰軍之徵布者 除出二千名 半以爲役 半以爲糧 事甚便當 廟堂之意 亦然矣”.

23)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戊辰.

“引見戶曹判書沈悅 工曹判書李時白 副提學李景奭 刑曹參判任統 上謂李時白曰 南漢糧餉 見存者 幾何 曰四千餘石 又謂 沈悅曰 京倉所儲幾何 曰三萬餘石 上曰 山城軍餉可能滿二萬石耶 曰移致京倉米 漕運水上諸邑田稅 則可萬餘石矣 上曰 待水解糧入…”.

산성에 운송함으로써²⁴⁾ 목표물량 2만석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때에는 砲臺의 설치와 대포와 같은 火器의 비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일찍이 선조36년 2월 行副護軍 李箕實이 남한산성의 水口門과 南門 사이에 砲臺를 설치하여 火器를 비치하자고 주장한 바도 있으나²⁵⁾ 남한산성을 修築할 때 砲臺가 없는 결정을 仁祖가 지적하자 당시 축성책임자였던 李曙는

“포루는 성을 지키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됩니다. 포를 쏘게 되면 연기와 불꽃으로 사방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牛馬臺와 성위의 좁은 곳에 흙을 메우는 일은 그만둘 수 없기에 李守一에게 그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도록 하였습니다.”²⁶⁾

고 하여 砲臺는 放砲시 연기와 불꽃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어두워 수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단지 牛馬臺같은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호란 당시 淸의 騎兵에 의한 기습공격과 우수했던 포격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포 등의 화기비치와 함께 砲臺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仁祖 16년 1월에 이르러 右議政 申景禎은 이전에 수어사 李時白과 남한산성의 望月臺와 東格臺를 看審하고 난 뒤 砲臺를 설치하는 功役이 매우 크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축조할 山城圖를 제시하였다.²⁷⁾

그러하여 仁祖 16년 1월 당시에 직을 막는 데는 대포만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

24)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辛未.

“戶曹啓曰 山城軍糧 待解水輸入 當准二萬石之數 而京倉所儲 放料後餘存者 二萬餘石 先將大米九千石 小米一千石 黃船 運致山城下 且以水上田稅七千餘石 直接於山城 則虎可充其數矣 答曰只送萬石 似涉略少加應辦送之”.

25) 《宣祖實錄》卷159, 宣祖 36年 2月 甲寅.

26) 《仁祖實錄》卷25, 仁祖 9年 7月 丙子.

“上命召對講書錄講記 完豐府院君李曙對曰…上又曰 南漢無一處砲臺 是爲欠也 曙曰 砲臺最妨於守城 若放砲 則烟而晦塞 故初既不設矣 至於牛馬臺城上內狹處 補土之役 則所不可已 故令李守一 董完其役矣 上曰勿以爲他人 代領而忽之”.

27)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丁丑.

“右議政 申景禎 啓曰 臣與守禦使李時白 往南漢山城 看審望月臺及東格臺 則外設砲臺功役甚鉅 而不可以事力之重難 而遂廢不舉…”.

게 되었으며 鋼鐵 등의 부족으로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았지만²⁸⁾ 언젠가는 포루와 함께 구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남한산성 재수축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仁祖 16년 1월 16일 右議政 申景禧와 병조판서 李時白과의 논의에서였다.²⁹⁾ 右議政 申景禧가 그려 바친 山城圖를 펴놓고 修築할 곳을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계획대로 증축한다면 城이 완전하고 견고하리라 판단하고 城壕를 지키는 군사도 2만명 정도 확보도록 하면서 1차 산성증축의 책임을 李時白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李時白은 수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소 주춤하였다. 그것은 丁丑和約 가운데 성지를 수축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라도 축조한 이후에 이로 인하여 講의 철회하는 단서가 될까 봐 청에 알린 다음 그들의 태도에 따라 城役을 시작하는게 좋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仁祖는 倭敵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대해 청나라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축에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倭敵에 대비하기 위하여 特選官 任統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舟師를 점검케 하는가 하면³⁰⁾ 전라도의 舟師는 統籌에, 충청도의 舟師는 전라우도에 添防케 하고, 서북지방의 군량을 남방에 운송케 하였으며³¹⁾ 특히 남쪽 關門의 요충지인 鳥嶺과 御留山城의 수축을 통하여 남방에서의 防禦대책을 강구하였다.³²⁾

28)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戊辰.

“引見戶曹判書沈悅工曹判書李時白… 上曰 禦敵之具 莫如大炮 而去年山城亦不措置 是爲大欠也(李時白曰 方欲措置而鋼鐵不足 故未能如意矣…)”.

29)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庚辰.

“上引見 右議政申景禧 戶曹判書李時白 披山城圖問修築之處 謂時白曰 若依此如第 則城其完固矣 守禦之軍 當用幾何 對曰 非二萬則不可也 上曰 山城之事 一以委卿 時白曰 約條中 有山城 勿築之語 倘或因此 而有詰責之端 則甚可慮也 先通清國觀其所答 而始役何如…”.

30)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辛巳.

31)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庚寅.

32) 仁祖 16년 1월 4일(戊辰) 당시 호조판서 沈悅, 공조판서 李時白은 남쪽변방의 警報 즉 對倭防禦策으로써 남한산성보다는 강도방비론을 제시하였다. 이때는 특히 同王 1월 16일(壬午) 남쪽변방에 대한 우려에서 동부승지 李萬壽이 군량확보와 강화부군사 배속을 촉진하는 상소를 올렸고, 22일(戊辰)에는 肅憲 平成連이 제기한 七條倭書문제로 조정에서는 對倭防禦策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그 결과 仁宗의 天生山城과 御留山城 등의 수축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속에서 남한산성 수축론과 江都收拾論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

반면에 한편에서는 천협의 요새지요 나라의 保障處인 江都를 수습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었다. 仁祖 16년 1월 特選官 曹文秀는

“廟堂의 제책을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산성에서는 결코 왜구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江都는 천협의 요새지로서 나라의 保障입니다. 지난해 지키지 못하였던 것은 지형 탓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제책으로는 강도를 수습하는 것만 못합니다.”³³⁾

라고 하여 江都수습론을 제안한 것이 그 하나이다.

이와 같이 대해방어책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역시 江都보다는 남한산성을 더 우선시하여 이의 재수축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재수축은 동왕 16년 1월 25일 병조판서 李時白이 수축에 필요한 성역군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潰軍 1,000명을 우선 調發하여 從事官 洪璫의 감독 아래 望月臺에서 부터 城役을 시작한다고 보고하므로써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당시 광주부윤은 70세 고령의 許徽였다.³⁴⁾ 許徽는 병자호란 이듬해 인조 15년 1월 광주목사를 府尹으로 승격시키자마자 최초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남한산성 중축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반드시 부윤을 겸고 재능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인조는 洪州牧使 李景義를 적임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시백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사관인 洪璫을 광주부윤에 제수하고³⁵⁾ 남한산성 중축의 실질적인 감독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2) 南將臺臺城戊寅碑의 발견과 碑文분석

그런데 이와 같이 인조 16년에 남한산성을 재수축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碑의 발견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일명 南將臺臺城戊寅碑가 그것이다.<사진1 참조>

이라 생각된다.(《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丙戌)

33)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正月 己丑.

“…特選官曹文秀曰 廟堂之策 不教輕議 而山城決難禦寇 而江都天險 國之保障 頃年失守 非他地也人也 爲今日計 莫如收拾江都也…”.

34) 許徽는 丙子2月 以嘉善拜 丁丑正月 陞府尹 戊寅正月 移拜提督.

35) 《備邊司啓錄》5冊, 仁祖 16年 1月 20日, 同 16年 1月 25日.



〈사진1〉 南將臺甕城戊寅碑의 모습.

1) 碑의 발견 경위

城南文化院附設 郷土文化研究所의 연구원인 장철수, 허창무, 전보삼, 조병로 교수는 허흥식, 조유전 교수 등과 함께 남한산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1996.4.10) 그리고 배필 넷째 주에 남한산성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4월 28일 1차로 行宮址로부터 북문과 동장대지를 거쳐 봉암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하였다. 우리 일행은 1차 답사에서 南漢外城의 하나인 鍾岩城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鍾岩新城丙寅磨崖碑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첫번째 쾌거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그리고 5월 26일에는 남문에서부터 南將臺址와 1, 2, 3 甕城을 거쳐 동문에 이르는 2차답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일행은 1차 甕城조사이후 남장대지 2차 웅성과 포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보삼교수의 제보에 따라 甕城안에 있는 홍예문을 축조하는데 사용한 돌에 “戊寅七月 日”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진 비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산성답사이후 두번째 커다란 소득이었다. 이 돌은 아마도 虹蜺門의 안쪽 벽면을 축조할 때 사용된 것으로 벽면이 무너져 발견 당시에 碑의 하단이 20cm 가량 땅속에 묻혀 있었다.

2) 碑의 형태와 내용분석

이 碑의 크기는 가로 115cm, 세로 60cm이며 총 글자수는 105字로 해서체이다.

비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우측면은 都廳이라 築城을 맡은 감독관의 관직과 이름이 적혀 있으며 좌측면은 築城에 동원된 木手 이하 匠人의 이름과 숫자가 새겨져 있다.

이 碑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泥匠	治匠	石手	木手	戊寅				監役官	領將	別將	都廳
金	李	手	手	七				前部將	衛司	折衝	通政
芝	己	邊	邊	月				前部將	海司	將軍	大夫
屎	曉	手	首	日				前部將	將軍	軍	守
正	正	姜	梁					前部將	行龍	知	廣州
七	二	福	男					前部將	宋	中	府
		北	正					前部將	孝	樞	
		十三	七					前部將	明	樞	
			四					前部將	律		
								前部將	義		
								前部將	龍		

이를 해석하면

都廳은 通政大夫守廣州府尹兼防禦使인 洪璫이며
 別將은 折衝將軍 俞知中樞府事 崔晚得.
 領將은 領衛將軍 行龍驍衛司果 宋孝祥,
 監役官은 前部將 金明律, 前司果 慶以幸, 前部將 金義龍이다.
 戊寅(仁祖16:1638) 7月 日에 완공하다.
 木手邊首는 梁南 등 74명이고
 石手邊首는 姜福 등 13명,
 治匠은 李己曉 등 2명,
 泥匠은 金芝屎 등 7명이다.

위의 碑文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비문을 새긴 시기는 戊寅 七月 日이 언제인가를 규명함으로써 가능하다. 남한산성 축성시기를 통하여 戊寅은 인조 16년(1638)과 숙종 24년(1698) 둘 중에서 인조 16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한산성 수축의 책임을 맡은 도청의 총책임자가 廣州府尹兼防禦使 洪璫으로 관명되었기 때문이다.

洪璫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목을 광주부로 승격시킨 후 許徽에 이어 두번째로 府尹으로 재수되어 병조판서 이시백의 건의에 따라 인조 16년 1월 26일 이후 남한산성 재수축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는 선조 39년(1606)에 태어나 현종 6년(1665)에 일생을 마친 인물로 본관은 남양이고 字는 伯問, 號는 竹巖이고 洪友直의 아들이다. 인조 7년(1629)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김상헌, 오달계 등과 격화를 주장하여 그들과 함께 적진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인조 16년(1638) 활쏘기와 말타기에 남달라 무제가 뛰어난 광주부윤에 특별 기용되어 남한산성 수축을 맡았으며 1642년 강계부사, 의주부윤, 1645년 경상도 방어사, 1646 우부승지, 우승지, 1647년 황해도 관찰사, 청주목사, 1651년 계주목사, 1653년 김주목사, 1662년 한성좌윤, 1664년 충주목사, 한성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조 16년 남한산성의 재수축기간을 1월26일 이후 시작하여 같은 해 7월에 완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재수축할 때 동원된 築城軍에 관한 문제다.

인조16년 1월부터 재수축의 논의가 일어난 때부터 축성군은 호남지방의 潰軍 2,000명 가운데 1,000명을 調發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인조16년 2월 10일의 기록에 의하면 호남지방의 潰軍 2,700명 가운데 성역에 부여하기 위하여 975명이 調發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한편 승군을 성역에 調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仁祖 16年 2월 5日 守禦使 李時白의 書啓에 의거하면

“남한산성을 수축하는 일이 지극히 많으므로 지난번에 제가한 潰軍은 원래의 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부여해야 할 곳과 비교해 보면 마치 티끌을 모아 산에 더하는 것과 같아서 결단코 능사할 전에 마칠 수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속히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승군을 뽑아 쓰는 것이 지금 적당한 시기는 아니나 그전부터 이와 같은 중대한 역사에 승군을 제외하고는 쉽게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下三道 및 강원도의 승군 중에

36) 《續通司曆錄》5冊, 仁祖 16年 2月 10日.

“以續通司曆記 二期赴役軍事 傳曰 昨日下午問事 非謂此也 乃潰軍自願赴役者中 兩期願立者發名事也 傳教矣 潰軍各處分定之後 其來役者少 本司無由得知 卽問守禦使 則湖南潰軍二期應立者 二千七百名內 已爲赴役者 只九百七十五名”.

먼저 도침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도침이 없는 승군을 낱낱이 뽑아서 3개조로 나누어 올라오게 하되 제1진은 15일, 2진은 20일, 3진은 25일 동안 부역하게 하여 부역을 마친 후 도침을 주어 돌아가게 하고 그 중에서 나이 많고 권설하여 승군이 되고 파르는 자를 側將으로 삼아 부역하게 하면 이 승군들은 도침을 얻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는 자는 부역의 양을 적게 하고 나중에 오는 자여진 많이 부과시키면 그들은 반드시 말을 다투어 올 것입니다.”³⁷⁾

고 하여 瀟軍만으로는 농사철 이전에 성역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하삼도 및 강원도의 승군 중에서 도침이 없는 승군을 조발하여 남한산성의 증축에 부역케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下三道와 강원도의 승군을 성역에 조발하게 되었다.³⁸⁾

그러나 승군의 남한산성 調發에 대해서는 왜구에 대한 방비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남방에서 왜구에 의한 변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남·죽령·경상·전라도의 산성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인조 16년 2월 10일 좌의정 崔鳴吉은 남방의 변경에 변란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심하여 영남지방의 산성을 수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승군을 모두 남한산성에만 調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³⁹⁾

그 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동왕 16년 4월 8일 영의정 李弘胤는 度牒의 유무에 따라 도침이 없는 승군은 남한산성에 調發하고 도침이 있는 승군은 각 본도(경상·전라도)에 調發하거나 좌도와 우도를 구분하여 調發하자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좌의정 崔鳴吉은 남한산성은 승군이 아니더라도 瀟軍을 조발

37) 《備邊司謄錄》5冊, 仁祖 16年 2月 5日.

“啓曰 今見守禦使李時白書啓 南漢城役極爲浩大 前日啓下瀟軍元數 本非不足 而以其役處比較則有似聚應西山 不但難完 極爲可慮 必須別擇精處 可以速見其效 僧軍發赴似非其時而自前如此重役 除却僧徒 必不得容易斷手 下三道及江原道僧軍 除前受度牒者外 無度之僧——調發 分三運上送 而初運則十五日赴役 二運則二十日 三運則二十五日 准役後受牒而還 其中擇老 實爲自足所信服者 定爲領將 使之來役 則此輩以得權爲幸 又以先後來赴 仍定役日多少則虛實亦必爭先來赴矣”

38)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2月 辛丑.

“傳局欲請調發 下三道及嶺東僧徒 擇定領將 助築南漢城 從之”.

39) 《仁祖實錄》卷36, 仁祖 16年 2月 甲辰.

“左議政崔鳴吉 回自藩陽 上引見 (崔)鳴吉曰… 南漢退築之舉 似不可緩 而清國聞之 則不無詰問之端 似意只令修築額祀處 而瀟軍則市運置城內 徐觀事勢爲之無妨 且嶺南山城 不可不修築 而僧軍盡赴南漢之役 則嶺南山城修築之時 當用何人”.

하면 성역을 마칠 수 있다고 하여 僧軍調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정의 의논에 대해 인조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실사 양남(경상,전라)의 산성을 수축한다 하더라도 승군조발은 이미 결정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였다. 이에 최명길은 승군을 나누어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하고 그 대안으로써 전라도의 승군은 전라도에, 경상도의 승군은 경상도의 산성 수축에 쓰고, 단지 강원도와 충청도의 승군을 남한산성에 調發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함으로써 결국 인조도 이에 따라 충청, 강원도의 승군은 남한산성에, 下三道の 승군은 각 本道(경상,전라)의 산성역에 조발토록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⁴⁰⁾

이를 종합해 볼 때 인조 16년의 남한산성 증축에 동원된 築城軍은 호남지방에서 올라온 潰軍 1,000명, 충청·강원도의 승군과 앞의 비문에 나타난 木手, 石手, 治匠, 泥匠 등의 匠人 96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은 당시 산성에 거주하는 募民이나 僧軍 또는 入防軍이 調發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추후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2. 正祖 3年の 再修築과 屏岩南城新修記碑

(1) 正祖 3年の 再修築

정조대에 이르러 남한산성은 역시 수원의 禿城山城, 安城의 竹州山城과 더불어 掎角之勢를 이뤘 畿輔의 保障處로 인식되어 중요시하였다. 특히 수원은 경기도와 三南의 요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都城을 방어하는데 있어 畿輔의 重鎮으로써 일찍이 조선초부터 평주, 개성, 강화와 함께 관방의 구실을 해왔다. 그리고 정조대에 이르러 사도세자의 능침인 永佑園을 수원의 花山에 遷奉함으로써 수원은 새삼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顯隆園에의 園幸과⁴¹⁾ 行宮보호를 위해 華城을 축조함으로써⁴²⁾ 정치, 군사상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華城은 남한산성과 掎角之勢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방어체계의 제일 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역대 국왕

40) 《鶴邊司謄錄》5冊, 仁祖 16年 4月 8日.

41) 朴漢成, <正祖의 顯隆園遷拜>, 《기전문화연구》10, 1993.

42) 崔洪奎, <조선후기 華城築造와 향촌사회의 諸樣相>, 《국사관논총》30, 1991.

들과 當路者들은 江都와 남한산성의 방어체제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정조 2년(1778) 7월에 司直 尹冕東이 국방전반에 대한 상소를 올린 가운데 김해의 金井山城, 黃山의 龜鏡山城, 老姑山城을 수축하도록 하고 기타 梁山山城, 天生山城, 葦山山城, 金鰲山城, 禿用山城 등을 수선함으로써 諸路를 控制하여 외적의 방비에 진력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남한산성은 副都이므로 다른 것의 保障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수어청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府尹이나 守令보다는 높은 衙門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총융청을 혁파, 수어청에 합병하여 반드시 남한산성을 직접 鎮守하면서 畿輔를 統禦함으로써 경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⁴³⁾ 그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심지어는 남한산성을 副都로 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남한산성의 국방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江都와 남한산성 중심의 방어책에 반대하고 都城수비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컸다. 정조 21년 9월 副司直 姜遊는

“江都是 해마다 城을 수축하면서 郡城에 대해서는 대면히 마음을 쓰지 않고 있으며, 남한은 해마다 계산하여 곡식을 저축하고 있으면서 도성에는 전혀 남는 저축이 없습니다… 江都是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진실로 육지의 寇賊을 방어하기에는 미흡지만 三面에 벼를 정박할 수 있어서 脚底를 방어하기에는 불리하니 이는 긴급할 때 반드시 귀의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남한은 산세가 외따로 떨어져 있어 軍糧의 운반을 계속하기 어려운 열려가 있으며 성안이 비좁아서 많은 군병을 수용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으니 이곳은 오래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⁴⁴⁾

43) 《正祖實錄》卷6, 正祖 2年 7月 丁未.

“司直尹冕東上疏曰… 夫南漢郡副都 非特如凡他保障 而守差實管之 則其位高其權重 特爲軍門而後 可以鎮守京都…”.

44) 《正祖實錄》卷6, 正祖 2年 9月 丙申.

“副司直姜遊上疏曰 都城內宗廟社稷之所在 人民財貨之所萃 此爲必守之地 而議者皆以爲郡城不可守… 江都則連年築城 而都城則恬不爲意 南漢則計年儲穀 而都城則全無餘蓄… 江都則四面環海 固利於禦寇 而三面泊船 不利於禦海寇 此非緩急必歸之地 南漢則山勢孤絕 稅運有難繼之慮 城內狹窄 多兵有難容之憂 此非持久可守之地 以臣計之 莫如專意於都城”.

고 비판하고 都城의 城壕를 보수하고 軍餉을 비축함으로써 도성중심의 방어력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巡城軍의 배치, 柵木의 설치, 軍額減少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조 2년 6월에는 수어청과 총융청의 분합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군제개편을 통한 남한산성 방어를 강화하자는 논의도 대두되었다. 그것은 嚴輔의 군사를 나누어 2개의 군영을 설치함으로써 군제가 나누어지고 軍糧의 소모가 쓸모없이 많아진다고 하여 군제의 대변동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병제의 精鍊과 軍糧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兩營을 합치자는 合營論, 양영을 혁파하자는 혁파론, 그리고 합영하여 남한산성을 鎮守하자는 南漢山城鎮守論, 기타 양영은 그대로 두고 각각 지방에 나아가 鎮守하자는 입장, 중앙의 훈련도감과 경기도에 소속시키자는 입장⁴⁵⁾ 등 여러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정조 19년 8월 守禦京廳을 혁파하고 광주부를 광주유수로 승격시켜, 광주유수로 하여금 남한산성수어사를 겸임하도록 하므로써 일단락 되었다.⁴⁶⁾

이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남한산성의 개수축은 이뤄지게 되었다. 정조가 3년 1월 12일 判中樞府事 徐命膺을 수어사로 임명함으로써⁴⁷⁾ 남한산성의 수축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당시 남한산성은 “南漢城壕 公廩圯處 極其夥然 而以物力之未及猝辦 尚不得修補”⁴⁸⁾할 정도의 실정이었다. 따라서 수축에 따른 재원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守禦使로 임명된 徐命膺은 동년 2월 수어청의 戶房所와 管餉所 그리고 남한산성의 別庫, 營庫, 保恤庫, 城機庫 등의 軍餉 실태를 직접 조사하였는 바 戶房所의 4만 5천냥이 현재 겨우 1만냥 정도, 관향소의 10만 7천냥도 단지 3천냥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고 또 남한외영의 各庫의 군량과도 대부분 各廳에 借貸하거나 民戶에 糶糴하여 停擱·折減·私貸 등으로 말미암아 元額대로 거둬들이지 못함으로써 “무너진 城壕과 기울어진 公廩을 재력이 넉넉치 못하여 대체로 뜸뜸하고 치밀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완벽한 성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⁴⁹⁾고 실토하고 大更張을 통해 그 때

45) 《正祖實錄》卷5, 正祖 2年 6月 壬午.

46) 《正祖實錄》卷43, 正祖 19年 8月 丙申.

47) 《正祖實錄》卷7, 正祖 3年 1月 丁酉.

48) 《傳通司謄錄》160番, 正祖 3年 2月 27日.

49) 《正祖實錄》卷7, 正祖 3年 2月 丁巳.

“守禦使徐命膺上疏曰 臣於頃者 以受符入侍也 天語鄭重 諭之以收拾敗局 自顧迂拙 無望承當 而恩命不可違 退考本廳事例 與諸雲則內營之所管轄有二 卽戶房所也 管餉所也 然戶房

단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城機別將을 폐지하고 留營別將에 합속시키는데⁵⁰⁾ 한편 남한산성의 수축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수어청 본청에 전수이사 洪國榮이 저축해 놓은 別備錢 1만냥을 取用하기로 하고⁵¹⁾ 부족한 재원은 廣州 東三面 邑民들에게 환곡으로써 대여한 군항곡 5,000석의 耗穀 500석을 割付하여 산성의 類圮處, 灰石改造, 그리고 船門이나 軍舖 및 公廩 등을 修補하는 데⁵²⁾ 쓰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3년 남한산성은 증축되었다. 이에 대해

所之四萬五千餘兩 初非稅入 乃是前後守禦使 交遞時所別備者 而或因貨貨之未奉 或因軍餉 題文書之買賣 盡數消融 只有前守禦使之所別備一萬兩 亦必消融於數年之內 則是本廳無戶 房矣 曾餉所之十萬七千餘兩 亦非稅入 乃是戶曹惠題貨用本廳米 以錢還補者 而日本廳 逐年 買米 以送南漢 俾足元數 或因買米未收 或因給債未奉 而多遺在民間 目下留庫 只是三千兩 零 則是本廳無管餉矣… 故城壕之類圮 公廩之類 率以財力之不敷 大不緊緻 今未免爲不完之城”.

50) 《備邊司謄錄》160冊, 正祖 3年 2月 8日.

“今二月初八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守禦使徐命濟所啓 南漢之留營別將 行將士支放之事 城機別將 行城廩修補之事 問其甚事則一人兼之有餘 而兩別將分居城中 各有關事 使典糧料之費 極其浩繁 往往有稱貸還報之弊云 所謂汰冗官 政指此等之類 城機別將 姑爲革罷 合屬於留營別將何如 上曰 大臣之意何如 領議政金曰 留營別將之兼城機別將 似無相妨之端 亦足爲省冗費之一段 重臣所達 誠得宜矣 左議政徐曰 分設之故 日多冗費 合而一之 事甚便好矣 上曰 依爲之”.

51) 《備邊司謄錄》160冊, 正祖 3年 3月12日.

“今三月初九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菴)… 又所啓 此守禦使徐命濟狀啓也 南漢山城修築時 本廳前就守禦使 別備錢一萬兩 有所請得矣 前人不虞之備 醫欲需用於保障 此等之大役 使之依狀請取用何如 上曰 依爲之”.

52) 《備邊司謄錄》160冊, 正祖 3年 2月 27日.

“今二月二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金尙菴… 又所啓 此守禦使徐命濟狀啓也 牧學留營別將謀報以爲 廣州東三面所受還穀五千石 連因停津之故 稻之又稀 只餘七百餘石 排還計數 將至於絕乏之境 元軍餉留庫中 取五千石 移劃留營 使之繼進分給事 令廟堂處 南漢城壕 公廩類圮處 極其夥然 而以物力之未及猝辦 尙不得修補五千石 今年純五百石 盡數割付於本州府尹 山城類圮處 以灰石改造 至於船門軍舖諸公廩等處 亦令修改事 並令廟堂商確稟處矣 東三面民人 每年所受之還穀 粟爲五千石 而即今所餘 不過七百石 則今此加分勢不可已 依請許施 待秋使之還捧於元餉庫 而至於五千石 今秋所出之純米 請作城廩修築之用 聞其事勢 有難訪塞 何以爲之乎 上曰 左相之意何如 左議政徐(命善)曰 南漢分糧 每邑不足 年年加請 使成近例 今若割給 使之均排 則雖不更請加分 糧食亦無缺乏之患 以此以彼 俱甚便宜 而城壕公廩之修補 則事勢誠不可小緩 以今年純糧 許付廣州 俾趁漕而前 充役似好矣

서는 다음사료가 참고된다.

- A. 南漢山城補築告完 廣州府尹李明中加資 守禦使徐命膺特賜臬比
(《正祖實錄》卷7, 正祖3年 6月 庚午.)

- B. 正祖三年修築元城 撤瓦覆壁 定四門名 東曰左翼門 西曰右翼門 南曰至和門 北曰全勝門 (《重訂南漢志》卷1, 上篇, 城池)

위의 사료 A에서 남한산성의 보축공사는 정조 3년 6월 18일에 守禦使 徐命膺의 지휘아래 廣州府尹 李明中이 감독하여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료 B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이때 元城을 수축하고 4대문의 이름을 東은 左翼門, 西는 右翼門, 南은 至和門, 北은 全勝門이라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적어도 정조 3년 3월 이후 수축공사를 始役한지 6월 18일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수축한 것을 계기로 정조는 3년 8월에 “南漢·北漢은 다 같은 保障인데 北漢에는 誌가 있고 碑本이 있으나 南漢에는 이것이 없다”⁵³⁾고 하여 徐命膺에게 南漢誌를 편찬케 하였다. 또한 서명용은 남한산성 증축에 관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 이른바 “南城新修記”를 지었다. 오늘날 이것은 헌종 12년(1846)에 洪敬謨가 쓴 《重訂 南漢志》에 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南城新修記碑가 발견되어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다.

(2) 屏岩南城新修築記碑의 발견과 비문분석

1) 屏岩南城新修築記碑의 발견

필자가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답사반과 함께 남한산성을 세번째 답사한 것은 96년 6월 30일 이었다. 답사코스는 남문에서 → 천주사지 → 알문 → 수어장대 → 용봉 → 서문 → 병암 → 연주봉용성 → 북장대 → 북문을 선정하였다.

上曰 依爲之”。

53) 《正祖實錄》卷8, 正祖 3年, 8月 壬戌。

“…又敕曰 所重乎山城者 夫豈但爲陰雨之備而已 萬刻日取見邑誌 實實難略 不堪憑信 況南北漢 均是保障 北城則有誌有刊本 獨此南城無是云 雖於此等典故 嘗所留意 則古事遺蹟之難出見聞者 彙類分帙 作成一書 以圖壽傳之方 不害爲尙文獻之一端 卿其遵此編摩”。

우리 일행은 수어장대로부터 약 200리 정도 떨어진 서문방향 우측 길가 언덕 병암에 이르렀다. 일명 뽕바위가 그것이다.<사진 2참조>



<사진2>수어장대와 서문사이에 있는 병암

이 바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날은 안개가 자욱하고 비도 간간이 내린 날씨였다. 흐리고 어두운 날씨 때문에 좀더 긴장된 눈으로 글씨를 판독하였다. 그 결과 우측상단에 “南城新修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南城新修記碑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이 때에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洪敬謨의 《重訂南漢志》에 실려 있는 徐命膺의 <南城新修記>를 읽은 바 있기 때문에 금방 떠올랐다. 그리고 분명 이것은 그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비문의 일부를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我聖上三載己亥부터 丙子治石屬命膺爲之記”까지는 《重訂南漢志》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 듯했다. 그러나 그 이후 비문은 南城新修記에 없는 것이었고(B면), 또 왼쪽의 또 하나의 碑面에도 어떤 글자를 새긴 흔적이 있었다. 정밀조사를 기약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때에 필자의 뇌리에는 그렇다면 인조 2년에 시작하여 4년에 완공한 사실을 기록한 남한산성수축비는 없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 비의 구조에서 알미암은 것이고 또 하나는 徐命膺의 <南城新修記>에 “功既訖 役者得二嚴於城西 其上有天啓月日刻 餘皆漫漶不辨 乃走告府尹 府尹曰 此始築時 紀功者”라는 귀결때문이다. 이것은 필자로 하여금 시급히 정밀조사를 재촉하게 하였고 급기야는 9월 8일 탁본과 더불어 정밀실측을 위한 준비를 하여 재차 답사하였다. 바위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전면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 바위는 부채꼴 모양으

로 병풍처럼 놓여 있으며 가로 4.7m, 세로 3m 정도되었다. 뒤의 바위는 우측에 屏岩이라는 큰 글자와 千歲己未李民夏書, 그리고 李寅阜, 李寅萬, (李)民夏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양자간에는 특별히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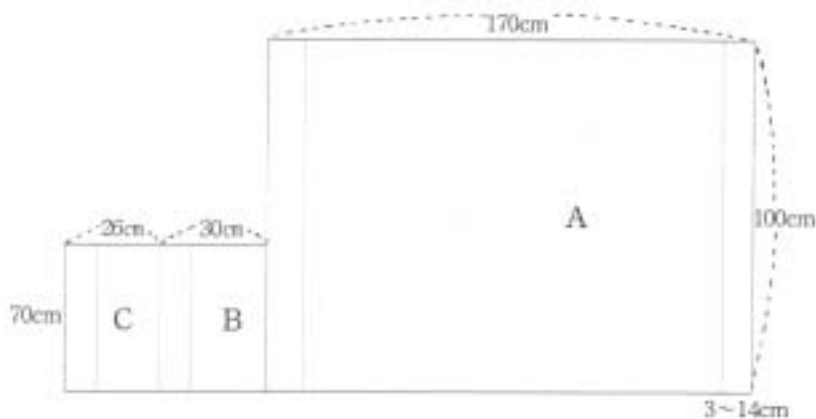
전면의 바위는 <사진 3> 과 같이 陰刻한 3개의 碑面으로 되어 있다.



<사진 3> 屏岩 前面의 南城新修記碑

이 비문을 실측한 결과

<屏岩南城新修記碑 실측도>



我 聖上三載已亥春守甯里侯徐公應泰曰
漢國之直歸也成博劉誌今無一定漢唐之上
一萬石之益以命對以單任守聖使洪國珍謹
九石石於是臣金壽令南榮可唐州府尹李鼎中
其事寄發別將黃仁漢漢其功戶用事宜補德
國兵馬事宜金榮德為內外都監觀漢官韓光賢
李承福李鼎臣也傳友者都監韓載載朴相重
權典福李鼎臣也傳友者都監韓載載朴相重
康光山康典安漢樸康宗治其供贊之新然則
曹漢光安國奉任賢契之相運到李朝一李運大
李時義是南城執事明官而顯一松城光金時
君義執事也乃選請明官而顯一松城光金時
李李義執事也乃選請明官而顯一松城光金時
李仁益金所人韓光聖李復李仁本李爾會益
德而朴向壽保福金理高計家墳地以補以要
各記程朴於陳國聖宮而實守有罪兼費買
而無不替城中父老為商聖民阻困苦之權宜助
女員與金聖李和其發官呢五十有餘日延延船
理編就三十里都到德布石聖金時委署門樓戶
權保補管 聖上成德放之世功既就委署門樓戶
屬於板西其上有大德月日刻給皆德潤不坤乃
今告君尹府尹此始聖時記聖時留其以一日
今數世勤其可處守任任石府聖金應為之記一
照國崇德大夫行判中樞府使兼弘文館民學藝
文蔚大德學加成均館事 奉教賢民學保金賢記
通政大夫守廣州府尹 □ □ □ 韓吉龍石助附使李鼎中

이 비문은 《重訂南漢志》의 南城新修記와 대조해 볼 때 10行 6字이하 安漢料, 梁宗浩가 추가되고 같은 行 15字인 甃아래 글자 灰가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그리고 25行부터 韓國崇祿大夫 이하 徐命膺記와 通政大夫守廣州府尹 이하 李明中書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南漢山城을 새로 修築한 記

우리 임금님 3년 己亥 봄(정조 3년 1779)에 守禦使 臣 徐命膺이 아뢰기를 “南漢은 나라의 안전한 곳입니다. 성이 허물어져 한 곳도 완전한 곳이 없으니 보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임금이 이르시기를 “제물이 있는가” 하시기에 “前任守禦使 洪國영이 모은 돈이 1萬兩이니 9백석의 쌀을 더한다면 보수가 가능합니다”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께서 9백석의 쌀을 허락하시니 이에 臣 命膺이 兼營將廣州府尹 李明中으로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兪英堦장 黃仁模으로 그 공역을 할당하게 하고 호방군관 柳德謨와 병방군관 金樂愼으로 內外都廳을 삼고 교련관 韓光賢과 李彦植으로 도감관을 삼고 벽돌궁는 공는 楊德世, 安漢維, 石致斌, 權興樞, 李頌臣 이오 灰를 굽는 자는 鄭德瓚, 韓載範, 朴相豐, 奉光佑, 廉繼, 安漢料, 梁宗浩이요 벽돌 굽는데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는 자는 曹漢光, 安國泰요 벽돌과 쇠를 운반하는 자는 李顯一, 李運大, 李時範이니 이는 곧 南城의 執事 陪官으로 顯一은 松板別將이요 德世는 京畿執事이다. 이에 군고에서 선발하여 十八牌將을 만드니 鄭光奎, 金時亨, 李東赫, 黃道明, 任天杓, 鄭龍彬, 李仁宅, 李彦章, 李仁益, 金熙人, 韓光聖, 李復亨, 李仁木, 李碩曾, 延德雨, 朴尚蕃, 孫錫福, 金相壽 등으로 綠와 堦을 분담하여 시공하되 각각 성명을 타면에 기록하여 군고 완전하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벌하니 모두 용기 내어 용원하는 복이 이기지 못할 정도였다. 성중의 부노가 숲을 밟고 개를 삶아 위로하며 어린 남녀들도 회와 벽돌을 이고 지고하며 다투어 역사를 도우니 50여 일에 놀다놀은 粉堦 30리를 쌓으며 장막을 진열한 듯 金石같이 견고한 장대와 문루에 단청이 찬란하니 모두가 임금님의 威德의 소치이다.

功을 마치자 役軍이 바위 두 개를 城 西쪽에서 얻으니 그 위에 天啓月日이 새겨져 있으며 나머지는 깎이고 씻겨서 분별할 수 없었다. 이에 달려가 부운에게 고하니 府尹이 이르기를 이것은 처음 성 쌓을 적에 공을 기록한 것이다. 그 하나를

남겨두어 오늘을 기다렸으니 운수이다. 그 운수를 어길 수 없다 하며 석공을 불러 돌을 다듬어 徐命膺에게 무덤하기에 記를 하는 바이다.

報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兼弘文館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奎章閣提學 徐命膺이 記를 작성하고

通政大夫守廣州府尹□□□□ 兼京畿右防禦使 李明中이 쓴다.

여기서 우리는 정조 3년 남한산성 세수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 (1) 산성수축시기 : 정조 3년(1779) 봄부터 6월 18일까지 약 50여일.
 - (2) 산성수축이유 : 나라의 保障인 남한산성의 緯縷이 剝缺하여 완전한 곳이 하나도 없으므로.
 - (3) 재원 : 前守禦使 洪國榮이 모아놓은 1만냥과 900석의 쌀(추가분).
 - (4) 수축인원 : 監督官 前益將廣州府尹 李明中
 指揮官 : 留營別將 黃仁煥
 內外都廳 : 戶房軍官 韓德謨, 兵房軍官 金榮嶺
 都監官 : 教鍊官 韓光賢, 李彦植
 煙臺官 : 楊德世(京畿執事), 安漢維, 石治城, 權典福, 李碩臣
 煙灰官 : 鄭涉瓚, 韓載範, 朴相豐, 秦光佑, 廉鎭
 薪燒官 : 曹漢光, 安國泰
 搬運官 : 李顯日(松坡別將), 李運大, 李時範.
 18牌將 : 鄭光奎, 金時亨, 李東赫, 黃道明, 任天約, 鄭龍彬, 李仁宅, 李彦章, 李仁喆, 金熙人, 韓光聖, 李復亨, 李仁本, 李碩曾, 廷德雨, 朴尙藩, 孫錫福, 金翺壽
 - (5) 수축규모 : 粉堞 30里.
 - (6) 南城新修記는 당시 守禦使였던 徐命膺이 작성하였고, 碑文의 글씨는 당시 廣州府尹 李明中⁵⁴⁾이 썼음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

54) 李明中の 생몰년대 1712(숙종38)~1789(정조13): 본관 전주, 字 崑磐, 徽議政 蔣의 손자. 현감 顯應의 子. 母는 洪重箕의 女. 영의정 金在魯의 사위. 1741(영조17) 진사, 1744 獻親 郎 祿수. 1744 監造官, 濟用監 主簿, 戶曹佐郎 正郎(장서원감, 금성현령) 황주목사 祿수, 양전사업 추진, 전주목사, 풍조정랑, 파주목사, 선혜청낭청, 사복시판관 역임. 1770 예전 군수, 이천부사, 1774 평양서윤, 나주목사, 1778(정조3) 廣州府尹으로 남한산성 개축후에 충청감사에 특별되었고 그 이후 문녕부 동지사, 의금부 동지사를 역임한 인물임.

그것은 A비문의 말미에 “功既訖 役者得二巖於城西 其上有天啓月日刻 餘皆漫
 漶不辨 乃走告府尹 府尹曰 此始築時紀功者”라는 귀절과 B의 碑面에

總 內
 攝 外
 載 金朴策
 觀 仁壽應
 厚城色
 金朴金
 聲昌必
 □ 聯瑞
 □ □ □
 □ □ □
 □ 策 □

라는 귀절이다. 즉 위의 A와 B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의 A와 B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구대어 이미 A면의 본문 가운데 성역을 담당한 구체적 직명과 인명이 있는데 李明中書 이후 별도의 內外策應色 金必瑞 등의 사함을 적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에 A와 B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A면과 B면의 비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A면의 말미 부분을 다시 유의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왜냐하면 정조 3년(1779) 6월 18일 남한산성수축에 관한 공역을 바치고 성의 서쪽에서 2개의 바위를 발견했는데 그때 비면에는(뒤의 바위가 아니고 앞의 바위 바분) “天啓月日”이 새겨져 있고 그 나머지도 비바람에 꺾이고 부서져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 당시 부윤은 그 내용은 처음 수축할 때의 공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天啓月日”이다. 天啓 年號는 光海君 13년(辛酉 1621)부터 仁祖 5년(丁卯 1627)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A·B면의 내용은 정조 3년 재수축 이전에 광해군 13년(1621)의 남한산성 수축사실이나 또는 인조 4년(1626)의 남한산성을 수축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A면은 정조 3년 남한산성 중축때 비문을 다시 다듬어 현재의 南城新修記碑文을 새긴 것으로 판단되며 B면은 광해군 13년 또는 인조 4년의 내용 중

의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잠시 광해군대의 산성수축과 13년의 남한산성 수축에 관하여 잠깐 언급할까 한다.

광해군 2년 1월 비변사는 경기지방의 17개 산성 가운데 수원·의 禿城山城만이 꾸준히 수리되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산성을重修할 때는 수원이나 파주의 산성뿐만 아니라 인천, 龍津, 광주·고양 등의 산성도 앞으로 수축하라고 하였다.⁵⁵⁾ 그뿐만 아니라 여주의 婆娑山城, 安城의 竹州山城 수축에도 관심이 매우 컸다. 이때부터 광주의 남한산성도 수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후 광해군 10년 6월에 西北地方의 守禦策으로 평안도의 永柔山城, 황해도의 瑞興山城을 修繕하고⁵⁶⁾ 함경도 總城의 邑城, 明川의 在德山城, 吉州의 城津山城, 황해도의 黃州城, 平山山城, 海州城, 首陽山城 등의 산성을 수축함으로써 서북방어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각처의 산성을 방비하는 대책의 하나로써 江都와 남한산성을 保障의 땅으로 인식하고, 양남의 군병은 江都에, 충청도의 군병은 남한산성에, 경기·강원도의 군병은 三角山城과 披州山城에 들어가 지키도록 조치하였다.⁵⁷⁾ 그리고 수원의 禿城山城, 파주의 臨津도 방어해야 할 요처로 인식하여 군병의 배치, 기계의 비치와 군량조달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⁵⁸⁾

그리고 광해군 13년(1621)에 이르러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창성, 의주, 평양, 안주 등의 방비책을 마련하고 적산의 凌漢山城을 수축하였다.⁵⁹⁾ 특히 13년 9월에는 비변사로 하여금 重興山城의 수축과 함께 남한산성을 수축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것을 의논하여 결국 元驛을 廣州牧使로 임명하여 산성수축을

55) 《光海君日記》卷24, 光海君 2年 1月 甲午.

“倭邊司啓曰 京畿山城 無慮十七處 而一自賊退之後 漸就廢弛 唯水原之禿城 繼續修葺矣 頃日本司議 將重修光州水原坡州等 三處山城 其餘仁川龍津廣州高陽等四城 則將爲漸次修葺矣 至於麗州之婆娑城 則議者 皆以形如倚間 北高南低 自外遙看 洞見腹內 自內觀外 地勢畧險 決非可守之地 不在修繕之中 如此等八邑山城 則行令本道監司 會同防禦使 審察形勢 如有不得已應守者 使之收舉啓聞 本道監司等 亦無啓請加修之事矣 今承傳敕 所當剴即修改 而未暇道主品題 始未知形勢險夷 緩急輕重之如何 問于監司 商度便否 啓聞後 處置何如 傳曰 依啓”.

56) 《光海君日記》卷129, 光海君 10年 6月 壬申.

57) 《光海君日記》卷129, 光海君 10年 6月 癸酉.

58) 《光海君日記》卷129, 光海君 10年 6月 丙子.

59) 《光海君日記》卷129, 光海君 13年 9月 丙午.

준비케 하였다.⁶⁰⁾ 그러나 광해군 13년에 남한산성 수축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 단지 《重訂南漢志》에는 “本朝 光海君辛酉 以南漢 始定爲保障之地 築山城”이라 하여 광해군辛酉(13년·1621)에 保障의 땅을 삼고 산성을 수축한 사실만 전하고 있다. 따라서 A면의 “天啓月日”은 광해군 13년(1621)의 축성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洪敬謨는 《重訂南漢志》에서

“本朝光海辛酉 以南漢 始定爲保障之地 築山城 按正宗己亥修築舊城 役者得二殿於城西 其上有天 啓月日刻 餘皆漫漶不辨 光海辛酉 即天啓七年也 似是辛酉築城時所記者也”

라 하여 天啓月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광해군 辛酉年을 天啓七年으로 보고 아마도 이것도 辛酉年(광해군 13년 1621)에 축성할 때의 功役을 기록한 것인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여기서 辛酉年을 天啓七年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辛酉年은 天啓1년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天啓月日은 인조 4년(1626) 남한산성의 수축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조 4년(1626)에는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는데 4개의 城門, 9개의 暗門, 성카퀴 1940浬, 甕城 4개, 軍舖 125, 4개의 將臺, 7개의 寺刹 등 안둘레 6,257步로 17里, 바깥둘레 7,236步 20里의 규모였다. 이러한 수축사실도 張維의 <南漢山城記>에도 전하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혹시 이 장유의 남한산성기문을 이 碑文에 최초로 새기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특히 南漢山城記 말미에 “...其幹役有勞人 別記于下”라는 구절이 B면의 職名·人名과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碑文의 書體比較, 摺疊截限등의 人名조사, 그리고 碑面이 A,B,C 3개의 面으로 된 이유를 밝히면 어느 정도 해명될 것이라 생각된다.

3. 蜂巖城의 新築과 蜂巖新城丙寅磨崖碑

(1) 蜂巖의 위치와 蜂巖城의 新築

이른바 蜂巖城, 漢蜂城, 新南城은 元城밖에 신축하였기 때문에 흔히 南漢外城이라고 한다. 이들 남한의성은 元城 축조 이후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의 화포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축성하게 되었다. 호란 당시에 淸兵은

60) 《光海君日記》卷129, 光海君 13年 9月 壬子.

无城 밖의 蜂巖이나 漢蜂 등을 점령하여 城안의 虛實을 뻔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高地이기 때문에 放砲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였다. 따라서 병자호란 당시에 행궁의 안뜨락까지 청의 화포공격에 노출되어 위기감을 맛보았던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대책을 서둘러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에 외성의 축조문제가 논의되었는데 蜂巖城의 신축이 그 하나이다.

蜂巖은 本城의 동쪽 5리쯤에 있는데 바위가 포개어져 가파르게 솟아 있고 그 아래에는 돌구멍(石穴)이 있어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부터 벌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蜂巖이라고 하였다.⁶¹⁾ 또는 망월봉이라고도 했다. <사진4 참조>



<사진4>蜂巖의 모습

이와 같은 蜂巖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축성논자들 사이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봉암은 城한복판을 굽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계곡이 깊고 넓어서 賊이 병졸을 숨겨두더라도 城안에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肅宗12년 3월 廣州留守 尹趾善이

“남한산성 동쪽에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蜂巖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城한복판을 굽어보고 있는데 그 아래는 구렁이 깊고 넓어서 賊이 병졸을 숨겨두더라도 城안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丙子胡亂때에 적이 그 봉우리를 점령하고 대포를 연달아 쏘았기 때문에 城壁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성을 쌓자는 의논이

61) 《重訂 南漢志》卷1, 上篇 城池. “蜂巖城 在府東五里 巖石疊起陡高 下有石穴僅容人 古傳有蜂爲 窟故名”. 같은책, 上篇 山川. “蜂巖在本城東又稱望月峰”.

있었으나 鄭命壽(南의 大進官·절자)의 공갈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으니 本營의 군사를 동원하여 城을 쌓게 하소서⁶²⁾

라고 하였으므로 蜂巖城의 신축논의가 대두되었다. 봉암성의 신축논의는 이보다 앞서 병자호란 직후에 甕城新築論이 제기되었으나 청의 압력에 못이겨 수축하지 못하고 肅宗 12년에 다시 봉암성 신축의 필요성이 재론되었다. 그리하여 本營 즉 守御廳 소속의 군병을 징발하여 50여일 동안의 扞役과 대략 1千石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신축하게 되었다.⁶³⁾ 이때의 재원은 본청의 軍餉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通政帖 120장, 嘉善帖 20장 등의 空名帖을 발급하여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둘레 962步로 7里, 女塼 294垛, 暗門 4곳, 軍餉 15곳을 신축하였으며 또 東林寺라는 사찰을 건립하여 동문밖의 民戶를 募入하여 防守케 하였다. 봉암성은 그후 숙종 19년(1693)에 이르러 우의정 閔爾과 守禦使 吳始復이 남한산성에 墩臺築造의 필요성을 제기하므로써 봉암과 한봉사이에 墩臺를 설치하였고⁶⁴⁾ 숙종 31년(1705)에는 守禦使 閔爾厚의 건의에 따라 증축하고 5개의 砲臺를 설치하였으며 정조 3년(1779)에 대대적인 修築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⁶⁵⁾

(2) 蜂岩新城丙寅磨崖碑의 발견과 내용

1) 蜂岩新城丙寅磨崖碑의 발견경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城南文化院 附設 郷土文化研究所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62) 《肅宗實錄補闕正誤》卷18, 肅宗 12年 3月 丁卯.

“備局引見時 廣州留守尹趾善 自南漢城東有一峰 名蜂巖 俯臨城中 其下洞壑深廣 險峻藏兵 而城中無由知之 丙子之亂 賊據此峰 連放大砲 城壕盡壞 其後有築城議 而被鄭命壽大通官恐喝 未果矣 今財事機異於前 請調本營兵以築 上可之”.

63) 《備邊司謄錄》40冊, 肅宗 12年 3月 15日.

“今三月十三日 大臣備問堂上引見入侍 廣州留守尹趾善… 又所啓 前議築城時 役軍以本廳所屬 軍兵調發 三日赴役 則庶可完畢 而但役機應入之數 不下千餘石之多 軍餉不可取用 本廳物力 亦難辦備 近日空名帖之許賣 已成弊端…”.

64) 《重訂 南漢志》卷1, 上篇, 城址.

“蜂巖城…應宗丙寅府尹尹趾善 始築外城 周九百六十二步爲七里 女塼二百九十四垛 暗門四 軍餉十五處 建東林寺以守之 募入東門外民戶 每戶給復 三年乙酉 守禦使閔爾厚 增築五砲臺 正宗己亥修築”.

65) 주64)와 같음.

2) 碑文의 내용과 분석

이 비문은 자연석 위에 정사각형의 해서체로 음각 되어 있으며 판독한 49자 이외에 다음에도 문자가 있으나 글자의 크기가 본문보다 작고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成俊等 □石之元□□과 같은 몇 글자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 비문을 판독한 許興植교수는 비가 새겨진 윗면에 축성시에 채석한 흔적이 보이므로 오래된 비가 아닐 가능성은 있었으나 위나 글자의 마모가 심하고 또 알개 각인 되었으므로 처음에는 오래된 비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비문을 새긴 시기가 丙寅이라는 干支와 蜂巖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므로 쉽게 그 年代는 규명될 수 있었다. 이는 肅宗12년(1686)이 丙寅年이고 이때 봉암성이 축조된 사실이 《肅宗實錄》同年條나 《鍾邊司謄錄》同年條에도 상세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석해보면 蜂巖新城은 丙寅年(肅宗 12年, 1686) 윤4월 1일에 일을 시작하여 같은 해 5월초 9일에 일을 끝마쳤다. 守禦使는 尹某(趾善)이고...一所의 將은 前府使 表某이고 二所의 將은 前郡守 安某이다...城所向時...成俊等 石之元...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蜂巖城의 명칭문제이다. 봉암성은 外城, 新城, 東城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散見되나 蜂巖新城이라고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碑의 명칭도 이에 따라 蜂巖新城丙寅磨崖碑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蜂巖新城의 築造時期는 정확히 肅宗 12년(1686) 윤4월1일에 시작하여 약 40여일이 지난 5월9일에 끝마쳤다는 사실이다.

셋째, 築城의 감독과 築城軍은 守禦使 尹趾善의 감독아래 分所法에 따라 1所는 前府使 表某, 2所는 前郡守 安某 등이 담당구역을 나누어 축조하였고 축성군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수어청 소속의 군병과 本碑의 끝에 나타나고 있는 石之元 등의 工匠(?)을 동원하여 축성하였다는 사실이다.

넷째, 앞에서 언급했던 碑에도 그랬듯이 淸의 年號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蜂巖新城丙寅磨崖碑의 특징은 연대가 오래지 않고 풍우의 침식이

비교적 차단될 수 있는 경사도가 심한 磨崖碑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알져 새겨져 있으며 축성담당관의 姓만 쓰고 이름은 생략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年號를 쓰지 않은 점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남한산성 수축은 反清意識의 발로이며 都城을 防禦할 수도권 방어시설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고찰한 바를 요약하므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남한산성은 임진왜란 이후 江都와 함께 나라의 保障處로써 인식되었으며 後金의 등장으로 인한 對西防禦線上 그리고 李适의 난으로 도성수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결과 남한산성은 수축되었으며 이와 함께 군량의 확보, 군영의 배치 등을 통하여 都城防禦策을 헐사이 없이 강구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였던 데서 그 시대적 배경을 살필 수 있다.

그리하여 仁祖 2년(1624) 수축을 시작, 4년(1626)에 완성된 남한산성(元城)은 병자호란 이후 수차례 걸쳐 재수축을 하게 되었는데 仁祖 16년(1638), 英祖 20년(1744), 正祖 3년(1779)이 거기에 해당된다. 그 중 인조 16년과 정조3년에 재수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碑文이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南將臺臺城戊寅碑와 屏岩 南城新修記碑가 그것이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남한산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용성축조 등이 제기 되었으나 청의 압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 도성방어를 위해 남한外城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肅宗 12년(1686)의 蜂巖城, 肅宗 19년(1693) 漢峰城(汗峰城) 肅宗 45년(1719) 新南城(南格臺)이 그 하나이다. 그 중에서 봉암성의 신축과 관련하여 일명 蜂巖新城丙寅磨崖碑가 발견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와 같은 碑文의 내용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 仁祖 16년(1638)의 재수축과 관련하여 발견된 남장대용성무인비에서는 廣州府尹 洪瑒이 別將 崔晩得과 領將 宋孝祥, 監役官 前部將 金明律, 前可果 慶以孝, 前部將 金義龍 등을 지휘감독, 1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축성군으로는 漬軍, 僧軍 이외에 구체적으로 木手 梁南 등 74명, 石手 姜福 등 13명, 冶匠 李己嘆 등 2명, 泥匠 金芝屋 등 7명, 무려 96명의 匠人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 正祖 3년(1779)의 대대적인 재수축은 수원의 禿城山城, 안성의 竹州山城과 함께 남한산성이 畿輔의 保障處로서의 군사적 중요성을 한껏 인식한 결과이며 屏岩南城新修記碑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 비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가지 사항은 정조3년의 재수축시기는 동왕 3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18일까지 약 50여일 걸렸으며, 수어사 徐命卿의 주관과 당시 광주부윤 李明中의 감독아래 아주 체계적으로 수축되었으며, 그 財源은 수어청의 別備錢 1만냥과 광주민들에게 환곡으로 대여한 軍餉穀 5000 石의 耗穀(利子) 500石 등으로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비문의 구조나 내용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최초의 수축 사실(광해군 13년 또는 인조 4년)이 혹시 이 屏岩에 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3) 남한산성의 하나인 봉암성의 신축은 최근에 발견한 일명 蜂巖新城丙寅磨崖碑에 의하면 肅宗 12년(1686) 윤4월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9일에 완성하였는데 수어사 尹趾善의 지휘아래 1所, 2所 등 신축구역을 나누어 1소는 전부사 表某, 2소는 전군수 安某 등의 감독관에 의하여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수어청 軍兵이나 또는 匠人(?)들을 築城軍으로 동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와 같은 남한산성의 재수축과 외성의 신축은 병자호란 이후 맺은 丁丑和約에도 불구하고 尊王攘夷의 대의명분론과 華夷觀에 입각한 北伐運動과 反清意識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단적으로 비문에서 볼 수 있듯이 청의 年號를 사용해야 하는 조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이제 굴욕의 장이라는 역사적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인식하여 抗清節義정신과 민족의 자주국방 의식을 되새기는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하고 복원해야 할 것이다.

南漢山城과 義理思想에 對한 研究

*張 三 鉉

<차례>	
I. 緒 論	IV. 南漢山城과 斥和詔臣
II. 胡亂의 顛末	1. 洪翼漢
1. 丁卯胡亂	2. 尹 集
2. 丙子胡亂	3. 吳達濟
3. 屈辱의 皇帝功德碑	4. 鄭 蘊
III. 南漢山城과 斥和義理	V. 結 論
1. 仁祖의 斥和意志	
2. 主和論-崔鳴吉	參考文獻
3. 斥和論-金尙憲	

I. 緒 論

強者と弱者의 關係에서 強者間의 對決이 있게 되면 약자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 이후 약소국가로 전락하면서 강대국 틈에서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여 왔다. 北方民族이 강성하여 증원과 힘을 거두게 되면 우선 우리 나라를 위협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보통이었고, 해양국가들의 대륙진출의 경우도 먼저 우리 나라를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외세에 시달림을 받거나 병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강대국 틈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굴욕된 외교는 우리 민족의 운명처럼 되어버렸다.

한족(漢)·거란족(遼)·여진족(金)·몽고족(元)·한족(明)·일본족(倭)·만주족(淸)과 근세의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모두 대동하지 못한 약소국

* 경원전문대학 교수

으로서 겪어야 하는 굴절된 외교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부정하여도 과거의 역사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중 근세조선과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와의 관계는 명과 청과의 대결국면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오랑캐의 발 발굽 아래 짓밟힌 약소민족으로서 피할 수 없는 굴욕적인 외교였다. 당시 태조 누루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2대 태종은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태종은 대륙을 통일하기 위하여 먼저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정묘·병자년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을 침략하여 항복을 받고, 동부 동고 등을 통합하였으니, 3대 세종 때에 북경을 쳐서 중국 본토를 지배하였다.¹⁾

결국 강대국의 이권 속에서 약소국인 조선은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講和는 미명일 뿐 적에게 굴복을 뜻하는 것이니, 화의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적의 땅에서 수모를 당해야 했고 삼학사인 홍익한·윤집·오달재 등이 이국 땅에서 문초를 받고 孤魂이 되었으며 수 많은 우리 민족이 적의 땅에서 형제도 없이 고혼이 되었다. 당시 강제로 잡혀간 사람만도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²⁾

南漢山城은 포위된 상황에서 강화성도 함락되었으니, 이 進退兩難의 입지에서 우국충정은 눈물 속에 和戰兩論으로 나뉘어 최명길과 김상헌 간에 의견을 달리 하였다. 두 사람의 눈물겨운 논쟁은 '列之者不可無 給之者不可無'란 말처럼 우국충정에서 피력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主和論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이요 척화본은 의리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우리가 남북통일이나 외교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더군다나 성남은 南漢山城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고 城南 일부 지역이나 옛 선비들이 호관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척화본자 중에 金尙憲·洪翼漢·尹集·吳達濟·鄭福 등 五節臣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金壽賢³⁾·具宏⁴⁾·閔聖徽⁵⁾·李尙馨⁶⁾·俞伯曾⁷⁾·申鎧

1) 李弘敏, 國史大事典, 一中堂, 1979, 1532쪽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733쪽

3) 金壽賢(1565-1633), 壺山人, 號는 蓬谷, 諡號 剛憲, 顯의 子, 남한산성에서 戡守平和를 주장

4) 具 宏(1577-1642), 綾城人, 號는 群山, 諡號는 忠穆, 綾城府院君, 思孟의 子, 金長生의 門人

5) 閔聖徽(1582-1648), 驪興人, 號는 達堂, 諡號는 剛敏, 金尙憲과 함께 講和에 감응함.

6) 李尙馨(1585-1645), 全州人, 號는 天默齋, 諡號는 忠肅, 思의 子, 金長生의 門人.

聖⁸⁾·李命雄⁹⁾·金景餘¹⁰⁾·金弘植¹¹⁾·俞榮¹²⁾·金益熙¹³⁾ 등의 여러 斥和派와 丁卯·丙子胡亂과 관련있는 城南人物인 李景奭·李景容·李景憲·李景曾·南以興·李尙安·李炯胤·洪수원 등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조국을 수호하려 한 義理精神을 배울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빠르고 사상적 공백기를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민족주체 의식을 일깨우고 호국정신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胡亂의 顛末

1. 丁卯胡亂

光海君(1575~1641)은 형인 임해군과 동생 영창대군, 선조의 장인 연흥부원군 金梯男(1562~1613) 등을 逆謀로 몰아 죽이고, 母后 仁穆大妃(영창대군의 어머니)를 西宮에 유배시키는 등 폐권을 자행하여 국정이 문란하여졌다. 이에 김류·최명길·이귀 등이 1623년 3월 12일 농양군(宗)을 받들고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庶人으로 강등시켜 강화로 귀양보내고 이어침·정인홍·이위경 등 간신들을 참형에 처하고 200여 명을 귀양보내는 등 반정은 성공하였다.¹⁴⁾

이무렵 만주에서 일어난 후금이 明을 침범하자, 明은 후금을 치기 위한 출병을 조선에 요구하였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에 來援한 明에 보답하고자 姜弘立·金景瑞 등을 보내어 明軍을 원조케 하면서도 형세를 보아 向背를 결정하라는 담부를 내었다. 明이 패하여 강홍립이 항복함에도 본의 아닌 출병임을 해명하여 兩端政策을 써서 난처한 외교를 잘 처리하였다.¹⁵⁾

7) 俞伯魯(1587~1645), 杞溪人, 號는 翠軒, 諡號는 忠貞, 大逸의 子.

8) 申朝聖(1588~1644), 平山人, 號는 樂全堂, 諡號는 文忠, 欽의 子, 瀟陽에 拘禁.

9) 李命雄(1590~1642), 全州人, 號는 松沙, 光海君, 幼澄의 子, 世子를 수행 濟에 入國.

10) 金景餘(1595~1653), 慶州人, 號는 松丘, 諡號는 文貞, 光裕의 子, 金長生의 門人.

11) 金弘植(1600~1654), 慶州人, 號는 蘭州, 諡號는 文貞, 驥의 子.

12) 俞 榮(1607~1664), 杞溪人, 號는 市南, 諡號는 文忠, 襄曾의 子, 金長生의 門人.

13) 金益熙(1610~1666), 光山人, 號는 滄州, 長生의 孫子, 父는 鑾, 南城 舊歌御使.

14) 李弘植, 앞의 책, 1251쪽

15) 위의 책, 1348쪽

그러나 仁祖反正으로 西人이 정권을 잡으면서 후금에 대한 태도를 바꿔 종래의 親明政策을 표방하였다. 明의 장수 毛文龍은 철산의 가도에 주둔하고 요동의 회복을 획책하니 후금은 불안하게 여겼다. 이에 후금은 明을 치기 위해서는 우선 모문봉을 원조하며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는 조선을 쳐서 모문봉을 고립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 때 반란에 실패한 李适(?~1624)의 잔당 한명련의 아들 韓濶이 후금으로 도망하여 반정의 무당성을 말하고 조선 정벌을 종용하였다.

淸 태종은 1627년(仁祖 5년 丁卯) 正月 14일에 阿敏에게 군사 3만을 주어 조선을 침공하였다. 침공의 이유는 명과 조선과의 국교를 끊어 놓고 조선을 정벌하여 명의 본토 침공의 후환을 없애자는 의도였다. 후금은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돌파하고 龍川·안주에 이르렀다. 이 때 안주전투에서 전사한 平安兵使 南以興(?~1627)은

“임진난을 치른 후에 병사 하나도 훈련시키지 못하여 청군 앞에 막대기 하나 들려서 대항조차 못해보고 나라가 멸단났다.”

는 유언을 남겼다.¹⁶⁾

仁祖는 병조판서 張晩(1566~1629)을 도원수로 명하고 김기중 등과 함께 방어케 하는 한편 각 도에 군왕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전세는 불리하여 防禦線이 무너지고 말았다. 인조는 金尙容을 留都大將으로 하여 郡城을 지키게 하고 도체찰사 李元翼, 좌의정 申欽, 서경부원군 韓汝謙 등을 시켜 世子를 받들어 全州로 피하도록 하고 왕은 친히 廟祀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도로 향하니, 영의정 尹訪, 우의정 吳允謙을 비롯하여 金珪·金憲國·李貴·李廷龜·崔鳴吉 등이 뒤를 따랐다.

이 때에 서울은 민심이 들끓어 백성들은 피난가기에 흩어지고 유도대장 金尙容(1561~1637)은 御庫와 戶, 병기창에 불을 질러 국저(國儲)는 재가되고 노량진에 두었던 糧米 1,000여 石도 산실되어 부장 呂仁길의 수척의 배를 징발하여 겨우 200여 석을 싣고 떠났다.

지방에선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니, 前 영산현감 鄭鳳壽(1572~1645)는 그의 동생 麟壽와 함께 강화가 성립된 뒤에도 철산 용골산성에 들어가 후금군과 대통한 彌申僉士 張士俊을 참하고 城中の 잔여병을 모아 결사항전하여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 또 패란 때에 素沙에서 전공을 세운 바 있는 전 훈련판관 李竝의

16) 국난극복과 민족사, 육군본부, 364쪽

의병도 철산 小島灣에서 전과를 올렸다.

평양을 거쳐 25일 黃州에 이른 후금은 다음의 3조건을 내세워 협박하면서 和議를 제의하였다.¹⁷⁾ 이 때 조선에서도 和·戰兩論이 분분하였다.

- ① 後金에 割地할 것
- ② 毛文龍을 감을 것
- ③ 明을 토벌할 때에 조선에서도 군사 1만명을 보내어 후금을 도울 것.

이것은 조선을 치기보다는 명을 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화도에 피난가 있는 조정으로서의 거리가 워낙 멀고 講和를 거론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崔明吉이 강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여 主和論이 채택되고 강화를 주선하게 되었다. 적측에서는 淸의 유격장 劉海를 시켜서 明의 연호인 天啓를 쓰지 말 것과 왕자를 인질로 할 것 등의 조건을 제의하였다. 조선에서는 왕자는 아직 어려서 보낼 수가 없다며 宗室 원창부령 琮를 封賞하여 王弟라고 칭하고 李弘望을 사신으로 하여 적의 진영에 보내 화의에 응하여 어전에서 삼혈¹⁸⁾하고 형제됨을 약속하고 강화는 성립되었다. 강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後金은 평산을 넘지 말 것
- ② 明약후 後金군은 즉시 撤軍할 것
- ③ 후금군은 撤兵후에 다시 압록강을 넘지 말것
- ④ 兩國은 兄弟國으로 칭할 것
- ⑤ 朝鮮은 후금과 和約을 맺되 明에 적대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하여 동년 3월 3일 강화부성 문외에서 講和儀式을 마치고 4월에 인조는 遷都하고 부장 沈正筈을 후금에 보내 철병을 요구하였다. 후금은 명나라 사람이 조선 국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약속하에 주둔군을 철수 하였다.¹⁹⁾

胡亂이 일어나자 북경에 사신으로 가 있던 金尙憲은 明에 본국을 구원토록 요

17) 柳正東, 斥和義理, (斯文論叢1輯), 斯文學會, 1973, 166쪽

18) 삼혈이란 서로 맹세할 때에 그 표시로 개나 닭이나 말 등의 피를 입가에 바르던 일.

19) 이흥직, 앞의책, 1348쪽

정하였고 또 毛文龍도 情勢의 급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미 화의가 이루어졌으니, 崔明古의 和議論은 받아들여지고 김상헌의 구원병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약이 성립된 후에도 후금은 전승국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강북 철병의 약속을 어기고 의주에 金軍 1,000명, 봉고병 2,000명을, 鐵江에 금병 300명, 봉고병 1,000명을 주둔시켜 毛文龍을 막제하고 中江開市の 교섭을 하여 개시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묘년 이후 조선이 금나라에게 보내는 예물은 각종 명주 도합 600필, 흰 모시 200필, 흰 베 400필, 각종 무명 2,000필, 규격 무명 5,000필, 표범 가죽 50장, 수달 가죽 200장, 청서가죽 160장, 상화지 500권, 백면지 1,000권, 채색꽃자리 50일, 꽃무늬 놓은 자리 50일, 용무늬를 놓은 자리 1일, 좋은 칼 8자루, 작은 칼 8자루, 다목 200근 후추, 쌀, 대추, 은행 각각 10말, 꽃감 50첩, 전복 10첩, 천지차와 작설차가 각각 50봉지였다. 병자년에는 저들의 추궁으로 인하여 흰 명주 200필, 흰 베 200필, 규격 무명 3,000필, 청서가죽 40장, 백면지 500권, 좋은 칼 12자루, 작은 칼 12자루를 추가하였다.³⁰⁾

後金の 약탈 행위는 계속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므로 조선에서는 斥和排金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과 화의를 맺은 후 後金은 內蒙古로 진출하여 인조 10년(1632)에 만주 전역을 차지하고 北京 부근까지 공략하면서 조선과는 형제지국에서 군신지국으로 국제상의 격상을 요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중대한 사실로 인정하고 春信使 申得爾을 보냈으나 中途에 돌아왔다. 다시 金大乾을 보냈으나 역시 중도에 돌아왔다.

도원수 金時讓(1581~1643)은 의주에서 상소하여

“강약이 不同하니 그 歡心을 잃지 않는 것이 좋다”

고 하였다가 찬숙(竊逐)³¹⁾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면 당시 排金斥和論이 얼마나 강하였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丙子胡亂

1635(仁祖 13)년 12월 仁祖妃 韓氏의 喪을 당하고, 이듬해 병자년 2월에 後金

30) 이조실록(237), 여강출판사, 1993, 273쪽. 이하 본서의 인용은 ‘이조실록(237)’로 기록함.

31) 찬숙은 임금 곁에서 간혹한 무리로 해독을 끼치는 신하로 몰려 쫓겨남

은 마부대·용관대를 보내어 몽고의 부족장 貝勒이 淸太宗에게 올린 尊號의 글을 보이면서 조선 정부도 이와 같이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장령 洪翼漢·尹集·吳達濟 등과 성균관 유생 김수흥 등 133명 등은 사신을 참수하고 문서를 불살라버릴 것을 주장하였으며 청과의 국교 단절을 주장하였다.²²⁾ 홍문관·사간원도 斥和善戰을 적극 주장하였고 인조도 주전론을 좇아 사신의 접견을 거절하고 후금의 국서도 안받은 채 사신을 감시하니, 이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챈 적들은 민가의 말을 빼앗아 타고 도주하였다.

3월 1일 조정에서는 8도에 宣戰敕書를 보내 전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싸움 준비를 서두르며 군사를 모으기로 하였다.²³⁾ 때마침 도망가던 후금 사신이 평양 감사에게 내린 諭文을 빼앗아 돌아가니 여기서 청나라는 제2차 침입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동년 4월 ‘寬溫仁聖皇帝’의 칭호를 받은 後金 太宗은 국호를 淸으로 고치고 年號를 ‘崇德’으로 改元하였다. 이 즉위식에 참석했던 羅德憲(1573~1640)·李爾 등은 구타를 당하면서도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태종은 이들을 돌려 보내면서

“왕자를 인질로 보내어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으로 공격하겠다”

고 협박하였다.²⁴⁾ 주전론의 입장으로 기운 조선에선 11월에 심양에 사신을 보냈으나 태종은

“王子, 大臣 및 斥和論의 주창자를 물어보내되 듣지 않으면 發兵하겠다.”

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선 이를 묵살하였다.

태종은 조선의 이러한 도전적 태도에 대하여 遠征을 서둘러 만주인·몽고인·漢人으로 조직된 10만 대군을 조직하였다. 드디어 12월 2일 태종은 친히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심양을 출발하여 9일에는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였다. 이 때 의주 부윤 林慶業(1594~1646)은 백마산성을 굳게 지켰으나 적은 길을 피하여 서울로 진격하니 출발한 지 10여일 만에 서울 근교에 육박하였다.

다급해진 조정에서는 대책회를 열어 主和論者 최명길·李景樞 등을 적진에 보내 시간을 얻는 한편, 두 王子(鳳林大君·麟平大君)를 비롯하여 妃嬪宗室과 남녀

22) 이조실록(237), 알의 책, 285-286, 291쪽, 국역대동야술(XIV), 민족문화추진회, 1985, 681쪽. 이하 본서의 인용은 ‘국역대동야술(XIV)’로 기록함.

23) 이조실록(237), 294-295쪽.

24) 姜惠澤, 斥和로 一貫한 節義 金尙憲, 李朝의 人物II(韓國人物史4), 75-76쪽.

귀족들을 江華로 피난가게 하였다. 仁祖는 세자와 百官을 거느리고 친히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良職坪에 청병이 침입하였다는 금보를 받고 길을 돌려서 昭顯世子와 廷臣을 동반하고 남한산성으로 피하였다.

城中的 병력은 13,000명으로 측도에 군왕병을 모으도록 하고 한편 명나라에 통문하여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 때 管餉使 羅萬甲(1592~1642)의 보고에 의하면 곡식은 14,300석, 鹽 220여 켤으로 겨우 50여일 분에 불과하였다.

12월 16일 淸軍은 남한산성에 도착하고 서울에 입성한 譚泰의 군사는 곧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 淸太宗은 다음 해 정월 1일에 남한산성아래 炭川에서 20만 대군으로 포진하고 있었다.

18일 인조는 산성을 순행하고 직접 망월대에 올라 물소 군대를 거느리고 격과 싸울 것이라는 전교를 내리고 도원수 부원수에게 하유하였다.

“국왕께서 지금 포위된 산성에 계신데 안으로는 빈틈없는 세력이 없고 밖으로는 구원병이 끊겨 국가의 존망이 호읍지경에 달려 있다. 적군의 정세를 헤아릴 수 없으며 화친의 길은 이미 단절되었다. 경들은 사들려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산성으로 와서 구원하도록 하라.”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戡守策을 올리도록 하였다.²⁵⁾ 인조는 이렇게 전수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은 飢寒과 飢饉 속에 고통이 말이 아니며, 명나라에서는 내적들로 인하여 군사를 지원할 힘이 없는 데다가 보내온 舟師도 몽당으로 되돌아갔다. 충청감사 鄭世規(1583~1661)는 금보를 받고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복진하다 광주 險川에 진주하였다가 胡敵의 습격을 받아 공주영장 崔震立, 연산현감 金弘翼, 남포현감 李慶善, 전주참방 李尙載가 전사하는 등 패물하고, 경상 좌병사 許完(?~1636), 우병사 閔영의 군사는 광주 쌍령에서 모두 전멸 당하였고, 전라병사 金俊龍은 광주 光交山에서 전군이 패멸하였고, 평안병사 洪命壽(1596~1637)는 금화에서 전사하고, 도원수 金自默의 군은 甑山에서 패주하였고, 강원감사 趙廷虎(1572~1647)는 양근과 춘천 사이에서 權井崙을 보내 검단산 싸움에서 패하여 후퇴하고, 남도병사 徐右甲·북도병사 李沆은 지령·양근 사이에 바싸 진군하였으나 끝내 산성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함경감사 閔聖徽(1582~1648) 등도 패배하였다.²⁶⁾

이제 의지할 곳 없고 기대할 곳이 없는 성중의 백관들이다. 식량은 결핍되고

25) 張三鈺, 城南의 뿌리, 聯閣學報社, 1989, 190쪽

26) 위의 책, 203~204쪽, 국역대동야승(XIV), 625~626쪽.

추위에 시달리며 將兵은 기력을 잃고 원군은 도중 패주하고 참으로 進退兩難에 처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여조판서 김상헌, 이조참판 鄭種(1569~1642) 등의 척화파의 주장이 꺾이고, 이조판서 최명길 등 주화파의 講和論이 채택되었다. 이리하여 최명길 등 여러 명에게 國書를 기초하도록 하고 한편 좌의정 洪瑞鳳(1572~1645), 호조판서 金龜圖(1572~1657)을 청의 진영에 보내 和議를 請하게 하였다.

그러나 淸太宗의 답서는

“인조가 천하 성밖에 나와서 군문에 항복하고 명약을 파위한 주동자 2, 3명을 두어 보내라”

는 내용이었다.

정월 22일에는 강화부성이 함락되었고 前우의정 金尙容(1561~1637), 前공조판서 李尙吉(1556~1637) 등은 방화자살 하였다. 최명길이 인조에게 강화도의 참상을 진해올렸다.

“빈궁마마를 비롯한 두 분 대군나으리와 왕실의 부인들은 모두 인질이 되어 통전에 당도해 계시다 하옵고, 다만 세손마마씨만은 빈궁마마의 기지로 성이 유린되기 전에 동궁 내관과 김인에게 맡겨져서 전 장람 송국택의 호종을 받으며 강화성을 탈출하였다 하옵는데, 지금까지 종적이 묘연하다 하옵니다.”

하였다. 이어서 珍原君과 내관 羅業이 적진에 끌려와 있어온데 그들의 많은 강화성의 참상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權順長·金益兼·沈현·李時稷·李惇毅·宋時榮·尹전·洪命亨·金秀男·鄭百亨·閔성·姜譚聘·李惇五·李嘉相·李重揆·李士珪·黃善身·具元一·姜興業·金得男 등이 모두 순절하였다고 말하였다.²⁷⁾

淸軍은 강화에서 포로된 대군의 手書와 윤방 등의 狀啓를 보이며 出降을 독촉하였다. 강화 함락의 사실을 확인한 인조는 出城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다.

이 때에 金尙憲·鄭種 등은 자결하려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 구제되고, 이조참의 李敬輿(1535~1657)는 死守의 義를 陳言하였으나 대세는 이미 정하여진 뒤라 洪瑞鳳·崔鳴吉·金龜圖 등이 적진을 왕복하며 항복의 조건을 교섭하였고 淸使 兪崑대·마루대 등이 城中에 와서 조건을 제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약에 합의를 보았다.

27) 辛奉承, 南漢山城(朝鮮王朝500年 34), 金星出版社, 1994, 287쪽

- ① 조선은 淸에 대하여 臣의 禮를 행할 것
- ② 조선은 明의 연호를 폐하고 明과 교통을 끊고, 明에서 받은 勅命 冊印을 獻納할 것
- ③ 조선은 王의 長子와 제2자, 그리고 대신의 자녀를 人質로 보낼 것
- ④ 淸國이 明을 정벌할 때에는 기일을 어기지 않고 援軍을 파견 할 것
- ⑤ 內外諸臣과 혼인을 맺고 私好를 굳게 할 것
- ⑥ 城郭의 증축, 수리는 사전에 허락을 얻을 것
- ⑦ 황금 100냥, 백은 1,000냥을 비롯한 20여종의 물품을 歲幣로 바칠 것
- ⑧ 聖節·正朝·冬至·千秋·慶弔의 使節은 明나라의 舊禮를 따를 것
- ⑨ 가도를 공격할 때는 兵船 50척을 보낼 것
- ⑩ 明人의 逋逃를 숨기지 말 것
- ⑪ 일본과의 무역은 종래대로 할 것²⁸⁾

이리하여 인조는 正月 30일 세자와 함께 淸의 강요대로 藍戎服을 입고 서문으로 나가 漢江東岸 三田渡에서 城下之盟을 행하였다. 인조는 9층의 受降壇上의 淸太宗을 향하여 지상에서 三拜九叩頭의 禮를 행한 후 환궁하였다. 그리고 소현세자와 嬪宮, 봉림대군의 두 왕자가 인질로 가고, 척화파 등 200여 명이 심양에 끌려갔다. 척화파의 강경론자인 洪翼漢·尹集·吳達濟는 瀋陽으로 잡혀가 옥중생활을 하였다. 또한 전란으로 강제 납치된 수만 50만이라고 하는데, 淸의 전리품이 된 이들은 贖價로 끝내 환국을 못하여 고혼이 된 자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에서 적들이 죽인 장수는 300명이고 군사는 7,000명이나 되는데 그 죽음이 척화파에게 원성이 돌아가 척화강경론자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²⁹⁾ 李聖求(? ~1613)가 말하기를

“성문 밖에 사람을 죽인 곳이 있어서 시체들이 가득 쌓인 곳에서 시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시켜서 혼백을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³⁰⁾

28) 李弘植, 앞의 책, 580쪽.

29) 이조실록(238), 여강출판사, 1993, 251쪽. 이하 본서의 인용은 “이조실록(238)”로 기록함.

30) 위와 같음

병자호란은 明과 淸의 틈에서 조선이 희생된 또하나의 역사적 비극이다. 전란 기간으로 보면 1개월여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有史以來 보기드문 민족적 屈辱으로 끝나 조선이 淸에 服屬되고 말았다.

이로써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명과의 관계를 끊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후 계속되었는데, 그후로는 일본의 세력에 의하여 다시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3. 屈辱의 皇帝功德碑

弱者가 強者 오랑캐에게 당하는 수모는 不可抗力의이다. 시키는 대로 안하면 또 어떤 수모를 당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승리로 위기충천한 청나라는 記念碑를 세우겠다고 서둘렀다. 우리 민족으로서도 호란이 한 역사적 전환사로 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게 屈辱의 물증을 전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참지 못할 일이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도 그것이 功德이라니, 이는 참으로 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저들의 뜻을 꺾을 수 있는 별다른 妙策한 수가 있을라 만무하다. 사태가 거역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저들의 강요에 못이겨 仁祖는 하는 수 없이 공덕비문을 기초하도록 張維·李景奭·李慶全·趙希逸 등 네 사람에게 명하였다. 이 네 사람은 王命에 의하여 짓고 싶지도 않은 비문을 어쩔수 없이 지어 올랐다. 그 중 장유·이경석 두 사람의 비문이 청나라에 보내지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였으니, 이경석의 비문이 채택되어 일부 수정되었다.³¹⁾

仁祖는 吳璠³²⁾에게 명하여 碑文을 쓰도록하고 이것을 인출하여 淸나라에 보내고 그 건립을 시작하였는데, 淸將 瑪福喀 파견되어 감독하였다. 그 후 淸나라에서는 기회가 있는대로 이 碑를 도라보았다. 그러므로 朝廷에서는 碑의 관리를 위하여 守衛를 두었던 것이다.

이 碑는 淸太宗頌德碑·淸太宗功德碑·三田渡碑·淸太宗碑 등으로 불리워지며 현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3 소공원에 있다. 이리하여 참혹한 병자호란이란 굴종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입증시켜주는 물증으로 남게되었다. 이 공덕비가

31) 仁祖實錄, 仁祖16年 戊寅 2月條

32) 吳璠(1587~1666)은 이조 중기의 서도가. 호는 竹園, 벼슬은 寫字官, 뒤에 관중추부사에 오른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했으므로 王家의 吉凶慶文을 배웠고 비문도 많이 썼다. 삼전도 비문을 쓰고는 그 한을 안고 죽었다.

서 있는한 후손들에게 슬프고 부끄러운 지나간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III. 南漢山城과 義理思想

1. 仁祖와 斥和義理

1623년 3월 14일 대왕대비(인목대비)가 광해군을 폐하고 세임금(仁祖)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교지에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공경하여 천자의 고명을 받아 선왕들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체통과 의식을 한 나라에 보인 지가 어려움이 되었다. ……우리 나라가 천자의 조정을 따라 섬긴 지가 2백여 년인즉 의리로 보면 군신의 관계요 은혜로 보면 부자화도 간도다. 임진왜란에 우리 나라를 다시 구해준 은혜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왕이 통치하던 40여 년 동안은 지성으로 명나라를 섬겨서 일찍이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앉았는데 광해군은 은혜를 잊고 양심을 배반하여 겉으로는 천명을 두려워하는 척 하면서도 음으로서는 두 마음을 품어 오랑캐들과 밀통하였다. 기미년(1619) 오랑캐를 무찌르는 전쟁에 임하여 은밀히 장수로 하여금 전세를 관망하여 행동하라 고시하므로써 마침내 감홍립이 전군을 이끌고 금나라에 투항했으니 온 세상에 추대를 보였다. 그리고 명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오면 구급하여 수용소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옥에다 가두고 처벌까지 하였고, 황제의 칙령이 여러번 내려왔어도 군대를 구제할 생각이 없었으니 우리 상한의 예의지방이 夷賊禽獸로 돌아감을 이기지 못하였다.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이 현실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 천리가 멀절하고 인륜이 줄어들어서 위로 황제의 조정에 죄를 얻었고 아래로 만백성에게 분노를 샀다. 최악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그 어떻게 백성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역대 조종의 천위에 머무를 것이며, 종묘와 사직의 신령을 받들 것인가? 이에 그를 왕에서 폐한다.”³³⁾

여기서 보면 대왕대비는 광해군이 패륜을 자행한 것은 말고라도 역대 선왕이 지켜온 대명관계의 의리를 버리고 임진왜란 때에 우리를 구해준 은혜도 배은망덕하여 천리와 인륜을 저버리는 이적과 같은 일을 자행하였기에 폐왕하였음을

33) 李朝實錄, 光海君 15年, 3月 14日條

밝히고 있다. 그래서 광해군은 죽어서도 차마 왕으로서 역대황조의 계통을 이어 선왕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 왕위에 오른 인조대왕의 對明意志도 같은 입장이었다.

첫째, 丙子年(1636) 斥和額教文에 보면,

“국가가 불행하여 강력한 오랑캐와 더불어 가까이 이웃하니, 오로지 속임수와 군사력만을 농사로 삼고 있어서 하늘 땅에 순리와 역리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도덕으로 희망할 수가 없다.”³⁴⁾

고 하였다. 여기서 인조는 지난날의 광해군의 親金政策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금에 대하여는 천리와 인륜을 모르는 오랑캐로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인조는 1627년 정묘년 적들과 강화한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적의 물리적 힘에 국가나 백성의 禍를 면하기 위하여 부득불 요구조건을 들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역대 선왕의 은덕을 입었고, 적을 막아야 하는 충성이 윤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각자는 충의정신으로 상하가 함께 싸운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대적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³⁵⁾

둘째, 丁丑年(1637) ‘圍城中論士民頌教文’에 보면,

“우리 나라는 天朝를 섬긴 지가 2백년이니 이제 황제가 보호하여 길러준 은혜는 임진왜란에 이르러 지극하였으므로 이것은 만고에 변할 수 없는 大義인 즉 한번 금나라 오랑캐가 중국을 능멸하면 우리 나라는 의리상 똑같이 원수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정묘년(1627)의 변란은 갑자기 닥친 사건으로 명나라에 상주하고 임시방편으로 항복조건을 허락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한 나라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제 북쪽 오랑캐들이 황제라는 칭호를 침탈하게 쓰고 우리에게 사신의 왕래를 감요하는데 이르러서는 귀로 차마 들을 수 없고 입으로 차마 읽을 수 없어서 국력의 강약을 셀까지 않고 그 사신을 공개적으로 패척하였으니, 이는 다만 만고에 군신의 의리를 扶植코자 함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을 위하고 명나라를 위하는 것은 때와 별치런 뚜렷하니 이것은 한나라의 선비와 백성이 다같이 아는 바이다.

저 오랑캐들이 갑자기 방자하여져서 포악하게 군대를 몰아 돼지처럼 돌진하여 오

34) 韓國人の 尊周思想, 朝宗廟保存會, 1993, 15쪽

35) 위희록, 16쪽

기에 나는 남한산성으로 나가서 사수하기로 기약하였더니, 존망의 형세가 호출하는 순간에 결판이 나고 말았다. 그대를 선비와 백성들은 명나라의 은택을 함께 받았으므로 오랑캐와 화해한 일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 지가 매우 오래 되었도다. 하물며 지금은 명나라의 황제가 위험이 절박한 재앙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충신과 의사가 생명을 바쳐서 나라에 보답해야 되는 순간이다.

아! 나의 지혜가 밝지 못하고 仁이 넓지 못하여 그대를 선비와 백성을 저버린 점이 있을지나 이번의 재앙이 일어난 것은 스스로 취한 바가 아니다. 다만 군신의 대의를 차마 배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마음 이 뜻은 하늘과 땅의 위아래를 통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어찌 차마 군신의 의리를 무시하여 나의 급한 어려움을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냐! 의당히 각각 지혜와 용기를 내서 혹 의병을 규합하고 혹 군량과 무기를 내서 도와 앞을 닦아 대탄을 평정하고 강산을 부식하여 꿈을 세우고 이름을 드날리면 어찌 장쾌하지 않으리요.”

이 글에서 보면 인조대왕은 南漢山城이 오랑캐들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전수 적화의 의지를 고수하고 우리가 적과 싸우는 것은 명나라와 조선과의 관계에서 보면 마치 산하가 충신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의리는 천리에 몇몇한 이치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하늘의 이치에 따르고 백성이 쫓기하여 대적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였다. 하늘의 뜻과 백성의 쫓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침내 항복하고야 말았다.

셋째, 丁丑年(1637년) 下城還都頌敎文³⁶⁾에 보면

성중에서 대의를 지키려는 생각 뿐 보다 큰 재앙을 깨닫지 못하여 전수를 고집하였으나, 겨울철에 병졸은 부족하고 식량과 연료도 부족하고 말먹이도 없어서 지붕을 헐어 먹이는 등 버티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호남·영남지방의 부대는 연이어 패배하고 서북의 여러 군사도 소식이 없는데 적의 포화는 설채가 부서지고 식량이 며칠도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항복의 불가피함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에 대하여 모두 자신의 소치로 여겼다. 또한 미리미리 대비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것 등을 후회하였다.

또한 아첨하는 무리와 좌당에 의하여 호란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이미 병들어

36) 대체학 최병길의 지은 것이다.

있었다고 괴력하였다. 임진년에 선조가 의주로 동진하였을 때에 동서분당을 질책하였듯이 인조도 과당이 얼마나 나라를 병들게 하였는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조는

".....이제 숙제를 통정하고 가혹한 정치를 모두 제거하며 당파를 버리고 사욕을 달아서 공도를 회복해서 농업을 힘쓰고 병졸을 휴식하여 남은 백성을 보호코자 하노라. 그대를 팔도의 선비와 민중들이여! 그리고 관료와 대부들이여!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담에 기왕의 허물을 없게 해서 멀리 버렸음을 믿을지이다. 나는 위아래가 마음을 합쳐서 어려운 현실을 널리 구제하여 천명을 이어 뱉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 태조·대종의 남긴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하노라"

하였다. 인조는 지나간 일은 덮어두고 모두가 합심하여 현실을 극복하자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수 백년간 내려온 춘추대외와 각파의 내심은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기란 쉽지가 않았다.

2. 主和論-崔鳴吉

주화론의 대표 崔鳴吉(1586~1647)의 자는 子謙, 호는 遲川, 시호는 文忠, 본관은 全州, 영흥부사 崔起南의 아들이다. 광해군이 母后를 유폐하는 등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金堧·이귀 등과 반정에 성공하여 인조를 융립한 反正1等功臣으로 完城君에 피봉되었다.

1627년(인조 5년) 丁卯胡亂 때에 주화론을 주장하여 화외로 호병들이 돌아간 후 지탄을 받았으나 왕의 만류로 경기관찰사에 나감으로 일단락 지었다. 다시 예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겸 대제학에 오르는 등 내직을 두루 거쳤다.

최명길에 있어서 정묘호란의 和議는 자강의 전제이며 치국의 방편이었을 뿐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따라서 병화로 인한 백성의 구제와 국력의 배양 및 金·明 두 나라와의 미묘한 외교관계의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문룡의 뒤를 이어 가도에 부임한 陳繼盛을 죽인 그의 부하 襄興治의 토벌을 반대하였는데, 이는 명분보다는 국가의 현실적인 이해를 중요시 하였기 때문이다.

인조 10년 淸나라와 絶和의 기운이 돌아 왕은 斥和을 내리고 금나라에 대비케 하였다. 이에 최명길은 금나라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칙화와 수어책을 강구하며 상호 불신을 조장하고 있었다.

인조 14년 2월에 금나라가 대청황제의 존호를 주청하게 하고 인열왕후를 조문하는 국서를 보내오게 되어 조정은 또다시 대외명분론을 내세우고 척화를 주장하던 끝에 금국의 汗書만은 받기로하였다. 그런데 사신 龍骨大가 금천포에서 조문을 올리다가 바람에 날리는 장막들으로 무사들의 칼을 보고 도망치자 조선과 금나라의 관계는 극도로 긴장되었고 왕이 절화비어를 하유하였으나 이것마저 금나라 사신에게 발각되었다.

그해 4월에 金汗은 여절대로 대청황제가 되었고 심양에 가 있던 우리 회담사 편에 국서를 보내왔다.

조정에서는 이 使臣을 탄핵하고 치죄하기로 하는 한편 國書는 돌려보내도록 하고 守禦를 엄하게 하였으며 대각을 중심으로한 絶和는 공론화되었다. 이 때 한성판은 최명길은 戰守의 緩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령 홍익한, 수관 오달제, 고리 윤집 등은 척화를 외치며 이를 공격하였다.

그러는 동안 청나라는 11월 25일 까지 회신을 보내라고 재촉하였고 척화론은 여전하였다. 최명길은 계속해서 화의를 주장하여 12월 4일에 참로를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적병은 12월 13일 강을 건너 안주에 이르고 14일에는 송경을 지나 도성을 육박하였다. 화급을 다루는 가운데 최명길은 이경직을 데리고 적진에 가서 청나라의 출병과 명약 위반을 따지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고 적진에서 돌아와서는 왕제와 대신을 보내 화의하라는 책장의 뜻을 전하였다. 이에 남한산성에서는 假王弟, 假大臣을 보냈으나 탄로가 남으로 화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群臣이 모여 비통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김상헌은 화의의 불가함을 말하였고 홍서봉은 화의의 불가피함을 말하였다. 신익성·홍광수는 최명길의 처단을 주장하였고 인조는 백관에게 주전절화를 타이르는 동안 적병은 산성을 포위하고 전세는 불리하였다. 이와 같은 척화중론에서 최명길만은 주화론의 입장이었다. 결국 전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하자 주화론의 입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공격과 함께 항복을 제촉하는 청나라 國書에 대하여 다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崔鳴吉은 명분과 의리를 버리고 실리를 찾는다는 뜻에서

“조선 왕국은 삼가 大清國의 寬溫仁聖 황제에게 말씀을 올리나이다. 小邦은 대국에 거역하여 스스로 戕賊을 제촉하였고 疆域에 음을 두게 되어 위난은 조석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미피를 알고 있사오니 이 생령을 구휼하사 소망

으로 하여금 다시 스스로 새로운을 도모하게 하신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쫓아 섬기겠습니다.”

라는 구차한 회답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³⁷⁾

金尙憲이 이 항복문서를 썼어버렸으나 崔鳴吉은 이것을 다시 주워모아 和議를 주선하여 宗社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主和함으로써 인조로 하여금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胡亂 후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노력하여 얻은 평화의 대가는 그 결과가 그저 강요와 복종으로 분하고 욕된 것 뿐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명길과 같이 화전을 주장한 사람은 金珣·韓汝稷·尹瑄·李景稷·李曙·李景憲·蔡裕後 등이다.

3. 斥和論-金尙憲

斥和論의 영수 金尙憲(1570~1652)의 자는 叔度, 호는 淸陰·石室山人, 시호는 文正, 본관은 안동, 도정 克孝의 아들이다. 月汀 尹根壽의 제자로 1596년 문과에 급제하여 인조때에 대사간 대사헌 대제학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1636년(인조 14)에 판서로서 비변사 당상을 겸하였다. 12월에 이조판서를 사임하고 향리 석실에 서 전란의 소식을 듣고 14일에 先塋을 哭辭하고 서울로 왔다. 그러나 인조는 이미 남한산성으로 떠난 되었으므로 김상헌은 남한산성으로 달려갔다. 15일 남한산성에 도착하였으나 다리가 붓고 병이 나서 병석에 누웠다가 17일에야 인조를 배알하게 되었다.

淸陰은 인조 앞에서 아뢰기를

“群臣의 죄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不諫한 일이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인즉 오늘의 計策으로서만 반드시 먼저 싸운 뒤에 和해야 할 것이요 만일 한갓 卑辭를 일삼아 和를 청한다면 和도 또한 바라기 어렵습니다. 宋人의 말에 外形으로는 和를 取하고 國權守護로 내실을 삼아 戰鬪로써 대응한다고 하였으니 잘 들으셨으나 이 말이 오늘에 있어서는 가장 결실한 뜻 하온데 上意는 어떻게 됩니까?”³⁸⁾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조는 卿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이 때는 이미 화의가 진행중이

37) 尹南義, 陽明學과 實利外交의 主役 崔鳴吉, 李朝의 人物II(韓國人物史4), 53쪽

38) 群臣之罪, 可勝言哉. 然既往不諫, 今日之計, 必須先戰後和. 若徒事卑辭請和, 則和亦不可望. 宋人有言, 以和爲形, 以守爲實, 以戰爲應. 此言, 在今日最切. 未知 上意以爲何如也.(南漢紀略)

라는 설이 나돌고 있었으며, 崔鳴古·韓汝稷·尹暉·李景稷 등이 前後로 적신 馬福太를 만났었다. 그중 최명길은 왕자를 인질로 보내면 적이 퇴군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淸陰은 19일에 조당에 나가 왕세자를 인질로 보내는 의논에 반대하며 영상에게 추궁하였다. 영상 소류는 宗禮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청음은 영상에게 협책하기를

“宗禮에 主가 없으면 어떻게 宗社될 수가 있겠는가. 어찌 臣下로서 太子와 賊의 충절을 할 수 있으랴. 나와 이 건의를 한 사람들과는 같은 태양아래서 살 수는 없다. 相公은 즉시로 다시 들어와서 敵計의 잘못을 陳述하라. 그렇지 않으면 功臣義士가 반드시 팔을 걷고 이러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³⁹⁾

산성은 포위된채 진퇴양난의 논의 속에서 21일에 예조판서를 拜受하였다. 최명길의 주화론과 김상헌의 적화론은 점점 대답이 깊어가고 청음은 끝까지 사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인조는 備局諸宰를引領하는 자리에서

“예조판서는 금후로 方便之計를 深思해서 고집하지 말라”

고 하고하였다. 이에 淸陰은 대답하기를

“臣이 어찌 愚昧을 고집해서 國事를 망치겠습니까. 다만 忠을 顧하고자 하되 計慮가 淺短하여 轉을되는 바 없으니 또한 감히 雷同隨衆해서 初心을 저버릴 수가 없을 뿐입니다. 上으로부터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聽요하지 않아야겠습니다.”⁴⁰⁾

고 하였다. 인조가

“장차 무엇을 달겠는가?”

라고 물었다. 淸陰은

“천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⁴¹⁾

39) 先生切責曰, 宗社無主, 則何以爲宗社, 豈有臣下倡爲, 以儲君與賊之議者乎, 我與建此議者, 不可同日生也. 相公即可復入, 自陳前計之誤, 不然忠臣義士必有奮臂而起者矣…(淸陰年譜, 淸陰集)

40) 上忽下敕曰 禮判自今, 亦須深方便之計, 勿爲國執, 臣對曰臣何敢固執, 謹見, 以則國事但欲觀忠, 而議慮淺短無所裨益, 亦不敢雷同隨衆, 以負初心, 自上亦須堅定勿動(南漢紀略)

41) 上曰 將何恃臣曰天道可恃也…(南漢紀略)

인조가 이러한 하교를 하게 된 데 대하여는 홍건도가 성중은 모두 화의를 정론으로 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淸陰) 때문에 원망이 크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유독 鄭龜은 金尙憲과 뜻을 같이 하였고, 針醫 李亨翼은 主和者의 新首를 건의 하기도 하였다.

이런 중에 적진으로부터 國書가 왔는데, 그 내용은 전년의 發兵時에는 淸의 협조하지 않고 도리어 明朝에 협력했다는 것이며 淸民을 明朝에 헌납한 사실, 그리고 來書도 거부하니 어찌 이렇게 거만하게 구느냐는 責文이었다.⁴²⁾

여기서 답서를 작성하는데 적의 국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문제시 되었다. 즉 金류는 망국에 무슨 명분을 구구하게 논하느냐는 태도였고 李弘晈는 답서에 는 다만 대청황제라고 함이 가할 듯 하다고 하였다.⁴³⁾

그러나 명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호칭은 '대청국관온인성황제'로 하고 사과하는 답서를 보냈다.⁴⁴⁾

추위와 병력의 부족과 식량이 모자라는 불안한 가운데 주전·주화 양론은 주화론으로 기울고 17일 적으로부터는 다시 國書를 보내왔다. 홍서봉·최명길·윤취 등이 적진으로 가서 汗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내용은 “너그럽고 온화하며 어질고 현명한 청나라 황제는 조선국왕에게 조서를 보내여 타이른다.” …로 시작된 편지는 단적으로 ‘살고 싶거든 속히 출성하여 명에 따를 것이고, 죽고 싶거든 속히 나와서 일전을 각오하라’는 것이었다.⁴⁵⁾

淸陰은 화의로 읍하더라도 싸우지도 않고 화를 맺는 법은 없으니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18일 최명길이 항복문서를 수정하고, 예조판서인 청음은 밖으로부터 들어와 항복문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求哀請降’이란 말과 ‘그 죄도를 다하고 臣罪穢難數等에 이르러 격분하여 항복문서를 짓고 통곡하였다.

이어 말하기를

“명분이 이미 절해진 뒤에는 격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압급과 신하간의 의리를 저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성에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42) 南漢丙子錄, 丁丑 1月 2日條

43) 南漢丙子錄, 丁丑 1月 3日條

44) 南漢丙子錄, 丁丑 1月 3日條

45) 南漢丙子錄, 丁丑 1月 17日條

니다. 한 번 성문 밖에 나간다면 역시 신화로 되는 굴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여러 신하들이 권하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참으로 논하는 자의 말처럼 임금과 왕자를 마침내 점적으로 된 포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신도 무엇 때문에 자기의 소견을 허투루 말할겠습니까. 국서를 쫓아 버렸으므로 벌써 죽을 죄를 지었으니 먼저 신을 처단한 다음 다시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⁴⁶⁾

인조가 한참동안 울다가 이것이 위로는 종묘와 사직을 위하고 아래로는 부형과 모든 관리들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취하는 조치요 경의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淸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기를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알고 있지만 한 번 승인하면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며 반대하였다.

결국 27일에 항복문서는 직전에 보내지고 정월 30일 삼전도에서 城下之盟을 맺게 되었다.

淸陰은 문서를 쫓은 후 6일간 단식하다가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구제 되어 향리에 돌아갔다.

淸陰은 이비 17세 때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는 소문을 듣고는

“신하로서 군주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할 것이 있고 좋아서는 아니되는 것이 있다.”고 하였고 또

“국가에서 가장 큰일은 의에 대하여 가만이 있어서는 아니되는 일이다.”고 하여 의리를 지킬 것을 간곡히 상소하여 용하지 말라고 하였다.⁴⁷⁾

이러한 淸陰의 義理思想은 淸國에 알려지게 되고 마침내 청국에 불러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淸陰은 노구의 몸으로 1637년 12월 18일에 興上에 도착하여 問招를 받게 되었다.

龍骨大는 淸陰을 향하여

“丁丑에 國王이 下城할 때 홀로 청국은 실길수 없다고 하여 하성에 수행지 많은

46) 이조실록(238), 34쪽

47) 大臣之於主亦有可能,不可從,……國家莫大之事義,不可默然云云.(淸陰年譜)

것은 무슨뜻인가?”

하고 물으니 淸陰은

“내 어찌 오군을 쫓고자 안했겠는가. 노병으로 쫓지 못했을 뿐이다.”

고 대답하였다. 용골대는 다시 정축 이후에 관직을 계수함에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고지를 반환한 인파 援兵을 상소로 거지한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하여 청음은

“나의 뜻을 내가 지키고 내가 내 君主에게 고하였는데도 國家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을 他國이 만드시 알고자 하는가”

라고 하였다. 용골대가

“양국이 이미 일국이 되었는데 어찌 他國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였다. 淸陰은

“兩國은 각각 國境을 갖고 있으니 어찌 他國이 아니겠는가”

대답하였다.⁴⁸⁾ 淸陰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은 심양으로 감히가게 되었다. 淸陰은 감히가는 길에 그의 忠義가 담긴 시를 읊었다.⁴⁹⁾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말동하리라

이 시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애송되고 있다.

청음은 12월 26일 瀋陽에 들어가게 되었다. 1641년 1월 8일에 구류되었다. 12월에 질병으로 인하여 義州로 移監되었다가 1643년 1월에 다시 瀋陽으로 옮겼고 후에 다시 北館으로 옮겼다.

이 때 최명길은 對明 외교관계로 관려와 문책을 받아 옥에 갇혔다. 한때는 의견차이로 맞섰던 주화론자와 척화론자가 똑같이 적의 옥중에서 만난 것이다. 崔鳴吉이 시로써 經權의 뜻을 전하였다.

“끓는 물이나 어름이나 다 같은 물이요, 가죽옷도 갈옷도 다 같은 옷이니라”

이에 대하여 淸陰은

“成敗는 天運에 매어 있으니 모름지기 義대로 행할지여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

48) 答曰兩國各有境界安可不謂之他國乎.(仁遠實錄41卷)

49) 姜惠澤, 앞의 책, 71쪽

도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는 없는 말이며 여쭙 衰衣를 꺼꾸로 입을 수야 있겠는가? 權道로 혹 어질다고 한 것이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으니 經論은 마땅히 衆意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원에 밝은 그대에게 내 齋言하노니 금태도 衡機는 삼가야 할 것이다.”

하마 和答하였다.⁵⁰⁾

1645년 人質에서 석방될 때에 龍骨大는 최명길과 김상헌을 불러 西向해서 壽命도록 하였는데, 최명길은 서쪽을 향해서 四拜하고 용골대에게 귀謝하였다. 그러나 淸陰은 腰痛을 핑계하여 끝내 禮를 하지 않고 잠시 뒤에 오히려 동석하였던 우리 世子에게 엄숙히 謝했다. 그러므로 淸陰은 다시 質館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들도 그 충절에 감동하여 돌려보내니, 76세되던 2월에 적의 땅 瀋陽으로부터 돌아왔다. 6년의 고초를 겪은 淸陰은 朝廷에 들어가지 않고 종래의 明年號를 사용하면서 의리를 굽히지 않아 義理精神의 귀감이 되었다. 청음은 孝親, 현절사에 배향되고 그의 유적이 있는 곳 마다 서원을 세워 제향하였다.

IV. 南漢山城과 斥和節臣

1. 洪翼漢

洪翼漢(1586-1637)의 자는 伯升, 호는 花浦, 시호는 忠正, 本貫은 南陽 趙氏 以成의 아들이다. 月沙 李廷龜의 문인으로 1624년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⁵¹⁾ 장령에 있으면서 상소를 올려 오랑캐의 ‘사신을 참하고 문서를 불태우라’함으로써 큰 의리를 밝힐 것을 제의하였다.

淸나라 군사가 쳐들어와 수도를 버리고 피난가던 날 묘당에서 청군의 화를 피하고자 花浦를 평양서윤으로 임명하고 가서 부임하도록 재촉하였다. 1637년 정월 화친을 반대하였던 윤길·오달재를 묶어서 적진에 보냈을 뿐 30일에 출성을 결심하였다.⁵²⁾ 이 두 사람이 잡혀갈 때에 花浦한테도 평안도사를 시켜 고랑을

50) 時崔相鳴吉, 亦被拘執, 崔以評說經權之意云, 湯沐俱是水, 衰葛莫非衣, 先生次其體曰成敗關天運, 第看義與權雖然反尻幕거可微衰衣, 權或賢猶誤, 經應衆莫違, 寄言明理士, 這次衡機.(淸陰年譜癸未年條)

51)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92년, 1050쪽

52) 대동야승(XIV), 635쪽

채워 청나라 진영에 보냈는데,

北行日記 洪翼漢의 記事에 보면 1637년 2월 12일 밤에 증산현감 邊大中으로 하여금 쇠고랑을 채워 평양 豆果島로 압송하고, 거기서 다시 금나라 汗의 진영에 보내 명을 듣도록 하였다. 대증에게 차고 를 풀어줄 것을 애걸하였지만 대증은 들어주지 않았다. 조금 후에 은산현감 李養民이 들어와 지극히 위로하였다.

花浦는 말하기를

“나라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천한 이 목숨이야 논할 것이 없소. 내 비록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여짜 한 번 죽는 것쯤을 두려워 하겠소. 더구나 군명이 계시는데 도망한들 장차 어디로 가겠소. 다만 밥을 먹고 잠을 드도록 이 목숨이나 늦추어 주면 좋겠소.”

하니, 이순민이 변대증을 권유해서 풀어주게 하였다.⁵³⁾

花浦는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되어 참도 못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말위에 태워져 죽설이 내리는 차거운 겨울 바람을 가르면서 끌려가야 했다. 말먹이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서 달려갔으니 花浦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2월 17일 새벽 밝을 무렵 의주 白馬山城에 당도하였다. 부윤 林慶業이 문을 열어 자리로 花浦를 맞으면서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만, 공의 이번 행차는 참으로 남아다운 일이고, 살아서 능히 대의를 볼줄었고 죽어서는 竹鼎(역사책)을 빌릴 터이니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소.”

라고 하였다. 花浦는 말하기를

“나의 疏章 하나로 말미암아 나라일이 크게 그르쳐졌으니 어느 틈에 다른 말을 하겠소.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으니, 제발 서둘러서 군명을 지체하지 않게 해 주시오.”

하였다.⁵⁴⁾

2월 25일 실양에 도착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흥익한을 보는 사람마다 충신이라고 하였다.

花浦의 생사를 몰라 격들에게 문의하니, 항거하여 벌써 죽었다는 것이다. 汗이 익한을 앞에다 놓고 끓어 앉게 하였으나 끝까지 끓지 않으므로 적화소를 보이면서,

53) 대동야승(XIV), 630쪽

54) 대동야승(XIV), 630-631쪽

“내가 어찌해서 황제가 될수 없느냐?”

하니, 花浦는 말하기를

“너는 천조(天朝 明)의 역적이거늘, 어찌 황제가 될 수 있단 말이나?”

하니, 汗이 대노하여 죽었다고 한다.⁵⁵⁾

花浦는 3월 초23일 아무런 소식도 없이 쓸쓸히 앉아 다음과 같은 한 읍시를 읊었다.

양지쪽 언덕에 새싹 돋으니
우리 안에 갇힌 새 더욱 서러워
초나라 풍습인 靑靑⁵⁶⁾은 마음에도 없으나
금성의 별주 마심은 꿈속에 아련하다.
바람이 모래를 날리니, 용산이 울적이고
눈이 얼음덩이 속에 들어가니 月窟이 열리네
실오리 같은 폭승 주리고 목마르며 겨우 부지했지만
평생 처음 오늘에야 눈물 볼을 적시네.⁵⁷⁾

花浦는 죽을 임박에 붓을 달라고 하여 글로 자기의 뜻을 써서 오랑캐들을 책망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대명조선국의 갇혀있는 신하 흠직한은 화전을 반대한 취지를 똑똑히 들어 진술할 수 있으나 말이 서로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 써서 말한다.

대체로 세상에 있는 나라는 모두 다 형제로 될수 있지만 세상에선 두 아버지를 모신 아들이란 없는 것이다. 조선은 원래부터 예의를 숭상하여왔고 대간들은 태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해 봄에 마침 대간의 벼슬에 있으면서 금나라가 명세를 저버리고 황제로 자칭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만약 진실로 명세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세상에 천자가 둘이 있다는 것이다. 한 집안에 어떻게 형제간의 의리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하늘 땅사이에 천자가 둘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금나라는 조선과는 방금 이웃나라간의 관계를 맺었다가 제가 먼저 대반

55) 대동야승(XIV), 629쪽

56) 이른 봄에 들에 나가 파랗게 나오는 풀을 밟으며 즐기는 풍습.

57) 대동야승(XIV), 633-634쪽

하였고, 명나라로 달하면 조선에 대하여 옛날부터 잘 돌봐준 은덕으로 하여 깊은 관계에 있다. 그러나 깊은 관계에 있는 큰 은덕을 저버리고 먼저 배반한 빈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이치에도 매우 닿지 않고 의리에도 매우 닿지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왕으로 이런 의견을 제기하여 예의를 지키려고 한 것은 신의 직분일 따름이다. 어찌 이 밖에 딴 의도가 있을수 있겠는가.

다만 신하로 있고 아들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란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우로 임금과 부모가 있으나 다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여 왕세자와 대군은 모두 포로가 되고 늙은 어머니의 생사는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실로 허투루 진술한 한장의 상소문으로 하여 나라와 가정을 망치게 하였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해아려 보면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 없이 되었다.

스스로 그 죄를 파져 볼 때 죽어 바깥하니 만년을 처단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 밖에 더는 할 말이 없다.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

라고 하였다.⁵⁸⁾

1637년 3월 5일조에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花浦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강화에 피난가 있던 부인 한산이씨(李樞의 딸)는 교동에서 적을 만나 위태롭게 되었다. 이 때 아들 수원은 계도를 보호하려다 피살되어 숙종때에 정문이 내렸는데,⁵⁹⁾ 墓는 성남시 중원구 수내동 한산이씨 묘역내에 있다. 화포는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忠正의 시호를 받았으며 顯節祠에 제향하고 있다.

2. 尹 集

尹 集(1606-1637)의 자는 成伯, 호는 林溪, 시호는 忠貞, 본관은 남원, 현감 衡甲의 아들이다. 1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부사 형을 따라 공부하였다.

최명길의 화친에 반대하여 홍문관에서 규탄하는 글을 올렸고 임금이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으나 명길이 불안해 함으로 관운을 사임함을 수락하였다.

1636년 병자 11월 8일 林溪는 글을 올렸다.

“화친에 대한 의논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늘날이 아니라 예로부터 그러하였지만 오늘날처럼 심한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바로 부

58) 대동야승(Ⅷ), 민족문화추진회, 1985, 471쪽. 이하 본서의 인용은 '대동야승(Ⅷ)'로 기록함. 이조실록(238), 121-122

59) 城南市史, 城南市, 1993, 1810쪽

모도 되는 만큼 오랑캐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곧 부모의 원수로 되는데 신하나 아들로 된 사람치고 부모의 원수와 형제관계를 맺고서 부모를 배반해버릴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임진년의 일들은 털끝만한 것도 다 황제의 힘이었으니, 우리 나라로서는 밥먹을 때건 잠잘 때건 언제나 잊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번 기세가 잔뜩 오른 오랑캐가 기세를 부리며 얼마나 수도 근방까지 바투 침군하며 황제의 몸을 파해쳤으니, 설사 이에대하여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전하는 이러한 때에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아, 수백년동안 당당하게 전해내려온 종도사적(宗道事蹟)이 마침내 명길의 말 한마디에 말하다니 어디 말이 됩니까. 신은 대궐 뜰에서 통곡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워낙 어리석고 망나닌 신으로서야 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줄을 모르니 결단코 오늘날 3사의 관리들과는 차마 함께 쉬이 구차스레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을 벼슬대장에서 삭제해 버림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리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⁶⁰⁾

이에 대하여 인조는 林溪가 3사를 꾸짖고 모욕한 의도는 우연한 것이아니고 흥문관 관리들이 이에 대한 처리의 의견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소견이 있는 것 같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윤집으로 하여금 사헌부 사간원의 관리들을 처리할 의견을 올리도록 하고 최명길은 징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승정원에서 반대를 하였고 교리 조빈, 수완 이도 등이 모두 교체하라고 하였다. 이에 인조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모두 재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⁶¹⁾ 林溪가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다 명길의 죄입니다. 사신을 보낼 것을 정원하여 해야 할 수 없는 죄를 달하게 하고 급급히 회답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미처 저때에 가달지 못할가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글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본적하고 차를 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리의 여러 관리들은 대부분 용렬한 자들로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저 자기 몸이나 보존할 계획만 쓰고 있으니 천하가 누구를 통해 알수 있겠습니까.

명길이 화권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는 아무리 하여도 속죄 받을 수 없는

60) 이조실록(237), 469-473쪽.

61) 이조실록(237), 473쪽.

것입니다. 싸움으로써 지키자고 말하면 대뜸 대뜸 저지시키고 적의 세력에 대하여 논하는 경우에는 틀림 없이 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죄를 삼는다 해도 역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⁶²⁾

전교리 윤집과 전 수환 오달제가 상소하기를

“신 등이 들건대 묘당에서는 전후하여 화친을 베풀어 사람들이 하여금 자수하고 오랑캐 진영에 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전하를 위급한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조정의 여러 신하를치고 누가 감히 가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상소를 올려 화친을 주장한 최명길의 제의를 베풀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화친을 적극반대한 것입니다. 비라건대 오랑캐 진영에 달려가 칼에 맞아 죽음으로써 고향한 오랑캐들의 한 가지 요청을 굽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묘당의 議論들을 들건대 신 등으로 하여금 짐승 같은 오랑캐들에게 가서 사죄하게 하려고 한다니 묘당의 의도에 대하여 역시 분개하게 생각합니다. 신들에게는 이미 사죄할 죄가 없을 뿐더러 또 임금의 지시를 받고 가는 사신도 아닌데 어떻게 오랑캐 적들과 용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것은 감히 받을수 없습니다.”

하였다.⁶³⁾

1637년 丁丑 정월 29일 화친을 반대한 林溪와 吳達濟 등을 잡아 보냈다. 이때에 윤집·오달제 등이 하직인사를 하였는데 인조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식전은 비록 없지만 그 사정을 따져보면 본래 나라를 그르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끝내 이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고금 전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게 울었다.⁶⁴⁾ 林溪는 말하기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나라에 이로우미 있다면 설사 만번 죽는다 하더라도 아파울 것이 없는데 전하는 어찌하여 이렇듯 몹시 서러워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다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임금으로 받들고 이 외로운 성에까지 따라 들어왔었는데 일이 이

62) 이조실록(238), 14쪽

63) 이조실록(238), 56쪽

64) 이조실록(238), 79쪽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吳達濟의 말에 이어 임금이 부모처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林溪는

“신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모두 남양에 가 있는데 이제 들으니 부사가 격과 싸
우다가 패하여 고을이 함락되었다고 하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 말하기를

“臣 등은 나가지만 전하가 만약 세자와 함께 나간다면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홀
여길 계단이 있듯가 참말로 걱정됩니다. 전하는 세자가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함께 나가지 말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죄없는 두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면서 마음의 통한스러움을 말하
고 앞을 걱정하며 부모에 대하여 묻고 또 두 사람의 나이에 대하여 묻자 林溪는

“신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단지 할머니만 있는데 지금 할머니의 나이는 77세이며
신은 정미년생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 하직 인사를 하자 임금은 내관에게 지시하여 술을 가져오라 하였다. 이
미 청나라 사신은 문 밖에서 나오라는 재촉을 하고 있었다. 윤집 오달재 두 신하
는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하직하고 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65)

4월 15일 林溪는 오달재와 같이 심양에 도착하였다. 19일 용골대는 두 사람을
자기 앞에 앉혀 놓고 묻기를

“너희들은 화친을 맺자는 의논을 재창하여 두 나라간에 서로 틈이 생기게하였으
니 그 죄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 죽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복숨은 지극히
귀중하므로 살려주려고 하니 너희들은 처자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살아야 할 것
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林溪가 말하기를

“전란 이후에 처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천천히 알아서 처신하겠
습니다.”

라고 하였다. 66)

65) 이조실록(238), 81쪽

66) 이조실록(238), 161쪽

이에 용골대는 살려주려는 황제의 은혜에 항의하니 용서할수 없다고 하였다. 오랑캐들은 林濬을 묶어가지고 서문 밖으로 내다가 죽였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忠貞의 시호를 받았다.

3. 吳達濟

吳達濟(1609~1637)의 자는 季輝, 호는 秋潭, 시호는 忠烈, 본관은 해주, 允肅의 아들이다. 19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26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1636년 무교리에 이르렀다.

검토관인 秋潭은 말하기를

“이 문제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논할 겨를이 없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지금 고집스레 간하고 있는데, 명길은 어떻게나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배제하고 보내려고 하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비밀리에 하지 못하면 아예 잘못될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한창 화친관계를 다시 맺어보려 하고 있는 때에 간첩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조치가 있으니 의심쩍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⁶⁷⁾

1636년 9월 19일에 정묘년 화친 이후 내부적인 승명반청 정책이 적에게 누설된데 대한 논의에서 명길이 말하기를

“지금 설사 누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랑캐들 한테야 들어갔겠습니까?”하

였다. 秋潭이 말하기를

“3사의 정당한 논의가 한창 활기를 띠고 있는데 명길은 감히 공정한 논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처럼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이에 최명길은

“종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임금 앞에 어찌 감히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秋潭이 다시 말하기를

“3사와 서로 다투는 것은 일의 원칙으로 보아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최명길은 나가버렸다.

1636년 9월 23일 秋潭은 李道와 함께 차자를 올랐다.

“이번에 오랑캐들 속에 사람을 파견하는 이 조치에는 매우 옳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그만둘 수 없겠습니까? 교활한 오랑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

67) 이조실록(237), 446쪽

죽 받아지게 위협 공갈하며 제멋대로 외람된 청호를 달고는 우리한테 와서 떠보고 있으니 살아 숨쉬는 사람치고 누가 가슴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초봄에 화친을 끌어 버린 것은 천하의 큰 의리를 지킨 것으로……이런데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원래 간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 간첩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면 다시 무슨 명색을 벌리겠습니까.”

하면서 통역을 파견하며 편지를 보내라는 지시를 취소하라고 하였다.⁶⁸⁾

10월 1일 수완 秋潭은 글을 올렸는데,

“지난 번에 최병길의 사신을 파견하여 편지를 보낼 때 의견을 달한 것은 화친을 맺은 뒤였고 또한 3사의 공정한 논의도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하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믿고 나라 일의 원칙을 아랑곳하지 않은채 경연에서 접견 받는 날에 감히 황당한 말을 하여 전하를 현혹시키고 공정한 논의를 억눌렀습니다. ……대체로 대간의 논의는 제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 대신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감히 맞서 나서지 못하고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서 사직하는 것으로 불안해 하는 뜻을 보이는데 병길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유독 공정한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기가 이처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면서 최병길에게 죄를 지을 것을 여러번 말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신의 파직을 원하였다.⁶⁹⁾

秋潭은 이렇게 화친을 반대하고 적화를 적극 주장하다 화의본자에게 잡혀 清軍陣營에 압송되었다.

1637년 정축 정월 29일 윤집과 함께 하직인사를 할 때에 임금이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니 秋潭은 말하기를

“신이 재질로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는데,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흐느껴 울면서 말하기를

“고금 원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수 있겠는가.”

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秋潭이 다시 말하기를

“신물이 죽고 사는 것은 이때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그저 전하가 성을 나가시는 것이 한없이 슬픔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이 때에 죽지 않고 어느 때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68) 이조실록(237), 452-453쪽

69) 이조실록(237), 456-457쪽

라고 하였다. 임금이 두 사람에게 부모와 처자를 물었을 때에 秋潭은

“신에게는 70살이 되는 늙은 어머니만 있을 뿐이고 아직 아들 딸은 없고 단지 일
신중에 있는 아이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하고 또 이어서

“어머니는 무진년생이고 신은 무신년생입니다.”

淸나라 사신이 밖에서 기다리며 재촉하자 임금은 왜 그럴듯 재촉하는나며 윤
집·오달계 두 사람에게 술을 주었다. 임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귀중한 사람들이 혹 다행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는
가”

라고 하였다. 秋潭 말하기를

“신은 나라를 위하여 나가 죽는 만큼 조금도 유감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최명길은 윤집·오달계 두 사람을 데리고 청군 진영에 가니 汗은 대접을 후하
게 하였다.⁷⁰⁾

秋潭은 적장 용골대의 심문에 급하지 않아서 심양으로 압송되어 4월 15일 윤
집과 함께 瀋陽에 도착하였다. 19일 용골대는 두 사람을 앞에 안치고 살려줄터
이니, 처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秋潭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혹시 살아 돌아가면 우리의 임금과 늙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뵙기 위해서일 뿐이다. 만약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것
이 죽는 것만 못하니 빨리 나를 죽여라.”

라고 하였다.⁷¹⁾ 용골대가 말하기를

“저것들이 독숨을 살려주려는 황제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항의하
고 있으니 이제는 더 용서해 줄수 없다.”

하였다.

재상 박창이 秋潭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대만은 옛날 서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는가? 임금과 부모로하여금 그
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한다면 설사 이국 땅에 있다 하더라도 오혀려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⁷²⁾ 秋潭은 아무말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에 오랑캐들은 곧

70) 이조실록(238), 80-89쪽

71) 이조실록(238), 161-162쪽

바로 묶어서 서문 밖으로 내다가 죽였다. 秋潭은 묶이워 가는 도중에 시를 지어 늙은 어머니와 형에게 부치었는데, 그 시의 한구절은 다음과 같다.⁷³⁾

외로운 신하 의리가 바르기에
마음엔 부끄러운 것 없고
천하의 은혜 하도 깊어
죽는들 다 갚을 길 없네
허나 이내를 한 없이 슬픈건
사람문가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
헛되이 저버리게 될이여라

또 家書를 부치면서 詩를 보냈는데, 그 시에

聲譽의 온정이 지중도 한대
서로 만나 두 해도 채 못되었네.
이제는 천리길 이별이 되니
백년기약 헛 되게 저버렸구려.
땅이 멀어 편지도 못 전하겠고
長天이라 꿈도 또한 데디답니다.
나는 다시 살아 갈수 없는 몸이니
腹中에든 아이나 잘 나시구려.⁷⁴⁾

이 시를 듣는 사람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시체를 거두도록 청하였으나 오랑캐는 승인하지 않았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忠烈의 시호를 받고 顯節祠에 배향하였다.

4. 鄭 蘊

鄭蘊(1569~1642)의 자는 輝遠, 호는 桐溪, 시호는 文簡, 본관은 草溪, 惟明의

72) 위와 같음

73) 이조실록(238), 162쪽

74) 국역대동야승(Ⅷ), 471~472쪽

아들이다. 1610년 별과에 급제. 사간원 정언때에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하여 鄭沆을 참수하라고 장해군에게 상소하였다가 10년간 귀양살이를 하다가 인조반정 후에 벼슬에 나갔다.

1636년 병자호란시에는 사신들이 국서를 가지고 적진에 갔으나 용골대는 마부대가 나가고 없다는 핑계로 받지 않았기에 국서에 '폐하'라는 두 글자를 써 넣었다.

이조참판인 柳濬은 말하기를

"신도 화친을 배척하였으니 청나라 군사들의 진영에 내가 죽이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⁷⁵⁾

의정부에서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수하도록 하였다.

세자가 비변사에 글을 내려 보냈는데 내용인 즉

"태산이 새 알을 짓누르는 격으로 된 나라의 운명을 누가 반석 같이 든든하게 할 수 있었는가. 일은 벌써 위급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두 동생이 있고 또 아들 하나가 있으니 역시 종묘, 사직을 받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비록 내가 적들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한스러울 것이 있었는가. 내가 산성 밖으로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⁷⁶⁾

丁丑年 정월 22일 柳濬가 차자를 올렸는데 하기를

"신이 구구하게 차자를 올리려는 의도는 최명길의 '신하'라고 하는 말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그 제책을 시행한데 대하여 신은 미처 알지 못하여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큼니다. 임금이 당한 치욕은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니 신하로서는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또 머뭇거리고 속으로 참고 견디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 것은 그래도 다행히 전하가 성 밖으로 나가려는 뜻이 없는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니 신이 무엇 때문에 지레 죽었습니까?

그런데 듣건대 저 오랑캐들은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보내라는 독촉이 매우 급하다고 하니 신이 비록 사신의 독을 먹고 편지를 붙살라 버린데 대하여 먼저 계의 착한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싸울 것을 始終一貫하여 주장하였으니, 신에게도 사실 죄가 있습니다. 신이 죽어서 나라의 존망과 관계되는 제책에 털끝만치라도

75) 이조실록(238), 37쪽

76) 이조실록(238), 48쪽

도움이 된다면 신이 어찌 자신의 몸을 아끼면서 임금을 위해 죽지 않을 수 있겠
습니까? 전하는 빨리 요달으로 하여금 신을 보내서 오랑캐들이 사람을 보내달라
는 요구에 응하게 하기 바랍니다.”

고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⁷⁷⁾

인조가 함복을 하고 여러 관청의 문서를 거두어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것은
문서 중에 ‘적’이란 문구가 발견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조 참판 桐溪는 許 한 구절을 읊었다.

사방에서 울리는 포성 후퇴처럼 진동하고
최토운 설 함락되자 군사들 사기 떨어졌건만
늙은 신하만은 태연히 그 소리 들으며
초가에 누워서 조용히 목숨을 끊으려 하노라

또 읊기를

밖에는 임금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 없고
조정엔 나라를 파는 흉악한놈들만 많으니
늙은 신하 할 일이 무엇인가
허리에 찬 서슴푸른 칼로 목숨을 끊으리라

피를 풀어 명세하는 글을 썼다.

임금이 당한 치욕 극도에 달했는려
신하로서 어찌 죽기를 지체하랴
목숨을 마쳐 의리를 지켜야 할
그때가 바로 자금이 마난가
임금을 따라 투항하러 가는 일
나는 설로 치욕으로 여기저늘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노라

77) 이조실록(238), 48~49쪽

이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기 배를 스스로 찔렀는데 다행이도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⁷⁸⁾

尹集·吳達濟가 갑해간 다음 날인 정월 30일 桐溪는 차자를 올렸다.

“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은 바로 전하 앞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한 것이었는데 한 가닥의 실오리 끝이 간들거리는 목숨이 3일이나 지났는 데도 아직 붙어 있으니 신은 실로 창피스럽습니다. 명길 이 이미 전하로 하여금 신하라고 부르게 하고 나가서 행복하게 한 이상 임금과 신하간의 명분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신하와 임금과의 관계에서 비단 공경스럽게 명을 받들고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만약 명나라의 인장을 바칠 것을 요구한다면 전하는 미땅히 반대하면서 말하기를 ‘선대 임금 때로부터 이 인장을 받아가지고 써온지 오늘까지 300년이나 되니 이 인장을 도로 명나라에 바칠 수 있어도 청나라에는 바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저것들이 만약 명나라를 공격할 원군군사를 요구한다면 전하는 미땅히 반대하면서 말하기를 ‘명나라와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와 같으므로 은혜를 입으며 지내온 사이라는 것을 청나라도 알고 있는 바이다. 아들더러 아버지를 치라고 가르치는 것은 윤리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다만 치는 사람에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준 사람도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것들이 아무리 음흉하고 교활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백라진대 전하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반대해 나섬으로써 천하 후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더 없이 다행하겠습니다.

많은 목숨이 거의 끊어지게 되어 이제는 전하의 행차를 따를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또 길가에서 통곡하며 사죄할 수도 없으니 신의 죄는 큼니다. 신을 벼슬에서 교체하고 눈을 감게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⁷⁹⁾

桐溪는 남한산성에서 죽어 국은에 보답 못한 것을 한탄하여 고향에 가지 않고 덕유산에 은거하다가 1642년 인조 20년에 별세하니, 후에 文簡의 시호와 이조관서를 추증하고 顯節祠에 배향하였다.

78) 이조실록(238), 76-78쪽

79) 이조실록(238), 82-83쪽

V. 結 論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국난의 위기시에 참의와 순철의 의리정신은 민족정신의 원동력으로 발휘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七百義士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한 趙憲(1544~1592)은 “오늘은 다만 한 번 죽음이 있을 뿐이다. 죽고 살며 나아가고 물러섬을 ‘義’라는 한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⁸⁰⁾ 의리는 國家存亡의 위난에 처하였을 때에 생명을 바리면서 투쟁하는 용기의 원천이요 正當性의 근거가 되고 있다.

南漢山城에서의 척화질의는 나라에 대한 忠義로 대외정신에 입각한 참된 정신이다. 淸나라 대군에 의해 山城이 포위되고 崩城의 존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척화의를 주장한 대표적 斥和五節臣인 淸陰 金尙憲·桐溪 鄭蘊·花浦 洪翼漢·林溪 尹集·秋潭 吳達濟는 의리정신의 참된 실천자이다.

淸나라 대군이 서울을 함락하고 강화섬이 무너졌으며 남한산성도 견디기 어려운 화급한 상황인 민족적 시련을 맞이하여 그 극복의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화친으로 해결하여 보자는 것이고, 하나는 화친은 굴복이므로 의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丁卯·丙子胡亂을 통하여 대립되어 온 主和論과 斥和論에서 김상헌등 五節臣은 淸나라의 위압 속에서도 斥和論을 堅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義理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道理의 행위라면 위의 오절신은 그 도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에 높이 평가되고 후세의 귀감이 된다.

金尙憲과 鄭蘊에 대하여 逸史記聞에서는

“이들의 精忠大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가 온통 비탄내 나는 중에서도 오히려 늙은 생기를 느끼게 하였으니, 사실 이 두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동방의 2백 년 기강을 누가 물들였겠는가?”

라고 기록하였다.⁸¹⁾ 그리고 洪翼漢·尹集·吳達濟 등 세 사람에 대하여 東粵居士 張會鑄은

“만약 三學士의 功이 아니었다면 義理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⁸²⁾

80) 儒教大事典, 博英社, 1990, 1167쪽

81) 국역 대동야승(XIV), 626쪽

어지러운 시기에 實勢와 타협하여 義보다 利를 따르는 것은 쉽지만 捨生取義하여 의리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의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주화론은 임기응변인 것이다.

圓隱 鄭夢周는 백골이 전도되어도 조선조의 건국을 반대하고 高麗에 대한 충절의 義理를 지켰기 때문에 朝鮮朝의 개국공신인 三韓 鄭道傳 보다도 조선조의 역대 왕으로부터 높이 평가되었고, 유럽들이 의리의 표본적 인물로 숭상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만근의 무계로 새알을 누르는 듯한 청나라 위세에 모두 화친만 하였다면 역사와 민족 앞에 크나큰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淸陰은 심양에서 만난 최명길에게 千秋萬古人の 수치를 덜어준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적화론자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첫째, 의리의 무너짐은 한 국가의 멸망보다 더 큰 인류의 금수화를 가져 오는 큰 화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싸워보지도 않고 적의 위세에 눌려 和議를 하는 것은 도무지 체면 이 서지 않는 잘못이다.

셋째, 형제의 의를 맺었는데 군신(父子)지국의 의를 맺는 것은 형이 아버지 가 되는 것이므로 의리에 어긋난다.

넷째, 대명관계를 부자관계로 볼 때에 청국과의 군신관계는 한 아들이 두 아버지를 갖게되는 것이므로 의리에 어긋난다.

다섯째,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에 우리를 도와준 은혜의 나라인데, 청국과 의 국교는 명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일로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여섯째, 적들과 강화를 하여도 패배나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오랑캐가 요구하는 것들을 어찌 모두 감당해낼 것인가.

일곱째, 태조 이후 역대 선왕들의 意思에 반하여 청국과 화의를 맺는 것 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여덟째, 대왕대비나 인조대왕이 淸胡와의 국교를 반대하고 싸울 것을 주장한 것도 의리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화론은 正論이다.

淸陰은 斥和義理로 일관하여 화의문서를 짓고 出城을 반대하였고, 심양에 잡혀가서도 淸胡에게 4拜를 하지 않았으며, 환국후에도 이를 멀리하고 一身을 지켰다.

82) 東寧先生 張會圖 遺事(張學洙 撰)

桐溪는 출성이 있게 되자 淸陰과 함께 자결하려다 주위에 의해 구출되고 실패하였으나 평생 뜻을 달리하지 않았다. 花浦 洪翼漢·林溪 尹集·秋潭 吳達濟 등 三學士는 義理를 지켜 적 淸汗에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심양에서 피살되어 殉節하였다.

1688년(숙종14) 광주 유수 李晳白(1635-1691)은 척화신 삼학사 홍익한·윤집·오달재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남한산성 안에 關節祠를 세우고 1693년에 賜額을 받았다. 1699년에 淸陰 金尙憲·桐溪 鄭應을 追享하였는데, 매년 음력 9월 10일에 향사를 지낸다. 위 五人은 병자호란시 남한산성의 '斥和五節臣'이라 그 애국충절의 정신적 지주로 귀감을 삼고 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복속시켰으나, 우리는 척화의리사상 속에서 추진된 효종대왕의 北伐計劃과 숙종대왕의 大報壇設置, 영종대왕의 毅皇忌辰望拜禮日愴吟, 정조대왕의 皇壇親享日敬次兩朝御製韻과 尊周彙編, 그리고 순조·헌종·고종의 尊周義理와 화양동의 萬東廟·대보리의 朝宗巖에서 척화의리가 正道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이 의리정신을 對明 事大主義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국제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도 敎道精神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갈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崩城의 위기에 치한 남한산성에서의 斥和義理는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물리적인 의세의 원탁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키고 올바른 국제관계를 유지하려는 도덕적·평화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국난극복과 민족사, 장교교재(V), 육군본부
 국역대동야승(Ⅷ)·(XⅣ),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이조실록(237)·(238), 여강출판사, 1993
 南漢紀略
 南漢丙子錄, 羅萬甲
 南漢山城(조선왕조500년 34), 辛奉承, 金星出版社, 1994
 南漢誌, 廣州郡, 1989
 東粵先生 張會瀾遺事, 張學洙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斯文論叢(1輯), 斯文學會, 1973
 城南市史, 城南市, 1993
 城南의 뿌리, 張三鉉, 曜圖學報社, 1987
 小說韓國史(병자호란), 민중서원, 1994
 宋子大全, 宋時烈
 儒教大事典, 博英社, 1990
 李朝의人物Ⅱ(韓國人物史4), 良友堂,
 淸陰集, 金尙憲
 韓國史大事典, 一中堂, 1979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92
 韓國人の 章句思想, 朝宗嚴保存會, 1993

三田渡 대청황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해석 및 색인

* 朴 相 圭

<차례>

- | | |
|-------------|------------------|
| 1. 序 | 4. 滿洲文 原文에 관한 音譯 |
| 2. 滿洲原文의 再構 | 5. 滿洲文에 관한 意譯 |
| 3. 漢文 原文 | |

1. 序

원래 ‘大清皇帝功德碑’는 오늘날 소위 ‘三田渡碑’로 오히려 잘 알려져 있다. 이 碑石은 ‘京畿道 廣州郡 中岱面 松坡里’에 있었는데 行政구역의 바뀔에 따라서 그 후 서울特別市 城東區 松坡洞으로 또한 현재는 ‘서울特別市 松坡區 松坡洞’의 주택단지의 놀이터 공간 내에 ‘有石巍然 大江之頭’로 서 있다. 이 碑는 현재 대한민국의 ‘史蹟 第101號’로서 漢蒙滿文의 言語로 된 ‘大清皇帝功德碑’인데 이 碑石의 碑文으로 본다면 表面에는 滿文 30行으로 새겨져 있으며 後面에는 漢文으로 24行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內容에서 볼 때 漢, 滿, 蒙文은 대체적으로 同一하며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漢文碑文이 그 原文이며 이것을 滿文과 蒙文으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면 漢文碑文 末尾에는 그 당시의 史曹判書 李景奭이 ‘奉敎撰’을 하시고 漢城府 尹珥煥이 ‘奉敎書’했으며 禮曹參判 呂爾徵이 ‘奉敎篆’했으니 이 碑文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漢文이 原本일 것이다. 그리고 漢文은 李景奭에 의한 作成일 것이며 이러한 作成도 清側의 무리한 強要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奉敎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 교수

또한 碑文을 통해서 보면 滿洲文과 蒙古文을 누가 作成 내지 번역했는지 알
 길은 정확하게 없다. 그러나 아무리 碑文에 번역자의 관직명과 성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後孫
 에 대한 제반적인 여건 때문에 밝히는 것을 꺼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
 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나 戰勝者의 聲포와 聲요는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戰爭에서 勝利하였던 淸의 氣勢를 감안한다면 그들의 무
 모한 聲요도 없을 리 만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漢文碑文을 作成하였던 李景
 奭의 心的 고충과 갈등은 어떠한이었을까. 참으로 後孫된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면 늘 참담하기 짝이 없다. 또한 滿文과 蒙古文도 滿洲人이나
 蒙古人이 作成翻譯했다고 하더라도 當時 조선의 臣下들과 상호 의견 교환 내지
 수정 교정은 있었을 것이나, 그 이름은 알 길이 없다. 오히려 밝혀려 들지 않
 는 것이 道理인지도 모르겠다. 단지 漢文原文보다도 滿, 蒙古人이 더 과장된
 표현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自國語로 썼기에 해박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朝鮮人이 滿洲文, 蒙古文을 同時에 作成翻譯했다기
 보다는 李景奭에 의한 漢文本이 原文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여기에서 滿洲
 人이 滿洲語로 蒙古人이 蒙古語로 翻譯을 했기에 더더욱 自國語로 翻譯과 더
 붙어서 戰勝의 心的 충동에 의해 과장된 표현을 가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소위 '三田渡碑'는 世稱 '汗碑'로 알려졌는데 궁극적인 사실 때문에 대다수 사
 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과거 여러차례 매몰된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1차때는 洪水, 2차때는 수치심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汗碑'의 위치는 三田渡의
 舊受降壇의 옛 자리에서 정남쪽으로 약 700m되는 지점으로 옮겨졌다고들 한다.
 그리고 鄭虎成씨에 따르면 1952年(?) 고위층의 묵시적 지시로 大韓獨立 青年團
 員이 주축이 되어 300여명이 땀줄을 걸어 넘어 드리려고 했다고 하며 1955年 前
 李大統領께서 國恥의 碑이나 貴重하게 묻어서 보관하라는 말씀으로 碑身만을 크
 레인으로 뽑아 붙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다음해 큰 洪水로 인하여 受降壇에
 流失되어 碑만이 半身으로 보이게 되었으며 1969年 가을 1개월 작업 끝에 현 位
 置에 오게 되었다고 鄭先生께서 이야기 했다고들 傳한다.

사실 '有石巍然 大江之頭'처럼 '三田渡碑'는 당시의 淸太宗 蠻勇을 보여주는 듯
 하며 규모 역시 대단히 크다. 대체적으로 높이 3m 95cm 넓이 1m 40cm의 巨身
 區의 碑이다.

또한 이 '汗碑'는 國內에서는 唯一한 漢, 滿, 蒙文의 碑石이다. 따라서 비록 수 치비라 할지라도 文化財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몇가지 사실에 주의하면서 필자는 기술하였다. 첫째로는 漢文原文을 충실히 소개하였으며 滿洲原文을 構成하였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이 '汗碑'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준적 샘플'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유는 현재 '汗碑'는 많은 부분이 상처를 입고 입어서 漢文本을 中心으로 滿洲文과 蒙古文을 相互間에 연결시켜 해석해야만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遺體스런게도 缺字 및 稀散한 곳이 많아서 자손대대로 現 '汗碑'가지고는 연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漢文本을 제외한 滿洲文과 蒙古文은 정확하게 寫眞한 筆寫體本이라도 再構형식이지만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자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Romanization한 것을 기저로 하여 새로 滿洲文을 再構하였다.

여기에는 '鷲淵一' 'WR. Carles' '崔鶴根' '成百仁' '金芳漢' 등의 Romanization의 論文이 參考가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滿洲文을 채택한 것은 當時에 淸과의 關係에서 비롯되었기에 淸語인 滿洲語를 가장 重點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滿洲語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再構해야만이 이 分野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當時의 淸과 朝鮮과의 關係를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는 무엇보다도 이 '三田渡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缺字 및 稀散한 곳이 많은 뿐만 아니라 漢文本과 對照해야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현재의 '汗碑'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碑石文'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原文에 가까운 筆寫體本 중 하나는 지금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 筆者는 나름으로 고생 끝에 本 論文의 滿洲原文을 再構하였다. 아마도 學界에서는 최초의 일이나 많은 불량이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정 보완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蒙古文도 再構해 볼 생각이며 이런 것들이 先行되어서 '三田渡碑'의 言語學的 研究 및 歷史的 研究도 해 볼 작정이다. 물론 쉽게 이룰 수 있는 分野는 아닌 것이다. 앞으로 先學 同學 後學의 批判을 기다리며 助言도 바란다.

滿洲原文을 再構함에 있어서는 Mollendorff식 전사법에 의해서 Romanization하였으며 國內外 學者의 論文도 參考하였다. 그리고 滿洲原文의 再構에 있어서는 '滿洲語法' '簡明滿漢辭典'을 비롯하여 '滿和辭典' 'A concise Manchu - English

Lexicon' 등 여러 辭典의 도움이 컸다. 그리고 끝으로 本論文에서는 '滿洲原文再構' 이외에도 '漢文原文'·'滿洲文原文'에 관한 音譯·滿洲文에 관한 意譯·滿洲文原文 語彙索引' 등을 紹介하였다. '三田渡碑'는 史蹟 101號로 指定되어 있기에 '拓本'도 現在로서는 하기 힘들고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 물론 毀損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때문에 本論文의 滿洲原文再構는 그러기에 貴重な 價値가 앞으로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그리고 言語學的인 比較性과 語源的인 研究는 다음 機會로 미루고 本論文에서는 翻譯 및 原文에 치중하기로 했다.

2. 滿洲原文의 再構

사실상 '三田渡碑'는 史蹟으로 指定되어 있기에 '拓本'을 하기란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설령 '拓本'을 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에는 많은 問題點이 따른다. 왜냐면 여러 사정에 의하여 상당 부분이 缺字 내지 毀損되어서 오늘날에는 完全解讀을 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漢·滿·蒙文을 相互間에 對照를 하여야 그것도 可能하다는 것이다. 滿洲文이나 蒙古文 自體로만 따로 떼어서 判讀을 하기란 不可能하다는 것이 現實인 셈이다. 따라서 지금쯤은 滿洲文이나 蒙古文 정도는 再構本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이 滿洲文의 原文을 再構하였다.

3. 漢文 原文

'三田渡碑'의 '汗碑'는 아마도 그동안 學者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漢文本'이 '原本文'이 아닌가 하는 점이였다. 아마도 朝鮮朝 時代의 學者란 漢文이 모든 日常生活에 되었기에 오히려 自然스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原本을 漢文으로 먼저 草案을 잡고 나머지 滿洲文과 蒙古文으로 번역하였을 것은 편한 사실일 것이다. 本論文에서도 이러한 事實에 注目하였기에 紹介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漢文 原文>

1. 大清皇帝功德碑.

2. 大靖崇德元年冬十年二月。

3. 寬溫仁聖皇帝以 壤和親自我始。赫然怒。以武臨之。直擄以東。莫敢有抗者。時我寡君隸于南漢。瀟瀟若覆春水而待白日者。殆五旬。東南諸道兵相繼崩潰。西北帥逗遛峽內。不能進一步。城中食且盡。當此之時。以大兵薄城。如霜風之卷秋稼。

4. 燼火之燒鴻毛。而

5. 皇帝以不殺為武。惟布德是先。乃降勅諭之曰。來。朕全爾。否爾之有若英馬諸大將。承皇命相屬於道。於是我寡君集文武諸臣。謂曰。予託和好于大邦。十年于茲矣。由于悖惑。自違天討。萬姓魚肉。罪在于一人。

6. 皇帝猶不忍屠戮之。諭之如此。予曷敢不欽承。以上全我宗社。下保我生靈乎。大臣協贊之。遂從數十騎詣軍前請罪。

7. 皇帝乃優之以禮。拊之以恩。一見而推心腹錫賚之恩。偏及從臣。禮罷即遣我寡君于都城。立召兵之南下者。振旅而西。撫民勸農。遠近之雉鳥散。咸復厥居。詎非大幸耶。小邦之獲罪上國久矣。己未之役。都

8. 元帥姜弘立助兵明朝。兵敗被擒

9. 太祖武皇帝只留弘立等數人。余悉放回。恩莫大焉。而小邦迷不知悟。丁卯歲。今

10. 皇帝命將東征。本國君臣避入海島。遣使請成。

11. 皇帝允之。親為兄弟國。疆土復完。弘立亦還矣。自茲以往。禮遇不替。冠蓋交跡。不幸浮議煽動。構成亂梯。小邦中節邊臣。言涉不遜。而其文為。臣所得。

12. 皇帝猶寬貸之。不即加兵。乃先降明旨。諭以師期。丁寧反覆。不翅若提耳而命。而終未免焉。則小邦群臣之罪。益無所逃矣。

13. 皇帝既以大兵圍南漢。而又命偏師先陷江都。宮嬪王子暨卿士家小。俱被俘獲。

14. 皇帝戒諸將不得擾害。令從官及內侍看護。既以大霑恩典。小邦君臣及其被獲眷屬復歸于舊。霜雪變為陽春。枯旱轉為時雨。區宇既亡而復存。宗祀已絕而還續。壤東土數千里。咸聞于生成之澤此。實古昔簡策所希觀也。

15. 於戲盛哉。漢水上游。三田渡之南。即

16. 皇帝駐蹕之所也。增塢存焉。我寡君愛命水部。就塢所增而高大之。又伐石以碑之。垂諸永久。以彰夫。

17. 皇帝之功之德。直與造化而同流也。豈特我小邦世世而永賴。抑亦大邦之。仁聲武誼。無遠不服者。

未始不基于茲也。顧慕天地之大。晝日月明。不足以彷彿其萬一。謹載其大略。銘曰。

18. 天降霜露。載肅載育。惟帝則之。拜布威德。

19. 皇帝東征，十萬其師。殷殷轟轟，如虎如龍。西番窮髮，暨夫北落執爰前驅。旣
暨赫赫。

20. 皇帝孔仁，誕降恩言。十行昭回，既嚴且濶。如迷不加，自貽伊慙。帝有明命，
如寐覺之。我後祗懼，相率而歸。匪惟祖威，惟德之依。

21. 皇帝嘉之，澤洽禮優。載色載笑，爰束戈矛。何以錙之，駿馬輕裘郡人士女。乃
歌乃謠，我後言旋。

22. 皇帝之賜。

23. 皇帝班師，活我赤子。哀我蕩析，勸我機事。金甌依舊，翠瓊維新。枯骨再肉，
寒荑復春。有石巍然，大江之頭。萬載三韓。

24. 皇帝之休。

25. 崇德四年十二月初八日立。

4. 滿洲文 原文에 관한 音譯

본 論文에서는 音譯함에 있어서 Mollendorff식 전사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는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을 참고로 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여
러 사전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해석을 찾으려 하였다. 또한
Romanization을 찾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기 다른 사전 속에서 적합한 해석 및
Romanization의 경우에는 필자 나름으로 선택하였다. 앞으로 이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리라 믿는다.

<漢文 原文 音譯>

(大清皇帝功德碑 滿洲文 音譯)

۱. $\frac{1}{x^2} = x^{-2}$ $\frac{d}{dx} x^{-2} = -2x^{-3} = -\frac{2}{x^3}$
 2. $\frac{1}{x^3} = x^{-3}$ $\frac{d}{dx} x^{-3} = -3x^{-4} = -\frac{3}{x^4}$
 [۱] $\frac{1}{x^4} = x^{-4}$ $\frac{d}{dx} x^{-4} = -4x^{-5} = -\frac{4}{x^5}$
 ۳. $\frac{1}{x^5} = x^{-5}$ $\frac{d}{dx} x^{-5} = -5x^{-6} = -\frac{5}{x^6}$
 [II] $\frac{1}{x^6} = x^{-6}$ $\frac{d}{dx} x^{-6} = -6x^{-7} = -\frac{6}{x^7}$
 ۴. $\frac{1}{x^7} = x^{-7}$ $\frac{d}{dx} x^{-7} = -7x^{-8} = -\frac{7}{x^8}$
 ۵. $\frac{1}{x^8} = x^{-8}$ $\frac{d}{dx} x^{-8} = -8x^{-9} = -\frac{8}{x^9}$
 [III] $\frac{1}{x^9} = x^{-9}$ $\frac{d}{dx} x^{-9} = -9x^{-10} = -\frac{9}{x^{10}}$

[illegible]

Handwritten text in Urdu script, likely a list or index, with entries written vertically in columns. The text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and includes various characters 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catalog or a list of items.

۱۰۰
 ۱۰۱
 ۱۰۲
 ۱۰۳
 ۱۰۴
 ۱۰۵
 ۱۰۶
 ۱۰۷
 ۱۰۸
 ۱۰۹
 ۱۱۰

[VI]

لا تتركوا منكم رجلا
 الا قد علم ما عليه
 من العمل والعبادة
 والقيام بالواجبات
 والابتعاد عن المحرمات
 والالتزام بالسنن
 والسير في صراط
 المستقيم والتمسك
 بحبل الله المتين
 والاعتماد على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والاعتراف بضعفه
 وقصوره وقلة
 قوته وقدرته
 والاعتراف بجلاله
 وعظمته وقدرته
 وقوته وقدرته
 وقوته وقدرته

(جمله) (عنه) (نظيره)
 (مفهوم) (مفهوم)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نظيره)

[VIII]

كفدني فمدر حلسر يفسر
مقيم (مدر سنكر جف
الفسر يفسر حلسر
فسر يفسر حلسر
فسر يفسر حلسر
فسر يفسر حلسر
فسر يفسر حلسر
فسر يفسر حلسر

مِنْهُنَّ نِسَاءً مِمَّنْ عَلَّمَكُنَّ
 أَنْ يَقْرَأْنَ فِي الْكِتَابِ
 وَلَمْ يَكُن لَكُنَّ
 عِلْمٌ مِنْهُنَّ الْكِتَابُ

[IX]

يَسْأَلُكَ الْمُتَفَتِّحُونَ
 عَنْ النَّبِيِّينَ قُلْ أَنِ
 إِنِّي أَخْبَرْتُكُمْ أَنَّ
 الْكُتُبَ قَدِ انْفَصَلَتْ

لجوه بنتا بنينا (بنينا بنينا)
لجوه بنتا بنينا (بنينا بنينا)

[X] لجوه بنتا بنينا (بنينا بنينا)

لجوه بنتا بنينا (بنينا بنينا)

لجوه بنتا بنينا (بنينا بنينا)

لجوه بنتا بنينا (بنينا بنينا)

لجوه بنتا بنينا (بنينا بنينا)

۱. کمال در علم و فن
 ۲. کمال در اخلاق و عبادت
 ۳. کمال در شجاعت و شرف
 ۴. کمال در سخاوت و بخشش
 ۵. کمال در تدبیر و سیاست
 ۶. کمال در علم و فن
 ۷. کمال در اخلاق و عبادت
 ۸. کمال در شجاعت و شرف
 ۹. کمال در سخاوت و بخشش
 ۱۰. کمال در تدبیر و سیاست

[XI]

اسم الله تعالى
محمداً و آله و سلم
و علياً و ابي طالب
و ابي عبد الله
و ابي محمد
و ابي جعفر
و ابي القاسم
و ابي الفضل
و ابي طالب
و ابي عبد الله
و ابي محمد
و ابي جعفر
و ابي القاسم
و ابي الفضل

و ابي طالب
و ابي عبد الله
و ابي محمد
و ابي جعفر
و ابي القاسم
و ابي الفضل
و ابي طالب
و ابي عبد الله
و ابي محمد
و ابي جعفر
و ابي القاسم
و ابي الفضل
و ابي طالب
و ابي عبد الله
و ابي محمد
و ابي جعفر
و ابي القاسم
و ابي الفض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XIV]
 انجمن معارف و اوقاف و صنایع مستظرفه
 معارف و اوقاف و صنایع مستظرفه
 انجمن معارف و اوقاف و صنایع مستظرفه
 در شهر تهران
 در شهر تهران
 در شهر تهران

منه
بني جليل
معه
الملك
الملك
الملك
الملك

[XV]

१. ३.
२. ३.
३. ३.

[illegible]

پیشہ پیدائش

रिक्त स्थानों में भरिए

$\frac{1}{\sqrt{1-\beta^2}} = \gamma$

五、六、七、八、九、十、

北 北 北 北

مستحق در اختیار مسکن شود
انچه در تصرف مسکن
تصرف در تصرف در تصرف
کار مستحق در تصرف در تصرف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مستحق

رَسْمِيَّةً لِمَا فِي عَهْدِهِ رَسْمِيَّةً
 عَلَى رَسْمِيَّةٍ عَلَيْهِ لَعْنَةُ
 كَيْفَ لَمْ يَكُنْ لَمْ يَكُنْ رَسْمِيَّةً
 لَمْ يَكُنْ لَعْنَةُ لَعْنَةُ رَسْمِيَّ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لَعْنَةُ

[XVII]

لشركاء في سبلهم لنفهم
عنه رسمهم على الجبال لنفهم
لضمانهم لنفهم على التسميات فيهم
لنفعهم في لنف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هم لنفهم لنفهم لنفهم

[XVIII]

Handwritten signature or scribble.

卷之五

五、六、七、八、九

美多美多

美七娘

Handwritten signature

毛子木子

سنجلا سب رسه ريندر سلا سب
 هه سدر سندر سندر هه
 سنجلا سب ريندر سنجلا سب
 سندر سندر هه سندر سندر
 سندر سندر هه سندر سندر
 سندر سندر هه سندر سندر
 سندر سندر هه سندر سندر

[illegible]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XX]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碑題)

《dacing gurun i enduringge han i gung erdemui bei》

大清 國 의 聖 皇帝의 功 德의 碑

[1] dacing gurun i enduringge han i gung erdemui bey》

大清 國 의 聖 皇帝의 功 德의 碑

[2] dacing gurun i weshin erdemungei sucungga aniya tuweri jorhon biya de》

大清 國 의 崇 德 元 年 冬 十 二 月 에

[3] gosin onco hūwalyasun enduringge han acaha be efulchengge menci

仁 寬 溫 和 한 聖 皇帝는 和 平 을 과 伐 한 것은 우리에게 서

deribuhe seme ambula jili banjifi coohai boron enggelejifi dergi baru
비 뵈 웠 으 다 고 크 게 분 노 하 고 군 사 의 위 려 으 로 來 臨 하 여 東 으 로 向 하 여

cing seme jici yaya geleme aihaku 》 tere fonde meni sitahun
eien

불 붙 는 것 처 럼 와 도 모 두 두 러 워 대 적 하 지 못 했 다. 그 때 에 우 리 寡 君 은

nan han de tomofi geleme olhome niyengniyeri juhe de
fekufi

南 漢 에 棲 居 하 고 두 러 워 하 며 春 水 에 밟 고

gerendere be aliyala gese susai ci inenggi dergi julergi
geren

날 밝 기 를 기 다 리 는 것 같 은 五 十 제 날 東 南 여 러

jugūn i cooha siran siran i gidabuha 》 wargi amargi

路 의 군 사 는 계 속 해 서 격 파 되 었 다. 西 北 方 의

jiyangjiyun se alin holo de jialafi bederecere golome jialafi
장군 들도 山 溪 에 피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며 앞으로
emgeri

한번도

[4] oksome mutebeku > hecen i dorgi jeku geli wajiha >

걸어나오지 못했다 城 의 內의 곡식 또한 다 바닥이 났다.

tere fonde amba cooba hecen be geijarangge šahūrun edun

그 때에 大 軍이 城 을 침공하는 것은 차거운 바람이

bolori erin i moo abdaha be sihabure tuwai gūrgin de

gashai

秋 節 의 木 葉 을 지게하고 燄 로 가

새의

funggala be dejire gese bihe > enduringge han waraku be

깃털 을 태우는 것 같 았다. 聖 皇帝는 죽이지 않는

것을

dele erdemu selgiyere be oyonggo obufi hese wasimbufi

上 德 傳諭하는 것 을 요긴한 것으로 삼고 皇旨를 下敎하고

ulihibume > jihede simbe yooni obure > jiteraku

때우쳐 가로되 항복해 온다면 그를 온전케 할 것이다. 항복해오지 않을

ohode suntebumbi sehe > tereci inggūldai mafuta geren

경우에는 전멸시킬 것이다 고 말했다. 그로부터 英俄爾岱 馬福塔 諸

jiyangjiyun se >

장군 들

[5] enduringge han i hese be alifi amasi julesi giyangjiyun

聖 皇帝 의 皇旨 를 받고 관방으로 전하여

yabure jakade > meni sitahūn ejen bihe coohai geren ambasa

다니는 고로 우리 寡 弱은 文 武의 諸 官들

be isabufu hendume bi>

을 모이게 하고서 말하되

bi amba gurun i baru acafi juwan aniya oho>

내 大 國 을 향하여 講和하여 10 년이 되었다.

mini farhūn liyeliyehun de abkai dailara be hūdulaḅufi
 나의 懣 慙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정벌 을 서두르게 하여서
 tumen halai irgen jobolon tušaha < ere weile mini emhun
 萬 姓의 백성이 제난에 봉착했다 이 죄 나의 한
 beye de bi >
 봄 에 있다.

[6] enduringge han nememe wame jenderakū uttu ulhibure
 聖 皇帝는 오히려 죽이지를 정할 못하고 이와같이 깨닫게하는
 bade > bi ai gelhun akū mini dergi mafari doro
 마당에 내가 어찌 두려움 없이 내 위로 祖宗의 사직
 be yooni obume > mini fejergi irgen be karmame herse
 을 온전케 하여 내 아래 백성 을 보호하기 위해 皇命
 be alime gaijarakū sehe manggi geren ambasa saišame
 를 받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하고 나니 諸 官들이 좋아하며
 dahafi uthai emu udu juwan moringga be gaifi > coohai
 복종하고 즉시 數十 騎 를 거느리고 軍士의
 juleri jifi weile be alire jakade
 앞에 나와서 罪 를 알리려고 할 때에

[7] enduringge han dorolome gosime kesi i bilume > acame
 jakade

聖 皇帝는 禮를 차리며 仁愛하며 天恩으로써 愛撫하며 만날 때
 에

mujilen niyaman be tucibume gisurehe > sangname buhe kesi
 dahara

心 腹 을 털어놓고서 말했다. 賜 賞하는 天恩이 따르
 는

ambasa de bireme isinahe > dorolome wajiha manggi > uthai
 meni

官들 에게 모두 영향을 주었다. 行禮 끝난 뒤 즉시 우리
 의

sitahūn wang be amasi du becen de bedereburi > ilhai anden
 寡 君 을 뒤로 都城 에 回歸케하고 일어서면서 삼시칸
 de Julesi genehe cooha be bargiyafi wasihūn bedereme irgen
 여 南쪽으로 가버린 軍士 를 거두고서 서쪽으로 물리가며 백성
 be bilure usin i weile be huwekiyebure jakade > goroki
 을 慰撫하고 農 의 일 을 장려하 기 때문에 먼곳
 hanciki samciha irgen gemu dasame jifi > tehengge
 가까운 곳으로 흩어진 백성이 모두 다시 와서 거주하는 것이
 amba kesi wakao
 大 恩이 아닌가

[8] ajige gurun > dergi gurun de weile bahafi goidaha > sohon
 honin

小 國이 上 國 에 罪 지은지 오래되었는지라 已
 未

aniya > du yuwanšuwai jiyang hūng li be takurafi ming gurun
 年에 都 元帥 姜 弘 立 을 파견하여 明 나라
 de cooha aisiame genehengge gidabufi jafabuha manggi >
 에 군사를 원조하려 간 것이 패하고 잡혀져 된 후에

[9] taidzu horonggo han > damu jiyang hūng li jergi udu niyalma
 太祖 武 皇帝는 다만 姜 弘 立 등 數 사람
 be bibufi gūwa be gemu amasi bederebuhe > kesi ereci amban
 을 남게하고 다른 사람 을 다 취귀케 하였다. 天恩 이보다 큰
 ningge aku > tuttu ocibe ajige gurun geli liyeliyefi ulhiraku
 것은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小 國은 또다시 昏迷하여 깨닫지 못
 ojoro jakade > fulahūn gūlmahūn aniya >
 하는 고로 丁 卯 年에

[10] enduringge han jiyangjiyūn be takurafi dergi babe
 dailanjiha

聖 皇帝는 將軍 을 파견하여 동쪽 地方을 토벌하
 라

manggi } meni gurun i ejen amban gemu mederi tun de
jailame

왔기에 我國의 군왕과 신하들 모두 海島에 피신하
여

dosifi elcin takūrafi acaki seme baiha } enduringge han gisun
들어가서 使臣을 파견하여 화친코자 請했다. 聖 皇帝는 말

be gaifi ahūn deo i gurun obufi } ba na be yooni obuha }
을 취하고 兄 弟之國을 삼고 강 도 를 온전케 보존하였다.

jiyang hūng li be nememe amasi bederebuhe } ereci amasi
義 弘 立 을 또한 遷歸시켰다 이대부터 이후로는

darolohongge ebereke akū } elcin takūrahangge lakcaha akū bihe }
行禮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 使臣을 파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kesi akū oilori hebe

은혜 없이 결술한 謬論이.

[11] dekdefi facuhūn i tangkan baninafi } ajsge gurun jecen i

떠올라서 分國 의 階級가 이루어져 小國이 疆界 의
ambasa de gocishūn akū gisun i bihe arafi unggibe }

臣下들 에게 결촌하지 못한 연사 로 글을 써서 보냈다.

tere biehe be elcin jihe ambasa bahafi gamaha } enduringge

그 글 을 使臣으로 오신 大臣들이 입수하여 가지고 갔다 聖

han hono oncoi gamame uthai cooha jihekū neneme genggiyen
hese

皇帝 오히려 관대하게 처분하여 즉시 軍士 오지않고 먼저 明
들

be wasimbume coohaloara erin be boljome dahūn i ulhibuhengge
san

를 내려서 行兵할 때 를 約定하여 거들 하여 깨우쳐준 것이
귀

be jafafi tacihiyara ci hono dabali kai } tuttu ocibe geli
를 잡고 教訓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urgunjeme

기꺼이

[12] dahahakūngge > ajige gurun i geren ambasai weile ele guweci

복종하지 않는 것은 小國의 群臣들의 罪 더욱더 사면할 수
ojorakū cho > enduringge han i amba cooha nan han be kafi
geli

없게 되었다. 聖 皇帝의 大軍士가 南漢을 포위하고
또

hese wasimbufi neneme emu garhan i cooha unggifi > giyang du
be

皇들을 내려서 먼저 1 支隊의 군사를 보내어서 江都
를

gaifi > wang ni juse sargan > ambasai hebe juse gemu
jafabuha

取하고 王의 諸子 妃 大臣들의 婦人 자식들 모두 나포케
한

manggi >

뒤

[13] enduringge han geren jiyangjiyān be ume necire nungnere >
seme

聖 皇帝는 諸 將軍에게 犯하지 말라 侵襲하지 말라
고

fafulafi > meri hafasa taigiyasa be tuwakiyabuha > tuttu amba
kesi

경고하고 우리의 官員들 大監들 을 보호하게 하였다. 그와 같은 大
恩

be isibure jakade > ajige gurun i ejen amban jafabuha juse
sargan

을 미치게하는 고로 小國의 君 臣과 나포된 아이들
婦人

gemu fe an i ofi > gecen nimanggi kubulifi niyengniyeri oho>
모두 舊 常體대로 되니 霜 雪이 變하여 陽春이 되었고
olhon hiya forgošofi erin i aga oho gese> ajige gurun i
gukuhe

結 末이 전환해서 時 의 雨가 된것 같이 小 國 의 멸망했
던

ba dasame bibuhe > mafari doro lakcaha be dahūme
것을 다시 존속시켰다 祖宗의 사직이 단절된 것이 다시
[14] siraha > dergi bai šurdeme ududu minggan bai niyalma
gemu

承繼하였다 동쪽 지방을 두루돌아 수 千 里의 사람은 모
두

banjibuha hūwašabuha kesi de horibuha > ere yargiyan i julgei
kooli

살게하고 잘되게 한 天恩 에 둘러싸였다 이것은 진실 로 옛
法典

de sabuhakūngge kai > han sui mukel wesihun san tiyan du bai
에서 알지못했던 것 이다 漢江 수 물의 위쪽 三 田 度 땅의
julergi uthai enduringge han i isinjiha ba> tan soorin bi> meni
남쪽이 곧 聖 皇帝 가 來到한 곳이다 壇 場이 있다 우리의
sitashūn ejen jurgan i niyalma de bendufi tan soorin be nonggime
寡 弱은 議政 의 官員 에게 말하고 壇 所 를 증축해서
den amba badarabufi geli webe be gajifi

높고 크게 넓히게 하고 또한 돌 을 가져와서
[15] bei ilibufi endeheme bibume> enduringge han i gung erdemn
be

碑를 세워서 永遠하게 보존하며 聖 皇帝 의 功 德
이

abka na i sasa okini seme temgetulehe> ere meni ajige gurun i teile
天地 와 함께 하고싶도다하고 旋表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小國 이 있는날까지

jalan halame enteherne akdafi banjire anggala> amba gurun i gosin

代 世로 영원히 신뢰하고 살아갈 뿐 아니라 大 國 의 仁

algin>horon i yabun de>goroki ci aname gemu daharangge inu ereci
 聲과 威 의 行에 먼곳에서 부터 미루어서 모두 복종하는 것은 또한 이로부터
 deribumbi kai> udu abka na i amban be araha> šun biya i genggiyen
 시작된 것이다. 비록 天 地 의 大 를 글로쓰고 日 月 의 明
 be niruha seme terei tuman de emken inu duibuleci
 을 그린다고 해도 그의 萬 에 하나 도 비교할 수가

[16] ojarahū heni muwašame folome temgetulerengge abka gecen silenggi be

없을 것이로다 조금 대략하여 세겨서 宸表하는 것은 하늘이 서리와 이슬
 을

wasimbuŋi > fundehun obumbi banjibumbi> enduringge han ede acabume

내려서 冷清하게 하고 양육할 것이다. 聖 皇후는 이에 攄合
 하여

horon erdemu be sasa selgiyembi >

威 德 을 모두 傳습한다.

[17] enduringge han dergi babe dailaha juwan tumen cooha kunggur seme

聖 皇후와 동쪽 지역을 정벌한 10 만 군사 우부루
 하니

geren tasha pi gurgu i gese wargi amargi gurun gemu agūra be

諸 虎 비 獸 와 같았다 西 北 國이 모두 兵器
 를

jafafi juleri ooro be temšerengge horon ambula gelecuke kai>

참고 앞장 뵈는 것 을 다루는 것은 위력이 크고 可懼的이기 때문이
 었다.

enduringge han umesi gosin ofi gosime wasimbuha hese gisun
juwan

聖 皇帝 매우 仁慈 하여 어엿비여겨 내리신 칙 언
10

jurgan i wasimbuha bihe horonggo bime hūwalyasun) dade liyeliyefi
行 의 下 書 威嚴 있고 부드러웠다 원래 踰迷함을
sarasu ofi beye jobolon be baiha)
알고 있기에 스스로 綱 를 얻었다.

[18] enduringge han i genggiyen hese isinjire jakade> amhafi teni
getebe

聖 皇帝의 현명한 皇후가 到來하였을 때에 잠자코 있다가 방금 깨
어난것

gese) meni wang gaifi dahahangge boron de gelere teile waka)
같다. 우리 王이 거느리고 향복한 것은 威嚴 에 두려워한 것 뿐 아니라
erdemu de dahahangge kai) enduringge han gosifi kesi
isibume

總 에 향복한 것 이다 聖 皇帝는 어엿비여겨 天恩이 비치게
하

dorolome sain cira injere arbun i agūra be bargiyafi sain
morin

禮를 지니어 좋은 얼굴 웃는 모습으로 무기 를 거두고 駿 馬
weihuken dahū sangnara jakade becen i haha behe uculeme
輕 皮端* 貫내릴 때에 城內 의 男 女 노래하며
maktarangge) meni wang ni bahafi bederehengge> enduringge han i
관상하는 것 우리 王 의 언어 歸還한 것은 聖 皇帝 의
buhengge kai)
준 것 이다.

[19] enduringge han meni irgen be hanjikini seme cooha be
bederabube)

聖 皇帝는 우리 帑藏 을 살리자 하고 軍士 를 철수시켰
다

meni facuhūn oho samsiha be gosime meni usin i weile be
우리 滿載하게 된 유산된 것 을 불쌍히 생각하여 우리 農의 事를
huwekiyebuhe 》 efuhe gurun da an i ohongge ere ice tan i
turgun

장려하였다 허물어진 나라를 옛 그대로 되는것 이 새 變의 緣
由

kai 》 olhoho giranggi de dasame yali banjibuha 》 tuweri orho i
로다 마른 地 에 다시 살이 소생하고 겨울 풀 의
fulehe geli niyengniyeri erin be ucaraha gese oho 》 amba giyang
ni

부리가 다시 봄 계절 을 만난 것 처러 되었다 큰 江
의

da jakade den amba wehe ilibufi san han i ba tumen aniya
버리 곁에 높고 큰 돌 세워서 三 韓의 땅 萬 歲
oiorongge enduringge han i sain de kai 》

되게 한 것은 聖 皇帝의 德에서 로다

[20] wesihun erdemungge tuici aniya jorhon biyai ice jakūn de
ilibuha

崇 德 四 年 十 二 月의 초 8일 에 세웠
다.

5. 滿洲文에 관한 意譯

滿洲文과 蒙古文은 대체적으로 對譯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것은 우선 對譯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특히 만주문이나 몽고문은 국내 학자들에게는 생소한 학문이었기에 이러한 對譯이 소개적인 차원에서라도 우선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汗碑’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意譯이 필요하기에 미비한 점은 차후에 정정 내지 수정하기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글을 매끄럽게 하기에 노력하였다.

<滿文 意譯>

[1] 大清國 聖皇帝의 功德碑

[2] 大清國 崇德 元年(仁祖 14年 丙子, 1636年) 冬 十二月에

[3] 仁慈, 寬大, 溫和한 聖皇帝는 화평을 建 것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크게 화를 내어 위세 있는 軍士를 이끌고 오셔서 동쪽을 바라보며 불 붙듯이 와도 아무도 두려워서 대항하지 못하였다. 그때 우리의 寡君은 南漢에 자리를 잡고 두려워하고 겁내 春水를 밟고 날 새기를 기다리는 것 처럼 지내기 50일째에 東南 여러 道의 우리 軍士들은 계속해서 괴하였다. 西北方의 장군들은 산 골짜기에 피신하여 멀리 후퇴한 뒤에 한 발도,

[4] 앞으로 진격하지 못했다. 성안에는 양식도 바닥이 났다. 그 때 淸의 大軍이 城을 빼앗기란 찬바람에 가을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일처럼 화염에 새털을 태우는 일처럼 쉬운 일이었다. 聖皇帝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덕으로 생각하고 傳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여 皇들을 내리시어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항복해 오는 경우에는 너를 옛처럼 온전하리라. 만약에 그러하지 않으면 파멸시키겠다'고 말하였다. 이후로부터 ingguldai mafuta 등 여러 장군들이

[5] 聖皇帝의 皇들을 받들고서 旨를 傳하러 使行往來하매 우리 寡君은 文武 여러 신하들을 소집하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淸과 舊讐을 맺은 지 10년이 되었다. 寡人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해서 하늘의 征伐을 서둘게 하여 萬百姓이 우환에 빠져있다. 이 罪는 나의 한 몸에서 비롯되었다.

[6] 그런데도 오히려 聖皇帝는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이처럼 깨우쳐 주는 터에 내 이찌 감히 내 至尊 祖上들의 사직을 안전하게 하며 萬百姓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皇들을 받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稱揚하여 이에 따르게 되니 곧 왕은 數十騎를 이끌고서 淸軍 앞에 와서 罪를 받으려 할 때에

[7] 聖皇帝 聖旨를 갖고 仁慈하게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撫養하며 만나자마자 賄金을 털어놓고 말씀했다. 賁을 내리주신 은혜가 수행했던 대신들에게 돌아갔다. 禮行이 끝난 후에 곧 우리 寡君을 都城으로 되돌아 가게 하고 지체치 않고 즉시 南쪽으로 간 軍士를 철수하여 西쪽으로 물러가며 百姓을 撫養하고 농사를 권장하는 이유로 遠近에 흩어졌던 百姓이 모두 다시 와서 산 것은 크나큰 은혜

가 아닌가?

[8] 小國이 上國에 罪 지은지 오래되었다. 己未年(光海君 11年, 清太祖 天命 4年 1619年) 都元帥 姜弘立을 파견하여 明나라에 원병한 것이 격파되어 拿捕된 후에

[9] 清太祖 武皇帝는 다만 姜弘立 등 몇 사람만을 留置시키고 모두 보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그런데도 小國은 다시 賄送하여서 깨닫지 못하고서 丁卯年에(仁祖 五年 清太宗 天聰 元年 1627年)

[10] 聖皇帝가 장군을 파견하여서 東쪽 땅을 征伐하러 왔을 때 우리 君主 大臣은 모두 바다 섬에 피신하여 들어가서 使臣을 보내어 화평을 요구하였다. 聖皇帝는 請을 받아들여서 兄弟의 나라가 되게 하고 疆土를 예대로 온전케 하시었다. 도리어는 姜弘立을 되돌려 보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로는 行禮가 소홀함이 없었다. 使臣을 파견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다. 不幸히 輕忽한 議論이

[11] 일어나 分규의 階梯가 이루어져서 小國은 邊방의 大官들에게 淸國에게 붙은한 말로 글을 써보냈다. 그 글은 淸國에서 朝鮮으로 使臣왔던 大臣들이 일수하여 가지고 갔다. 聖皇帝는 오히려 관대하게도 그 글을 大臣들이 가지고 가자마자 軍士를 보내오지 않고 우선 明旨를 내리시어 出兵할 때를 미리 約束하면서 거둬가들 깨우쳐 주신 것은 귀를 잡고 가르쳐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더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또 기꺼이

[12] 복종하지 않는 것, 그 罪 小國의 大臣들이 더욱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聖皇帝의 大軍士는 南漢山城을 포위하고 또한 皇旨를 내려서 먼저 一支隊의 군사를 보내서 江都를 탈취하고 王子들 王妃, 大臣들의 妻子들을 모두 나포하게 한 뒤에

[13] 聖皇帝는 여러 장군에게 '犯하지 마라 침해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우리의 官員들과 大臣들을 시켜 보호하게 했다. 그와 같은 크나큰 은혜를 주셨기에 小國의 君主 大臣 나포되었던 아이들 婦女들이 몇대로 되기에 霜露이 변하여 봄이 된 듯하고 건조했던 가뭄이 바뀌어서 때를 기다리는 비가 된 것 같았다. 小國이 멸망했을 것을 다시 고쳐 존속하게 하였다. 憲祖의 사직이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14] 계승하였다. 東쪽 지역 수 천리 사람들이 모두 살게 하고 잘 되게 하는 은혜를 두루 받았다. 이러한 일은 진실로 옛날의 法에서는 찾지 못했던 것이다. 漢水의 上流 『三田渡』의 南쪽이 곧 聖皇帝가 來臨했던 장소이다. 그곳에 壇位가

있다. 우리의 寡君은 役事部의 사람에게 일러서 壇位를 더욱 높이고 크게 확장 시키고 또한 돌을 가져와서는

[15] 碑를 세워서 영구히 보존케 하며 聖皇帝의 功德을 天地와 함께 하고 싶노라고 선포하였다. 이것은(碑를 세우는 것) 우리 小國만이 代代孫孫 영원히 신위하고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大國의 어진 名聲과 武威와 行止를 먼곳에서부터 떠받들어서 모두가 복종하는 것도 또한 이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비록 天地의 큰을 글로 쓰고 해와 달의 밝음을 그렸다고 하여도 그 (功德의) 萬에 一에도 比較되지

[16] 못할 것이니라. 조금 조잡하게 지어 새겨 발표하는 것이다. 하늘은 서리와 이슬을 내리시어 萬物을 荒涼하게 하기도 하고 살아나게 하기도 한다. 聖皇帝 이를 본받아 武와 德을 함께 고루 傳承한다.

[17] 聖皇帝 東쪽 지역을 征伐한 十萬 軍士 우글우글하게 그 數가 많았으며 虎와 같처럼 용맹스러웠다. 西北國들이 모두 병기를 손에 잡고 앞장 서려고 다투는 데 그 위엄이 매우 두려웠다. 聖皇帝는 매우 仁慈해서 어엿비여겨 내리신 皇恩 十行的 下書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데, 본래부터 昏迷하여 아직 못했기에 죄를 당했다.

[18] 聖皇帝의 明令이 到着하니 잠을 자다가 박 깨어난 듯 했다. 우리의 왕이 복종을 선포한 것은 그 위세가 두려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恩德에 복종한 것이다. 聖皇帝가 어엿비여겨 은혜를 미치게 하여 예를 갖고 좋은 얼굴 웃는 모습으로 兵器를 거두고서 훌륭한 馬와 皮端*을 賞으로 내리실 때 城內의 男女들이 노래하며 찬양한 것이나 우리의 王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聖皇帝가 내려주신 恩德인 것이다.

[19] 聖皇帝는 우리의 백성을 살리려고 군사를 철수시켰다. 우리가 문란하게 되고 流散된 것을 가련하게 생각하여서 농사를 권장하였다. 敗北하여 부서진 이 나라가 옛날대로 복귀된다는 것 이것이 이 새 壇을 세우게 되는 연고인 것이다. 마른 백에 다시 살이 소생하게 되고 겨울 풀의 뿌리가 다시 봄철을 만난 것 같이 되었다. 큰 江의 머리 곁에 놓고 크나큰 비석을 세우고서 三韓의 땅이 만만세 지속되는 것은 이것은 聖皇帝의 어진 덕에 의한 것이니라.

[20] 崇德 四年 12月 초8일에 세웠다.

參考文獻

- 1) 金啓祿編著, 女真文辭典, 文物出版社, 1984, 北京, 中國
- 2) 女眞館來文通解, 亞細亞研究12, 1933.
- 3) 李永海 외 2人 編著, 滿語語法, 1986, 北京, 中國
- 4) 劉厚生 외 3人 編著, 簡明滿漢辭典, 1988, 河南大學出版, 중국
- 5) Jerry Norman, Concise manchi-English Lexicon(1988),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南漢山城의 文化財 現況과 保存策에 관한 研究

* 全 寶 三

<차	례>
I. 序 論 II. 南漢山城의 文化財 現況 1. 指定 文化財 現況 2. 非指定 文化財 現況	3. 文化 遺蹟 標石 現況 4. 기 타 III. 文化財 保存策에 대하여 IV. 結 論

I. 서 론

남한산성은 삼국 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절과 독으로 기능 하여 온 곳이다.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지점이었다. 백제의 사람들은 남한산을 그들의 성산과 진산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은 성스러운 성산 이요, 진산의 개념이었다. 남한산성 내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 숭열전이 경기도 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 만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남한산성 북문에서 이어지는 토성은 하남시 춘궁동, 교산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성산성과 백제 시대를 설명하는 많은 문화유산의 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신라에 의하여 오늘의 남한산성의 윤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신라는 여기를 일장 산성으로 부르며 국방의 요새지를 만들기 위하여 토성을 쌓았다.

* 本研究所副所長, 新丘專門大學教授

조선왕조 시대의 남한산성은 선조 임금 이래로 순조 임금에 이르기까지 남한산성은 국방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소였다. 그 중에서 특히 조선왕조 16대 임금인 인조는 남한산성의 축성과 봉건, 항전이라는 역사의 회오리를 여기 남한산성에서 맞고 보낸 분이다. 인조 원년부터 오늘의 남한산성 축성 공사가 시작되어 1626년에 완공하고,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한 인화관 연명관 등이 차례로 건축이 되어 400년의 역사적 시간을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1894년 산성 승변제도가 폐지되고, 산성의 관리가 소홀하여지더니 1905년 조선 군대의 해산 이후는 일본군에 의하여 화약과 무기가 많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갯터미로 변하고 말았다. 그 이후 주인을 잃은 민족의 문화유산들은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다가 하나, 둘 역사의 여운 속으로 사라져 가는 비운의 역사 현장으로 변하여 갔다.

오늘의 남한산성을 돌아보면 몇몇의 문화재들과 많은 문화유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본 논고는 먼저 남한산성의 문화재 현황을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지정 문화재는 물론이고, 비지정된 많은 문화재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의 문화 자산으로 다시 자리 매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상황은 광주군과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서 문화 유적 표적이라도 세우는 설의를 갖기 시작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남한산성을 사당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정기 등반과 연구 토론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한산성의 역사적, 현대적 의미를 제고하기 위한 제1회 남한산성 국제 학술회의를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개최하면서 새로운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문화재를 가꾸고 살피는 시민 정신이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짙을 띄어 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보존책에 관한 연구를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남한산성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도시민으로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명으로 본 논고를 작성하고자 한다.

II. 문화재 현황과 실태

1. 지정 문화재 현황

남한산성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국가 사적 문화재,

경기도 유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기념물등 지정문화재와 국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 비지정문화재들이 무수히 많다. 이러한 문화재 자료들의 정확한 현황과 내력을 상세히 밝혀 정리하고자 한다. 남한산성이 국가 사적 제 57호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63년 1월 21일이었다. 그 이후 이렇다 할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한산성 내의 많은 문화재들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 공고 158호로 도립공원을 지정 받은 이후부터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로는 1972년 5월 4일에 수어장대(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815-1번지)를 제1호로 지정하였고, 숭열전(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717번지)을 경기도 지방 유형문화재 제2호로, 청람당(광주군 중부면 815-2번지)을 제3호로, 현철사(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310-1번지)를 제4호로, 침곡정(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591번지)을 제5호로, 연무관(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400번지)을 제6호로 각각 지정하였다. 그 이후 경기도 문화재 자료를 1983년 9월 19일에 지정하였는데 지수당(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56번지)을 제14호로, 장정사(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22-1번지)를 제15호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망월사지(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4번지)를 경기도 지정 기념물 제111호로, 개원사지(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98-5번지)를 제119호로 1989년 12월 2일과 29일에 차례로 지정하였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에는 국가 사적 문화재 1곳과 경기도 유형 문화재 6곳, 경기도 문화재 자료 2곳, 경기도 기념물 2곳이 있다. 이들 문화재들의 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한산성(국가 사적 제 57호)

남한산성이 국가 사적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63년 1월 21일이었다. 이때 당시에는 남한산성의 성곽을 중심으로 산성리 산 일원을 국가 사적 57호로 지정하였다. 국가 사적 문화재인 남한산성은 본성과 외성(봉암성, 한봉성) 그리고 신남성을 중심으로 총면적 11,755km에 달하는 지역이다. 본성 9,05km, 용성 2,705km, 성곽의 높이 3-7m에 달한다. 시설로는 장대 4(서장대인 수어장대만 현존) 점문 4, 용성 5, 봉화대 2, 암문 16곳을 중심으로 문화재가 지정되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는 주장성 또는 일장성이라고 하였다. 조선조에 와서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하였다. 인조 2년에 시작하여 인조 4년에 공사를 준공하였다. 2년 5개월의 대역사였다. 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성곽의 주변부가 높고 험한데 비해 성의 중심부는 낮고 평평한 분지를 이루어 수비가 용이하고 성내의 주거가 평안

하여 산성으로서는 천해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성곽의 축조 방식은 자연 석과 채석한 돌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돌의 수평 줄을 맞추어 쌓았으며 성벽의 안전을 위하여 하층부는 큰돌을 쌓고 상층부로 갈수록 작은 돌을 쌓되 조금씩 안으로 틀려 쌓았다. 성곽의 상부에는 대략 가로 70cm, 세로 66cm, 높이 70cm의 여장을 벽돌로 쌓고 각여장에는 3개씩 경안을 뚫어 놓았다. 성곽의 증개축은 인조 이후 숙종, 영조, 정조 그리고 조선 왕조의 말기 순조 임금에 이르기까지 정비 가 계속하여 이루어 졌다.

2) 수어장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남한산성의 서쪽 주봉인 청량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남한산성의 지휘 및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지어진 누각이다. 성내에 현존하는 건물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2층 누각과 건물의 왼쪽에 2동의 사당인 청량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선조 28년 남한산성 축성때 같이 축성된 건물로서 원래는 동, 남, 북 3개의 장대와 함께 축성된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이다. 축조 당시에는 단층 누각으로 서장대라 불리던 것이 영조 27년(1751) 유수 이기진이 왕명으로 이중 누각을 증축하였다.

남한산성의 수어는 처음에 총융청이 딸았으나 성이 완공되자 수어청을 따로 열어 전담케 하였다. 수어청에는 전, 우, 중, 좌, 후의 5명이 소속되는데 전영장은 남장대에, 중영장은 북장대에, 전영장과 좌영장은 동장대에, 우영장은 서장대에 배치되어 소속된 휘하의 장졸들을 지휘하던 곳이다.

수어장대는 하층 정면5칸, 상층 정면3칸, 측면3칸의 팔각지붕 양식의 이중 누각이다. 지붕은 상하층 모두 겹치마를 들었으며 사래 끝에는 토수를 달고 추녀 마루에는 용두를 올렸으며 용마루에는 조두를 올렸다. 건물의 기둥은 높이 60cm의 팔각 장주 초석 위에 올려져 있고 포는 주심포 양식의 이출목 악공 식이다. 1층의 사방 1칸은 복도로 비워 두고 정면3칸 측면2칸 만을 장마루를 깔고 사방에 높이 45cm의 난간을 들렸다. 2층은 1층 우측 뒷편에 있는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어장대는 2층 누각이다. 2층의 내부 편액을 무망루(無忘樓)라 하는데 1836년 유수 박지룡이 증축한 것이다. 2층은 정면3칸 측면2칸의 사방에 판 문을 달았으며 판 문에는 태극 무늬를 그렸다. 천장 양식은 연등 천장을 하였다.

3) 숭열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

남한산성의 숭열전(崇烈殿;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2호)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왕과 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영혼을 함께 모시고 음력 9월 5일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다. 남한산성의 숭열전은 이곳이 백제 문화의 승결이 승쇠는 시원지임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조 무인년(서기1638년)에 지었으며 정조 즉위년(1795)에 숭열이라고 사액되었다. 완공군 이 서는 성을 쌓는데 총 책임자로서 공이 커 여기에 모시게 하였으며 매년 춘추로 2회 정제하고 향축은 예조에서 보내 왔다고 한다.

성곽의 북서쪽 산 능선에 남향으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로 성내 로터리에서 산책로를 따라 수어장대로 올라가는 도중에 영월정을 만나게 된다. 거기에서 좌로 100m 지점에 위치한다. 사당은 본당과 2종의 부속 건물과 1종의 건물 터와 솥을 삼문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당은 좌우측에 아래 단이 둥근 형태를 한 방풍 벽을 갖춘 맛배지붕 형식을 한 정면3칸, 측면2칸의 건물이다. 처마는 겹처마를 들었으며 정면3칸에는 여닫이 4쪽 격자 문을 달았다. 주춧돌은 둥글게 잘 다듬어졌으며 그 위로 민흘림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포의 형태는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다. 내부의 천장은 연등 천장으로 하였다.

2동의 부속 건물은 맛배 지붕으로 방풍 편이 없는 대신 측면에도 창을 내지 않고 외벽을 도리까지 올려 바람과 비를 막게 하였다. 3칸으로 3개의 방을 꾸몄으며 중앙에는 여닫이 2쪽 격자 문을, 좌우 칸에는 왼쪽 여닫이 격자 문을 달았고 마루는 없다. 천장은 연등(삿갓)천장으로 하였으며 청색의 단조한 단청으로 소박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갖는다. 본당과 본당의 좌우측에 마주보게 한 2동의 부속 건물 외에도 한 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주춧돌만이 남아 있다.

솥을 삼문은 사당 출입시에 사용하도록 된 대문으로 정면3칸, 측면하 1칸인데 중앙의 대문은 좌우측 대문보다 높게 올렸고 중앙에는 태극 무늬를 장식했으며 홀처마를 두른 맛배지붕 양식이다.

4) 청량당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

이 건물은 이 성을 쌓은 팔도 도정섭인 백암 각성대사와 이 회 그리고 그 부인의 영혼을 모신 사당이다. 이 회는 동남쪽 축성의 책임자로 충직한 인물인데 그를 시기한 무리의 모함으로 교수형을 당하였다. 그 후 이 회의 무고함이 밝혀

져 수어장대 서쪽에 청량당을 짓고 그와 그의 부인의 영혼을 위안 하고자 하였다 한다.

청량당은 서장대 서편 1단을 내려서 지어져 있다. 본 건물은 2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당 건물은 정면3칸, 측면1칸의 홑처마를 두른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건물의 가구는 굴도리식이며 주심포 양식의 기둥을 하고 있다. 본당의 중앙에는 4쪽 여단이 격자 문을 달고 좌우측 칸에는 높이 175cm에 정면과 측면에 창문을 각각 내었다.

청량당 대문은 정면3칸, 측면1칸의 홑처마를 두른 맞배지붕 건물인데 좌우 측의 칸은 각각 격자 문을 달아 방으로 꾸몄고 출입문 중앙은 2쪽 여단이 대문을 달고 문 위에는 홍살을 장식하였다.

5) 현철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

이 건물은 병자호란 후 심양에 끌려가 충절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비운을 맞은 삼학사(오달재, 윤집, 홍익한)의 영혼을 모신 사당이다. 삼학사는 남한산성이 청태종의 12만 대군에 완전 포위 당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서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강경히 주장한 인물이다. 이러한 정신은 의리와 명분을 위하여 당당히 목숨을 바치는 절의와 충절의 조선 선비 정신이다.

소현세자, 봉림대군과 함께 청에 인질로 끌려가 끝내 충절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인조 15년(1638)에 심양의 서문에서 처형되었다.

현철사는 숙종 무진년(1688)에 유수 이세벽에 명하여 세웠으며 계유(1693)년 불에 사액하였다. 건물은 현재 성내의 사철연수원인 민족도장 동쪽 편에 위치한 능선 위에 서향으로 지어져 있다. 사당은 본당과 좌우에 있는 부속 건물을 합하여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동성이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본당과 부속 건물이 단을 이루고 있고 단 위에는 담을 둘러 그 중앙에 솟을 대문을 내었다.

지붕 양식은 홑처마를 두른 맞배지붕이며 2출목 이익공의 주심포 형식이다. 본당 좌우의 방풍막은 아래를 직선으로 자르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3칸, 측면1칸의 크기이며 정면 각 칸에는 4쪽의 여단이 격자 문을 달았다.

솟을 대문이 2개 있는데 밖의 것은 사당 출입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본당과 부속 건물을 구분하는 담의 중앙에 위치하여 본당의 출입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문은 여단이 2쪽문으로 2개의 대문 모두 중앙에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다.

부속 건물은 정면3칸, 측면1칸의 규모인데 역시 맞배지붕 홑처마 양식의 건물이다. 2층의 건물이 모두 중앙의 1칸에는 우물 마루가 배치되고 좌우에는 2쪽 여닫이 격자 문을 갖춘 방이 꾸며져 있고, 자연석을 주춧돌로 한 단아하고 소박한 인상을 주는 건물이다.

6) 침재정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호)

군기 제작소로 알려진 침재정이다. 이 건물은 현재 성내 로터리에서 서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100m 지점의 구릉지에 있는 건물인데 백제 온조왕의 왕궁지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침재정은 영조 27년(1751) 광주 유수 이기진이 중수하고 침재정이라 칭하였다.

건물은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 양식으로 정면7칸 측면4칸 규모이다. 네모지게 대출 다듬은 자연석 주춧돌 위에 4각의 모기둥이 특징이다. 그 위에 주심포양식의 기둥을 올렸으며 또는 2층목 익공식이다. 건물의 남쪽 2칸을 제외한 나머지 방에는 짚마루를 들었으며 각 칸에는 2쪽 여닫이 격자 문을 달았다. 천장 양식은 우물 천장을 하였고 동쪽 짚마루 아래에 2개의 야궁이를 내어 온돌방을 만들었다.

7) 연무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

연무관은 병졸의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처음에는 연무당이라 불리던 것을 숙종이 당시의 수어사이던 이재호로 하여금 개축케 한 후 연병관이라 편액을 내렸고 22대 정조때 다시 수어영이라 개칭하였다. 현재 건물의 중앙에 연무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 군사들의 훈련과 무술 시합을 열며 뛰어난 무인의 인재를 뽑아 중앙으로 보냈다고 전한다.

현재 성내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산성리 파출소 맞은편 구릉에 높직이 지어져 있다. 구전에 의하면 연무관 정면 500m 지점에 연무관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던 활터가 있었다고 한다.

건물의 지붕 양식은 겹처마를 두른 팔작지붕이며 용마루와 내림 마루에는 용두를 올렸고 사래 끝에는 토수를 달았다. 천장은 연등 천장을 하였으며 8각의 장주 초석 위에 올려진 기둥은 주심포 양식에 초익공의 포를 장식하였다. 건물 후면의 1칸은 마루를 깔지 않고 복도를 만들었으며 건물 뒷벽 좌측에는 뒤뜰로 나아갈 수 있는 2쪽 여닫이 관 문을 달고 문에는 태극 무늬를 그렸다. 건물의 좌우

측과 후면은 난간을 두르고 난간 위에 각 칸마다 2쪽 여닫이 관 문을 달았다. 정면은 난간을 시설하지 않고 2단의 석재 계단을 3곳에 설치하여 출입하도록 하였다. 당의 바닥은 우물마루를 고르게 깔았다.

8) 지수당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4호)

현종13년(1672) 부은 이세화가 건립한 정자로 당시 고관들이 한가롭게 즐기던 낙시터였다. 건립 당시에는 정자를 중심으로 앞뒤에 3개의 연못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2개의 연못만이 남아 있다.

정자의 동쪽에는 부은 이세화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고 제3 연못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재 논이 되어 있다. 정자에는 지수당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현재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동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정자의 남쪽으로는 서에서 동으로 성을 관류하는 제곡물이 흐르고 정자의 주변은 향나무와 전나무 개나리 등을 심어 아름답게 꾸몄으며, 정자 옆의 연못은 ㄷ자형으로 파서 연못이 정자를 둘러싼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을축년 대 홍수 때 매몰된 정자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래 ㄱ자 형의 정자를 완전 복원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정자 모양으로 남았다.

지붕의 양식은 흙치마를 두른 팔작지붕이다. 정자의 크기는 정면과 측면이 각각 3칸으로 되어 있으나 측면의 1칸은 반칸 크기로 되어 건물의 평면은 장방형꼴을 이룬다. 정자의 마루는 우물 마루를 깔고 주위에 30cm높이의 난간을 돌렸으며 남북동 3곳의 난간 중앙을 뜨고 디딤돌을 놓아 출입토록 하였다. 천장은 연등(삿갓)반자와 우물반자를 겹하여 호화롭게 보이게 하였다. 기둥의 양식은 주심포에 사각기둥을 쓴 것이 특징이다.

9) 장경사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5호)

인조 갑자년(1624년)에 성을 쌓을 때 남한산성에 도총섭(벽암 각성대사)을 두어 관도에서 승군을 소집하여 축성케 하였다. 남한산성 내에는 원래 망월사와 옥정사 2개의 사찰만이 있었는데 관도에서 소집된 승군이 숙식하고 축성을 하기 위하여 인조 갑자년에 7개의 사찰을 새로 지으니 성내의 사찰은 장경사, 망월사, 옥정사, 국정사, 개원사, 한홍사, 천주사, 동림사, 남단사 등 모두 9개가 되었다. 성이 완공된 후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370여명의 승군으로 산성 승변계도를 유지하다가 고종(1894년)때에 폐지되었다.

그 후 산성내 9개의 사찰은 1905년 조선 군대 해산령 이후 일제에 의하여 무기고와 화약고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파괴되는 참화를 당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작게 참화를 당한 장경사 하나만이 당시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장경사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동북쪽 약 500m 지점의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경내는 널찍한 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승병들의 훈련장으로도 이용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사찰은 대웅전과 종무소, 산신각, 종각, 요사채 2동, 탑동으로 구성되어 사찰의 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10) 망월사지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

장경사 뒤에 있는데 9사중 가장 오래된 고찰이다. 이 사찰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성을 정할 때 한양의 장의사를 허물고 그 불상과 금자화엄경 한벌, 금정 하나를 이리로 옮겨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 사찰은 동문에서 장경사로 향하는 소로로 따라 200m쯤 올라가면 장경사와 갈라지는 길에서 좌측으로 접어들어 100m쯤에 위치한다. 옛 망월사는 일제에 의하여 모두 소실되었고 4종의 복원된 건물의 규모가 옛터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대웅전, 금당, 요사채 2동, 13층 적멸보궁 탑은 망월사의 자랑이다. 근년에 들어 성법 비구니의 크나큰 원력이 피워 낸 대역사로 남한산성 제1의 도량이 되었다. 망월사의 둘 속대는 옛 망월사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 이 사찰에는 직경 167cm의 대형 몇돌이 유물로 보존되어 있다.

11) 개원사지 (경기도 기념물 제119호)

성내의 남쪽에 위치하는 사찰로 관리사무소에서 개원사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약 600m 지점에 위치한다. 이 사찰은 불경을 많이 간직하였으며 큰 놋동이 4개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의 불당은 1971년에 옛날 개원사 터에 지은 것이나 1985년부터 이를 허물고 다시 개축하였으며 1986년 말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개원사에는 승군 본영을 두었다. 여기 남한산성 개원사를 본영으로 하여 백암각성 선사가 조선 8도 도총섭으로 전국의 승려들을 관장하여 남한산성의 수축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8도의 사찰이 건립되었고, 호국 의승군의 정신적 도량이 되었다.

2. 비지정 문화재 현황

1) 행궁터(宮址)

남한산성내의 행궁은 인조 갑자년(1624년) 산성을 수축할 때 함께 지어진 것이다. 행궁은 크게 상궐과 하궐로 구성되어 있다. 일급이 거처할 행궁은 상궐이 73칸(間) 반, 하궐이 154칸이었다. 숙종 14년(1688)에 재덕당(在德堂)을,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宗廟)를 봉안하기 위하여 좌전(左殿)을 세우고, 남문 안에는 사직을 모실 우실(右室)을 세웠다. 정조 22년(1798)에는 행궁(行宮) 바깥 삼문(三門)의 상부(上樓)인 남한루(南韓樓)를 세웠다. 객관(客館)인 인화관(人和館)은 인조 2년(1624)에 세운 것인데 순조 29년(1829)에 수리되었다. 이상은 궁실(宮室)에 따른 시설들이다.

관아 건물로는 좌승당(坐勝堂)·일장각(日長閣)·수어청(守御廳)·제승헌(制勝軒)을 비롯한 건물이 있었다.

군사 기관으로는 비장청(裨將廳)·교련관청(敎鍊官廳)·기패관청(旗牌官廳) 등을 위시한 20여개의 건물과 종각(鐘閣)·마랑(馬廊)·뇌옥(牢獄·감옥), 성황당(城隍堂)·여단(厲壇) 등이 들어섰다.

행궁터는 지금의 남한산성 호텔 자리와 그 뒤의 궁터를 모두 포함하는 약 9000평 정도의 규모다. 행궁의 잔재로는 산성호텔 야외 휴게실 입구에 서 있는 4각 석재 기둥 2개와 그 뒤에 남아 있는 1동 분의 주춧돌과 여기 저기에 남아 있는 기와편, 돌축대 등이 있고 상궐터로 보이는 곳에 주춧돌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행궁터는 현재 신축 건물로 인하여 훼손되고 사유 경작지가 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춧돌을 근거하여 행궁의 복원이 가능하나 많은 부분은 정밀 발굴을 실시하여야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정비 복원의 최우선 순위는 행궁 터의 발굴과 함께 70여동에 달했다고 하는 행궁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2) 수어청

남한산성은 수어청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수어청은 반철운동의 상징이었고, 수어사는 관서급 중신이 맡았다

남한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청(摠戎廳)에서 맡았다가 성이 완성되자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전·좌·중·우·후(前左中右後)의 5영(營)이 소

속되었는데, 전영장(前營將)은 남장대에, 중영장은 북장대에, 후영장과 좌영장은 동장대에, 우영장은 서장대에 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남문을 지화문(至和門), 동문을 좌익문(左翼門), 북문을 전승문(全勝門), 서문을 우익문(右翼門)이라 하였는데 수어청 소속의 5영이 나누어 맞았다.

3) 남장대터

성곽의 남쪽 제2 옹성에 있는 건물 터인데 남장대로 추정된다. 해동지도에 의하면 남한산성의 내외 성에는 모두 5개의 장대가 있는데 남장대로 추정되는 이 장대는 지형을 보아도 장대가 위치할 만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장대의 주춧돌은 21개가 남아 있는데 동글게 잘 다듬어졌으며 건물의 평면은 대체로 정방형을 이룬다. 건물 터 뒤쪽(성의 내부를 향하는 방향)에는 장대를 지을때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 석축이 남아 있다.

장대가 있는 이 지역은 성곽을 크게 돌출 시켜 장대 앞의 면적을 넓히는 한편 수성의 효과를 크게 하였다. 특히 돌출된 성곽의 끝으로는 옹성을 설치하여 그 끝에는 포혈을 설치하여 수비하도록 하였다.

4) 동장대터

현재 동쪽 내성의 가장 높은 곳, 즉 한봉외성으로 나가는 암문이 있는 곳에 좌측 언덕에 있던 건물 터인데 해동지도에 의거하여 동장대로 추정된다. 건물지에는 와편과 잡석이 흩어져 있으며 주변에 비교적 높이 쌓은 석축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곳은 숙종때 외성이 확장되면서 외동장대와 함께 성곽의 동쪽에서 가장 높아 성곽 북쪽과 동쪽을 한눈에 감시 할 수 있는 곳이었다.

5) 북장대터

성곽의 북쪽에 위치하며 연주봉과 성내를 연결하는 암문의 우측에 있었다. 남한산성의 수어청 중 중영장에 배치되어 전을 치고 휘하 장졸을 지휘하던 곳으로 4장대 중 그 규모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훼손이 심한 곳이다. 규모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주변의 잡석들 속에는 기단석과 파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6) 남단사터

성곽의 남쪽에 위치하며 개원사의 동쪽에 있다. 폐사가 된 절터에는 자연적으로 된 주춧돌만이 드문드문 남아 있고 잡석과 사기그릇 파편 등이 무더기로 쌓여 공터 전체에 산재한다. 공터의 규모로 보아 사찰의 규모가 상당히 컸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원사로 가는 도중 남단사로 향하는 소로가 있고 남단사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점에 성황당이 있었다. 현재의 절터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7) 한홍사터

성곽의 남쪽, 개원사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지금의 개원사로부터 동으로 남단사, 한홍사 순으로 건축되었다. 공터만이 남아 있는 이 땅은 매우 넓고 시원하다. 지금은 사찰의 모습이 간곳 없고 주춧돌만 남아 있다. 벽암 각성 선사께서 이 절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영원히 흥할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절 이름을 한홍이라 하였다고 한다.

8) 돌림사터

봉암쪽 외성에 있는 1개의 사찰로 별봉 아래에 있다. 성곽에 인접하여 돌 축대가 남아 있고 지금도 사용하는 우물과 그 옆의 뗏돌 한 짝이 옛 절터임을 말해 준다. 돌축대 위의 주춧돌은 모두 없어지고 밭으로 경작되나 주변의 돌과 기와 무더기 등이 상당히 남아 있다. 북향한 건물이며 북쪽을 향해 난 수문이 1개 있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이 판년에 자주 찾던 사찰로서 근대 실학의 상징적 절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9) 옥정사터

성내의 망월사와 함께 성곽을 짓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찰이나 지금은 그 터만이 남아 있다. 옥정사라는 이름은 절 뒤에 큰 우물이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지은 것이라 한다. 현재는 민족도장의 북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건물조차 없는 공터로 주변은 무성한 억새들로 덮여 있고 직경 150cm의 커다란 뗏돌 한쪽만이 놓여 있다. 뗏돌은 산성 내의 9개 사찰에 남아 있는 특징적인 유물이다.

10) 국청사터

인조 갑자년에 건축된 7개의 사찰중 하나로 현재 서문 안 50m 지점에 위치한다. 현재 국청사는 옛터에서 북으로 50m 이전하여 새로운 터를 닦아 대웅전과 중무소 요사채를 겸한 현대식 건물 1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청사의 옛터에는 현재 대웅전의 남쪽에 공터로 버려져 잡초만이 무성하다.

11) 천주사터

서장대 아래에 있으며 현재 휴게소로 개발된 지역이다. 풀숲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보면 옛 축대나 기와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주춧돌과 뿔돌 한쪽도 발견할 수 있다. 남문에서 산성을 끼고 도는 산책로를 따라 가다가 수어장대 못미처 좌측에 있는 넓찍한 공터로, 팔각정 휴게 시설과 수도 등이 잘 정비되어 있다. 이 지역을 천주사로 확정한 것은 해동지도에 의거한 것이다.

3. 남한산성의 문화 유적 표석

1) 행궁터(行宮址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935 번지)

유사시 이어(移御)할 수 있는 행궁(行宮)이 있던 곳으로 상궐(上闕)이 73칸 하궐(下闕)이 154칸이 있었다.

인조(仁祖) 2년 충용사 이서(李瑞)가 시공하고 목사(牧使) 유림(柳琳)이 감독하여 인조3년에 준공하였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인조가 47일간 이어 하였고 영조(英祖), 정조(正祖)때도 영릉(寧陵)에 전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머물렀다 갔다.

2) 제 1 남웅성(南雄城: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34 번지)

둘레가 408m 이며 웅성 끝에는 7개의 대포혈(大砲穴)이 뚫려 있다. 원성(元城)과 연결되는 시축지점(始築地點)이 약간 넓게 벌어졌다가 가운데는 잘록하고 끝부분은 다시 넓어져 뿔뿔하며 웅성 중간 부분에는 봉수대(烽燧臺)가 있었다. 본성에 대한 외적의 직충(直衝)을 막고 성문을 가리는 1차적 방어 시설물이다.

3) 제 2 남웅성(南雄城: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34 번지)

둘레가 327.9m 이며 웅성 끝에는 87개의 여담(女담)이 있었다. 이성은 다른 웅성과는 달리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웅성 끝에는 포루(砲臺)가 있는

때, 그곳으로 들어가는 홍예문이 있고 이 문은 암문(暗門)과 비슷하고 대포혈(大砲穴)은 동서남 3방향으로 3개씩 9개이다.

본성에 대한 외적의 직충(直衝)을 막고 성문을 가리는 1차적 방어 시설물이다.

4) 제 3 남옹성(南壘城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34 번지)

이 옹성은 시축(始蹴) 부분에서 축조가 끝나는 부분의 양쪽 벽이 거의 평행이다.

둘레는 116.4m 이고, 31개의 여담(女담)이 있었고, 대포혈(大砲穴)이 22개 있으나 현재는 5개만이 있다. 이 옹성의 포혈 외성은 방형(方形)이 아니라, 오므라든 형(形)으로 축조된 것이 특이하다.

본성에 대한 외적의 직충(直衝)을 막고 성문을 가리는 1차적 방어 시설물이다.

5) 장경사 신지 옹성(長慶寺信地壘城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신8-1번지)

둘레가 150.9m 이며 여담(女담)이 40개 옹성 끝머리는 대포혈(大砲穴) 2개소가 있다. 이 옹성은 암문을 통하여 안, 밖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5개 옹성중 가장 작고 좌측 벽면 무기고(武器庫)가 있었고 포혈의 안벽은 2단으로 쌓고 원정은 4개의 장대석(壯大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성에 대한 외적의 직충(直衝)을 막고 성문을 가리는 1차적 방어 시설물이다.

6) 연주봉 옹성(連珠峰壘城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6 번지)

원성(元成)과 연주봉을 연결하고 있는데 둘레는 274m에 73개의 여담(女담)이 있었다. 이 옹성은 암문을 통하여 성내를 출입할 수 있으며 봉수(烽臺)나 망루(望樓)의 소임을 한 듯한 원형(圓形)의 석축(石築)인 시설물(施設物)의 잔해가 45단정도 남아 있다.

7) 신남성 봉화대지(新南城烽火臺址: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99-9, 122 번지)

이곳은 검단산(黔丹山) 정상으로 봉화대가 있던 곳이다. 그 임무는 서울과 남한산성에 급보(急報)를 알리는 것이며 서쪽으로 높은 산이 없어 주변 관찰과 경계가 용이한 위치이다.

서쪽으로 약500m 지점에도 가로 25m, 세로 37.5m, 높이 4m의 장방형(長方形) 봉돈(烽墩)을 구축하여서 신남성내에 2개소의 봉화대가 있었다.

8) 봉암성(峰岩城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번지)

숙종(肅宗) 12년(1686)에 부윤(府尹) 윤지선(尹趾善)이 처음 쌓았는데 둘레가 1142.8m 이고, 여첩(女塹) 294타 이며, 암문(巖門)이 4, 군포가 15개소 있었다.

병자호란때 청병(淸兵)들이 벌봉에서 성(城)의 동태를 살폈기 때문에 본성(本城)의 보강 차원에서 축조한 것이다.

9) 한봉성(漢峰城 : 광주군 중부면 검목리 1 번지)

숙종(肅宗) 19년(1693) 수어사(守禦使) 오시복(吳始復)이 한봉에서 봉암성 동쪽 모퉁이까지 연하여 각성(角城)을 쌓아 완축하였다.

동편 대로(大路)을 차단할 수 있는 등 본성(本城)의 보강 차원에서 축조된 것이다.

10) 벌봉(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신2-1번지)

암문(巖門) 밖에서 이 바위를 보면 흡사 벌과 같다 하여 벌봉이라 한다. 병자호란때 청태종이 이 바위에 정기(正氣)가 서려 있어서 힘박하면서 즉시 캐트리므로 산성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실제로 청군이 이 봉우리에서 성내를 관찰하며 아군을 공격하였다.

11) 포청굴(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523번지)

조선조에서 도둑이나 그밖에 범법인을 잡는 등 치안을 담당하던 포도청(捕盜廳)이 있던 곳이다. 현재 원주민간에는 포청굴이라 불려지고 있다.

12) 남장대지(南將臺址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32-1번지)

남한산성이 준공된 후는 수어청(守禦廳)을 두었는데 수어청에는 전(前) 중(中) 후(後) 좌(左) 우(右)의 5영(五營)이 소속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후영장(後營將)이 배치되어 진(陳)을 치고 휘하 장졸을 지휘하던 남장대(南將臺)가 있던 곳이며, 대위에는 타운루(臺雲樓)가 있었다.

13) 동장대지(東將臺址 :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7번지)

남한산성이 준공된 후는 수어청(守禦廳)을 두었는데 수어청에는 전(前) 중(中) 후(後) 좌(左) 우(右)의 5영(五營)이 소속돼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전영장(前營將)

과 좌영장(左營將)이 배치되어 전을 치고 휘하 장졸을 지휘하던 동장대가 있던 곳이다.

14) 북장대지(北將臺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7번지)

남한산성이 준공된 후는 수어청(守禦廳)을 두었으며 수어청에는 전(能) 중(中) 후(後) 좌(左) 우(右)의 5명(五營)이 소속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중영장(中營將)이 배치되어 진(陣)을 치고 휘하 장졸을 지휘하던 북장대가 있던 곳이다.

15) 천주사지(天柱寺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826 번지)

천주사(天柱寺)가 있었던 곳으로 남한산성 수축시 승군(僧軍) 총 지휘관인 도총섭(都摠攝)을 두어 전국 승군을 징집 육성케 하므로 징집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막 사찰(軍幕寺刹)의 역할을 하였으며 승군은 고종(高宗)때까지 유지되었고 사찰은 일제(日帝)가 조선인의 무기 및 화약 수거때 폭파하였다.

16) 국청사지(國淸寺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779 번지)

국청사(國淸寺)가 있던 곳으로 남한산성 수축시 전국에서 징집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막 사찰(軍幕寺刹)의 역할을 하였으며, 벽암대사(碧岩大師)가 금국(金國)이 청(淸)이라 개호(改號)할 것을 예견하여 국청사라 이름지었다는 전설도 있다. 사찰은 일제(日帝)가 무기 및 화약 수거때 폭파하였다.

17) 한흥사지(漢興寺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신38 번지)

한흥사(漢興寺)가 있던 곳으로 남한산성 수축(修築)시 전국에서 징집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막 사찰(軍幕寺刹)의 역할을 하였으며, 벽암대사(碧岩大師)가 갑자(甲子)년에 한흥사와 국청사를 이룩하였는데, 한(漢)은 한(汗) 국청(國淸)은 금국(金國)이 청(淸)이라 개호(改號)할 것을 예견하여 이름지었다 한다. 사찰은 일제(日帝)가 무기 및 화약수거때 폭파하였다.

18) 남단사지(南壇寺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03번지)

남단사(南壇寺)가 있던 곳으로 남한산성 수축(修築)시 승군의 총 지휘관인 도총섭(都摠攝)을 두어 전국 승군을 징집 육성케 하므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막 사찰(軍幕寺刹)의 역할을 하였으며, 승군은 고종(高宗)때까지 유지

되었고, 사찰은 일제(日帝)가 조선인의 무기 및 화약 수거때 폭파하였다.

19) 옥정사지(玉井寺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265-1번지)

옥정사(玉井寺)가 있던 곳으로 남한산성 수축 전부터 있던 사찰이었으며 절 뒤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옥같은 샘이 나온다고 하여 옥정사라 했다. 산성 수축때 부터 정집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군막사찰(軍幕寺刹)의 역할을 하였으며 승군은 고종(高宗)때까지 유지되었고 사찰은 일제(日帝)가 조선인의 무기 및 화약 수거때 폭파하였다.

20) 종각터(鐘閣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58-1번지)

남한산성의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종각(鐘閣)이 있던 곳으로 종을 울려 산성 내 시간을 알렸으며 지금도 원주민들 간에는 이 주위를 종로 거리로 불려지고 있다.

21) 매바위(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815-1번지)

산성의 동남쪽 축조를 맡았던 이 회(李晦)가 완벽한 시공과 지세의 협약으로 기일 내에 완공치 못하여 참수형(斬首刑)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절명(絶命)하는 순간 매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바위에 앉아 이 회를 응시하다 갑자기 없어졌다. 사람들이 매가 있던 곳에 가보니, 물에 매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손실되고 흔적만 있다.

22) 병암(屏岩: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8번지)

정조(正祖)때 산성서문(山城西門) 근처가 파괴된 것을 이곳 주민들이 협조하여 보수하였으므로 당시 부윤(府尹)이 찬양하는 글을 서명옹(徐命膺)에게 짓게 하여 기록케 하였다.

23) 주필암(駐驛岩: 광주군 중부면 검복리 103-1번지)

정조(正祖) 3년(1779) 왕이 영릉전배(寧陵展拜) 길에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이곳에 쉬었다 간 후에 수어사(守禦使) 김종수(金種秀)가 이를 기념하여 암석에 새겨 놓았다.

24) 송암정(松岩亭: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 8-1번지)

황진이(黃眞伊)가 금강산에서 수도(修道)를 하다 하산하여 이곳을 지나는데 남자 수명과 기생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에 취한 건강한 남자가 황진이를 희롱하려 하자 심오한 불도를 설법하므로 감명을 받은 무리 중 기생 한 사람이 자괴(自愧)함에 투신 자살하였다.

그후부터 달 밝은 밤에는 노래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전설이 있으며, 고사 한 소나무는 정조가 주필암에서 보고 벼슬을 내리기를 “옥관자를 붙여 주도록하라”하여 대부송이라 불려졌었다 한다.

25) 취성암(醉醒岩: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8번지)

술에 취한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으며 술이 깬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며, 실로 이 바위에 앉아 있으면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전에는 취성암이란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었는데 연젠가 분실되었다.

26) 거북대좌(龜臺座: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24-1번지)

이 거북대좌는 남문을 올라가는 길옆에 있던 것이다. 홍태윤(洪泰潤)이 광주 부윤으로 있을 때 사실 없는 선정(善政)을 베풀어서 임기 후에 성(城)내의 주민들이 스스로 뚫쇠붙이를 내어서 녹여 만든 선정비가 있었는데 비(碑)는 일제강점기 군수 용품으로 거두어 가서 빈 대좌만 남게 되었다. 애민 선정(愛民善政) 4자가 새겨진 최근의 선정비였다. 홍태윤은 민비 시해시 항거하다 순직한 홍계훈의 아들이다.

27) 관어정(觀魚亭: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124-1번지)

순조(純祖) 4년(1804) 유수 김재천(金載權)이 지은 관어정이 있었다. 3개의 못 중에서 서편 소도(小船)에 있는 정자로 지수당(池水堂)과 마주하고 있으며 소선(小船)을 두어 광래하였다. 제갈량이 못에 임하여 방책을 결정하며, 적을 헤아렸다는 데서 그 이름을 취하였다 한다.

28) 영춘정(迎春亭: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29번지)

일명 팔각정(八角亭)이라고도 하는 정자인데 남문(南門) 아래 있던 것을 이설한 것이며, 현 위치에서는 서울, 경기 지방 일대를 관망(觀望)할 수 있는 곳이다.

29) 장터(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401번지)

이곳은 5일장(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이 열리던 곳이다.

주민간에는 지금도 이 일대를 장터라 부르고 있다.

30) 효자정(孝子井: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8번지)

산성 복문 안에 정남이란 12살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이나 누어 있자 지나가던 사람이 소문을 듣고 진액을 보더니 잉어를 고아 먹으면 병이 낫겠다고 하고 가 버렸다. 효성이 지극한 정남은 잉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던 어느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이 우물가를 지나 가려는데 누런 금비를 잉어가 있어 두손으로 잡아다 고아 드렸더니 아버지의 병환이 낫았다 한다.

31) 국청사(國淸寺) 우물(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8번지)

이 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동창이 나 갓은 약을 해 들여도 효험이 없으므로 국청사에 불공드리기 백일 되는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옆에 샘물이 흐르고 있어서 세수를 하고 물도 마시려고 하다 물 속을 보니 금붕어가 있어 소중히 잡아서 집에 가져와 기르려 하였다.

그날 밤에 잠을 자던 아버지가 목이 말라 곤히 자는 아들을 깨울 수가 없어 고기가 드러있는 물을 먹었는데, 별안간 종기가 확터지고 시원해지면서 그 길로 낫았다. 주민간에는 병이 낫는 샘물로 알려져 일부러 바시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32) 수구문(일명 虎口門)(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산18-2번지)

산성에는 지세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 대부분의 물이 이 수구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 나가고 있으며 성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신은 4대문으로 나아갈 수 없고 반듯이 이 수문을 통해서 성밖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었다. 동문이 통행 시간이 넘어 닫혔을 때는 이문을 통해 출입하는 비밀문이였다. 주민간에는 통상 시구문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상에서 남한산성의 문화 유적 표식 32곳의 위치와 간단한 설명을 살펴보았다. 이것의 설명 문안은 다소 표기에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 표식에 새겨진 문안을 그대로 정리 하여 놓았다. 후일에 다시 한번 정리 할 때를 위하여 전문을 그

대로 제시하였다. 광주군, 남한산성 관리사무소가 1996년도에 32곳의 표석 설치 작업 외에도 광바위(산성리 산 37번지), 영월정(산성리 산21번지), 한봉(산성리 산1번지), 동림사지(산성리 1번지)등 4곳을 더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 유적을 표시 하여 놓을 장소가 많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작업이 계속 되어 남한산성의 문화 공간화 사업에 활용되어 지고, 탐방객들에게 좋은 안내자의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4. 기 타

1) 문루 및 암문 (門樓 및 暗門)

남한산성에는 동, 서, 남, 북의 4문에 문루(門樓)가 있다. 남문을 지화문(至和門), 동문을 좌익문(左翼門), 북문을 전승문(全勝門), 서문을 우익문(右翼門)이라 하였다

암문은 성벽에 누(樓)가 없이 만들어 놓은 문으로 성내에서 성밖으로 또는 용성으로 연결되는 비밀 문이다.

남한산산성에 남아 있는 암문은 제2호 용성에 있는 홍례문을 포함하여 모두 16군데가 있다. 암문의 모양은 아치형으로 만든 것과 우물 정자형으로 둘로 쌓아 만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남한산성의 암문은 9곳이 아치형이다.

암문의 형태는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성 바깥에서 보면은 문이 적게 보이고 성 안쪽에서 보면 문이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아 비밀 문의 기능을 극대화하였다.

2) 누정(樓亭)

남한산성에 있던 누정은 기록에 의하면 약 18여개나 되나 현재는 단 6곳만이 존재한다. 누정은 위치나 건물의 기능에 따라 여흥과 위락의 용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용 사당방, 행사 때의 공용 집회장, 전시의 지휘 본부 또는 관측지 등의 기능을 하던 곳이다. 따라서 누정은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위치나 건물의 형태를 갖기 마련이다.

남한산성 내에 현존하는 누정은 수어장대, 연무관, 지수당, 침폐정 등은 잘 알려져 있으나 영월정과 영춘정은 누정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덜 알려져 있다. 영월정은 행궁터로부터 소나무 숲길을 따라 수어장대로 오르는 길목 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춘정은 수어장대 우측에 있는 천주봉에 위치하고 있

다. 원래 이 영춘정은 남문밖에 있던 것을 이곳에 옮겨 놓았다.

3) 사당(祠堂)

남한산성에는 사람을 포함하여 계단 성황당들 민속 신앙과 관계된 집단이나 시설이 많다. 그래서 성곽 주변의 건물지나 바위, 샘터, 나무등 도처에서 쏫농이나 축원을 들인 음식물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봉암이라는 산의 정상에 있는 커다란 두개의 바위는 영험이 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까지 알려져 기도를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이러한 현상은 타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남한지에 의하면 산성내에 대소 10개 이상의 계단과 사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을 모신 숭열전과 삼학사의 위패를 모신 현열사와 팔도 도찰설인 백암각성선사, 남한산성의 축성 책임자로서 억울하게 죽은 이 회빛 그의 부인을 모신 청량당이 남아 있으며 봉암과 수어장대와 서문 사이의 바위 등에 산신을 모시는 몇 개의 성황당이 있다.

4) 비석(碑石)

남한산성 내의 비석은 총 43개다. 종류도 다양하여 공덕비인 지사비(去思碑),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선정비(善政碑)가 가장 많고, 효자비(孝子碑), 열녀비(烈女碑)인 정열비가 있다.

남문에서 성내로 들어오다가 보면 남문에서 약 20미터 지점에 오른쪽에 8기가 일렬로 세워져 있으며, 길을 따라 들어오다가 왼쪽에 19기가 일렬로 세워져 있고, 남한산성 호텔 입구 건너편에 11기의 비석이 있으며, 그리고 지수당에 府尹李世享淸德民善政碑가 있고, 국청사(산성리 803번지)에 留守兼金公炳翼撫恤僧徒永世不忘碑가 있고, 마을회관앞에 金光兒妻鄭氏貞烈碑가 있고, 백제장(산성리 589번지)에 正三品前議官石公世煥淸德不忘碑가 있고, 산성별궁(산성리 973번지)에 李在臺妻月城金氏孝烈碑 등이 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산성 내에는 도합 43개의 비석들이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 밖에도 대략 20여기의 비석들이 산재하여 있다. 이 비석들은 적합한 장소에 잘 정돈하여 정비하고 보호책을 강구하여 남한산성의 역사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남한산성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비석들이다. 그 중에서 몇 개의 비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興宣大院位大監永世不忘碑.
留守兼守禦使李公止淵去思碑.
留守兼守禦使洪公學淵善政碑.
留守兼守禦使李公載元永世不忘碑.
留守兼守禦使閔公泳穆永世不忘碑.
留守兼守禦使金公泳根永世不忘碑.
留守兼守禦使沈公象奎去思碑.
留守兼守禦使曹公錫雨永世不忘碑.
留守兼守禦使金公教根善政碑.
留守兼守禦使徐公憲淳善政碑.
留守兼守禦使南公秉哲永世不忘碑.
留守兼守禦使金公允植永世不忘碑.
留守兼守禦使鄭公基善去思碑.
留守兼守禦使趙公斗淳善政碑.
前郡參事李公容植去思碑 등등 이다.

5) 우물터

남한산성은 수목이 울창하며 지하수가 풍부하여 성내의 어느 곳을 파더라도 샘이 솟으며 예로부터 약수터가 많기로 유명하다. 우물터는 대소 20여개가 훨씬 넘는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예로부터 전해 오는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우물에 대한 축조 시기의 구별은 어렵기 때문에 구전에 의존하였으며 우물의 외관으로 판단하였다. 옛 우물터로 추정되는 곳은 6개소인데 대부분이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 파괴되거나 원형을 잃고 현재는 시멘트로 수리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①수어장대우물1: 수어장대 뒤편에 있는 우물이다. 수어장대가 사용되었을 당시 군인들이 여기서 식수를 길었으리라 짐작된다. 우물의 주변은 시멘트로 보수하였고 현재 식수로로는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다.

②수어장대우물2: 전자의 우물터에서 산책로를 따라 50m쯤 산 아래에 내려오면 길옆 우측에 있다. 예로부터 가뭄을 타지 않는 우물터로 유명하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 많은 탐방객들의 목을 축이고 가는 우물이다. 우물터를 잘 보수하였지만 주변은 어떤지 측대가 어색하여 보인다.

③남한산성호텔앞 우물: 현 남한산성 호텔 정문에 있는 1기의 우물이다. 주위를 돌로 쌓아 빗물을 막고 주변을 깔끔리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는 우물터다. 현재 식수로로는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다.

④마을공동우물: 행궁의 우측 민가의 중앙에 위치한 우물터이다. 우물의 겉면은 시멘트를 입혔지만 내부는 축조 당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마을 내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도 사용되는 공동 우물이다.

⑤민속점(별원지)내 우물: 이곳은 옛날에 샘골이라 부르던 동네 우물인데 지금은 사택 내에 있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우물을 깊이 파고 수도를 설치하였다.

⑥남문약수터: 남문 안쪽 100m 지점 도로 우측에 놓인 약수터이다. 옛날엔 이곳을 온수 터라 불렀는데 지금은 약수로 유명하다. 남문을 지나는 행인이 많이 사용함으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남문 주차장 남서쪽 모퉁이에 배수관을 연결하여 주변을 잘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이 산성 약수라고 하여 제일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되었다.

이 밖에도 남한산성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봉암외성(蜂岩外城), 한봉외성(漢峰外城), 신남성(新南城), 웅성(甕城) 5곳, 포루(砲樓), 돈대(墩臺), 알문(鹵門) 16곳, 봉화대 2곳등이 있는 문화재의 보고요, 문화 중심의 축이 형성된 민족 자존의 땅이다

III. 문화재 보존책에 대하여

남한산성의 많은 문화재들의 개관을 살펴보았다. 참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여기 저기 산재하여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우리들 전통 문화의 현장이요, 역사와 문화의 산실이고, 문화재 보고의 집대성지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많은 문화재들이 조선왕조 400년간에 이루어 놓은 역사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 정기 말살 정책과 조선의 혼과 백을 굶고자 한 총독 정책에 의하여 가장 처절한 파괴와 수모를 겪은 아픈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근 100여년 만에 다시 민족정기를 생각하고 민족 문화의 현장을 확인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의하여 문화재의 현장과 보존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역사의 순리다. 그러므로 이제 사라져 간 문화재들의 목록이라도 정확히 작성되

어제야 한다. 그리하여 이곳 남한산성은 우리의 어떤 문화재들이 있었다고 확실하게 기록하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복원이 가능한 문화재의 현황을 다시 확인하여 지표 조사를 통한 복원 계획을 상세히 세워야 할 때다. 그러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역사 민족이었다고 천지신명과 우리의 후손에게 땀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는 소명에서 남한산성의 문화재 보존 책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 지역에 관하여는 지표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지역의 현황과 대책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하겠다. 남한산성의 지표 조사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1986년에 한 번 실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성을 갖는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역의 사적지 지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자. 예를 들면 조선왕조와 행궁터 같은 곳이 사유화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사적지 지정 운동은 그야말로 시급한 문제다. 더 이상의 훼손과 파괴를 막는 길은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 사적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 경기도 문화재 자료, 및 경기도 기념물 내지는 광주군 향토 문화재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때이다. 남한산성 관리사무소가 실시한 문화 유적 표식 설치 운동 같은 작업도 매우 소중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더욱 확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다. 그리하여 이 땅의 도처가 문화재 지역이고, 문화 공간임을 인식 시키자.

셋째 복원과 보수는 철저한 고증과 관계 전문 기관의 실사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자칫 복원이 또다른 문화 파괴의 현장으로 변하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국가 사적인 성곽의 복원 및 보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곽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작년부터 산성 관리사무소가 성곽 주변의 잡목들을 주변 10미터 공간으로 제거 작업을 하였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느낌이다. 성곽주변 30미터 내의 잡목은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나무의 뿌리가 성곽 쪽으로 뻗어 성곽의 붕괴와 파괴의 현장을 쉽게 발견하면서도 자연보호만을 강조하면서 잡목을 제거하는 일을 소홀리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넷째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하여 성내의 산책로를 정비하자. 이 길은 특히 산성내의 옛길을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탐방로를 확보 할 수 있을 것 같다. 탐방객들에게는 문화재 가꾸는 정신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재 사람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도 성내 산책로 정비는 시급한 대안이다.

다섯째 남한산성 내의 43개의 확인된 비석들만이라도 정비된 장소에 정리하여 놓자. 여기 등장한 분들의 면면은 우리들에게 훌륭한 역사의 교훈을 심어 주는 인물들이다. 대부분이 광주와 수어사의 비석들이지만 효와 충절을 상징하는 열녀비, 효열비, 정열비들은 그대로가 교육의 현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문화적 자산이다. 이러한 비석들이 방치되다 시피 이리로 저리로 천대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역사와 민족과 문화를 생각할 수 있겠음 하는 장소로 남한산성은 인식되어 져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남한산성을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삶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아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에서 민족 정신과 역사를 배우는 장소로 자리 매김 시키자.

IV. 결 론

남한산성은 자연의 아니 천연의 공간이다. 지금도 남한산성에는 천연기념물 「반딧불」과 일급수의 수질을 확인하여주는 「가재」를 볼 수 있는 전국의 몇안되는 무공해 청정 지역이다. 이러한 것도 선조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한구루의 소나무를 더 가꾸기 위하여 호송계를 조직한 산성리 사람들의 노력과 정신을 바라 보면서 우리들의 목적으로 던져진 남한산성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책을 살펴보았다. 문화는 그것을 보는 자의 안목 만큼만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안목을 키우기 위하여 문화재를 우리들의 생활에 가까이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남한산성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교육의 장소이다. 지정문화재와 아직도 지정되지 못한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를 분명히 확인하였다. 어느 역사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자긍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보존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성곽이 있지만 남한산성처럼 산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춘 산성

은 찾을 수 없다. 성곽은 물론 용성, 포루, 돈대, 암문등이 잘 갖추어진 산성은 남한산성이 전국 제일의 산성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모두의 정성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95.10.10/11)를 통하여 지역 문화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확인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남산모)의 활동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꽃피게 하여 우리도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나아가 나라사랑의 문화 시민이 되자.

남한산성 가톨릭 殉敎史 고찰

*한 준 섭

<차례>	
I. 머 리 글	3. 가톨릭 순교의 略史
II. 본 문	4. 남한산성 聖地 개발 근황
1. 가톨릭 概觀	
2. 한국의 가톨릭 傳敎 역사	III. 맺 는 글

I. 머 리 글

한국의 가톨릭은 외부로부터의 宣敎없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 信仰을 씀 되었다. 세계의 대부분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 들일 때는 외부 성직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국 가톨릭의 초기 信者들은 종교 서적을 통해 가톨릭(당시는 천주교 또는, 西學이라고 함)교리를 스스로 탐구하고 익히며 실천 하므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초창기 종교상의 박해는 피로 얼룩진 수난이 아닐 수 없었으며, 1779(정조3)년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천진암 불교 사찰에서의 南人 儒學者 權哲身(1736~1801)의 여러명의 天主教 講學會는 시작부터 용기있는 전리의 씨앗 밑군 영광스런 박해 이야기로 꾸며진 셈이다.

우리 先祖들의 외국문화 수용은 대부분이 진취성과 독자성에 의해 그 기틀을 마련해 왔다. 이를테면 고대 왕국의 완성을 바라며 불교가 수용되었고, 中世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 性理學 즉, 儒敎가 오랫동안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교가 朝鮮後期에 전래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상황과 밀접한 관계

* 시조시인,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가 없지 않았다.

봉건사회 해체기에 접어들어 17세기 이래로 조선왕조의 지도이념이었던 성리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고, 성리학 자신만이 正學임을 끈질기게 옹호하면서 그 시대를 지배하려던 論理에 붕괴조짐이 생긴 것이다. 당시의 집권층 지식인들이 소위 말하는 罪學이라 불렀던 가톨릭 종교 사상이 正學인 性理學에 정면 도전하므로써 두 계층간의 갈등은 사상계에 큰 변동을 주는 일에서 탄압과 도전의 지속적인 입장으로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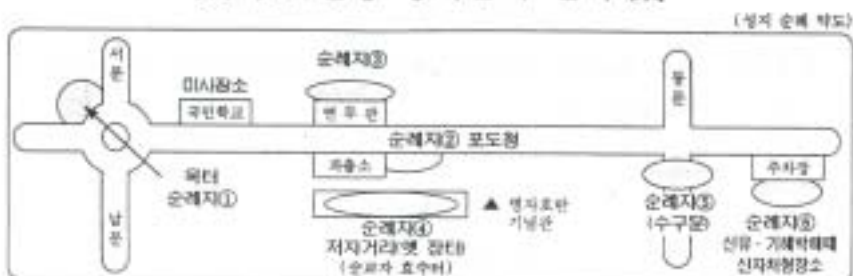
朝鮮사회의 선비들은 원래 사변적 경향이 강했다. 그러므로 中國사회의 선진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관계서적 보다는 사변적 敎理書 내지 天主學이라 통칭되었던 가톨릭 신앙에 대한 서적들이 온밀히 입수되어 읽혔다. 그 실례로 마테오 리치 神父가 지은 『天主實義』나 판토하 神父의 『七克』과 같은 책들이 북경을 왕래하는 조선사신 일행편에 의해 받아 온 것이다.

이 고리연구에 참여했던 이로는 權哲身, 權日身(1742~1791)형제를 비롯하여 李承薰(1756~1801), 丁若鏞(1758~1816), 丁若鏞(1762~1836) 등이었다.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하골리 走魚寺에서 연구모임을 가졌고, 뒤이어 天眞庵에서 강학회를 했던 것이다. 학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천진암에서의 천주교 강학회로 변모한 것은 역시 南人 학자 李璽(1754~1786)이 참가하면서 부터다. 이벽은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의 교리서적을 탐독하고 연구함으로써 더욱 활기찬 가톨릭 신앙의 수용단계를 앞당긴 주도자였었다. 함께 공부하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종교 이치를 전교하면서 함께 토론회를 갖고, 천진암에서 음력으로 主日을 정해 기도와 묵상, 단식 등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집약한 <聖敎要旨>서사시의 <천주공경가>를 지었으며, 정약용(1760~1801) 또한 <十戒命歌>를 지었다.

우리 고유문화와 갈등,조화를 거듭하며 이 땅에 신앙의 굳은 뿌리를 내린 가톨릭은 역사가 거듭되면서 민족의 문화역사에 한 몫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히 종교 하나만에 이식이 아니라 한국의 제반 문화조건을 재음미 내지 제창조의 과정을 거쳐 더욱 빛나는 민족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본다. 종교를 전파시킨 선교사 못지 않게 그를 전수받고자 했던 적극성을 지닌 초기의 殉敎者 특히, 이승훈, 이 벽, 권일신 등의 행적이야말로 엄청나게 소중한 빛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초기의 그리스도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단순한 彼岸의 믿음으로만 인식하

❧ 남한산성 성지순례 안내 ❧



지 않았다. 가톨릭과 국가, 가톨릭과 세상 모두를 상호 선린관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집안을 바로 잡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원리로부터 세계 평화까지도 가톨릭의 교리에서 확인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에 앞장 선 이가 丁夏群(1795~1839)이다.

한국 가톨릭 초기 지도자들은 교리 연구와 토론에만 전념치 않았다. 그들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승훈을 목경 천주교회로 파견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영세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귀국후에 이 책은 이승훈으로부터 영세를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영세를 주는 방식으로 읽자數를 늘려갔다. 이처럼 씨앗을 뿌려준 가톨릭의 초창기 '천진암 시대'는 1784(정조8)년에 막을 내리고, 곧이어 서울의 수표동 명례방(이벽의 집)集會로 옮겨 조선교회 창설의 본격적인 전교 재비를 갖추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출발은 우리 항토사의 확인 및 가톨릭 순교자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다. 오랫동안 역사의 뒤안에 묻혀 사라질 수도 있는 2세기전의 우리 廣州지역 일원 천진암 그 성지를 비롯한 남한산성에서의 순교사를 되찾고 정리시켜 두려는 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17세기 이래로 봉건사회 해체기에 어물렀던 성리학 대체로서의 新思想 물줄기를 일부 지식인들은 서양으로 부터의 反響學 설 격관왔던 가톨릭 정신인 것이었다. 이 또한 實學정신에 입각한 개화시대의 창조

였고, 당시로서는 正學-實學-窮學의 복합구조 혼란기에 접어든 것 같아 새로운 종교의 전래는 집권층에 의해 일방적인 탄압으로 피를 뿌린 때였다.

그리스도의 인류평등 정신이 더 늦지 않은 역사 현장에서 씨앗으로 묻혀, 종교의 지도자는 물론이요 민을 뒤따르려던 수많은 행자가 박해를 당한 그 殉教 聖地の 꽃송이 향기 풍김이야말로 가장 값진 곳으로 기려져야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의 대부분이 미처 모르고 있는 한국땅 전국의 주요성지 60여 곳 가운데 廣州 일원의 천전암을 비롯한 龜山성지와 노곡리, 옷배알미 그리고 남한산성 성지의 발자취만이라도 우리 고장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일이며 특히, 가톨릭 교인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역사의 현장인 것이다.

성지야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신했기 때문에 박해받았던 교회의 상징이다. 온갖 유혹을 마다하고 용감한 순교정신의 피를 맺은 순교자의 정신속에서 전지한 그들의 몸짓과 증언을 깨우치는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 현재를 살아 가는 우리도 거례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 역사와 문화 앞에 동참한다는 결의로서 자신을 깊이 반성해 나갈 뿐이다.

“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 나는 왜, 한국 그리스도인인가?”

순교자들이 깊이있게 생각했던 이 물음앞에 너와 나 역시, 그들의 삶과 죽음에 있어 무엇이 다른가를 되짚어 볼 일이 아닌가?

II. 본 론

1. 가톨릭 概觀

가톨릭(Catholic)이란 그리스도敎에서 신교(프로테스탄트)에 대한 舊敎를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天主教라고 불리고 있다. 가톨릭의 語源은 그리스語로서 '보편적'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2세기경부터 교회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천주교는 1세기초 로마제국의 영토였던 동방의 팔레스티나에서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에 의하여 창시된 기독교의 원류이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는 聖靈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갖은 수난을 겪었

으며 끝내 십자가에 못박히 죽었다고 한다. 이 예수가 창시한 기독교는 그후 3백년 동안 박해를 받아 오다가 312년에 콘스탄티누스황제의 공인을 얻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만민이 믿는 종교'라는 뜻으로 가톨릭이라고 敎名을 정하고 380년부터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으며 그후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국가적 종교로 신봉되어 근세 서구문화를 창조하는 정신적 기반을 이루었는데 뒤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분리되어 나가자 그를 新敎라 하고 가톨릭을 舊敎라 부르게 되었는데 오늘날 천주교는 곧, 그때의 구교를 말하는 것이다.

위로는 교황에서부터 그 조직이 주교-사제-부제-차부제의 상급 성직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에 와서 신자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初代 성 베드로 교황을 위시하여 현재의 요한 바오로 2세까지 254대에 걸친 긴 역사를 보인다. 이 역사의 뿌리를 살펴보면 나사렛의 예수라고 불리는 유대인에 의하여 창립되었고, 그의 12제자들에 의해 전체 교회를 통치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다음 제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신앙이 강화되었으며, 4세기때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에 자유와 보호를 부여했고 한편, 니케아 공의회(325)를 비롯한 중요한 공의회가 열려 가톨릭의 교의를 확정전 가운데 교세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5세기가 되자 유럽의 경제와 생활상이 향상된 반면, 교회지도자들 자신이 세속에 빠져 권력과 투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바람이 일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분리되었다. 성서와 성전에 바탕을 둔 사람을 敎義로 한 가톨릭은 『구약』과 『신약』 성서 속에서 성전은 사도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가톨릭의 敎權은 성서와 성전에 있는 主의 말씀을 세상 인류에게 널리 전교하며, 이를 권위로 해석하는 사명을 가졌다. 가톨릭은 이 교도권에 복종하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트와 다르다. 삼위일체의 신관을 강조하며 신의 본성은 하나지만 위격(persona : 성자, 성부, 성령)은 셋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속죄하여 또다시 신의 은총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과의 중개자가 된다. 또한 그리스도는 일곱가지 聖事(세례, 견지, 성체, 고백, 혼배, 신품, 병자)의식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따라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에 대한 질문 즉,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 자신의 生命은 단지 나 자신이거나 부모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는 원칙을 찾게 된다. 진정한 인생문제의 답변은 예

술, 철학, 과학 그 어느 것에서도 얻을 수 없다.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절대자원에서만 그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가톨릭은 하느님과 사람과의 만남이고, 인간 혼자서는 행복과 사랑을 누릴 힘이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믿음의 태두리 안에서 끝없는 행복감을 얻을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만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지전능하신 진실함의 사랑체인 하느님을 뒤쫓아 사는 것이 가톨릭인의 본래 생활 모습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내 가정과 내 이웃, 사회와 조국에 항상 감사하는 중에도 사랑의 실천, 회개와 화해, 기도와 복음전교로 일관된 삶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믿는 데가 있다. 자신만을 믿던 부모와 형제, 친구를 믿던 어딘가에 의지하려고 한다. 아니면, 이성에 의지하기도 하고 과학문명 또는, 권력과 돈, 명예에 의지하려 하나 사람은 절대적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결국은 초인간적 대상을 찾아 나서며, 그러므로 종교는 무한히 의지할 영원의 인식체라고 보아 모든 것의 최고 진선미인 절대자를 추앙하는 것이 다름아닌 종교생활이다. 종교는 창조주 하느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가장 온전한 관계이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無信論者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며, 평생동안 삶의 과정중에 복잡미묘한 인간사를 해결하는 열쇠란 宗教밖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하여, 사람이 구하는 가장 고차원의 대상의 종교로서 이 중에 절대자 하느님을 닮아 뒤따르고자 노력하면서 現世 뿐만 아니라 저 세상(來世)까지 인도되어 영원히 살려고 믿는 대표적인 신앙이 가톨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天主教는 가톨릭을 한자어로 고쳐 사용해 온 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근원 곧, 하느님을 믿는 계시종교다. 이 계시된 말씀이 口頭傳承으로 내려오다가 하느님의 영감에 의해 문자화된 기록이 다름아닌 신, 구약 經典이다. 구약 46권안에는 율법서 5권, 역사서 16권, 지혜서 7권, 예언서 18권이 있고 신약 27권에는 복음서 4권,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간 21권, 묵시록 1권이 함께 포함되었다. 聖典 또한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원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교회 초창기부터 전해오는 교리, 가르침, 행동규범, 敎神의식, 종교적 체험 등의 문헌과 문집을 뜻한다.

가톨릭 信者의 윤리도덕 기본인 십계명에는,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주일을 거룩히 지

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고 양심의 윤리 강령을 제시하여 이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찾고 따르는 靈性생활을 강조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결국, 가톨릭 신앙인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이며, 미래를 멀리 보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은 채, 자연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에 들어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내 몸 같이 사랑하고 봉사. 희생정신 아래 화합된 공동체 삶에 익숙해져야 할 뿐이다.

가톨릭이 동양권에 전래한 경위는 중국이 제일 먼저였다. 1253년 元나라 때 크게 발전하면서 불을 밝혔던 가톨릭은 1583년 明나라 때 마태오 리치 神父가 선교하여 북경에 南堂(성당)을 세우면서 그의 교리책 『천주실의』가 일본과 한국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 일본은 1549년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神父에 의해 규슈와 아마구찌 지방에서 전교한 때를 기원으로 삼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땅에 고려인과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사람 중에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래는 두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하나 한국인으로서의 중국과 일본의 전래시기와 같은 것이다.

2. 한국의 가톨릭 傳敎 역사

한국의 가톨릭이 전래한 시기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늦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 땅에 천교는 늦다하나 신앙의 삶을 찾아 나섰다가 순교를 당한 교인은 중국이나 일본의 교회사에서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병자호란(1636) 당시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던 소현세자가 북경에서의 아담 살 神父와 친교를 나누며 귀국 길에는 천주교 신자와 궁녀, 환관을 데리고 서울로 귀국한 사실이 있다. 다음으로 實學의 선각자였던 지봉 이수광(1563-1628)이 마태오 리치의 교리서 『천주실의』를 입수해 온 예라든가, 유몽인의 『어우야담』 쪽속에 천주교를 소개한 사실들이 우리 나라로 찾아든 가톨릭의 여명기 자취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 광주의 맹자산 走魚寺와 天眞菴에서의 천주교 학문적 연구 토론 모임이었던 講學會는 가톨릭 교리서적을 통한 자발적인 접근이었다.(1777) 선교사업

이 권철신, 권일신 兄弟를 비롯한 정약전, 약종, 약용 3兄弟 외에 이승훈, 김원성, 이충익, 권상학 등의 연구검토와 신앙에의 생활운동은 이 땅에 서양문화와 종교, 사상의 새 바람을 맞이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셈이었다.

1779년 한국 초기의 가톨릭 창립역사는 비록 미약하였으나 학자들의 지극한 정성은 대단하였다. 實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지극히 높고 영원한 진리를 스스로 탐구하며, 하느님의 관한 논증 및 신앙화 수련, 찬미가 창작과 저술활동, 음악 主日제정 염수, 북경천주교회로 이승훈 파견(1783) 및 최초의 성세례를 받는 큰 걸음은 이땅에 교회사를 가꾸는 외침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 교인들이 광채하던 북경 천주당

간 연구와 실천시기를 끝내고 같은 해에 서울 수표동 집회의 출발, 뒤이어 김범우의 집이었던 명례방(명동)으로 이전하여 이벽을 중심으로 조선교회 창립을 시켰던 것이다.

한국의 가톨릭 창립 주역들은 모두가 가시덤불 속의 양들이나 부모없는 고아들과 같았다. 하지만, 당시 사정은 그들에게 모친 박해의 칼날이 서릿발처럼 닦혔다. 이에 고난의 실자가 길을 저버리지도 않은 채 거친 활약을 걸었으며, 아무도 격려하며 거드는 이가 없이도,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지하면서 온갖 교회의

성직자나 선교사없이 이룩한 이 거룩한 한국 가톨릭의 창립사는 전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偉業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교회 창립 발상지 天眞聖地 100년 계발은 우리 배달겨레의 위대하고 영원한 聖地이며, 세계인류의 정신문화 꽃밭이라고 말할만 하다.

천진암 走魚寺 강화회에 참석할 당시 27세의 이승훈은 그의 아버지가 북경에 冬至使로 파견되는 편에 일행이 되어 그곳으로 갔다. 40여일 머무는 동안 筆談으로 가톨릭(天主教) 교리를 배우고, 1784년 2월 그라동神父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조선 선비로서 처음있는 일이었다. 귀국후 천진암 계곡에서의 5년

박해를 무릅쓴 가운데 기꺼이 피 한방울까지도 뿌리고 목숨을 바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벽, 김범우 등은 관헌에게 발각되어 온갖 회유를 외면함으로써 장렬한 殉節로 한국 가톨릭 역사의 최초 순교자였다.

이후 1세기 동안 韓佛조약이 비준될 때까지 공격적인 박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성직자없이 갓 태어난 우리의 가톨릭은 창립자를 잃고 임시 성당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각 가정과 이웃 마을로 관헌들의 눈초리를 피하며 무서운 박해속에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리전파와 성사운송 전달을 위한 열성에 불탄 나머지, 교회법규를 모르는 임시 준성직자단의 결속에 의해 교회 재건과 진리 전파에 결속력을 다져 나갔었다.

1791년(辛亥) 전라도 珍山의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여 예의범절을 갖춘채 신주를 모시지 않으면서 장례를 치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조상의 제사문제로 가톨릭 박해가 시작된 후 1세기 동안의 순교자는 엄청났으며, 하느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信徒들의 박해는 거듭되었다. 그런 敎難이 계속되는 형국속에도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창립 선조들의 거룩하고 장렬한 죽음은 멈춘 적이 없었다. 그같은 수난은 그후도 오래 이어져 日帝시대와 50년대 한국 전쟁때까지 계속되었다.

3. 가톨릭 殉敎의 略史

한국의 가톨릭 박해는 처음부터 치참하였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성리학만이 正學이라 믿어왔던 당시에 중국을 통한 서양의 사상과 문화유입은 정당한 시선으로 봐줄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가톨릭은 邪學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서양의 서적과 각국의 神父들이 조선땅으로 入國하는 그 자체가 국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으므로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시키고 이 일에 몰두하는 이는 무조건 처벌되는 판국이였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상 16세기부터 가톨릭의 傳敎 활동은 법으로 저지당하였다.

조선시대의 正統 이후 순조, 헌종, 철종, 대원군, 고종대의 역사중에서 敎勢확장이란 염두도 낼 수 없었으며, 온갖 박해중에도 겨우 가톨릭의 씨앗은 밟히면서도 싹이 트고 또, 달라 죽으면서도 씨앗이 자라나는 열음장 덮인 겨울철의 한 낮 햇빛 같았다고 비유해 본다.

가톨릭 박해의 사건을 연대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차 - 1791 (신해년)	2차 - 1801 (신유년)
3차 - 1815 (을해년)	4차 - 1827 (정해년)
5차 - 1839 (기해년)	6차 - 1846 (병오년)
7차 - 1860 (정신년)	8차 - 1866 (병인년)

위의 박해 사건중에서 論議에 따라 5차 또는 4차로 구분하는 이도 없지 않으며, 廣州 일원의 경우 박해 때마다 연루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殉敎史만을 살펴려고 한다. 특히 南韓山城에서의 박해사건이 本考의 중심이므로하여 항토사의 태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이에 참고가 될 年代表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차 辛亥(1791)박해사~천진암에서 강학회 시작(1779 정조3년)/ 이승훈 북경에 가서 첫 영세(1784). 조선교회 창현/ 김범우 순교(1786)후 윤지충, 권상연, 권일신 순교/ 주문모神父 입국(1794) 당시 신자수 4천명에서 1만명으로 구속 신자중 상당수가 背敎하여 석방/ 최인길, 지황, 윤유일, 이도기, 배관경, 이보현, 이은민, 유근명, 원시장 外 순교/

○ 제2차 辛酉(1801)박해사~가톨릭敎人 색출법 5家 作統法 시행과 순조即位에 따른 왕의 계증조모 金大妃 섭정으로 박해가 전국으로 확산/ 수많은 信者검거되고 주문모(중국인 신부)순교 및 이승훈 권철신, 정약중, 강완숙 3백여 명의 순교/여주, 양근, 광주地域 신자 상당수 검거 및 순교/ 김대비에 의한 천주교 배척 훈시(斥邪諭旨)봉포(1802)

○ 제3차 乙亥(1815)박해사~은밀히 북경主敎에게 선교사 파견요청의 편지를 보냄/ 전국에 흉년으로 기근현상 일어남/ 장하상, 유진길 등 북경에 몰래 다녀옴 (1824)/

○ 제4차 丁亥(1827)박해사~가톨릭 박해를 지방관청에 위임/ 조선교구 설정하며 1대주교(브뤼기예르神父)임명(1831)入國치 못함/ 유방제(중국인)神父, 모방(프랑스인), 사스팡, 엠베르神父 入國(1834후~)/ 세례신자수 1,237명('37)/ 검거된 신자도 많지만 배교자도 많음/2대주교(엠베르神父) 임명 (1836)

○ 제5차 己亥(1839)박해사~모방神父가 조선인 신학생 3명을 마카오에 보낸
3대주교(페레올神父)임명(1843) 및 入國/ 김대건神父 한국인으로 첫 신부 서품
(1845)/ 다블뤼신부 입국(1845)/엠베르, 모방, 샤스팡 3신부 순교 및 신자 검거와
순교자 廣州지역 龜山마을의 순교집안 있음/ 103位 성인中 54명 성인 나타남



서형장으로 가는 모습(1839)

○ 제6차 丙午(1846)박해사~4대주교(베르네神父)임명 (1854)/ 최양업神父의
베스트르, 장수, 브띠니콜라, 루르며 페롱 6명 신부 入國(1849부터~) 불란서, 미
국, 영국, 러시아 할대 내함시작/ 성모성심회 창설(1846)/ 베른신학교 설립
(1856)/ 성직자회의 개편(1857)/ 김대건神父 순교(1846)의 103位 성인중 25명 순
교 성인 나타남/

○ 제7차 庚申(1860)박해사~외국인 성직자 12명과 신자수 2만3천명(1865)/ 랑
드르 조안노, 리델, 팔레 4명 신부 입국(1861)/ 오메르神父입국(1863)/유양, 브
르뜨니에르,블유, 도리 4명신부 入國(1865)/ 철종에 이어 高宗즉위로 대원군 섭
정 시작(1865)으로 가톨릭박해의 辭源세력이 등장

○ 제8차 丙寅(1866)박해사~6대주교(리델)임명(1868) 및 7대주교(블랑)임명(1884)/6년간 박해중에 1만여명 순교당함/ 최진승, 리델, 블랑, 도세, 로베르튀렐, 류비어神父입국(1876년부터~)/ 『조선교회사』(달래)간행(1874)/ 儒生들 만인소(가톨릭 반대 상소문)제출(1881)/ 이 때는 국내에 神父 한 명도 없이 순교 또는, 탈출함/중국에서도 가톨릭 박해의 시기/ 광주지역에서도 순교자 많음/ 103位 성인 中 24명 성인 나타남/

위의 8차에 걸친 신앙 박해 기간동안에 상황에 순교내용 등을 밝혀하였다. 그 어느 때라도 우리 지역이었던 廣州땅에서 가톨릭 순교자가 없지 않았을 것이며, 남한산성에서의 순교 聖人들이 있을 법하다. 다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과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하여 상세한 고증은 살피지 못할 따름이다.

8차에 걸친 박해사건 중에 제3차와 제4차 두 차례는 남한산성 또는, 인근 광주·양근·여주·이천 지역에서의 순교자 이름이 찾아지지 않고 있어 이 시기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또한, 韓美조약 체결(1882)이후 잇따라 맺어진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외교 활동 시작으로 인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 등의 문호는 개방되었다 하나 종교문제만은 완철치 못한 일면으로하여 우리나라의 일체 국권은 상실된 암흑기가 닥쳐므로써 한국 가톨릭의 발전기는 한참동안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다시 국한기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공산주의의 종교탄압 역시, 우리에게 있어 커다란 수난기일 수밖에 없었다.

가) 남한산성에서의 가톨릭 信者 殉教 이야기(1)

가톨릭 신앙의 傳敎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첫 번째의 사람은 김범우(도마)였다. 그는 자기 집에서 서울 집회를 가질만큼 독실한 신자였으며 1785년 충북 단양에서 걸거되어 순교하였으며, 훗날에 그의 서울 집터가 오늘날의 명동 聖堂자리로 터를 잡게 되었다. 김범우의 殉敎史 전에도 일본땅에 포로로 끌려가 목숨을 잃은 1619~1627년 사이의 조선인 21명 信者도 없지 않다. 자료에 의한 남한산성 순교 이야기는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후일에 가서야 찾아진다. 다만, 초창기 고려연구회가 남한산성 소속의 광주 인근 영자산 주어사에서 시작하였기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추측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남지역에 천주교가 언제부터 들어왔는 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5인이 당시 이곳 주민들과 접촉하였다는 기

목도 없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며 그 뒤에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천주교의 선교나 신도들에 대한 기록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전 또는 설화에 의해서 이 지역이 천주교의 교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유교난, 기해교난, 병오교난, 병인교난 등 네 차례에 걸쳐 엄청난 교난을 겪는 동안 박해를 피하여 산속으로 숨은 한양 및 인근의 천주교도 중 상당수가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믿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성남시 운중동의 사기막골 뒷산과 동원동의 동막골 그리고, 광주군 오폭면 신헌리의 통점골 등은 당시 피신처로 손꼽히던 곳이라 전해지며, 지금도 순교자들의 후예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굴 및 생활용구의 파편들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성남지역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이 교난때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지역에 천주교 신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증이 없기 때문이다. 병오교난과 병인교난을 전후하여 천주교도가 유입된 것은 분명하나 그 뒤 100년간은 다시 복기할 만한 것이 없고 성남지역내에 천주교 전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45년 광복 후의 일이었다.¹⁾

다만, 천주교 연대표 1791년도 해당란에 따르면 申亥박해가 일어나 유지충(바오로), 권상연(야고보)이 全州에서 참수 순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가환 廣州府尹이 교우를 박해하므로써 공조판서에서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다고 하는 사건일지가 있다. 이같은 일로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의 天眞庵 일원 산림속 초야에 묻혀서 학문을 닦고 제자를 가르치며 책임기에 합했던 南人派학자들이 광주부윤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 같다. 아울러 초기 각 지방에서의 信者들은 일단 관헌에게 검거되어 얼마동안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문과 회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배교되었음을 본다.

- 廣州고을에는 최창주(마르첼리노)와 함께 갇혔던 많은 동료들의 배교가 있었고,²⁾

최창주 敎人도 첫 번째의 검거에는 마음이 흔들려 배교하였으나 뒤미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하느님께 순교의 피를 바쳤다.(1801.4)

결국, 제1차 박해때는 전해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의 순교자 10

1) 城南市史, 1993. 10. 20, p. 1663.

2)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p. 364.

여명만이 확실하며, 광주 일원에 관한 순교 이야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다. 심증은 충분히 가나 증거 불충분으로 남한산성 일원과 廣州 지역내의 가톨릭 순교는 알지 못하게 된다.

첫 박해가 시작된 지 10년째인 辛酉年인 1801년 제2차에 가서는 전국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검거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배되기도 하였으며, 殉教된 신자 수가 3백여 명에 달하였다. 이 때에 광주지역을 위시하여 인근의 여주와 양주에서도 적지 않은 죽음이 뒤따라 있었다. 특히, 주문보(야고보)신부까지 순교당하였고 광주 고을의 교우 4명이 배교자들에게 밀고되어 구속되었다. 박중환, 박운환 형제를 위시하여 심요산, 조연 이들 중에 박중환만 순교당하였고 나머지 3명은 유배된 것으로 밝혀진다.

주문보(중국인)신부의 殉教錄 일부를 밝혀 둔다.

주신부는 禁府에 자수하였다. 吏후이

“왜, 조선에 왔느냐?”

“내가 조선에 온 목적은 한 가지 뿐이었소. 참된 종교를 전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소.”

대신들 간에 최후 결정을 내리기 전 여러 번의 회의를 하였다. 끝내 군법 절차에 따라 백성들 보는 앞에서 처형키로 結案을 준비하고 김대왕대비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그가 처형장에 도착하자, 그의 양쪽 귀에 화살을 꿰고 그의 재판기록 발췌와 집안을 보여 주어, 그 여러 가지 문서를 읽을 수 있게 하였다. 비록 그 글이 매우 길었으나 신부는 그것을 아주 침착하게 끝까지 다 읽고 소리를 높여 모여 있는 군중을 향하여 말하였다.

“나는 천주교를 위하여 죽습니다. 10년 후에 당신네 나라는 커다란 불행에 당할 것인데, 그 때에 내 생각을 하게 될 것이요.”

관례에 따라 신부를 모여 있는 사람들 둘레로 세 바퀴 조리 돌린다음, 대장이 필요한 방향전환을 명하였으므로, 그는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기쁘게 머리를

속이니, 그 머리는 곧 칼 아래 떨어졌다. 때는 4월 19일(1801. 5. 31.), 聖三主日 申時라고 부르는 시간 즉,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였다. 그때 閔文護 신부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랜 시간 사형집행을 준비하는 동안 그 전까지는 맑고 청명하던 하늘이 갑자기 두터운 구름이 덮이고, 형장위에 무서운 선풍이 일어났다. 맹렬한 바람과 거둑 울리는 천둥소리와 역수같이 피붓는 흩날린 비와, 캄캄한 하늘을 사방에서 갈라놓는 번개 따위가 모두 이 피비린내 나는 광경을 만든 자들과 구경하는 사람들을 놀라, 가슴이 서늘하게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중략) 구경하던 外敎人들과 천주교인들이 매우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서 선교사의 聖德의 증거를 보았다. "이렇게 무서운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하늘도 이 처형자의 운명에 무관심하지 않구나"하고 외교인들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순교자의 머리는 매달려 있었고 그의 시체는 처형장에 다섯날과 다섯밤 동안 그대로 놓아 두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리로 가까이 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매일 밤 무지개가 뜨는 찬란한 빛이 그 시체위에 나타났다고 한다.³⁾

제2차 신유박해 역사는 전국 각 지방에서 모두 슬픔의 피흘림이 있었다. 중국인 주문모 神父의 처형을 위시하여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강완숙 등의 순교자가 후대로 전할 뿐 아니라, 3백여 명의 信者들이 2년 동안 짧은 기간에 하느님 앞에 나섰다는 일이 큰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찌됐든지 제2차 신유박해 때의 廣州지역 순교자 박중환 외에 한덕운, 덕원(토마스)兄弟와 임희영, 정종호, 이중배(마르티노), 정순배(발바라), 최창주(마르셀리노)의 그 이름이 전해짐만도 천만다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⁴⁾

이 중에서 한덕운, 덕원 兄弟에 관한 기록을 옮겨 둔다.

끝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처형된 두 순교자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첫째는 韓德運인데, 그에 대하여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극히 명백한 그의 結案을 보면, 그는 決起있는 사람으로 여러번 순교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보살폈고, 또 배교자들에게 그 비겁한 나락을 공공연하게 엄히 꾸짖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

3) 상계서, pp. 483-484.

4) 한국천주교 성지, 성요셉출판사(갈라판) 광주편, pp. 176-177, 명단 참조.

는 1801년 1월 31일, 50세 나이로 참수 당하였다.

둘째는 한덕원으로 토마스였다. 그는 경기도 수원 고을 양반집에서 태어나 광주 지방으로 이사갔었다. 그는 근엄하고 성실하였으며 기도와 독서를 부지런히 하였다. 그는 교우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격려하기를 좋아하였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런 때의 그의 말은 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굳건하고 날카로웠다 한다. 그가 가장 힘쓰는 것은 무슨 일에 있어서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변함없이 꾸준히 행하였다. 1801년에 광주 포졸들에게 감역 本官앞에 불러 나가니, 官長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다른 교우들을 밀고케 하려 하였다. 토마스는 교우들의 이름을 하나도 대기를 거절하고 고문을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거북한 기쁨으로 참아 받았다. 얼마후에 다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관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면 서슴지 않고 대겠습니다. 그러나 상을 주기는 고사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을 졸라 숨이 막힐 지경으로 만들고 잡혀오는 족족 목을 베실 것이니 아무도 밀고할 수 없습니다.” 그의 結案은 서울로 보내져, 왕의 이름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는 형장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목을 베는 나무토막을 손으로 붙들고 땅나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단칼에 목을 베어 주오”라고 말하였다. 땅나니는 겁이 나서 별별 말며 헛갈질을 하여 세 번만에야 목이 떨어졌다. 때는 1802년 2월 2일이었고, 토마스의 나이는 52세였다.⁵⁾

다음으로 임희영에 관한 기록을 옮겨 둔다. 그는 여주 점광리에 사는 양반 후손이며 豐川 任氏 가문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모두 가톨릭 信者였으니 그 자신만 신앙을 반대한 이였다. 그의 아버지가 죽게되어 그를 불러 놓고,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천주교인이 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한이 없겠다.”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아버지는 다시 말하였다. “나는 내일 죽게 되어 있다. 네 태도를 보니 내가 죽은 뒤에 조상들에게 드리는 관례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니, 이제는 잘 들어라. 네가 나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너를 자식으로 알지 않겠으니 상복도 입지 말아라.” 이런 말은 모든 동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조선에서는 가장 무서운 저주이다. 여기서도 任喜永은 아무런 대

5) 상계서, pp. 612~613.

답도 하지 않았다.

이를 후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분명한 계통의 표시를 하고 삼복을 입었으나 관례적인 제사는 하나도 드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일가친척과 친지들은 그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불만과 불평을 숨기지 않았다. 경신(1800)년 봄에 小群이 돌아왔는데 그 때에도 그는 아무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 조금 후에 그를 감시하던 여주목사가 포졸들을 보내어 그를 관아에 출두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네가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네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고 비난하니, 만일 그것이 사실이 라면 너를 죽일 수 밖에 없겠다.” 임희영은 자기 아버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고, 이미 이중배(마르티노), 원경도(요한)와 그 동료들이 갇혀 있던 옥으로 끌려가 그들과 같이 재판관 받고 선고를 받게 되었다.⁶⁾

몇 차례의 심문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수감된 가톨릭 믿음에 의해 임희영은 옥중에서 黥洗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므로 임희영은 1801년 3월 13일, 남한산성 안의 감옥에 함께 갇혔던 敎友들과 같은 날에 참수당한 것이다.

임희영과 같은 날에 순교당한 여주 사람 鄭宗浩의 부옥장소 또한 廣州였다.

경신(1800)년 3월에 이중배(마르티노)와 원경도(요한)는 그들의 친구 정종호의 집으로 부활축일을 지내러 갔다. 본명을 알 수 없는 이 정종호는 모두 천주교인인 자기 집안에 그들을 기꺼이 맞아 들였다. 개를 잡고 술을 많이 장만하여, 부활날에는 가족과 손님들이 이웃에 사는 몇몇 교우들과 함께 길가에 모여, 모두 큰 소리로 ‘할렐루야’와 ‘부활삼중경’을 외고 나서, 바가지를 두드려 가며 기도문을 노래하였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간 고기와 술로 음식을 먹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노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信心행사와 우애적인 잔치로 하룻날이 흐르고 있었는데, 外敎人들에게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은 수령이 그들을 잡으러 포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잡혀서 옥으로 끌려갔다.⁷⁾

함께 수감된 여러 순교자들이 禁府에서 확정된 結案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때는 대개가 출신지역의 고을로 보내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을 두렵게 하는

6) 상제서, pp. 459-460.

7) 상제서, p. 458.

동시에 가톨릭의 전파를 조금이라도 억제해 보려는 의도였기 때문인 것이다. 1801년 4월 25일에 순교된 정중호의 나이는 50세 가량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거의 같은 시기에 여주고을에서 출생한 정광수의 누이 鄭順梅(말바라) 또한 남한산성 감옥에 수감되어 혹독한 고문과 심문을 받은 女敎友이다.

그는 童貞을 하느님께 바치기를 원하였으나 외교인의 법석을 열려하여, 자기는 詐誓라는 어떤 사람과 혼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스스로 머리를 올렸고, 이런 술책을 써서 혼자 지내며 그의 信心이 일러 주는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의 結案에는 周文謨 신부에게서 성세를 받았다고 쓰여 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으나 그는 여성답지 않은 용기를 보여주었고, 사형언도를 받고 여주읍으로 압송되어 서울의 동료들보다 이틀 뒤인 5월 25일 참수당하였다.⁸⁾

순교 당시 그녀의 나이는 25세로 알려진다.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더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름 아닌 이중배(마르티노)와 최창주(마르첼리노)로 그들에 관한 기록은 몇 곳에 알려져 있다.

李中培(마르티노)는 少論에 속하는 전주 이씨 집안의 자손으로 여주 고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끈기는 하지만 난폭하고 성을 잘내는 성격과, 의술과 비상한 힘과 용기, 분에 넘치는 야심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여행할 때에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낮에는 쉬고 밤에만 걷는 奇癖이 있었고, 친구 김건순(요사팻)의 권고로 신앙에 인도되었는데, 김건순은 정약중(아우구스띠노)과 협력하여 천주교 교리에 대한 책을 쓰다가 완성하지 못한 그 사람이다. 두 친구는 함께 천주교인이 되고 성세를 받았다. 그때부터 이중배(마르티노)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성격을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다만 그의 정력과 굳셈만을 보존하였다. 그는 용감한 열심이 넘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 놓고 고백하며 그가 入敎시킨 자기 아버지와 아내와 더불어 아무에게도 숨기지 않고 자기의 종교 본분을 지켜 나갔다.

여주 읍내에 사는 그의 사촌 원경도(요한)도 매우 친하게 지내던 김건순(요사팻)에 의하여 입교하였으며, 그의 온 가족도 그의 본을 따라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었다.⁹⁾

8) 상계서, pp. 509-510.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온 자기의 아버지에게 까지 “아버님, 저는 효성의 본분을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치신이 별로 용감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아버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교우이시니, 우리는 사물을 더 높은 시야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정에 끌려 하늘에 제신 우리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버님 자신이 판단하십시오”하며 자신이 투옥되어 끝까지 背教하지 않는 데 대한 신념을 명쾌히 답변하였다고 전한다. 마르띠노는 의술에 능통한 이로서 병자들이 폐를 지어 옥문에 몰려 오면 신성한 방법으로 그들을 고쳐 주었다.

獄卒들이 그의 의학서적을 보자고 청하니 마르띠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독특한 처방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천주를 섬기기만 할 뿐이오. 당신들이 의술을 배우고 싶으면 우선 나처럼 천주를 믿어야 하오.” “당신이 책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고 주장하니,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소.” 마르띠노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타지 않는 책들이 있으니, 당신들을 가르쳐서 천주교를 신봉하게 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소.”

오랫동안 갇혀있고 또 끊임없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데에 지쳐서 갇힌 교우 여럿이 차차 냉담하여지고 용기를 잃어갔다. 항상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성을 가진 마르띠노는 그들을 권고하고 격려하기를 그치지 않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동시에 참했으니 모두가 같은 날 천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소.”⁹⁾

이리하여 다른 교우들과 함께 1801년 4월 25일, 여주지방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수되어 殉教하였고,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 가량이었다.

끝으로 崔昌岡(마르셀리노)의 순교 이야기를 옮겨 놓는다. 그는 원경도(요한)의 장인으로서,

그는 여주 고을에 사는 양반으로 온 가족과 함께 천주교를 믿고 있었다. 1791년에 그는 배교하여 박해를 모면하였었다. 그러나 그때 부터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자기의 죄를 흘려 죄를 씻는 은총을 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박해

9) 상제서, pp. 457~458.

10) 상제서, pp. 463~464.

의 처음 소문이 났을 때에 그에게 도망하기를 권하는 아내에게 그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안심하오.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살아 갈 수 있을꺼요.” 그의 어머니도 간청을 하므로 그는 어머니 명령을 존중하여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그러나 길을 떠나자마자 마음이 변하여 집으로 돌아 왔다. 그날 밤으로 여주에서 보낸 포졸들이 그를 잡아 관아로 끌고 갔다. 官長은 그에게 물었다. “누구에게 천주교를 배웠느냐. 또 네 공범자들은 누구냐. 모두 바른대로 말하여라.” 따르셀리노는 대답하였다. “천주교에서는 아무에게라도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아뢰 말할 것이 없습니다.” 관장은 그를 심문하고 몽둥이로 때리게 하였다.¹¹⁾

이상 廣州 일원에서의 7명 殉教談을 살펴거니와, 제2차 辛酉박해 중에 남한산성 안의 가톨릭 信者들에 대한 박해는 알게 모르게 극심하였었다. 장주에 속하는 관할이 장주를 위시하여 이천, 여주, 양근, 용인지방 전체였으므로 일단, 천주교 邪學 信者자라면 남한산성 관아에 수감시켰음을 알 수 있다.

수감된 이들에겐 오랫동안의 拘留 속에 형벌을 가하면서 천주교 배척을 유도하는 고통의 시간을 끌며, 끝까지 背教가 어려운 信者일 경우, 참혹한 처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놀라운 용기로 고백하고 피로써 증거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웠던 이야기는 대부분이 묻혀 버렸다고 하겠다. 극히 일부분 이야기가 선교사의 은밀한 기록과 보존에 의해 우리가 접할 수 있음도 어찌 생각하면 천만다행한 일인 것이다.

친구에게서 하느님을 배웠고 또, 아버지와 사위 그리고 딸에게 傳敎시켜 나간 가톨릭 초창기의 역사는 불굴의 용기와 극기, 명백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은총이란 숨소리가 살아 남지 못하였을 것이 사실이다.

김대왕대비의 가톨릭 박해는 정치적인 원한과 종교적 증오심으로 이어졌다. 南人派를 분쇄하면서 少論을 배척하는 가운데 人倫敎化에 어긋나는 邪學이야말로 국법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책이 발동하였던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오가락동법을 만들어 전국 각 지방의 순라병이 퍼져서 의심스러운 敎人은 모조리 잡아 가두고 심문하게 함으로써 지역마다의 감옥은 초만원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1만명이 넘었던 信者들에 대하여 잔악한 박해의 마수를 펼쳤던 김대왕대

11) 상계서, pp. 462~463

비는 왕족으로부터 평민·노비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전부 극형에 처하였다. 옥중고문이거나 정식 사형에 의해 순교한 敎人數가 3백명을 헤아리던 제2차 신유박해의 잔악무도함은 묘사리쳐지는 데 참사였다. 심지어 부인과 며느리가 敎友였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서숙부인 은언군(현종의 조부)을 죽이고, 가톨릭에 관심을 가졌다고하여 영의정 벼슬을 지냈던 채계공의 관직이 추탈한 것 등은 실로 박해를 가한 정치지도자 및 귀족계층의 우직몽태함을 여실히 나타낸이라고 하겠다.

이제 19세기초인 1801년경 남한산성 관아에 투옥되었던 가톨릭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멈추려고 한다. 더 이상의 자료가 전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정리하고자 하나 불가능 상태로 다만, 추측으로나 이야기될 것 뿐이기 때문에 38년이 지난 己亥年의 박해로 뛰어 넘어 질 따름이다.

나) 남한산성에서의 가톨릭 信者 殉敎 이야기(II)

성남시 소속의 옛 廣州郡 중심지였던 남한산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관아에서는 가톨릭 신자에 대한 박해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殉敎者 모두의 상세한 기록은 어디에도 정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제3차 乙亥박해 이후 지방 敎人들의 수감 및 순교자는 간헐적이긴 하나 충청도와 경상, 강원도의 산간지역에서 무수히 나타났다. 北京주교에게 온밀한 서신교류와 사신의 왕래가 정하상(바로로), 유진길(아오스틴)들에 의해 지속되었고, 제4차 丁亥박해로 계속된 가운데 로마교황 그레고리 16세에 의한 조선교구 설정과 뒤미처 중국인 유방제 神父, 프랑스인 모방, 샤스팡, 엠베르 神父의 入國으로 인한 가톨릭 신자수는 무척 늘어가기만 했다.

儒敎중심의 조선사회 안에서 인간평등적인 사람과 봉사실천적 변화의 이념이 대립된 이질 집단으로 격화시킨 가운데 그리스도교의 사상은 당시 집권층에게 있어서 곧바로 사회질서를 파괴시키는 외세의 나쁜집단으로 간주된 것이다. 성리학 이론을 무시한 채 신분질서의 도전, 조상 숭배의식의 문란, 남녀간 평등사상은 권문세도가들에게 적지 않은 위기감마저 불러 일으킨 점이 없지 않다. 탄압을 늦추지 않아도 그리스도 정신을 뒤따르려 하는 敎友가 각 지방마다 봄바람 피져가듯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특히, 南漢山城 관할의 廣州 땅 일원에서는 1939년(현종5)이 되면서 憲宗의 할머니 김비(순원왕후)의 수렴정정이 막을 내린 다음, 다시 趙대왕대비의 세력으로 교체되기 시작하여 더욱 가톨릭 박해가 강풍을

돌아치게 된 시기를 맞게 되었다.

1939년 己亥年박해의 강풍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이해 벽두부터 많은 敎友가 구속되었으며, 후일에 福壽 자리에 올려진 丁國보(프로파시오)등 63명을 위시하여 그 후 3년동안의 끔찍한 사건은 무려, 200여 명 순교자 수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영배트, 모방, 사스탕 3神父 역시 殉敎되었다. 다음은 사스탕 神父가 프랑스 고국의 부모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소개한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주의 평안을 비읍나이다.

저도 올해엔 부모님의 편지를 받게 될 줄로 알고 즐거워하였사오나, 한 번도 편지를 받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주교님은 현명한 생각으로 오늘날은 때에 양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한 목자의 할 일이라고 판단하시고, 스스로 나아가 감히이라고 저희들에게 편지를 주셨사오이다. 원컨대 모든 것에 천주님의 뜻이 행하여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외다. 제가 이 사랑하는 傳敎지방에 들어왔을 때에 5명의 교우가 고문을 받고 있었나이다. 그때까지도 저의 마음은 매우 약하여 그들이 받고 있던 형벌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 떨렸사오나, 그후부터 주의 성총을 받아 조금도 겁내지 않게 되었나이다. 제가 설사를 준 신문 교우, 그 중에서도 15세 가량의 소년들이 놀랄 만큼 뜻뜻한 정신으로써 형벌을 참아 받고 있는 이 아름다운 거울에 용기를 얻게 되었나이다.

저는 내일 저의 형제(모방)를 만나 같이 주교님을 잡아 가둔 관청으로 가게 되나이다. 저의 영혼은 천주에게 바쳐진 것이오니, 만일 이때에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부디 저의 행복을 슬퍼하지 마시옵고, 천만번이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들이여, 아마도 이것이 저의 마지막 편지일 것 같사오니, 부디 저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 주옵소서. 저는 돈은 없사오나 다행이 천주의 성총으로 교우들이 착한 마음에서 만들어 준 두세 벌의 의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각오는 다하고 있나이다. 축복받은 전 교지방에 저를 불러주신 천주님의 십리를 천만번이고 감사하고 있나이다. 이제 곧 떠나가야 하겠기에 자세히 쓸 수가 없나이다. 죽어지기 전에 편을 들 기회가 있사오면 다시 즐겨 상서하오리다. 천국에서 기다리오리다.

사스탕 올림¹²⁾

12) 유종열, 『한국천주교회 上卷』(카톨릭출판사, 1992), pp. 393-394.

이외에 또다른 편지가 있으며, 信者들의 글도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비참하고도 장렬한 殉教 聖人들의 낱낱 사연을 통해 한국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사랑의 계승은 지워질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己亥박해의 역사야말로 이땅의 103위 聖人 시성을 더욱 값지게 바친 결과로 비워진다. 특히 남한산성을 더욱 유명한 순교터로 이름지은 聖 金星鵬(안토니오, 1796-1841)의 350여 명 殉教者들의 피흘린 자취가 이때에 연유한 것이어서 己亥年 박해는 서소문 밖과 포청옥, 서남터, 당고개와 순교장소와 함께 남한산성 안의 관아 감옥이 광주 일원의 교우들의 형문 수감장소로 이용되었다고 본다.

남한산성 순교지의 박해자로 손꼽히는 한덕운, 덕원 兄弟와 김성우 그리고 그의 아들 김덕성, 은심 兄弟들의 옥중생활상은 한낱, 최하위 罪人의 취급을 받았을 것이 확실하다. 다른 지방 감옥생활과 똑같은 꺾박을 받았을 것이다.

역대의 신앙 박해때는 어김없이 敎友중 가장 친근한 背敎者의 밀고가 있었다. 1939년 기해박해 역시,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가난했던 김순성(요한)에 의한 밀고로 대박해를 일으켰다. 이 해 이른 봄부터 많은 교우들이 잡히기 시작하여 일년 사이의 구속되고 殉教 당한 信者數가 그 어느 해 보다 훨씬 많았었다. 영배르, 모방, 사스말 3명의 神父 중에 영배르는 밀고자에 의해 구속되었고, 2명의 신부는 자수에 의해 수감되어 순교하였다.

영배르 主敎는 잡히기 전에 교회의 박해사건을 일기로 쓰고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일에 앞장섰다. 자신이 못한 것은 몇몇 교우에 도움을 받으면서 당시의 서울교우회장이던 현익문(가톨릭)에게 맡기었다. 가톨릭 회장은 기해년에 아내와 누님, 딸이 잡혀들어 간 줄 알면서도 영배르주교가 부탁한 기해일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신은 교묘히 몸을 숨겨가며 순교자들의 행적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다 바쳤다. 때때로 몸차림을 바꿔가며 산간벽지를 돌아다닌 가운데 上海까지 다녀온 그는 3년만에 자료정리를 마쳤다. 그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己亥年 4월부터 12월 사이의 순교자는 남교우 28명, 여교우 50명 도합 78명이다. 이같은 자료에 덧붙인 樺島主敎의 교황청 제출서의 79명 순교자들은 1925년 7월 5일에 이르러 교황비로11세에 의한 바티칸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顯者位 시복식이 올려짐으로써 한국 가톨릭 교회사상 영광된 일로 보아야 할 일이다.

성인 79명 속에는 순교가족 9, 순교부부 7쌍, 성직자 4명 외에 동정녀 15, 19살 이하만도 5명이나 되고 있다. 이들의 장렬하고 비참한 경위는 언어로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할 일이거니와, 우리 城南市 소속의 廣州출신 순교자 聖人의 명품스러

운 자취를 살피 두려고 한다.

김 안또니오는 1796년에 경기도 龜山(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에 살던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질고 정직하며 굳세기로 유명하였다. 그는 두 동생들과 더불어 천주교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배워서 믿는 한편, 친구와 이웃사람들에게도 이를 가르쳐 마침내 龜山이라는 마을을 교우만의 마을로 만들게 되었다. 그는 모친을 여윈 후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누리관(於義洞)에 살다가 얼마 후에는 동대문밖에 있는 바장안으로 옮기었다. 한편 구산에 살고 있던 두 동생은 박해가 일어나자 곧 잡히어, 막내동생이던 아우구스뎐은 1841년 3월에 43세로 옥사하게 되고, 맏동생은 몇해 동안이나 옥중살이를 하고 있었다.



김성우(金星禹 : 안또니오, 1796~1841)

김안또니오는 일찍이 아내를 잃고 열심한 교우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즐거운 가정을 이룩하는 한편, 그의 집을公所로 삼아서 모방 神父로 하여금 자주 미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던 중 밀고한 자가 있어, 1840년 12월(이듬해 1월)에 가족과 같이 잡히어 포도청을 거쳐 형조로 끌려 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에 그는 거듭 신문과 30대의 곤장대 때질을 받았으나, 그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을뿐더러, 옥중에 있던 外人들은 4월 28일에 다시 60대의 곤장대를 맞고 다음날인 29일 밤에는 옥중에서 고살되었다. 때에 그의 나이는 47세이었으며, 그의 시체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龜山에 묻히게 되었다. 이러한 굳센 신앙으로 그 후 1925년에는 복자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¹³⁾

무려 15개월 동안 옥중생활을 하던 김성우(안또니오) 聖人은 옥중 고살이라고 하나 안또니오의 시신을 거둔 敎友들의 말에 따르면 목에 교수된 흔적이 뚜렷하여 옥사된 말이 틀린 이야기라 하였다 한다. 김안또니오는 처음 남한산성 관아

13) 상계서, pp. 429-430.

에 딸린 옥에 갇혀 있다가 서울 의금부로 옮겨 간 것 같으며, 그후 안토니오 성인의 유해는 서울 철두산 순교기념관에 안치되어 있다.

김안토니오는 고향인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현 구산리)에서 삼형제 중 맏이었고, 어머니는 외교인으로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다행히 중년에 이르러 입교하여 선종하였다. 그후 얼마 안되어 자녀들도 입교하게 되었고, 김안토니오 자신은 중국인 유방제(倭치피고)신부에게서 열세하였고, 체포 당시 사촌 김스테와 노와 함께 잡혀었다.

교황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된 지 59년 후인 1984년 5월에 교황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聖人 103위의 한 자리에 오른 안토니오는 체포되기 3년 전에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첫 入國사제였던 모방 神父에게 한 여름 동안 한국어와 풍속을 가르친 적도 있었다. 그는 '邪學(천주교)의 피수'로 저속되어 포도청에 이송되어 배교하기를 권유하던 재판관에게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것입니다"라는 대답으로 자신의 굳은 신앙심을 고백하였다.

한국 가톨릭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던 1984년 5월 6일, 103위 성인과 함께 성인으로 시성된 김안토니오는 참으로 순교자의 큰 영광을 뒤늦게나마 누리갈 수 있게 된 것이다.

金星禹의 둘째 동생인 金德深(1798-1841)은 萬集 또는 致英이라 불렸으며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龜山)에서 태어났다. 맏형 김성우(안토니오)와 아우 允深 이들 3형제 가운데 덕심(아우구스티누스)만은 뒤늦게 入敎하였다. 3형제는 가톨릭 신앙인 생활을 하였고, 1939(己亥)년 3월 21일, 포졸에게 붙잡혔으나 그때는 돈을 약간 주고 풀려났었다. 그러나 그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다시 밧고되어 김덕심(아우구스티누스)는 동생 윤심과 4촌 한 사람과 함께 세 사람이 함께 廣州留守가 있었던 남한산성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관장 앞에 끌려나가 심문을 받을 때, "천주교는 세상에서 달하듯 無君無父, 夷狄禽獸의 敎가 아니라 천주님의 참다운 진리이오"하고 동헌 마당 한가운데서 큰소리로 외치며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더욱 심하게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여러차례 심문을 받으며 관장으로부터 背敎를 강요당하였다. 또 관장은 다른 천주교인을 밀고하라고 그에게 독촉하며 매우 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었다. 이리하여 모든 설

복의 수단이 무위로 돌아가자, 관원들은 할 수 없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남한산성 감옥에 하옥시키고 밥도 주지 않고 거의 잊혀진 채로 버려 두었다.¹⁴⁾

김아우구스띠노는 마침내 옥고에서 추위와 고통으로 시달렸다. 함께 갇혀있는 많은 교우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기 까지 좌절 반 참회반으로 고뇌하기도 하며 두 아들과 친척들의 면회시간을 통해 끝내, 통회와 애덕의 정을 가지고 하느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 후 그의 나이 43세가 되는 1841년 1월 28일에 殉敎하였다. 무려 20개월 동안의 남한산성 관아에 갇힌 동안 가정과 자식들에 대한 애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고 전해 온다.

수많은 가톨릭 敎友의 비밀스런 종교생활은 비참하였다. 박해의 눈길을 피하기 위하여 선교사 목자와 교우회장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이나 가정은 아예, 버려둔 채 피난민의 온신처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에게는 밭농사로 밖에는 살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일찍이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여 본일이 없는 곳, 산과 골짜기, 가파른 비탈, 무서운 절벽 밖에는 만나지 못하는 곳에 무슨 농사를 짓겠는가. 거기에는 이 나라의 주요한 곡식인 벼는 자라지 않았다. 약간의 조, 밀, 약간의 야채, 그리고 주로 담배, 이런 것이 그 거처된 땅의 유일한 산물이었다.

가장 열심한 신자들이 앞장 서 갔으므로 차차 다른 신자들도 뒤를 따라 와서 산중에서 살게 되었다. 때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 이것이 오래지 않아 가난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모두가 담배 농사를 시작하였으므로 너무 많이 나서 값이 폭락하게 되어 때때로 主敎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20프랑이라는 하찮은 돈만 내도 장정 2명이 지고 갈만큼 줄 지경이었다.

그러므로 가엾은 우리 신자들은 쉬지 않고 일하며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한 것 밖에는 얻지 못하였다.¹⁵⁾

실로 비참하기 그지 없는 데 박해가 끝났다. 평화가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사망에 이 얼마나 참혹한 광경인가. 천주교인 집단은 송두리 채 뒤엎어졌고, 수

14) 『구산성지』, (성요셉출판사, 1982), pp. 31~32.

15) 『한국천주교회사 下卷』,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pp. 92~93.

천명의 신자가 집과 재산을 잃고, 가족은 가장을 잃고, 칼이나 敎鞭로 귀양이나 기아로 죽어 사방으로 흩어지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남편은 아내를,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을 찾으려, 많은 여신도들이 포교들의 희생이 되어 외교인들 가운데 그 부끄러운 독숨을 숨기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初喪이요, 눈물인가!¹⁶⁾

그렇게도 가톨릭 교인들을 압박하던 풍양조씨의 세도정치는 어찌되었을까? 1849년 憲宗이 퇴위할 때까지 계속된 세도정치꾼 조인영도 1년후엔 귀양 당하여 그곳에서 죽었으며, 양떼트 主敎를 밀고했던 배교자 김순성 또한 한 때는 오위장 벼슬자리를 얻었으나 1년도 못되어 귀양된 후 사형을 받은 저주의 몸풀이 되고 말았다.

경기도, 서울 지방에서 가장 처참한 박해를 당한 가톨릭 신자들은 악독한 고문과 귀양, 교살로 인하여 걸으면 잠시 조용한 듯 하였다. 말할 수 없는 피로운 생활고에 허덕이던 교인들 후손들이 찢쩍이 흩어져 火田民 신세로 전락하기도 하였으며, 박해의 덕분에 온 나라의 적지않은 백성들간에는 가톨릭 즉, 천주교 진리의 씨앗이 어떤 건지를 대강은 알게 된 것이다. 순교자들이 남긴 고귀한 사랑과 깨끗한 정신에 놀라하면서 죽어간 그들을 칭찬하는 말까지 주고 받기에 이르러, 믿음의 새 기운은 더욱 새차게 퍼져 나갔다.

김권충 권력자들 끼리의 싸움은 계속되는 틈을 타서 조선의 교회는 다시 포교되고 또, 신앙의 박을 띄운 敎者는 없는 땅이라 하나 그 잔 가지는 새봄날 빗방울을 스며들게 하는 힘찬 몇몇 교회 재건 교우들에 의해 함께 나갔다. 신자끼리 서로 힘을 모아 하느님 말씀을 선교하면서 밖으로는 성직자를 다시 맞아 드리는 데 손을 뻗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한 國外에서의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최양업 외의 매스트르, 장수, 부띠니콜라, 뿌르띠, 페롱 등의 6명 神父가 입국하는 길이 띄웠고, 1846년 병오박해 전후로 불탄서 함대의 侵襲, 성모성심회 창설, 배론신학교 설립, 최초의 성직자 회의 개최 등 정말로 봄비 속의 솟아나는 신앙의 새싹이 날로 새로운 세상의 나날을 맞는 듯 했다. 김대건(안드레아) 神父는 경기도 은이公所에서 최후의 미사를 집전한 후 한국인 최초의 신부답게 국내에서의 傳敎활동 2년 남짓한 시간에 걸쳐 해주감영으로 압송되었다가 서울 새날터에서 처명 殉敎되었다.

신앙의 싹은 멈추지 않고 자라났으나 결국, 성직자들과 신자들에 대한 정부에

16) 살계서, pp. 13-14.

서의 탄압정책이 중지되지 않아 약간의 신앙자유가 펼쳐지는 것도 잠시일 뿐, 조선교회의 파멸은 보기만해도 딱한 처지였다. 모든 敎友들은 자신의 신앙을 일단 숨겨야 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덜 불편하여, 자꾸 이사를 다 나아만 했다. 때로는 미신을 숭배하는 이웃과도 어울려야 했으며, 천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도 남 앞에선 안할 수가 없었다. 현실의 인간적인 면에서만 생각한다면 교우들의 처지는 더욱 괴로운 사정이었다. 할 수 없이 갈라서 사는 부부, 굶주림을 없게해 주려고 부모걸을 떠나 사는 아이들, 뿔뿔이 헤어진 형제 자매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관청 포졸들에게 지명된 가톨릭 교우들은 가족과 이웃을 모두 버린 채 호랑이와 이리떼가 서성이는 산중에서 한 채의 인가도 없는 그곳에 숨어 움막집을 꾸려 비바람을 피한 권인 신세로 연명하는 꼴도 감수해 나갔다. 진짜, 화천만 생활로 2, 3년 동안을 주기적으로 옮겨 가며 사는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랑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념은 대부분 흔들리기 쉬웠고, 몇몇 대단한 믿음을 가슴에 새겨둔 이들만이 끝까지 버티면서 가톨릭 전교에 한 톨을 하다가 마지막엔 감옥에서 때맞고 죽어야만 했던 일이 우리의 신앙선조들의 殉敎史 피의 역사 울음인 것이다.

제6차 병오박해가 시작하며 김대건 신부는 잡혔고, <기해일기>를 엮은 현석문(가톨릭)을 비롯하여 교회 지도자급 신자들이 속속 붙잡혔다. 기해박해의 주동자였던 풍양조씨 일파들은 몰락되었다. 이러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다. 밖으로부터 불란서 함대가 우리의 해안에 나타나 정부 당국자를 놀라게 한 것이다.

김대건(아드레아) 神父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거룩한 일생을 마쳤다. 김안드레아 신부 서품을 준 페레올 主敎가 파리 외방선교회의 신학교장이었던 바랑 神父에게 쓴 편지글을 소개해 둔다.

이 젊은 조선인 신부를 잃은 것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아픈 타격이었는데는 쉽게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천국에서의 행복을 생각하여 그를 잃은 슬픔을 겨우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동포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제 성직에 오른 사람으로서, 그것도 오늘까지 오직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 교육에 의하여 동포를 멀리 초월하는 이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렬한 신앙과 진지하고 성실한 공경과 놀랄만한 웅변의 사람으로서, 한번만이라도 그와 접촉한 교우는



복자 김대건 신부와 그의 친필

곧 존경과 사랑을 받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성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
의 희망 이상으로 훌륭히 성취하며, 만일
그대로 몇해 동안만
실습을 계속하였더라
면 지극히 유능한 신
부가 되어, 조선 사람
인지 그렇지 않은 지
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것
입니다. 그에게는 어
떠한 일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
다. 그의 성직, 그의
태도, 그의 학식이 총
분히 성공할 것을 확
약하여 주었습니다.
교회의 오늘날의 상태
에 있어서 그를 잃게
된 것은 실로 큰 슬픔
이며 거의 갖기 어려
운 불행입니다.¹⁷⁾

현종이 퇴위한 후 철

종이 등극한 후의 교회발전에는 더 없이 자유로웠던 시절이었다. 1850(철종11)년 제7차 庚申박해 사건이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가 몇년동안 지속되었다. 경신박해의 9개월간 박해가 있었다고 하나 랑드르, 조안노, 리델, 팔

17) 윌리엄, 『한국천주교회사』 上, pp. 485-486.

래 4명의 외국인神父들이 入國할 수 있을 만큼 한국내의 정세는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 속속 입국한 또다른 5명의 신부였던 오메르르, 유앙, 브르뜨니에르, 플유, 도리 신부의 국내 잠입과 전교활동은 가톨릭 신자들의 급속한 증가를 보게 된 시기로 볼 만하다. 당시 신자수는 2만명을 육박하는 실정이었다.

오래전에 입국한 다블뤼(1845) 신부와 최양업(토마스, 1849) 신부의 활동은 적치말하였고, 뒤미처 들어왔던 10여명의 외국인 신부들로 인하여 전교활동은 조직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관리 중에 신명순 우포도대장과 임태영 파포도대장 개인 판단에 따른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구속 사건이 있었다. 이를 庚申年 박해(제7차)라 기록되어 있다. 파잉 단속에 열을 올렸던 두 포도대장이 파직된 후에 잠시이긴 하나 종교의 활동은 다소 자유스러웠으며, 참아들었던 교우들도 풀어줌으로써 철종 때의 형벌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 수령들의 판단에 따라 그 차이는 다소 없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中國 대륙에서는 또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영국군에 의한 북경 함락과 함께 국내에서도 民亂 즉, 東學운동이 일어나면서 철종이 숨쉬한 틈을 이용한 궁중세력 사이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여 온건적인 時派가 몰려서고 그 자리에 천주교 복음을 격대시키는 僻派 세력들이 고관자리에 오르는 불길한 자리 이동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베르네 主敎가 각 지방별로 신부를 배치하여 꽤 조직적인 전교가 퍼져 나가고 있을 즈음에 이같은 국내외 정세는 실로 불길함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1865년 12세의 高宗이 등극함과 더불어 그의 아버지 대원군의 10년 동안 섭정이 곧바로 가톨릭 최대의 제9차 丙寅박해를 들고 온 시기였던 것이다. 조두순을 앞장 세워 가며 국내의 가톨릭 敎友라면 무조건 수감시켜 고문하고 처단하는 살벌한 정세로 돌아갔다. 이웃한 淸나라에서도 천주교 탄압은 똑같았으며, 전국의 儒生들 까지 가세하여 천주교 신자에 대한 활동을 비난하는 건의가 잇따랐고, 민란은 끝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남으로써 이 모든 민심의 흉흉함을 천주교인 탄압에 쏟도록 한 것 같다.

한 때는 러시아인의 來侵을 천주교인에게 협조해 보려던 기미도 없지 않았으나 러시아인이 물러나게 됨으로 하여 결국, 조정은 청나라의 박해에 편승하기라도 하듯이 천주교인 박해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1866년 정초부터 심상치 않았던 예감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베르네 主敎 집에 포졸매가 침입하여(2월 23일) 주교를 포박하여 금부로 이송시켰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하고 관장이 물었다. “궤이오”(베르네의 조선식 이름). “조선에 무엇하러 왔소?” “영혼들을 구하러 왔소.” “이 나라에 온지 몇 해나 되었소?” “10년이 되었소.” (중략)

이튿날 27일에 또 신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원군도 그의 장남과 함께 나와 있었다. “당신 나라는 어떤 곳이요.” “프랑스요.” “조선에 어떻게 왔소?” “배로 왔소.” “누가 데려왔소?” “홍봉주요.” “조선에 신부가 몇 명이나 있소?” “9명이요.” “당신의 집 주인은 누구요?” “홍봉주요.” “몇 사람이나 가르쳤소?” “많이 가르쳤소.” “그 사람들이 어디있소?” “사방에 있소.” “신부 9명은 어디에 있소?” “나는 모르오.” “당신더러 떠나라고 하면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겠소?” “나를 강제로 데려가지만 않는다면 안가겠소.” “배교하시오!” “천만의 말씀이오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종교를 전하려고 왔는데 나더러 배반하라고 하다니요.”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배를 타고 고문을 당할 것이요.” “바음대로 하시오. 이제 쓸데 없는 질문을 그만 두시오.” 위협에 이어 과연 고문이 뒤따랐다.¹⁸⁾

형세는 급박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베르네 주교에 이어 브르뜨니에르, 불리의 도리 등 9명 신부는 모두 박해령에 따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다른 이는 몇몇 病死한 이를 제외하곤 병인년 그해 말에 3명이 탈출하여 조선땅 안에는 단 한 사람의 목자도 없게 되었다. 1896(병인년)부터 2년 사이에 국내의 순교된 교우는 무려 2천여명이나 되었으며, 그 후 10여년 사이에 또 8천여명이 殉敎한 것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이 숫자에는 산속에서 굶주림과 고생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제외된 기록이며, 어디에도 정확한 기록이나 처형에 관한 일지가 없으므로 알 수 없는 위안길 역사로 오리무중일 따름이다.

당시의 敎亂의 경과를 적은 『한국천주교회사』 하권에는

-廣州府 돈도리에서 불유(徐) 신부를 잡고 용인 陽谷里에서 도리(金) 신부를 잡다.

라는 두 줄의 기록이 보인 뿐, 다른 교회사 연구서에는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이 전무하다. 다만, 南漢山城 인근의 龜山聖地와 天眞菴 일원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교우들의 박해가 있었을 것이 心證에 근거할 뿐, 자료가 없어 상세한 언급을 못하게 된다. 최근 발간된 『城南市史』 종교편의 가톨릭 논술에서도 천주교가 언제,

18) 『한국천주교회사』 pp. 334~335.

성남에 전래하였는 지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사 최초의 교리연구회가 광주군 명자산 주어사 및 천진암에서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광주군 일원은 그 어느 지역 보다 천주교 전교의 최 우선 고장으로 추측하게 될 뿐이다. 가톨릭 박해 8차례 중에 남한산성 관아와 연관된 때는 1차(신해박해), 2차(신유박해), 5차(기해박해), 8차(병인박해)의 네 차례였다. 특히, 5차(기해년)와 8차(병인년) 교난의 꾀박 중에는 남한산성 내의 廣州府留守 감옥에서 이 고장 일원의 수많은 교우들이 수감되었고, 또 처형된 일이 있었음을 최근의 남한산성 성지개발 위원회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톨릭의 순교역사에 있어 南漢山城 연구 역시 본격적인 검토가 본인 외에 계속하여 있어야 할 일이다.

무서운 시련의 고통은 꽤 오래였다. 길게는 조선교회 창설의 1784년으로 부터 한미, 한영, 한독, 조약체결의 1882-1883년 까지 순교의 피 흘린 1세기 동안이 구원의 열매를 거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움을 받고 질타를 당하면서도 정의를 위한 박해의 관과 풍풍이 앞에서 생명까지도 바친 그 무수한 신앙적 조상들의 포도나무 새순 줄기는 짓밟혔어도 끝내 짓밟힌 것이 아니라는 게 가톨릭의 승리 깃발인 절이다.

4. 남한산성 聖地 개발 현황

성남시의 옛 관할지였던 廣州郡 中部面 山城里야말로 한 고을의 역사만을 담고 있지 않다. 한국의 한강권 서울의 방어를 위해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새지로서 관리되어 온 고장이며, 오늘날에도 경기도의 도립공원으로서 역사적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은 산성지역이다. 또한, 호국 승려들의 애환이 서린 가운데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그리고 구한말의 의병 격전지로서 이루 헤아려 말하기조차 어려운 만큼 슬한 애환이 묻혀있고, 그 어느 지역 보다 소중하게 가꿔나가야 할 거룩한 땅임을 후손 앞에 손짓이라도 하는 가 싶다.

때마침, 천주교 수원교구 관할의 성남지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시작한 '남한산성 순교자 현양대회'를 기점으로 한 聖地개발 추진 결의식이 1995년 10월 15일에 대대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전혀 알지 못하던 이야기가 신앙인은 물론, 각계 각층의 주민들에게 까지 널리 인식될 수 있었다.

그날의 결의식 선언 5개항 중에는,

1. 우리는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신 자랑스런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본받고,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을 굳게 다짐한다.
4. 우리는 순교자들의 열과 냉이 서려있는 이곳 남한산성을 거룩한 성지로 개발하여 주님께 봉헌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등의 선언문이 운집한 수많은 교회인들 앞에서 선포되었다. 성남지구의 차원을 넘어선 행사로 진행된 그날의 행사 전단지에서 東門 오른쪽에 있는 수구문은 원래 하수구가 흐르는 실개천이 통과하는 성곽 밑의 작은 문이었는데, 병인박해 때 많은 순교자들을 한꺼번에 처형하고는 이곳에 마구 내던져 버려짐으로써 산검승의 밭이 되게 하였다는 사진 설명 문구는 잊혀진 역사에의 바로 알기가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천주교발상지 천진암성지 안내도



한편 산성내의 성지개발 착수에 앞서 홍보 되어진 옛날의 박해 지점을 안내하는 순례 약도에는 옥터, 포도정, 연무관, 순교자의 효수터, 수구문, 신자 처형장소 등이 밝혀짐으로 하여 새삼, 가톨릭 교우들의 신심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후로 성지개발에 따른 기금조성이 각 성당마다 모금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머지 않은 장래에 남한산성은 한낱, 주말 또는 사계절의 휴양지로서만이 아니라 숭고한 옛 조상들의 값진 역사의 교훈장으로도 가꿔야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성요셉출판사에서 펴낸 칼라 화보판인 『한국천주교』 책자 속에는 남한산성 소개에서,

모방 神父와 유발제 神父를 집에 은거케 하여 조선말과 풍습을 배우게 했다는 이유로 순교 치명한 김상우(안토니오)의 고향 龜山에 있는 교우들을 잡아와 처형하였고, 단내의 정은(바오로)등 수백여명의 교우들이 무참히 순교 치명한 곳이다.

또한 이곳에 최초의 순교자로는 신해년(1791) 때 치명한 한덕운으로 그는 정약종의 전년밤에 살았던 교우였다. 특히 남한산성에서는 참수나 교수형 외에도 얼굴에 물을 붓고 창호지를 덮어 씌워 절식케 해서 죽이는 白紙사형을 쓰기도 했으며, 인근 고을에서 오랏줄에 묶여서 동문을 통하여 들어온 교우들은 시체가 되어 동문열 水口門으로 내던져져 동문밖 계곡에는 시신이 산적하였고, 흐르는 냇물이 되어 흘러 내려 갔다는 口傳이 전하여 온다.¹⁹⁾

성인은 위대하다. 굳센 믿음을 피로써 씨 뿌린 성인들은 참말로 위대하다. 한국 가톨릭 2세기 동안 참혹한 수난사 1세기에 걸친 1만명 이상 殉敎者 그 누구도 위대하지 않을까마는 하느님의 충실한 표징자로서 피로 증거한 聖人들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모두를 알 길 없는 전국의 성지마다 몇 행력의 이야기조차 남기지 못한 채 피를 뿜은 이름 그대로의 無名 殉敎者가 엄청나게 많다는 게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가톨릭(天主敎)의 초창기인 제1차 辛亥年(1791) 박해 이후 8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殉敎史를 팔기 넘치게 배워 나가기 위해서라도 굳이, 올 해만이 丙寅박해(8차, 1866) 130주년이라 하여 순교자 현양대회를 각 聖地마다 펼치는 건 행사를 위한 걸치려에 그치지 쉽다. 1차 박해 이후 8차 박해가 간헐적으로 있 기까지의 각 관련있는 성지와 성인들의 후손, 그리고 각 성당의 신자들은 옛 선 조 무명 순교자를 위한 기도생활이 실제로 지속되어 가야 할 것으로 본다.

南漢山城 순교 역사 하나만 생각해도 이제 현양대회 수준도 못 미치는 성지 개발과 기초적인 자료정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1-2차에 연루되어 치명한 순교자 박중환, 한덕운, 한덕원, 임희영, 정종호, 이중배, 정순매, 최창주 등 남한산성내의 廣州留守 관할지역이었던 인근의 이천, 양평, 여주, 용인 지방의 순교자 인원은 정말 무시하기 이를대 없다고 생각한다. 5차 박해 때의 金星禹(안토니오)와 이문우(요한) 聖人의에 그의 권인척 순교사는 참혹한 제8차 박해 시기의 鄭慰(바오로), 이중여, 이화실, 정여삼, 홍성국, 김윤심, 기명희, 김차희, 김정희, 김윤희, 심길녀, 최지현 등의 이름 석자 외엔 더 이상 찾지 못할 형편이

19) 한국천주교 성지2, 성요셉출판사, p. 186

되었다.

굳이, 남한산성내 순교 행적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와 광주군, 하남시 일원의 가톨릭 순교사는 몇 가지 사업전개에 그칠 일이 아닌 것이다. 역사는 언제난 후대인에게 교훈이 되고 살아 나가는 길이 된다고 생각할 때, 성남시 옛날의 같은 지역이었던 광주군 남한산성에서의 聖地개발사업은 정성껏 완성되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한산성 성지 개발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1, 2, 5, 8차 박해때의 순교자는 어림잡아 300명 정도라고 소개되어 있고, 이어서 23명의 성명과 세례명, 출신지, 순교년월일, 연령, 형벌종류별 소개가 되어졌다. 이밖에도 성명만 소개된 이가 22명 뿐이다. 하므로, 대부분의 순교 선조들은 말그대로 無名 殉教者일 뿐이다. 聖地 개발의 근황을 그대로 인용해 둔다.

수백 분의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하신 남한산성은 성지 중에서도 중요한 성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의 잘못으로 이제까지 잊혀져 왔었고,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지도 못하여 남한산성에 순교하신 분들은 아무도 성인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성지개발에 힘쓰고, 자료수집과 정리에 매진하여 선조들의 고귀한 순교정신을 본받고 후손들에게 이어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시복시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수원교구에서는 남한산성의 땅을 130여평 구입한 바 있는데 그 주변의 땅 2천여평을 우선 구입하여 성지개발에 착수하려하고 있습니다.

땅 한평에 15만원인데 성지개발을 위해 땅을 불현하실 분은 성지 개발위원회로 대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대합니다.²⁰⁾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가톨릭 순교 성지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남한산성 聖地 조성은 우리에게 의해 이 시대를 넘기자 말아야 할 일이다. 수천년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질적인 문화풍토로 인식된 가톨릭 전파의 모진 박해 역사는 지금껏 103위 聖人 배출로 멈출게 아니다. 상고시대는 제천 사상에 의한 원시 토맹 의식이 선조의 생활에 거룩한 儀禮였다고 한다면, 3국 이후의 통일신라와 고려때는 불교에 의해 민족정기를 복돋아 왔으며, 조선 왕조에 강박했던 유교정신은 그

20) 『남한산성 성지』, 천주교 수원교구 남한산성 성지개발위원회, p. 3.



수구분

당대로서는 더없는 국민적 단결과 인간 본래의 생활 철칙으로 연구되고 추앙받았던 점을 상기해 볼 때에, 산업시대 도래에 의한 서구의식의 그리스도 정신은 개화기 이후의 산업발전에 적절한 信心으로 현대인 삶의 진리로 통하고 있다.

성남시 일원의 廣州郡은 특히 가톨릭과 유서가 깊은 고장임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다. 남한산성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한강을 배경으로 한 首都圈에서 요새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온 곳이며, 이 나라가 외세의 침탈이 있을 때 바다 방어와 공격 거점에 이용되며 역공세에 의한 치욕스런 사건의 땅이었던 데다, 가톨릭

덕의 역사에도 이곳 남한산성은 은밀한 신앙인들의 구속, 처형장으로 서울의 용산구 새남터와 마포구 절두산과 같은 순교 성지인 것이다.

1963년에 木原교구청이 설정된 이후 경기도내의 여러 시군에서는 가톨릭 역사의 현장을 발굴, 조사하는 일이 두드러졌다. 지역 별 성당수와 신자수 배가 운동 못지 않게 힘써온 일이 광주군 회촌면 우산리 500번지 鷲子山 기슭아래의 천전암 1백년 大役事 성당신축을 위시하여 주문모 신부 외에 7명의 순교자 윤유인, 지황, 최인길, 윤점해, 윤운해, 윤유오, 정광수 시복 청원 사업이 추진되고 아울러 남한산성 성지개발사업 또한 착수된 셈이다.

가까운 행자산 아래 세워질 天眞庵 대성당은 2079년에 가서야 완공될 장구한 사업이라고 한다. 총면적 12만평 부지위에 성당부지 3만평, 동서 길이가 2백 미터, 북 두께 3미터, 한변에 3만 5천명이 앉아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구한 큰 공사에 비겨 볼 때에 남한산성 내의 성지개발은 국내의 여러 성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되면 충분할 일이지 성남지구내 전체 본당의 참여만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III. 맺 는 글

지금까지 지역성에 애정을 쏟다 보니 논리에 비약이 없지 않았으며, 향토문화의 옷자리에 놓일 만한 종교분야에 있어 가톨릭 한쪽에 치우친 감도 스스로 인정해야겠다. 필자는 다만 남한산성이라는 현재의 도립공원 자연경관이 한낱, 국민휴양지만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불만을 가져 보면서 더구나 역사상의 시대별로 아주 중요한 군사상 방어시설로서만 널리 상식 수준으로 알려진 남한산성의 총체 중에 그 일부인 점을 재인식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784년 가톨릭 교리서적 수입에 의한 傳敎사업이 자생적으로 퍼져 나간 한국 의 가톨릭은 1880년대 이후의 開港이 본격화 되기 까지 국가 통치세력과의 충돌은 피치 못할 박해의 연속된 역사였다. 따라서 목숨을 바쳐온 순교자들이 무수한 가운데 우리 성남시 소속의 광주군 일원 모든 신앙인들의 박해가 바로 남한산성 안에서 자행되었으면서도 그 자취가 가려졌다는 일이 심히 가슴저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이같은 관점을 토대로 한 우리 성남시 옛 관내였던 남한산성 안에서의 가톨릭 순교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밝혀 본 성과는 종교 활동의 첫 試驗임을 말



100년 계획 천전암대성당 터 축성

해 둔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 기념탑 하나 세우지 못한 성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산성의 성지 개발과 자료조사와 연구사업은 이제부터 초기단계에 해당한다.

어찌됐거나 지난 역사의 자취가 밝혀진 현장위에 우리는 더욱 절실한 신앙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체험하면서, 남한산성 어느 한 지대에 문화사적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聖地를 세워야 할 것이다. 선조의 신앙심이 발휘되었고, 하느님을 따른 삶이 전개되었던 곳이기여 아낌없는 관심과 고귀한 聖性を 느낄만한 또다른 일면의 사적지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선종하는 은혜를 얻은 순교자 聖者들의 결심은 이땅위에 영구히 기록되어 증언할 이야기로 남아져야 마땅하리라. 순교자 丁若鍾의 아들이었던 정하상(바오로, 1795-1839)은 그의 대표적인 사례집 『상재상서』에서

전주교 도리를 한 집안에서 실행하면, 집안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한 나라에서 실행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온 세상에서 실행하면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 역설함으로써 종래까지의 전통화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원리를 가톨릭에서 찾으려 하였다. 성지란 곧, 이 세상 인간의 평등사상 강조, 하느님의 은총 속에 참 사람의 심천앞에 충실하고자 했던 교회의 상징으로서 온갖 부당한 유흥과 권력의 횡포앞에서 용감히 싸운 이들의 발자취인 것이다.

옛 신앙의 선조들이 역사와 문화발전에 피로서 기여했듯이, 이 시대의 우리 또한 거례의 구원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으로 성남시 울타리에도 같은 남한산성 안의 가톨릭 순교자 발자취에 거룩한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 온 거례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평화를 꽃 피울 역사를 기도하는 성전이 꾸며질 날을 서로 가뉘야 하겠다.

고달픈 생활 중에서 영혼을 달래주는 성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름조차 묻혀진 두명 순교자의 덕행이 곧, 우리앞에 닳아지도록 하면서, 줄속으로 일을 추진하게 말고 '사랑'의 큰 뜻과 문화사적지로서의 향기가 정표로 남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보다 용감한 다짐으로 앞서 간 순교 혼령이 험 남한산성 산 기슭밑의 성전에 옷깃을 여미고 참배할 수 있게 꾸며지길 제안해 둔다. 단순히 건물이나 짓고 몇 가지 계단위에 돌 덩이나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의 긴 역사 숨결을 느끼는 문화 유산으로의 성지개발, 순교정신을 새롭게 묵도하며 순교선조의 교훈을 듣는 증거의 현장 숨결이 후대인에게 느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聖詩> 『별빛이여』 한 춘섭(요한) -

거룩한 이야기로/ 술향기 풍겨 오고/ 이땅위 지켜주던/
빛이여 별빛이여/ 새 하얀 순교 성자들/ 노래하며 따르리라/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 GIS 분석을 통하여

* 金 昌 煥

<차례>	
I.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I. 남한산성의 지형 및 지질 개요 1. 지형 2. 지질	III. 지형환경 분석 1. 항 2. 경사 3. 고도 4. 토지이용 IV. 결 론

I. 서 론

1. 연구목적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이 지표면을 주된 무대로 이루어지는 이상, 지표면의 형태 즉 지형과 그 성상(性狀)은 주요한 환경인자로 생각해야만 한다. 지형도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형과 토지이용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지형이 거주지의 분포나 농업적 토지이용에 어떠한 제약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즉, 기복이 큰 산지나 급경사의 사면은 농경지로서도, 거주지로서도 평야나 완만한 사면에 비해 입지조건이 불리한 점이 많다.

과거 고대로부터 축조된 산성 또한 지형 조건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천연의 요새지라 할 수 있는 남한산성 또한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안다.

그러나 남한산성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지형 자체만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연

* 江原大 教授

구된 바는 아직 없다. 따라서 남한산성 연구에 있어서 지형환경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남한산성 내외의 지형을 GIS 기법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남한산성이 어떠한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GIS 기법을 사용하였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지리 자료를 응용한 정보 시스템의 한 형태로서, 지리적으로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그리고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의 hardware, software, 지리 자료 그리고 인력 자원의 통합체를 의미한다. 즉, 지표면에서의 어느 장소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GIS는 지도의 제작이나 지도의 관리 그리고 지도의 출력 수단으로서 사용되면서 공간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자료 구조이고 또한 이러한 공간 자료를 지리 자료의 분석과 모델에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상(事象)과 그러한 사상들간의 관계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시스템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Software로는 Microstation V5.00.00(CAD), AutoCAD R12(CAD), IRASB2(On Screen Digitizing) for Microstation, GEOVEC(Vector Line Tracing) for Microstation, IDRISI for Windows 95 등을 사용하였으며, Scangraphics CF 1000/44 Scanner와 IBM Pentium PC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DATA의 입력 자료는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지형도 수원 도폭(007, 008, 009, 017, 018, 019) 6장을 이용하였으며, 총 입력 면적은 15.75km²이다.

좌표 기준은 Min X = 214,500, Max X = 219,000, Min Y = 440,000, Max Y = 443,500이며, Grid는 10m × 10m Cell로 정하였으며, Column 수는 450개, Row는 350개로 설정하였다.

Data 입력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한편, 남한산성 내의 지형 특성을 살펴기 위해서는 주변 지형과의 관계도 필요한 관계로 단순히 남한산성만 입력하지 않고, 일정 구간의 주변 지역도 포함하여 입력하였다.



그림. 1 GIS 분석을 위한 DATA 입력 흐름도

II. 남한산성의 지형 및 지질 개요

1. 지형

(1) 남한산성의 지세 및 규모

남한산성은 서쪽으로 청량산(淸涼山, 479.9m)과 동쪽으로 별봉(515.2m) 그리고 남동쪽으로 한봉(汗峰, 414.0m)을 연결한 사각 제57호로 지정된 산성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동경 127° 11', 북위 37° 28')에 속해 있으며, 일부 지역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속해 있다.

성남시와는 시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산성과 함께 도성을 지키던 남부의 산성이며, 지금은 동·서·남·북 문루와 장대(將臺), 돈대(墩臺), 암문(暗門), 우물, 보(堡), 누(壘) 등의 방어 시설과 관해(官廩), 군사훈련 시설 등이 있다. 이곳에는 백제 초기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온조왕대의 성으로도 알려져 왔다.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壯長城), 일장성(日長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로서 현재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라고 여겨져 내려온다.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일장산성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둘레가 3,993보이고 성내에는 군자고(軍寶庫)가 있고 우물이 7개인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또한 성내에 논과 밭이 124결(結)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수를 본 것은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李适)의 난을 겪고난 1624년(인조 2)이다. 그 뒤 계속적인 수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수현황을 보면 1964, 1965년에 동문, 1966년에 연무관과 현길사, 1967년에 지수당과 영월정, 1969년에 남문, 1972년에 변화단청(翻瓦丹靑)을 보수해오다가 1971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석성 성곽과 사적이 복원되었다.

또한 남한산성은 서울 분지를 끼고 동쪽의 지맥인 수락산, 불암산과 동남으로 이어지며, 서울 북쪽의 북한산성과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로서 성남시 북동쪽에 있다. 삼국시대로부터 천연요새지에 산성을 쌓아 산성의 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남한산성은 백제 초기에는 한산(漢山)으로 표기하였다. 신라 때는 남한산으로 불렀다가 조선시대 광해군때는 남한산성으로 불렀다. 산성을 쌓고 일장산 또는 주장산으로도 불렀다. 이것은 산의 사방이 평지로 되어 밭보다 낮아 밭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남한산성도 이에 따라 주장산성이라 불렀다. [세종실록지리지] 광주목편에는 일장산성으로 되어 있다.

673(신라 문무왕 13년) 8월에 쌓은 한산주 주장성의 옛터에 1624년(조선 인조 2년) 12월 축성할 당시 승군을 창설하고 8도 도총섭벽암 각성으로 감독하게 하였다. 승병을 11개의 사찰에 주둔시켜 수성(守城)에 필요한 일체의 훈련을 하던 호국 유적으로 12년 후인 1636년 12월 후금군(後金軍)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가 이곳으로 파견하여 적의 포위 속에서 항전하다가 치욕적인 항복을 한 성곽이다.

암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은 “남한산성에 가서 보니 지세가 매우 좋고 여러 산을 묶어 세운 듯한데, 성은 반공(半空) 위에 떠 있어 밖에서는 성이 있는 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성 가운데에는 돌과 전답이 있고 사람도 역시 살고 있다”¹⁾고 하였다.

남한산성의 지세는 서·남·북쪽은 산세가 높고 가파르나 동문쪽은 낮은 계곡으로 이어진다. 이 계곡의 둘은 성 안의 동·북·남에서 솟아서 다시 동쪽 우천으로 흘러나간다. 유성룡은 “남문과 서북쪽은 모두 억길(億丈)이 되는 험한 곳이니 반드시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남문 동쪽에서부터 수구에 이르는 반마장(半馬場) 가량의 곳이 조금 평탄하고 낮다고 하니 성역(城役)은 마땅히 이곳에 전려해야 한다”²⁾고 하였다.

남한산성은 위에서 언급한 신라 문무왕 12년 8월 조의 기록과 또 다른 기록³⁾에 의해 주장성→일장산성→남한산성으로 명칭이 바뀌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산성의 둘레는 『지리지』에 3,993보와 『여지승람』의 86,800척 간에 오차가 있는데, 이는 『여지승람』에 기재된 둘레의 척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길이는 23,600척(7km)이 넘는다.⁴⁾ 문무왕 수축 이전의 남한산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나 비탈시에 대피한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후인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 10월 홍건적 10만이 삭주에 침입하여, 12월 개경을 함락하자 공민왕이 북주(안동)로 파천하는 사태 속에서 11월 무진(戊辰)에 광주에 수레가 머물렀을 때 이민(吏民)이 모두 산성으로 올라갔다 하는데⁵⁾ 이 산성은 이성산성이 아니라 이 주장산성(盡長山城) 즉 남한산성일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신라 때 축성된 이래 조선에 이르기까지 폐성된 일이 없이 계속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산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쪽 끝 벌창, 서쪽 끝 청당산, 남동쪽 끝

1) 柳成龍, 軍門雜錄, 卷十六 乙未 十一月初八日

2) 上同書 同卷 丙申 十二月 十七日 “修築廣州南漢山城移文”

3) 『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四十八 地理 廣州牧 “日長山城 在州治南高陵 周圍三千九百九十三步 內有軍資庫 井七 遇旱不渴 ... 三國史云 新羅文武王 始築漢山盡長城”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六 廣州牧 山川條 “日長山 在州南五里 一云南漢山” 上同書 古跡條 “日長山城 即新羅時盡長城 文武王所築內有六井及溪 周八萬六千八百尺 高三十四尺 石築”

4) 大正五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p.82

5) 『高麗史』世家 恭愍王 十年 十一月 戊辰

한봉 등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둘레 약 1.08km의 거대한 내외 성곽으로, 그 평면형이 동서로 긴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성 안의 지형은 능선의 성곽을 경계로하여 북쪽과 서쪽의 바깥쪽은 급경사를 이루어 험하고 가파르며, 안쪽은 해발 300m의 낮은 분지로서 완만한 경사를 이룬 고로봉(槲櫨峰) 모양의 천혜의 요새지이다.

동쪽 성곽은 본성과 외성이 이어지는 부분(제4호 암문이 있는 곳)을 최고봉(해발 504m)으로하여 능선을 가로질러 계단식으로 쌓았다. 또 그 남쪽은 서남쪽을 빼고는 경사가 너무 완만하여 수비하기에 불리하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해 3개의 용성(甕城)을 축조하였다. 성곽의 전체적인 형태는 성곽의 둘레부분이 높고 험하며 중심 부분이 낮고 편편한 분지를 이루었는데 수비에 용이하고 성 안에서의 거주가 편안하여 산성으로는 최선의 조건을 구비하였다.⁶⁾ 이렇듯 남한산성은 본성과 외성 및 용성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하나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성에는 동·서·남·북의 4방위에 4대문, 9개의 암문과 2개소의 배수문 및 5개의 용성 2개의 봉화터 등이 있다.

외성은 북암에서 한봉(해발 414m)에 걸쳐 축조되어 있으며, 본성과는 3,4호 암문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외성에는 5개의 암문과 2개소의 포혈(砲穴) 및 1개소의 배수구 등이 있다.

4장대 중의 하나인 서장대는 성 안의 최고봉인 일장산(해발 453m) 꼭대기에 있는데, 이곳은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의 몸소 수성군(守城軍)을 지휘하여 청 태종의 13만 대군과 대치하며 45일간 항전으로 버티던 곳이다. 이곳은 1624년에서 1626년(인조 2-4년) 사이에 축조된 남한산성의 총본부격인 장대로서 산성의 서편 일장산정(日長山頂)에 위치하여 서장대(西將臺)라고 하며 일명 수어장대라고도 한다. 수어장대란 그 요새의 발어를 맡은 수어사(守禦使)가 지휘 명령하는 곳을 말한다. 해발 453m의 고지에 우뚝 솟아있어 지형이 고결하고 요망(瞭望)이 활달하기 때문에 성내는 물론 인근의 양주(楊州), 양평(楊平), 용인(龍仁)군 등의 일부를 조망할 수 있고 서울과 한강을 한 눈으로 내려다 볼 수 있다. 인조 14년(인조 1636) 병자호란 때 인조가 친히 수성군을 지휘하면서 청태종의 13만대군과 대치하고 45일간 피나는 항전으로 버티던 곳이다. 이곳은 남한산성의 축조와 더불어 건립되었으며, 1751년(영조 27년) 유수 이기진이 왕명으로 서장대 위에 2

6) 『南漢山山地表調査報告書』(漢陽大學校博物館叢書 第15輯), 1985. 4. p.30.

충의 누각을 세우고 바깥 현판에는 「수어장대(守禦將臺)」, 안쪽 현판에는 「무망루(無忘樓)」라 썼다. 영조가 이 무망루를 세우게 된 동기는 병자호란 때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가 오랜 억류 생활을 한 효종이 청나라에 대한 분을 못이겨 이를 길고 속을 썩인 복수심에서 그 자리에 누를 세우고 잊지 말자는 무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 데 있다. 그래서 후대의 영조와 정조 임금이 효종의 남은 한을 마음에 새겨 여주의 효종 영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곳에 들려 무망루에서 선왕의 유한을 되새겼던 곳이다.

용성은 본성의 물레여 설치된 3개소와 성곽 남쪽에 3개소(편의상 1·2·3호라고 칭함). 성곽의 동쪽 장경사(長慶寺) 동쪽에 제4호 흥성인 신지용성(信地甕城)과 그 북쪽에 5호 용성, 연주봉용성 등 8개소가 있다.

성곽을 축조할 당시 성곽의 내부에는 유사시 임금이 피신하여 임시로 버무를 행재(行在) 즉 행궁(行宮)을 비롯하여, 종묘(宗廟), 사직(社稷), 관아(官衙), 옥(獄), 객사(客舍), 종각(鐘閣) 등과 편에 종사하는 관리들과 식구들이 살던 민가 등 수백동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621년(광해군 13년) 6월 후금을 방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비변사에 명하여 축조되었으며, 후금의 위협과 1624년(인조 2년) 1월 부원수 이괄의 반란이 동기가 되어 12월 충용사 이서에게 대개증축(大改增築)을 명하였다. 공사 시작과 함께 공역을 주로 맡은 승병을 주둔시켜 수성에 필요한 훈련을 했다. 이때 승병 주둔을 위해 전부터 있던 망월(望月), 옥정사(玉井寺)와 새로 국청(國淸), 천주(天主), 개운(開運), 동림(東林), 동단(東壇), 한흥(漢興), 장경(長慶)의 7개 사찰을 장건하였으나, 이 9사(九寺) 중 지금은 장경사와 국청사만이 남아 있다.

이곳은 축성에서 수성에 이르기까지 승도와 승병이 관여하였고, 성안의 9사에 주류하다가 일조유사시에 국방의 일선에 나선 호국 불교의 현장이다. 이 산성은 조선 근대의 산성 중 가장 완비된 것 중의 하나로 몇차례의 뼈아픈 국난의 경험을 겪으면서, 전쟁의 실지 경험에 기초하여 중축 보수한 곳이 많다.

남한산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異論)이 있다. 성남시지에는 둘레가 약 8km, 면적 159,85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서적에서는 본성 성곽의 둘레가 8km, 성곽의 높이가 3~7.5m이며, 성 안의 면적은 약 528,453㎡로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⁷⁾ 이 기록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옛 기록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曹長城), 일장성(日長城)을 쌓았는

7)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코리아세일드, p.283, 1990.

때 이 곳이 현재의 남한산성이 위치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바 그 둘레가 4,360보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산성의 둘레에 대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일장산성이라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3,903보, [여지승람]에 86,800척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들 간에 오차가 있는데, 이는 [여지승람]에 기재된 둘레의 척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이와 같이 남한산성의 규모 즉, 그 둘레와 산성 내부의 면적에 대해 기록마다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은 하지 않았지만, 1:5,000 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GIS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산성 내부의 면적은 2199983.5000m²(약 2.2 km²)이며, 그 둘레는 웅성을 포함하여 10841.5747m(약 1.1km)이다.

(2) 남한산성의 지형적 특징

우리나라 중부 지방은 중생대 백악기 이래에 평탄화되었다가 신생대 제3기 중기에 이르러 요곡용기가 진행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형적 윤곽을 갖게 되었다. 요곡 용기의 축은 동해쪽에 치우쳐졌다. 그리하여, 태백산맥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동해 사면은 급하고 서해사면은 완만한 이른바 경동성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요곡 용기 이전의 지형, 즉 제 3기 중기 이전의 평탄면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곳곳에 널리 남아 있다.

오대산에서 태백산에 걸친 지역에는 해발 900m 이상의 고도에 300m 내외의 소기복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요곡용기 이전의 평탄면을 대표한다고 해석되는 이러한 소기복의 지형은 고위평탄면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그러한 침식면이 화강암·편마암·편암·석회암 등 다양한 암석에 걸쳐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위평탄면은 기복이 완만하고 토양층이 두꺼워서 과거에는 화전으로 많이 일구어졌고 교통이 편리해진 오늘날에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고령지 농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오대산·발왕산·가리왕산·함백산·태백산 등은 고위평탄면상의 고립 산봉우리들이라 해석되고 있다.⁹⁾

고위평탄면은 태백산맥의 분수계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서 충주 부근에서는 해발 600~700m, 남한산성 부근에서는 해발 500m 내외의 고도에서 나타나며, 개석을 많이 받아 그 분포도 줄어든다. 남한산성은 산정부를 중심으로

8) 大正五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p.82.

9) 김상호, 1973, “충주지방의 침식면지형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이공계), 제21집, pp.85~114.

남아 있는 고위평탄면을 이용하여 쌓은 대표적인 산성이다.

남한산성은 해발 500m의 금정사로 된 화강편마암의 용기준평원으로 내부는 약 350m의 구릉성 분지이다. 산성리에서 암미리에 이르는 지방도에 걸친 연변은 약 8km에 이르는 긴 협곡을 이루고 있다. 분지내에는 고산지대인 관계로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고 산성천이 유일한 하천으로 침식곡을 이루고 있다. 산성천에는 지수당과 동문안 등지에서 4개의 천이정이 나타난다.

산성의 금정사면에 비해 북부 산록에는 경사가 허부로 갈수록 완만한 산록완사면이 발달하고 있다.

옛날 남문내에는 온천이 있어서 온수곡(溫水谷)이라 불렸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유객들이 방문하였다. 특히 한양의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 산성 내에 거주하던 관리와 백성들이 그들의 절대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빼앗기는 관계로 금기야는 이 온천을 때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이 장소를 온천곡이라 부르는 것을 보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단순한 풍자로서도 재미있다.¹⁰⁾

한편, 청량산(靑凉山, 500m)은 文衡山(497m), 梅趾峰(400m), 黔丹山(542m) 등은 남북으로 主部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봉들은 북동방향으로 연결되는데 불구하고 전체적 모양은 대략 남북으로 발달된 것은 부분적으로 左手向(Left-handed)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우세한 북동능선은 지배적인 편마구조(Genissosity) 주향 방향과 일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소규모의 북서 태열은 望京臺, 國恩峰, 二拜峙 등 일대에서만 북서 주향에 따를 뿐 그외에는 대부분 부조화적이다.

북동 방향의 양측 주능선 측방으로 이어지는 소능선들은 서부에서는 북동 내지 북동동, 동부에서는 주로 남동으로 뻗은 모양을 보인다. 이것은 편마구조의 경사방향이 주로 남동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편마암체의 경사 방향 반대측에는 전방 사면(front slope)이 형성된 곳도 있어서 비대칭 산릉을 이루는데 그 실례를 본다면 옥녀봉, 망경대, 국사봉, 백운산, 검단산, 청량산 등인데 그 중 청량산이 더욱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사면을 가진 남한산성 일대 지세는 백제의 옛 도읍이었고 신라 때에도 일부 건축되었고 이조 천조 때에 축성되는 등 요새지로 이용된 적이 있었던 고사를 상

10) 朝鮮地方行政學會, 京畿道編纂: 京畿地方의 名勝史蹟, 鮮光印刷株式會社, 1937, p.161~162.

기게 한다. 이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종각의 사면을 이루고 있다.

2. 지질

이 지역의 지질은 경기 편마암 복합체로 알려진 곳으로 대부분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편마암류는 주로 호상 흑운모 편마암(Banded biotite gneiss)으로 되어 있고, 남한산성의 북서부 지역에 화강암질 편마암과 동부 한불 우측으로 우벽질 편마암이 호상 흑운모 편마암에 부분적으로 개재되어 있다.

구구성암체인 호상 흑운모 편마암은 최고기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편마암체는 현생 영년의 다른 지층보다 고도의 변성정도, 조선누층군에의하여 부정합으로 피복된 것, 화강편마암계가 삼원계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힌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시생대(Archeozoic)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경기 편마암 복합체의 연령치는 대체로 8억~20억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지역 내의 편마암의 연령치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들 암체의 연장부임이 분명하다.

호상 흑운모 편마암의 기원은 알원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 편마암의 특징인 호상 조직은 석영과 정석으로 된 明色帶(Leucosome)와 흑운모로 된 暗色帶(Melasome)의 층상 교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기계적 설명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좀더 성인본적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암색대는 명료한 편마상 층상구조(Gneissic layering)를 보여주는데 비하여 명색대는 주로 방향성이 결여된 조립질 입상 石理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花崗岩質鎂가 암색대를 후기에 주입한 것을 가르킨다. 그리하여 호상 흑운모 편마암은 호상의 혼성암(Migmatite)을 형성한 것이다.¹¹⁾

호상 흑운모 편마암의 노두는 풍화되어 대부분 신선한 면을 보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대체로 면마 구조는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많다. 그러나 산성리 부근과 중부면 오전리까지, 성남시 북부와 동부 등의 횡단선에서 가끔 신선한 노두가 관찰된다. 대표적 노두는 대체로 칠량산 일원에 널리 분포된다. 이 암체 중에 반상 변질이 함유된 부분은 칠량산 북서부, 성남시 상대원동 이배치 등지 일대에 분포된다.

이 편마암의 편마구조(Gneissosity)는 북북동 내지 북동동 주향 방향과 남동측 中高 경사각을 보이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칠량산 부근에서 55°/120°의 경사각을 보인다.

이 편마암의 지질 시대는 이때까지의 개략적 대비에 따라 시생대일 것이라고

11) 한국지질도, 1982, 분권도록(1: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pp.3~4.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의 편마암류의 시기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편마암 복합체의 지질 시대는 광역적으로 8억 내지 29억년 정도로 알려졌다. 수치화된 압력 연령은 장차 알려질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본 지역의 암상에서 보이는 고도의 광역 변성상으로 미루어보면 한국 지질 계통상 선캄브리아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암종 형성의 상대적 순서로 보아서 최고기의 암체로 판단된다.

이 편마암체는 斑狀 變晶(Porphyroblast) 함유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호상 흑운모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호상 구조는 優黑質 광물로 조성된 암색대(Melasome)와 우백질 광물로 이루어진 명색대(Leucosome)의 교호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우흑질 물질은 주로 흑운모로 되어 있고 우백대는 석영과 장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호상 구조는 암색대와 명색대 사이의 차이가 역력히 보인다. 石基, 화강암질 薄縞(0.5cm 정도), 화강암질 厚縞(1cm 정도) 등 삼자 사이에는 시간차가 인정된다. 이것은 변성 분화에 의한 分結帶(Segregation band)의 석기 줄에 예호 물질과 그후 후호 물질의 주입에 의하여 형성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편마 구조는 적어도 2회 이상 중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편마구조는 예호로 이루어진 부분에서는 흑운모, 석영, 장석 등이 암착되어 이루어 졌으나 화강암질 물질호는 거의 입상 석리만 보여준다. 사장석과 미사장석으로 이루어진 반상 변정은 예호보다 나중에 후호와 거의 동시에 형성된 듯하다. 이들은 동일하게 조립질이며 구성 광물은 석영(21%), 정장석(19%), 미사장석(19%), 사장석(16%), 흑운모(11%), 鱗狀石(4%), 백운모(2%), 柎榴石, 玢綠石, 각섬석, 흑연, 鉛石, 불투명 광물 등으로 되어 있다. 호상 구조 중에 암색대는 흑운모, 柎榴石, 각섬석, 흑연, 불투명 광물 등으로 구성되고 명색대는 석영, 정장석, 미사장석, 鱗狀石, 사장석 등으로 되어 있다. 편마 구조의 발달은 현미경으로는 뚜렷하지 않아 입상 조직에 가까울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미한 배열을 이루고 특히 흑운모는 壓延되어 엇리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석영은 압력의 영향인 과동 消光을 가끔 보이며 미사장석은 較長石을 형성할 때가 있다. 반상 변정은 사장석이 많고 미사장석도 있다.¹²⁾

화강암질 편마암의 편마상 엇리는 회미한 곳이 많아 측정하기 곤란한 때가 많지만 주위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 조화적이다. 이 편마암의 분포상은 매우 불규칙하지만 엇리는 주로 남동으로 경사되어 있다. 청량산 부근에서는 76°/120°를 나타내고 있다.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는 거의 피상 또는 입상 변정질

12) 상계서, pp5-6.

(Granoblastic) 조직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희미한 편마구조를 보이는 곳이나 때때 드물다. 구성 광물은 석영, 정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자류석, 불투명 광물 등으로 되어 있어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끔 자류석을 그것에 비하여 훨씬 다량 포함한다.¹³⁾

우벽질 편마암의 분포상은 불규칙하지만 그 엮리는 주위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의 것과 조화적으로 발달한다. 암상은 대부분 조립질 내지 거정질에 이르며 편마 구조는 희미하고 때로는 괴상에 가깝다. 대부분 화강암질이고 부분적으로 거정질인 곳에서는 偉晶岩質이다. 구성 광물은 석영(30%), 가리장석(28%), 사장석(25%), 흑운모(5%), 백운모(4%) 기타 불투명 광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⁴⁾

III. 지형 환경 분석

1. 향(向)

사면의 향은 IDRISI for Windows 95에서 "SURFACE" module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남한산성 내와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향 분포를 표 1과 표 2에 각각 정리하였으며, 이를 그래프화 시킨 것이 그림 2와 그림 3이다.

이에 의하면 남한산성 내의 향은 동향이 35.9%(0.79km²)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향이 27.2%(0.6km²)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 내의 지형은 대체로 동-남 향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의 분포는 남한산성 내에서의 토지이용 특히 가옥의 배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완전한 평지는 0.03km²로 1.5%에 불과하다.

한편,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향 분포를 살펴 보면, 남한산성 내와는 달리 북향이 27.3%(4.3km²)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서향으로 24.7%(3.89km²)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 주변 지형은 대체로 북-서 향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지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향 배치와 관련된 이미지는 그림 10과 그림 11로 표현하였다.

13) 동계서, pp.8-9.

14) 동계서, pp.7-8.

2. 경사

사면 경사도 역시 황과 마찬가지로 IDRISI for Windows 95에서 "SURFACE" module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남한산성 내와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경사 분포를 표. 3과 표. 4에 각각 정리하였으며, 이를 그래프화 시킨 것이 그림. 4와 그림. 5이다.

이에 따르면 남한산성 지역 내에서는 15° ~ 19° 급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28.6%(0.63km²)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경사도는 25° ~ 30° 급간에서 29.6%(4.67km²)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대조를 이룬다. 이는 남한산성 내부는 비교적 경사도가 완만한 즉, 고위 평탄면 지역을 이루는데 반해, 남한산성 주변 지형은 성과 외부에서 경사도가 급한 지형을 형성하는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경사도의 특성은 남한산성이 방어에 기능을 가진 전체의 요새지임을 잘 나타내주는 지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사도와 관련된 이미지는 그림 12와 그림 13으로 표현하였다.

3. 고도

고도 분포는 원래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 이미지를 "RECLASS" module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급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남한산성 내부와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고도 분포는 표. 5와 표. 6에 각각 정리하였으며, 이를 그래프화 시킨 것이 그림. 6과 그림. 7이다.

이에 따르면, 남한산성 내부 지역에서는 300m 이하인 지역이 거의 없으며, 300~399m 고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4.6%(1.424km²)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사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 내부 지역이 약 350m 내외의 고위 평탄면을 이루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500m 이상 지역은 1.0%(0.022km²)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남한산성 주변 지형은 300~399m 고도가 전체의 40.4%(6.37km²)이며, 400m 이상 지역이 전체의 14.5%(2.29km²)를 차지하고 있다.

고도와 관련된 이미지는 그림 14와 그림 15로 표현하였다.

4. 토지이용

토지이용 상태는 1:5,000 지형도에서 추출된 토지이용 상태를 polygon 형태로 정리하여 IDRISI for Windows 95에서 "AREA" module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남한산성 내부와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토지이용 상태는 표. 7과 표. 8에 각각 정리하였으며, 이를 그래프화 시킨 것이 그림. 8과 그림. 9이다.

남한산성 내부의 토지는 주로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 임야 면적은 남한산성 전체 면적 2.2㎢ 중 1.86㎢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밭이 14.5%(0.32㎢), 논이 0.02㎢로 1% 남짓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한산성 내부에서는 농업적 토지이용 보다는 상업적 토지이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이용 상태가 남한산성의 유적지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한산성을 포함한 주변 지형의 토지이용 상태를 살펴보면, 역시 임야가 전체의 94.1%(14.8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 외곽에 독초지로 사용되는 지역이 전체의 0.1% 정도 나타나고 있다. 논과 밭의 비율 역시 매우 낮은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토지이용 상태와 관련된 이미지는 그림 16과 그림 17로 표현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남한산성 내외의 지형을 GIS 기법을 통해 남한산성이 어떠한 지형 조건을 이용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5,000 지형도를 기본도로하여 GIS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산성 내부의 면적은 2199683.5000m²(약 2.2㎢)이며, 그 둘레는 용성을 포함하여 10841.5747m(약 1.1km)이다.

2. 남한산성은 해발 500m의 급경사로 된 화강편마암의 용기준평원으로 내부는 약 350m의 구룡성 분지이다. 산성리에서 암미리에 이르는 지방도에 걸친 연변은 약 8km에 이르는 긴 협곡을 이루고 있다. 분지내에는 고산지대인 관계로 하천의 발달이 비약하고 산성천이 유일한 하천으로 침식곡을 이루고 있다. 산성천에는 지수달과 동문안 등지에서 4개의 천이점이 나타난다. 산정의 급경사면에 비해 북부 산록에는 경사가 하루로 갈수록 완만한 산록완사면이 발달하고 있다.

3. 성곽의 전체적인 형태는 성곽의 둘레부분이 높고 험하며 중심 부분이 낮고 편편한 분지를 이루었는데 수비에 용이하고 성 안에서의 거주가 편안하여 산성으로는 최선의 조건을 구비하였다.

4. 이 지역의 지질은 경기 편마암 복합체로 알려진 곳으로 대부분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편마암류는 주로 호상 흑운모 편마암(Banded biotite gneiss)으로 되어 있고, 남한산성의 북서부 지역에 화강암질 편마암과 동부 한봉 우측으로 우벽편 편마암이 호상 흑운모 편마암에 부분적으로 개재되어 있다.

5. 주구성암체인 호상 흑운모 편마암은 최고기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편마암체는 현생 영년의 다른 지층보다 고도의 변성정도, 조선누층군에의하여 부정합으로 파복된 것, 화강편마암계가 상원제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힌다는 사실 등에 의하여 시생대(Archeozoic)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경기 편마암 복합체의 연령치는 대체로 8억-29억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지역 내의 편마암의 연령치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지만, 이들 암체의 연장부임이 분명하다.

6. 남한산성 내의 지형은 대체로 동-남 향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의 분포는 남한산성 내에서의 토지이용 특히 가옥의 배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남한산성 주변 지형은 대체로 북-서 향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지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7. 남한산성 지역 내에서는 경사도가 15° ~ 19° 급간에서, 남한산성 주변에서는 25° ~ 30° 급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한산성 내부는 비교적 경사도가 완만한 즉, 고위 평탄면 지역을 이루는데 반해, 남한산성 주변 지형은 성곽 외부에서 경사도가 급한 지형을 형성하는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경사도의 특성은 남한산성이 방어에 기능을 가진 관해의 요새지임을 잘 나타내주는 지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8. 남한산성을 포함한 전체 지역의 고도는 주로 300~399m 고도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남한산성 내부가 고위 평탄면 지역을 이루고 있음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9. 토지이용에서는 임야가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호국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역사 교육 현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문과 남문 사이와 동문과 남문 사이에 견학로 또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유적을 훼손하는 잡목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내의 시설 중 붕괴 또는 붕괴될 위험이 있는 암문(暗門), 용성(甕城), 궁지(宮址), 장대(將臺), 사지(寺址) 등의 복원 또는 유지를 발굴 보존하는 방법이 시급히 요망된다.

[부록]

南漢山城 -朝鮮時代 姜 樸-

南登南漢城 北望三田渡 石闕誰家碑 人間白日暮
誰送鴨江遠 三日到郊折 不見我城隍 但見胡馬飛
鎗堆非今日 昇平五十春 無人能縛斥和臣
大野荒壇在 當時纛帳高 狼藉銅盤血 東人無寸刀
落日西將臺 沈歌意不極 荒靈入古城 飢鶴登寒木
胡人連手歌 胡馬日轉躍 哀哉圍城中 所恃惟南鶴
虜索斥和臣 若斥終殺人 爭言吾不斥 北去只三臣
逗遛彼誰子 國家非負爾 當時三百州 獨有雙嶺死

西將臺 -朝鮮時代 肅宗-

回駕直登西將臺 君臣說往日昏來
忿然慷慨不能抑 惟有善承善繼哉

顯節祠 -朝鮮時代 肅宗-

壁哉三學士 淳凜節如何 知是皇朝在
力排醜虜和 拜辭忠愈款 臨死節尤磨
舊宇圖新煥 追思感實多

<표 모음>

표1 남한산성 내의 향 분포

구분\향	동	서	남	북	평지	합계
면적(km ²)	0.79	0.36	0.60	0.42	0.03	2.20
비율(%)	35.9	19.2	27.2	16.2	1.5	100.0

표2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향 분포

구분\향	동	서	남	북	평지	합계
면적(km ²)	3.74	3.89	3.95	4.30	0.16	15.75
비율(%)	23.7	24.7	25.3	27.3	1.0	100.0

표3 남한산성 내의 경사 분포

(단위 : °)

구분\경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이상	합계
면적(km ²)	0.13	0.27	0.38	0.63	0.20	0.43	0.16	2.20
비율(%)	5.9	12.3	17.3	28.6	9.1	19.5	7.3	100.0

표4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경사 분포

구분\경사	0~5	6~10	11~15	16~20	21~25	26~30	30이상	합계
면적(km ²)	0.59	1.26	2.47	3.44	0.33	4.67	2.99	15.75
비율(%)	3.8	8.0	15.7	21.8	2.1	29.6	19.0	100.0

표5 남한산성 내의 지형 고도 분포

(단위 : m)

구분\고도	0~299	300~349	350~399	400~449	450~499	500이상	합계
면적(km ²)	0.001	0.025	0.669	0.545	0.308	0.022	2.20
비율(%)	0.1	23.8	40.8	24.8	9.5	1.0	100.0

표6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고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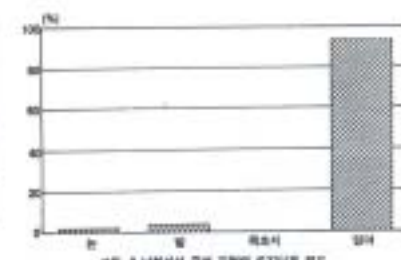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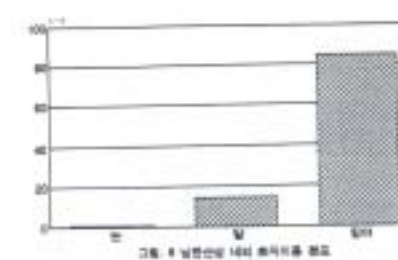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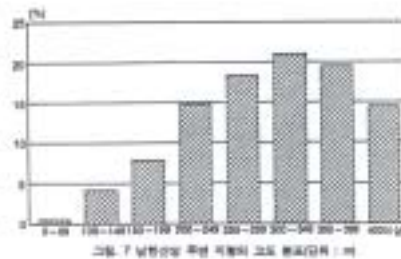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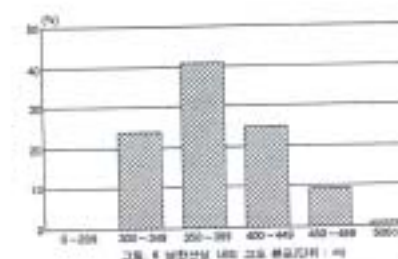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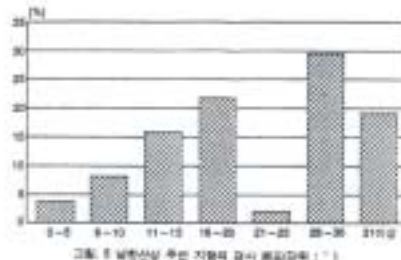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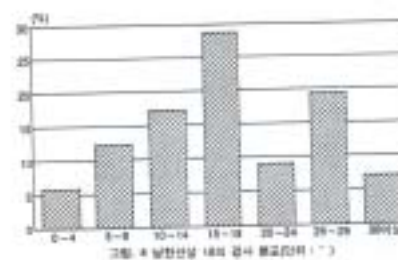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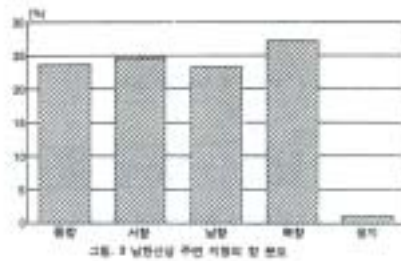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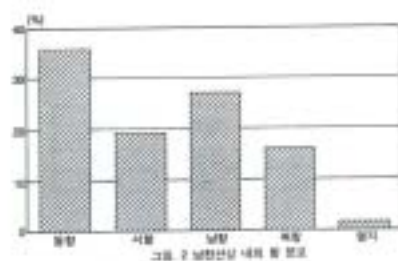
구분\고도	0~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0이상	합계
면적(km ²)	0.01	0.66	1.23	2.32	2.87	3.31	3.06	2.29	15.75
비율(%)	0.1	4.2	7.8	14.7	18.3	21.0	19.4	14.5	100.0

표7 남한산성 내의 토지이용 분포

구분\토지이용	논	밭	임야	합계
면적(km ²)	0.02	0.32	1.86	2.20
비율(%)	0.9	14.5	84.6	100.0

표8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토지이용

구분\토지이용	논	밭	특초지	임야	합계
면적(km ²)	0.28	0.62	0.01	14.84	15.75
비율(%)	1.8	4.0	0.1	94.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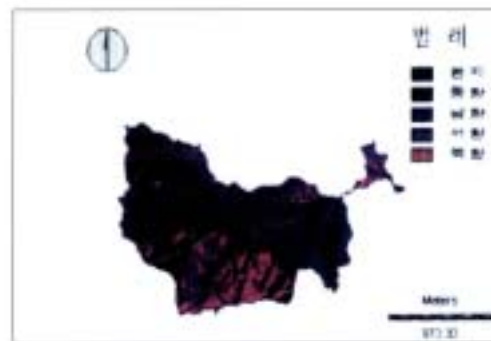


그림 10. 남한산성 내의 물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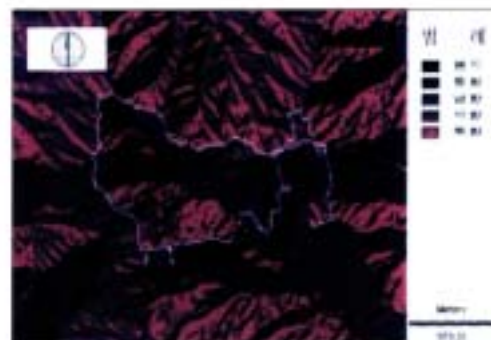


그림 11.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물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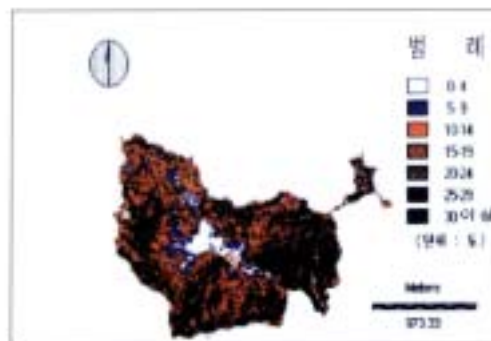


그림 12. 남한산성 내의 경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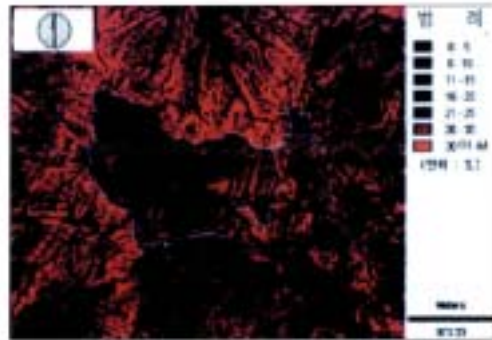


그림13.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겹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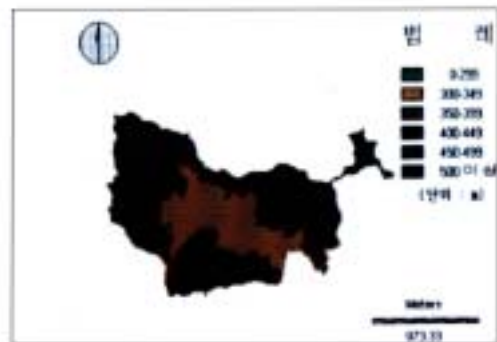


그림14. 남한산성내의 고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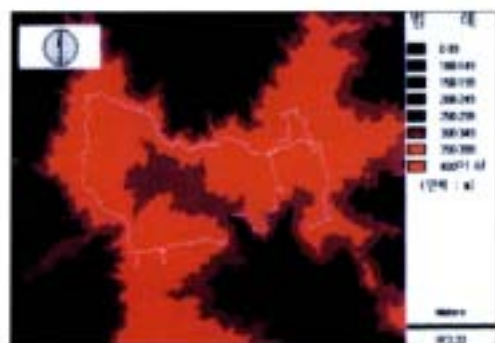


그림15.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고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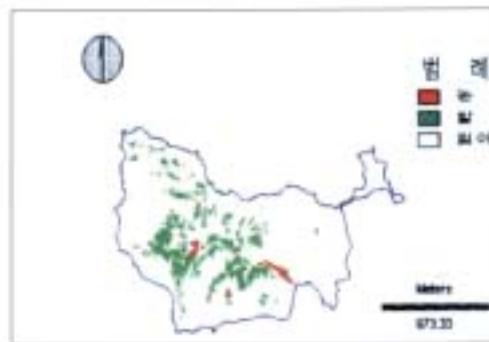


그림 16. 남한산성 내의 토지이용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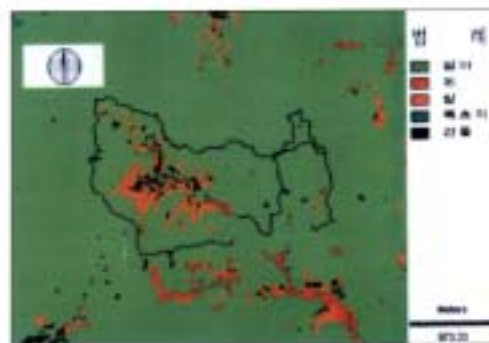


그림 17. 남한산성 주변 지형의 토지이용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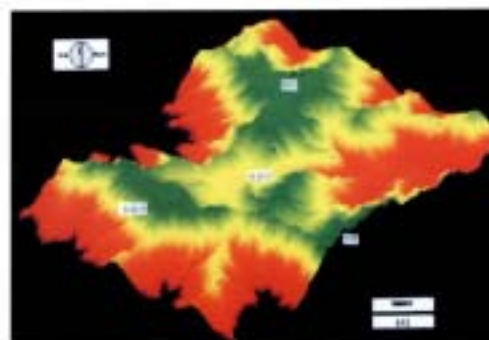


그림 18. 연구지역의 3차원 이미지

南漢山城의 가치와 활용방안

* 蘇 鐵 光

<차례>	
I. 들어가는 말	1. 통일한반도의 무게 중심
II. 남한산성의 가치와 이용실태	2. 백제권개발의 시발점
1. 남한산성의 이용실태	3. 민족자존의 도장
2. 남한산성의 가치	4. 전통가치의 기준점
III. 남한산성의 활용방안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남한산성은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립공원으로서 그 위상이 역사적으로나 지리공간적으로나 재평가 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이 하남위례성에 도읍한 이래 앞산으로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남위례성에 밀갈족이 침입하여 왔을 때 청량산을 중심으로 가파른 산록으로 형성된 자연요새인 이곳으로 천도한 바 있고 이후로도 지형이 격의 침입을 방어하기에 좋아 요충으로 활용되어왔다.

조선조에서도 광해군 13년(서기 1621년)에 처음으로 남한산성을 경도보장지(京都保障地)로 정하고 후금의 침입을 막고자 土城을 石城으로 개축하기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이괄의 난을 치르고 후금의 위협이 증가하므로 인조2년(서기1624년) 수어사 이서에게 명하여 수축케하여 지금의 성채가 완성된 것은 인조 4년(서기 1626년)이니 금년이 石城으로서의 축성 370주년되는 해이고 반도 중심부의 요충

* 경원대학교 교수

으로 쓰여온지는 2,000년을 헤아린다. 특히 인조 17년(서기 1639년)에는 백제의 시조이신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을 건립한 바 있고 정종 19년에 이를 燹烈이라 사액하였으니 남한산성은 國朝와 國運을 간직한 성지이다. 돌이켜 보면 세월이 흘러 사원이 없어지면 과거요, 그중에서 기억할만 하고 기억되어야 하며,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내력이 있다면 이를 역사라 할 것이다.

무수한 영겁이 지났을 것임에도 과거는 작아지고 역사는 넓어지고 있으니 미래 또한 맞이할 가치가 기대에 못미치리라는 생각이 들만하다. 역사가 풍부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는 것도 그 이치에서다. 경험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소홀히 다루다보면 무모한 시행착오만 반복할 뿐 나아가 얻는게 없으니 이제 역사를 돌주어 앞을 밝힐 때이다. 기독교나 세계화나 국제화니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가 어려운 때 민족혼을 보존하고 후세를 문독키 위해서라도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남한산성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II. 남한산성의 가치와 이용실태

1. 남한산성의 이용실태

남한산성일대 광주군의 25.6km², 하남시의 6.6km², 성남시의 4.2km² 등 모두 36.4km²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산성의 성곽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사적 제 57 호로 지정되었다. 성곽의 내부와, 외부 동측 및 남측의 대부분이 광주군에 속해 있고 남문의 진입로와 등산로가 성남시에 속해 있으며 성곽외부의 서측과 북측이 하남시에 속한다. 성곽은 자연지형의 능선을 따라 본성 9.05km와 외곽 웅성 2.71km를 포함하여 모두 11.76km로 이루어졌으나 이중 4.55km는 크게 훼손되어 보수 대상이다.

공원지정 면적중 본성내부는 2.3km²로 거의 모두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속하고 성곽외부는 34.1km²이다. 특히 성곽내부의 산성리는 민간인이 거주한 지 500년이 흘러 대부분 (약 76%)이 사유지로서 해공 신익희선생께서 초등학교에 다닐때만 해도 (초등학교 2회)총학생이 350여명이나 되는 등 대체로 규모가 큰 집단거주지였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광주군청 소재지였음은 산성을 포함한 이지역의 地勢를 짐작케한다. 아마도 이 지역의 주민거주 역사는 백제시대를 포함하게

되면 2,000년을 이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1996년 6월 기준) 378가구 1,18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교 전체 학생은 50여명이 채 안되어 폐교 직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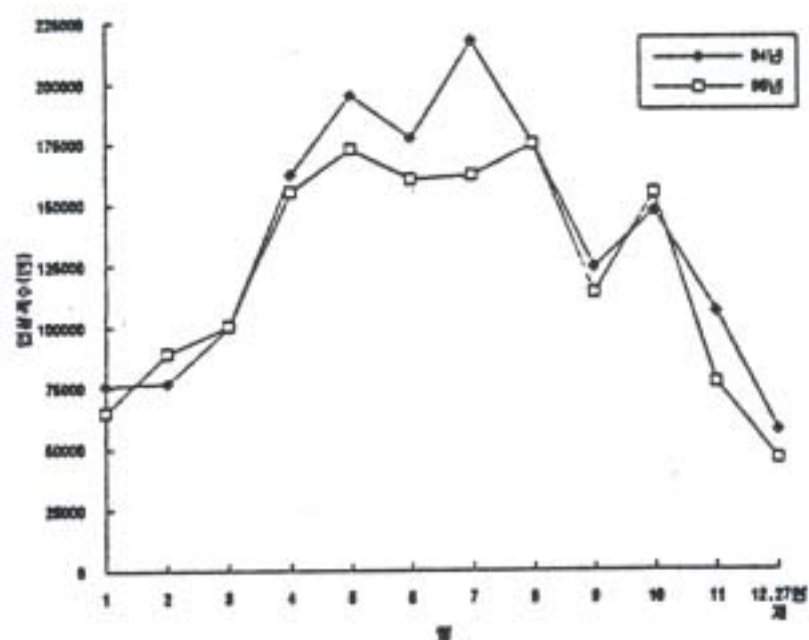
공원내 주택은 모두 229동이고,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포는 164동, 숙박시설은 1개동이 있다. 주차장은 모두 19개소가 마련되어 있어 최대주차용량은 4,080대이고 산책로 5개소와 화장실 28개소(이중 14개소는 고정식이고 14개소는 이동식임)가 임지해 있다.

남한산성공원 용도지구는 <표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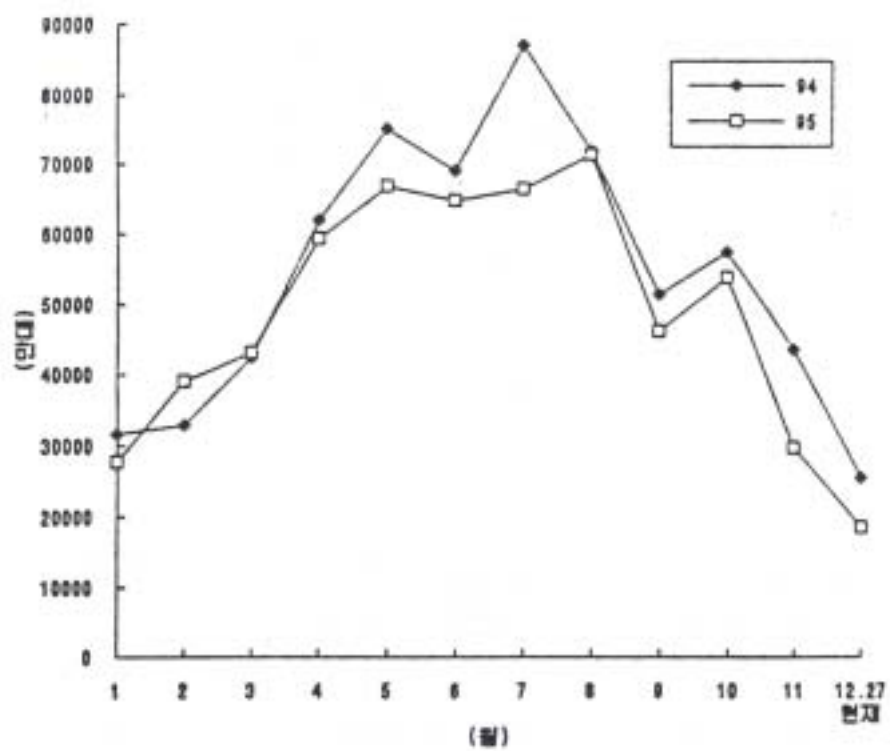
<표1> 남한산성공원의 용도지구 및 지목(단위:ha)

구 분	용 도 지 구				지 목			
	자연보존 지 구	자연환경 지 구	취락지구	합 계	농 지	임 야	기 타	합 계
면 적 (구성비,%)	31.7 (87.1)	3.0 (8.2)	1.7 (4.7)	36.4 (100.0)	1.7 (5.0)	32.9 (90.0)	1.8 (5.0)	36.4 (100.0)

1994년도 남한산성의 두 개 대표소를 통해 들어온 유료입장객을 월별로 보면 7월이 21만 7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월로 19만 5천여명, 6월이 17만 7천여명으로 나타났고, 등절기인 12월, 1월, 2월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도 입장객 수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으나 특이한 것은 입장인원은 1994년도와 161만 4천 5백여명에서 1995년도에는 146만 9천 5백여명으로 전년대 비 9.0%가량 감소하였으나 입장료 수입은 1994년 832,788천원에서 1995년 1,066,768천원으로 오히려 28.1%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8월 하순 입장료를 올린 때문이다.



<그림 1> 월별 남한산성 유료 입장객수



〈그림 2〉 월별 남한산성 유로입장 차량수 추이

차량입장도 대체로 하절기에 증가하고 동절기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4년도 7월 한달 입장차량수는 8만 7,000여대로 가장 적었던 12월의 2만 5,500여대(12월 27일까지의 집계)의 3.4배로 달렸고 1995년도에는 8월의 차량입장이 가장 많아 7만 1,300여대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12월에는 18,518대로 가장 적어 8월이 12월(27일까지)의 3.8배를 능가하여 계절별 편차가 컸다. 이와 같은 유료 입장객수와 차량전입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은 1994년도 832,788천원에서 1995년도 1,066,768 천원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는 연도별 월별 입장료 및 주차료를 합한 총수입규모를 대비한 것이다.

<표2> 연도별, 월별 남한산성 수입내역 단위:천원

구분 월	입 장 료			주 차 료			총 수 입		
	'94	'95	'96	'94	'95	'96	'94	'95	'96
1	24,485	21,392	19,396	15,443	13,545	23,492	39,928	34,937	42,888
2	24,810	29,624	26,629	16,093	19,131	24,520	40,903	48,755	51,149
3	31,840	33,203	29,794	20,777	21,070	36,674	52,620	54,273	66,468
4	49,592	48,335	43,783	30,355	29,057	54,354	79,947	77,392	98,137
5	60,911	56,496		36,791	32,670		97,702	89,166	
6	56,593	53,664		33,763	31,686		90,356	85,350	
7	70,004	53,784		42,622	32,512		112,626	86,296	
8	57,454	58,057		35,058	34,830		92,512	92,887	
9	40,519	76,829		25,078	33,255		65,597	110,084	
10	46,506	156,385		28,114	54,082		74,620	210,477	
11	33,484	79,972		21,236	29,840		54,720	109,812	
12 *	18,820	49,823		12,426	18,536		31,246	68,369	

* 27일까지 집계결과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96년도 들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주차료)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991년도 이래 1992년도를 제외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나 이는 요율인상에 따른 것으로 유료 입장 인원 및 차량대수는 뚜렷한 추세없이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산성리

일대의 음식점들은 인근 지하수를 오염시켜 몇곳의 약수터가 폐쇄된 바 있고 동문으로 흐르는 하천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등 각종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남한산성의 가치

남한산성은 천혜의 지형적 특성으로 2,000년 역사를 담아오고 있기도 하려니와 그 위치로 인해 수도 서울의 동남방 방책역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심부로서의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다.

가. 역사적 가치

남한산성이 石城으로 축성된지가 금년으로 370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백제초기 지형지세를 이용한 土城으로서 기능하였고, 백제시조 온조대왕은 하남위례성에 딸길족이 침입하였을 때 청량산을 중심으로 고지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곳 산성으로 천도했을 만큼 이곳의 역사는 2,000년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石城은 인조 4년(서기 1626년) 완공된 것으로 이후 숙종때까지 界城이 쌓이지게 되었다. 성곽의 높이는 3-7.5m로 4개의 장대가 세워졌으나 현재는 수어장대만 남아있고 4개의 겹문, 5개의 용성, 2개의 봉화대 그리고 16개의 알문이 있다.

수어장대는 1972년 5월 4일 경기도 지방 유형문화재1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산성의 동서남북 4개 장대 중 서장대로서 인조 2년에 단층으로 축조한 것을 명조 27년(1751년) 유수 이기진이 왕명으로 2층 누각을 증축하고 외부 권역을 수어장대(守禦將臺), 내부편역은 무망루라 하였다.

특히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은 숭열전(崇烈殿)이다. 숭열전은 인조 17년(1639년)에 건립하고 경조 19년 숭열(崇烈)이라 사액하였으며 백제의 시조이신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이다. 온조대왕은 하북위례성에서 한강을 건너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하면서 이미 이곳 남한산성의 군사적가치를 염두에 두었고 이를 앞산으로 활용하였으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시 이곳을 거점으로 항거하는 등 이곳 지덕을 깨달은 분으로 그 분을 기리는 사당이 이곳에 임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백제 온조대왕이 이곳에 일시 천도했을 당시 왕궁지였다고 구전되어온 침괘정(枕袞亭)도 산성안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의 건물은 명조 27년(1751년)에 유수

이기진이 증수한 것으로 칠패정이라 하였고 조선조에는 무기제작소의 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의 역사적 등장은 백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후 국가적 대사와 전란을 겪으면서 國運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는 우리 민족이 전란을 겪거나 외침을 받았을 시 나라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과 평시에는 국가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그 중심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흔히 병자호란을 패배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시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45일간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점은 이곳의 地德에 힘입은 바 크고 따라서 남한산성은 패배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혼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위상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의 승리에 도 불구하고 만주족은 역사의 뒀안길로 숨어버리고 우리의 민족정기는 더욱 번창하여 오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에는 삼학사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한 현절사(顯節祠)가 있다.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때 직화신인 3학사 홍인환, 윤집, 오달재의 혼을 달리기 위해 숙종 14년(1688년)에 세워진 사당으로 숙종 27년(1711년)에 주전파의 거두 김상헌과 정온을 다시 추향하였다. 이와같이 남한산성은 민족정기를 일깨워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명의 의승군이 집결해 있던 개원사, 장경사, 망월사, 국청사 등의 9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4개의 사찰만 복원되어 있어서 호국불교의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한산성공원내에는 국가 지정사적지 1개소,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 7개소, 문화재 자료 2개소, 기념물 2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역사적 가치는 외세침입에 맞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정기를 일깨우는 상징물이었다는데 있다. 남한산성은 조선조에 있어서는 북한산성과 더불어 수도 한양을 지켜온 국가방위의 핵심도량이었다. 따라서 판서급 수어사가 관리하는 남한산성은 수도권 발어의 중심축으로 발전한 산성도시였다. 270년간 조선왕조의 마지막 보루로서 숭도청을 두어 1894년까지 유지하면서 국가가 관리하였다. 최근까지만해도 남한산성을 관할하는 광주군수는 내직과 다름없이 중요시 되어 왔으며 영전하는 자리로 인기가 있었음은 이곳의 이러한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

나. 지리공간상의 가치

남한산성은 수도 서울을 조망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동남방을 돈우고

있으며 산성의 水口 또한 동남방으로 나있어 적의 관심을 유인하여 국가의 중심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형을 하고 있다. 대체로 성채의 기운기가 완만하여 외 적과 대치하여 서도 내부의 물자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동,서의 고지와 남북의 고지가 균형을 이루어 방어에 이롭고, 내부의 분지로 인해 거주에 적합하다. 비록 반도의 서부에 기울어 있으나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가번영의 '무계중심'역할을 하고 있고 地勢이 온후하여 수목이 번창하고 있다. "한강을 차지하면 반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남한산성은 한강을 굽어 보기에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 한반도의 심장부를 수비하는데 큰 지리공간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 자연 생태계의 보고

남한산성내의 생태계는 우리나라 중부일대의 일반적인 분포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족제비,다람쥐,청설모와 온갖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몇백년 자란 적송(赤松)과 약 300년생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산재하고 있으며 계곡을 따라 단풍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불당리 계곡의 휴경지인 계단식 논에는 도롱뇽등이 서식하고 있는 등 아직도 청정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양서류, 어류, 곤충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변이 온통 도시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에서 남한산성만큼 우리의 토속적인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특히 산성에서 수어장대에 이르는 산책로 주변에서는 야생 보리수가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것이 눈에 띈다. 봄에는 반하, 풀나물, 씀바귀, 동의나물(미나리아재비과), 고들빼기, 뽕딸기, 노랑붓꽃, 경이밥, 민들레, 천남성, 머위는 물론 들갈퀴나물, 타래붓꽃, 영초, 각시붓꽃, 꿀풀 등 우리의 봄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패천궁, 전호, 흰바위취, 까치수염, 흰바늘영경취, 눈개승마, 원추리, 패랭이꽃 등이 흔히 눈에 띈다.

라. 민속자료적 가치

하남시 학암계곡에서 남한산성 서측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피암과 함께 각종 고사와 기도를 드리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들리는 바로는 남한산성 일대는 우리의 전래 토속신앙의 영산(靈山)으로 神氣가 다한 무당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여 영험을 보충한다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일대의 주민들은 태평

양 전쟁이 막바지에 달해 일제가 온갖 생활용기를 수탈하여 병기제조에 박차를 가할 때에도 땅에 묻거나 은밀한 곳에 감추어 일제가 버릴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켰다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쟁기 등 전통 농기구나 생활용기가 계곡 사이 사이에 산재해 있는 전통가옥에서 많이 발견된다.

원래 남한산성에는 9개의 물방아가 있었고 곳곳에 연자병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곳이 청단으로 치닫는 한반도 중앙이면서도 우리의 끈끈한 민속이 그대로 숨쉬는 박물관임을 알 수 있다.

III. 남한산성의 활용반안

1. 통일한반도의 무게중심(역사공간인식의 재확인)

세계화란 약자에게 있어 경쟁원리보다도 더 냉혹한 약육강식의 자연생태계 생존원리를 갈고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기계문명, 정보화 사회의 대서는 세계화를 거부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란 이따간이 강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자기를 잃고 남자의 공통분모만을 내세워야 하는 '세계제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내세울 수 있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강한 민족임에 틀림없다.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 추세에서 약자는 남의 것을 흡수하기 위해 자기것을 버려야만 한다. 강자라면 자기것을 약자에게 강요하여 약자를 흡수해 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것'을 분명히 할 수 없는 민족은 강자에 흡수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은 강자인가? 약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는 진정 우리 것을 알고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 답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간 우리의 근대화나 개발이나 발전전략이니 하는 것들은 서구의 것을 되도록 빨리, 많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표방하고 있던 것만 보아도,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 사태를 보아도 우리는 약자이었음에 틀림없다. 남의 것을 받아들이되 '자기중심'을 잃지 않았다면 그래도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질적인 요소에 동요되어 '자기중심'을 잃고 후발자의 유일한 특권마저 포기한 채, 앞선 자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것을 버리고 남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굳이 발전이니 삶의 질 향상이니 하는 가치를 무엇으로 평하랴? 자기 중심을 잃은 민족의

변영은 더 이상 민족 고유의 색깔을 표현할 수 없다. 마치 '세계시민사회로의 회색됨'을 세계화를 수단으로 한 민족변영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우리것을 찾아 그 안에서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 모진 세계화의 풍파에 휩쓸리더라도 우리를 인식할 좌표를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미지 않은 장래에 이질적인 것으로 변해버린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여야 할 운명에 있다. 남북통일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통일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해서 존재를 상실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흡수되거나 흡수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재편기에 과연 통일이 민족변영의 촉진제인지 아니면 반대로 심각한 퇴보의 원인이 될지 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 속명적 과제라면 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남과 북 모두 필요하다라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역사성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남한의 정통성을 너무 신라문화에서 찾으려는 것도 문제이고 북한의 정통성을 고려려에만 치중하는 것도 문제다. 한반도의 양극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통일명분으로 살는다면 통일비용은 훨씬 적게들 뿐만 아니라 통일로 인한 충격 또한 작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중앙에서 남과 북을 잇는 연결고리는 일찌기 백제시대로 거슬러가서 찾아야 한다.

위례성의 앞산으로 기능했던 남한산성과 공주, 부여를 잇는 백제 권도의 흔적이 이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현재까지도 모든 권력 배분 방식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성을 이어주는 기준점으로 기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김정 이시대 한반도의 권력 구조를 설명할 때 삼국시대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남한산성이 간직한 역사적 가치는 우리의 '기준점'이고 한민족의 '무계중심'이며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 갈 때 잃지 말아야 할 '좌표'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의 역사성은 제대로 평가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충분한 고증을 거쳐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재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현재 광주군에서 추진중인 남한산성 제모습찾기 사업은 국가적 대사업이다. 그런 만큼 다방면으로의 충분한 조사, 발굴, 고증을 거쳐 '한반도 통일'의 '기준점', '세계화의 좌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表象을 세워야 한다.

2. 백제권 개발의 시발점

그간 수차례에 걸친 말잔치에도 불구하고 백제권은 여전히 국가적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굳이 백제권을 공주, 부여로 한정하여 설정하려는 정치권의 논리적편에는 위례성의 한강주변과 앞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현재의 권력구도하에서 공간적으로 분리하고픈 심정이 깔려있는 것 같다. 그것은 곧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이후 남한의 정통성을 신라문화로부터 찾으려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도 하남 위례성과 남한산성을 시발로 해서 엮어져야 되고, 백제문화의 공간화 작업도 '남한산성 - 공주 - 부여'를 축으로하여 재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숭열전 앞마당에서 백제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재화되어야 하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역사축을 바로세워야 한다.

'남한산성 - 공주 - 부여'의 역사축에 대한 인식은 과거 우리가 일본문화를 성숙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상기시키는 일이며 미래 대일본관계 설정에 필요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서울의 송파구와 공주시, 부여군은 한반도 미래상을 정립키 위한 공통의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과 같은 지역활거주의는 신라문화의 과대평가와 백제문화의 과소평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에 한반도 미래상을 정립키 위한 새로운 역사축으로 '서울(남한산성) - 공주 - 부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백제권 개발사업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민족자존의 도장

격동의 세계화 추세속에서 스스로 자기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자기중심'을 잃지 않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좌표'를 확보하는 일이다. 자기중심을 확인하고 좌표를 확보하는 작업은 투철한 역사관을 필요로 한다. 역사란 사건이 있어야 하고 사건은 가시적이어야 가장 잘 표현된다. 지나온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남한산성이 간직하고 있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 민족의 흔적이며, 뿌리 인식이 없다면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뿌리인식이 없으면 곧 기생이다.) 반만년 시간을 한반도에서 보낸 우리민족에게 남한산성만큼 역사흔적을 많이 간직하

고 있는 공간유산은 흔치 않다.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와류에 휩쓸려 존재가치를 상실하고자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자기중심'과 '표표'를 보여 줄 도장이 필요하다. 이의 적지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고구려 문화의 거점(평양, 즉 북한)과 신라문화의 거점(영남, 즉 남한)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남한산성이라고 논자는 믿는다.

이러한 민족자존의 도장을 건립키 위해 산성리 일대를 정비하여 역사공간을 재현하고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산성 일대의 취약지역을 재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성리 성곽안에 있는 음식점등 점포와 주택은 불당리,오전리 일대로 재배치하여 산성리 일대를 성역화하고 도장을 건립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민족정기를 깨닫게하여 자기를 잃고 세계시민으로 휩쓸려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는 최악의 경우를 경계해 함이 이시대를 사는 우리의 의무이다.

4. 전통가치의 기준점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엔 전통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미래의 모습을 상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일대에는 우리의 토속적인 것과 우리의 삶 주변에서 같이 살아오고 변화를 함께 겪었던 갖가지 동, 식물 그리고 우리선조들 삶의 방식인 민속이 그대로 숨쉬고 있다.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그간 온갖 시련에도 버텨온 우리것이 더 이상 변질되거나 없어지기 전에 채집 모아져서 후세의 미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산성의 성곽 밖 공원내 (불당리나 오전리 일대)에 우리의 토속을 모아 민속관을 세우고 우리의 토종만을 모아 기를 수 있는 동, 식물원을 건립하여야 한다. 또한 성남은 전국의 모든 지방인이 모여 성장한 도시이고 이곳의 지리적 위치 또한 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 모든 지역의 문화를 상시 전시하고 공연하기에 좋다. 이러한 表象들은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기준점을 미래세대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IV. 맺는 말

남한산성은 한반도 권력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우리민족의 공간 유산으로서

‘공주 - 부여’와 연결하여 하나의 역사축을 이룬다. 따라서 ‘남한산성(서울) - 공주 - 부여’의 역사축을 재평가하여 ‘남북통일의 기준점’을 찾을 수 있고 남한산성과 관련한 역사인식으로 ‘세계화의 과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성리 (성곽내부) 일대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등 점포와 주택들을 성곽밖 불당리, 오전리 일대로 옮기고 남한산성의 역사 유적들을 복원하여 민족자존의 도장을 건립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진정한 전통가치를 물려주고 자아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당리, 오전리 일대에 우리의 토속과 토종을 전할 수 있는 민속관, 토종 등, 식물원을 건립하여 산성리 일대의 역사유적과 함께 민족정기의 수련장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광주군이나 경기도차원이 아닌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할 일이며 세계 도처에 흩어져 점차 민족혼이 희미해져 가는 한민족의 역사인식 기준점으로 선포할 만 하다.

또한 이 사업은 경제논리이상의 자아인식논리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78
- ② 윤두명, “한강유역에 있어서의 백제문화연구”, 『百濟考古學研究』, 1992
- ③ 洪敬漢撰, 『南漢誌』, 광주군 역
- ④ 廣州郡誌, 『내가 사는 광주』
- ⑤ 李完南, 『한국사에 비친 남한산성의 역사』, 서울: 민족문화사, 1993

편집위원

총괄 : 한준섭, 전보삼, 변영진
위원 : 김창환, 박상규, 백남옥, 소진광
장삼현, 장철수, 조병로, 허창무

城南文化研究 (1996. 제4호)

인쇄 : 1996년 12월 30일
발행 : 1997년 1월 20일
발행인 : 오 세 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성남농촌지도소 내)
전화 : (0342)781-1020 FAX : (0342)709-5246

※ 이 연구집 발간은 성남시 향토문화연구소 사업 지원금
및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